

정책자료 2008-10-3

2007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장조사자료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기초보장·자활정책평가센터

2007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조사자료

정책자료 2008-10-3

발행일 2008년 12월
저자 이태진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록 제8-142호(94.7.1)
주소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전화 02-380-8000(대표)
팩스 02-352-9129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가격 9,000원
인쇄처 대명기획(02-2263-129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ISBN 978-89-8187-565-7 93330

편저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평가센터장
김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목 차

I. 조사개요	1
1. 기초보장평가센터 소개	1
2. 조사의 목적 및 활용도	1
3. 조사 방법	3
4. 조사대상자 특성	4
5. 조사문항	8
II. 조사결과	1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01	1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02	6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03	10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04	129
사회복지전담공무원 05	159
사회복지전담공무원 06	198
사회복지전담공무원 07	23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08	280

1. 기초보장평가센터 소개

설립목적

- 기초보장·자활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전 국민에 대한 기초보장과 함께 자활정책의 역동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 12월 설립

사업내용

- 기초보장 및 자활사업의 효율적 제도운영과 예산운용을 위한 모니터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정책에 관한 심층 연구 및 빈곤통계 연보 발간
- 빈곤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 및 대안 모색을 위한 포럼 운영
-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 및 관련정책에 대한 심층 연구 진행

2. 조사의 목적 및 활용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활보장과 자활기반조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평가 작업이 필요함.

- 이에 기초보장평가센터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도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2 2007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장조사자료

를 통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조사는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수급가구와 공급자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정책자료를 발간하게 되었음.
 - 정책자료는 '2007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수도권·광역시', '2007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중소도시·농어촌', '2007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장조사자료'로 구성됨.
 - 본 정책자료는 2007년 기초보장모니터링 현장조사자료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음.
- 본 정책자료는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통상적인 평가틀에는 담겨지기 어려운 제도시행 현장의 상황을 다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의 의의를 가지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니터링 및 평가의 질적인 지평과 깊이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본 자료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와 그 개선방안을 위한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
 - 제도의 일선 담당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수급자에 대한 태도, 업무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제도 시행주체의 인식 및 태도가 제도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3. 조사방법

- 본 조사는 연구자가 반구조화 된 개방형 질문으로 연구참여자와 2시간 정도의 심층 면담을 통해 진행함.
 - 면담은 연구진 2명 이상이 방문면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연구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연구참여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함.
 - 연구참여자의 표현을 생생하게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해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기, 연구메모 등을 사용하였으며, 후에 녹음된 내용을 필사하여 사용함.
 - 면담 방법은 연구참여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도록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연구자는 면접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질문을 함. 이 과정에서 본 연구 주제와 부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질문함.
- 면담 장소는 수급자의 경우 주로 조사 대상자의 집에서, 공급자의 경우 업무 공간인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내 상담실에서 이루어짐.
 - 수급자의 경우 이러한 면접 장소는 조사 대상자들의 생활공간을 직접 볼 수 있어 이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공급자의 경우에는 업무환경, 조직분위기를 볼 수 있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행정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였음.
- 면담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하였고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하였으며, 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면담하거나 전화할 경우가 있음을 알려줌.
- 면접은 1차 조사의 경우 2008년 8~9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추가조사는 9~10월 까지 실시하였음.

4 2007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장조사자료

4. 조사대상자 특성

- 조사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나누어 수급자 35가구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명을 대상으로 함.
 - 수급자는 수도권 10가구, 광역시 8가구, 중소도시 10가구, 농어촌 7가구로 구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각각 2명씩 구성함.
-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일반가구 13가구, 단독가구 6가구, 부부가구 5가구, 한부모가구 9가구, 기타 2가구로 구성됨.
 - 수도권·광역시 가구유형은 일반가구 9가구, 단독가구 3가구, 부부가구 2가구, 한부모가구 2가구, 기타 1가구로 구성되며, 중소도시·농어촌 가구유형은 일반가구 4가구, 단독가구 3가구, 부부가구 3가구, 한부모가구 7가구, 기타 1가구로 구성됨.
- 가구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장애인가구가 8가구, 노인가구가 8가구로 나타났으며, 응답가구 중 근로가구는 응답자 35가구 중 24가구임.
 - 수도권·광역시는 장애인가구가 6가구, 노인가구가 4가구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18가구 중 근로가구는 12가구임. 중소도시·농어촌 가구원 특성은 장애인가구가 2가구, 노인가구가 4가구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18가구 중 근로가구는 12가구임.

〈표 1〉 수급자 조사 대상 가구의 지역별, 가구 특성별 배분

구분	지역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수급자							
			가구 구조					가구원 특성		
			일 반	단 독	부 부	한 부 모	기 타	장 애	노 인	근 로
수도권	서울·노원	1	-	1	1	2	-	1	1	3
	인천·부평	1	2	1	-	3	-	2	1	4
광역시	부산·북구	1	-	-	1	2	1	2	1	3
	대전·동구	1	2	1	1	-	-	1	1	2
중소 도시	전북·전주	1	4	1	-	2	1	1	2	6
	경북·안동	1	2	-	-	-	-	-	-	1
농어촌	강원·횡성	1	3	1	-	-	-	-	-	4
	전남·영광	1	-	1	2	-	-	1	2	1
계		8	13	6	5	9	2	35		

주: 한 가구 안에서 가구원 특성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구원 특성의 총합은 전체 조사 대상자 수보다 큼.

6 2007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장조사자료

〈표 2〉 수급자 조사 대상 가구의 특성

사례	연령	지역	가구 유형 (가구원 수)	가구 특성	수급 유형
01	30대		한부모가구(3)	편모/ 장애 아동/ 자활사업	조건부수급
02	40대		한부모가구(3)	편모/ 무직	일반수급
03	80대		부부가구(3)	노인부부와 아동(조손가구)	일반수급
04	50대	수	단독가구(1)	남성단독/ 일용직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05	30대	도	일반가구(5)	남편질병/ 아내일용직/ 아동3	일반수급
06	30대	권	한부모가구(3)	편모/ 일용직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07	60대		단독가구(1)	노인단독/ 장애6급	일반수급
08	40대		한부모가구(2)	편부/ 장애2급/ 무직	일반수급
09	40대		한부모가구(2)	편모/ 자활사업(자활공동체)	조건부수급
10	30대		일반가구(4)	부부 모두 질병/ 아동 2	조건유예제시 (질병)
11	60대		부부가구(2)	노인부부	일반수급
12	50대		일반가구(3)	자활사업참여/ 장애6급	조건부수급
13	50대		단독가구(1)	남성단독/ 일용직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14	50대	광 역 시	일반가구(4)	부부 질병/ 대학생, 고등학생 자녀	조건유예제시 (질병)
15	40대		한부모가구(4)	편부/ 간헐적 근로활동	조건유예제시 (질병)
16	30대		한부모가구(3)	편모/ 자활사업	조건부수급
17	50대		부부가구(3)	부부와 모친/ 남편일용직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18	90대		기타(2)	아들과 노모	조건유예제시 (장애6급)

〈표 2〉 조사 대상 가구의 특성(계속)

사례	연령	지역	가구유형 (가구원수)	가구원특성	수급유형
19	30대		한부모가구(4)	편모/ 취업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20	40대		한부모가구(3)	편모/ 부업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21	70대		단독가구(1)	노인단독	일반수급
22	70대		기타(3)	조손가구/노인과 손자2(사촌지간)	일반수급
23	30대	중 소	일반가구(5)	일용직/ 장애아동(정신지체2급)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24	40대	도 시	일반가구(3)	일용직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25	50대		일반가구(3)	남편 근로활동불가/ 부인 자활공 동체	특례수급
26	50대		일반가구(4)	남편 자활사업/ 부인 질병	조건부수급
27	40대		일반가구(4)	남편 택시/ 부인 파출용역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28	40대		일반가구(4)	부부 근로능력미약/ 딸 취업	조건부제외
29	50대		단독가구(1)	여성단독/ 농사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30	40대		일반가구(4)	공장 운영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31	60대	농 어	일반가구(3)	남편 농사/ 부인 자활사업과 농 사	남편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부인 조건부수급
32	40대	촌	일반가구(4)	실제 근로	조건유예제시 (장애)
33	60대		부부가구(2)	노인부부	일반수급
34	60대		단독가구(1)	노인단독/ 장애1급	일반수급
35	40대		부부가구(2)	남편 간헐적 근로/ 부인 장애4급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주: 1) 연령은 응답자의 연령대를 의미한다.

2) 사례 29는 녹취가 불가능하여 본 자료집에 담지 않았음.

5. 조사 문항

가. 수급자 조사 문항

□ 수급자를 대상으로 파악하려고 한 주요 내용은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어떻게 삶을 꾸리고 있으며, 이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가'임.

- 따라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 내용은 제도의 모니터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이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며, 이를 통해 제도의 모니터링 대상인 수급자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급여를 신청한 이유

- 가구 유형별로 상이한 원인 파악

2) 일상생활의 모습들

- 단순 생계유지에 급급한지, 수급 탈피의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한 달에 쓰는 생활비의 구체적인 내역, 예기치 않은 지출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방식, 궁핍의 결과

3) 일

- 직업력, 일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 하고 싶은 일, 현재 하는 일 등

4)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에 대한 생각

- 수급을 탈피하고자 하는지, 수급의 효과 등

5)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행에 대한 수급자의 평가

-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보를 얻는 주요 원천, 제도에서 가장 좋은 부분과 가

장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의견

<표 3> 수급자용 질문 및 질문 내용

구분	쟁점	질문내용
	빈곤 원인	- 신청하게 된 사유는?
신청결정	권리 vs 낙인	- 본인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다른 수급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신청과정	제도 접근성	- 신청할 때 느낌은? - 제도를 어떻게 알고 신청했는지? - 신청을 결정할 때 어려웠던 점? - 전담 공무원의 태도는?
선정과정	기준의 적절성 및 실행 부합성	- 기준에 대한 이해 및 수급 정도는? - 담당 공무원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보는지? -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 (신청 탈락) 사유에 대한 수급 여부는?
사후관리	갈등	- 추정 소득 부과 등 갈등 상황이 발생했는지 및 발생했다면 대처 방식은?
	사례 관리	-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되었는지? 만족하는지? - 전담 공무원과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만나는지?
급여	수준의 적절성 및 내용의 적절성	- 급여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쓰는지? - 부족분이 발생할 때 대처하는 방법? - 급여별 사용처를 아는지? 실제로 그렇게 쓰는지?
	빈곤 완화	- 수급 이후 경제생활의 변화는?
제도효과	자립 기반 조성	- 수급 이후 가족을 포함한 이웃과의 관계, 지역에서 복지 자원 활용도 등의 변화는?
	의존성	- 수급에서 벗어나고 싶은지? 아닌지? 그 이유는? - 일에 대한 생각은?
	전망	- 미래에 대한 생각 및 계획은?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조사 문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로 '실제로 이들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와 관련됨.

- 따라서 질문의 내용은 제도 실행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선정 기준(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확인 방법 및 확인의 난이도 정도

- 소득 기준의 확인 방법, 재산 기준의 확인 방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확인 방법

2) 15일 조사의 실제적인 의미

- 신청 단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긴급급여의 활용 여부

3) 사례 관리에 대한 이해 방식 및 수행 정도

- 사례 관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방법은 무엇인지

4)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여부 및 방법

- 어떤 자원의 활용이 가장 쉬운지

5) 시군구와 업무를 분장하는 것에 대한 평가

- 전달 체계 개편의 효과, 조사 업무의 중복은 없는지, 어떤 점에서 좋아지거나 나빠졌는지

6) 전반적인 일처리의 방식

- 관료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우선시되는지, 아니면 수급신청자의 개별적 욕구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되는지, 조작 문화 등

7) 수급자들에 대한 인식

- 수급자들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표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용 쟁점 및 질문내용

구분	쟁점	질문내용
일반 현황		- 담당 업무는 무엇인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업무 비중? - 업무 분장 및 담당 수급자 수
	사각지대	- 제도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 사례 발굴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청결정 - 신청과정	권리 vs 낙인	- 상담 환경은 어떠한지 - 신청하러 오는 경우 어떤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지 - 신청하러 오는 수급권자들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드는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도 접근성	- 신청할 때 구비 서류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선정과정	기준의 적절성 및 실행 부합성	- 선정 기준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 보완하거나 개선할 점은? 왜 그런가? - 융통성을 발휘하게 되는 부분은?
사후관리	갈등	- 추정 소득 부과, 소득인정액 등 탈락 처리 이후 갈등이 발생할 때 대처 방식은?
	사례 관리	- 사례 관리(사후 관리)의 방식과 내용은? - 신청 탈락된 가구에 대한 사후 지원은?
	부정 수급	- 어떤 유형(가구 상황, 가계 수준)인지? - 발견하면 그 대응은?
	제도 개편	- 개편된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II 조사결과

□ 본 자료집(2007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장조사자료)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고 있음.

사례	연령	성별	지역	근속기간	자격증 여부
01	-	여	수도권	18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
02	50	여	대도시	해당지역 1년 반	
03	40	남	대도시	18년	
04	40	남	중소도시	14년	
05	30	여	농어촌	10년	
06	-	여	수도권	8년	
07	30	여	중소도시	14년	
08	30	여	농어촌	해당지역 1년 반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

- 조사지역 : 수도권
- 응답자 개인사항

성별	연령	학력	근속기간	자격증 여부
김지연		대졸	18년	사회복지사1급

- 기관환경

읍·면·동사무소의 상담환경 - 조사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무소는 공공임대아파트(청백아파트 1동) 바로 뒷편에 위치함. -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민원실 안으로 들어와서 한참 걸어가야 함. 출입구에서 이동거리가 매우 김. 민원실이 모두 개방되어 있어서 상담하러 오는 수급자가 상담실까지 이동하는데 배려가 부족함. - 동사무소의 민원실은 ㄱ 자 형으로 배치 되어 있고 사회복지부서와 행정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 전반적으로 수급자에 대한 사생활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 본 동사무소는 임대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으나, 면접한 공무원은 본동에 발령 받은지 4개월 밖에 안 됐고, 임대아파트 거주하는 수급자들만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임대아파트 거주 수급자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음.
- 공무원은 면접 초기부터 녹음을 거부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에선 모르겠다는 투로 일관하여 전반적으로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함.
-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변환에 대해 비교적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가짐. 특히, 일을 할 수 있는 수급자를 굳이 제도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
- 18년간의 베테랑 공무원이라 그런지 말을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판단하여 대답하는 것 같았음
- 사례를 많이 제시 하지 않음. 전반적으로 공무원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했던 사례들을 자세히 드러내지 않음.
- 재면접 필요시 본 동의 공무원보다는 다른 동사무소의 공무원을 면접해야 한다고 판단됨.

Q: 바쁜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A: 예 저도 부담스럽네요. 왜 하필 우리 동이 찍혔을까 하고요.(표본 지역에 선정 되었다는 뜻임.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답변은 부정적인 투로 시종 대답함.)

Q: 특별히 원한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아무래도.. 지역을 선별하는데 수급자 수도 좀 고려해야 되고..

A: 왜냐면 저희가 수급자 수에 비해서 직원이 적어요. 근데 직원 많은 동사무소도 많은데 왜.. 가급적 업무라는게 편중이 되면.. 직원 수가 조금더 많은데도 있는데 다른 동을 하시지 왜 우리 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Q: 알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아까 7분 계신다고 하셨고 선생님께서는 지금 기초보장 평가 총괄 쪽 담당하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A: 아니.. 총괄이라기보다는 지금 기초보장 관련해서 그 보고해야 될 것들 있죠? 그 자산조사라든지.. 그 전체적인 것들을 서브하는 거고 대상자는 각기 수급자업무는 전체적으로 다 봐요 그건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그렇고.. 이제 지역을 나누는 거죠 뭐 세대 수 대비하고 업무대비해서 여기 이 담당은 몇 세대.. 101동이든 102동이든 뭐 이런 식으로 담당하는거고 기초생활 보장업무는 기본적으로 사회담당들이 여러 명 배치되서 똑같이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 지역을 나누고 뭐 몇 통부터 몇 통 까지.. 그런 식으로 나누고 업무는 이제 대상자별 업무도 맡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노인복지 업무가 있고 아동복지가 있다고 한다면 담당별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노인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장애인 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그런식으로 되는 거죠. 만약 혼자 근무한다 하면 전체 다 하는 거죠

Q: 여기 월계 2동에 수급자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A: 저희가 1400세대.. 2800? 제가.. 숫자 계산은 정확하게..

Q: 대충 그럼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시나요?

A: 제가 한 270가구정도요.

Q: 선생님이 270가구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7분의 전담 공무원들이 대체로 좀 업무 분담이 기초 보장 평가 제도와 관련해서요.. 그럼 업무 분담이 잘 이뤄진다고 생각하시나요?

A: 그게 어떤 의미시죠?

Q: 그러니까 7분이 기초보장평가 제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업무로드가 서로 주어진게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별로 분배가 되어 있고 대상으로 분배가 되어 있는데 보시기에 대체로 업무가 잘 배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A: 말의 뉘앙스를 잘 모르겠어요

Q: 이면적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궁금해서 그래요

A: 지금 이 인터뷰 처음 하세요? 다른 분도 하셨어요?

Q: 아뇨 다른 분도 하셨어요/ 지금 몇 군데하고 온거거든요..

A: 이렇게 보시면 되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있어요 뭐.. 모부자 업무다. 노인바우처다.. 이럼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럼 그 면에 대해서는 이 직원이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업무량 대비 뭐 이런식으로.. 적절히 이렇게 업무분담을 하는 거죠

Q: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거는 사회담당하시는 분들은 다 당연히 어느정도는 이런 업무를 다 아실 건데 다른.. 뭐.. 여기는 이런 사회담당하시는 분들이 많

으니까 물론 세대도 많지만 다른 쪽에는 1-2분 이렇게 계시는 데도 많잖아요? 거기에서는 행정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고 그런 데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가

A: 저희는 행정쪽이 없어요

Q: 아.. 전부다 사회복지사..?

A: 네

Q: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사회담당이신가요?

A: 아니..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팀 자체는 행정쪽이 없어요.

Q: 그럼 다 사회담당만./ 그럼 전공도 다 사회복지 전공한 사람이 하시는 건가요? 행정쪽에서 다른데는 지원받아서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A: 그쵸 그럴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다 있고.. 전공은 아닌 경우도 있어요

Q: 자격증은..

A: 다 있죠.. 있어야 시험 볼 수 있잖아요.

Q: 다른 직에서 넘어오신 분은 없나요.

A: 예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직으로 출발해서 현재까지 있는 거죠..

Q: 선생님 전체 업무에서.. 그 전체 업무를 100으로 보면 기초보장제도 관련해서 어느 정도가 전체업무에서 차지하시나요?

A: 저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업무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게 100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노인이다.. 이런 저런 이웃돕기 업무.. 제가 담당할 세대가 이웃돕기나 긴급 의료비 지원을 해야한다든지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순수한 기초생활보장만을 맡을 하시면 좀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Q: 때 마다 달라지는 건가요?

A: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는 어려운 세대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그 업무에 치중해 있었죠..

Q: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A: 기초생활보장같은 경우.. 요즘 새로운 업무들이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30,40.. 그건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거 같아요..

Q: 대충.. 그래도..

A: 그때 그때 업무가 떨어지면.. 기초생활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으로 업무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Q: 그건 기본 정도 밖에 안되고 거기에 한참 더 많다 이거죠?

A: 그렇죠 새로운 업무가 계속 떨어지죠..

Q: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 바뀌면서 업무들이 좀 많아졌었나요? 아니면 특별히 변한건 없었나요..

A: 크게 변한건 없구요.. 제도적으로.. 지금 노령연금 조사하는 것도 이제 떨어질거죠 뭐. 노인바우처도 떨어졌죠 장애인.. 그것도 있죠.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기존 업무에 부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동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그것도 뭐 새롭게 떨어졌잖아요.. 그런것도 하고..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팀으로 바뀌면서 업무가 늘어났다기 보다 새로운 정책들에 의해서 업무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요..

Q: 동사무소에서 수급자분들이 찾아오시면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상담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서 상담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층 올라오면서 상담실을 못봤거든요.

A: 상담실 그 안에 있었어요.

Q: 안쪽에 방이 있는데 거기 그렇게 있었나요?

A: 네

Q: 실제로 수급자분들이 오시면 상담이 상담실에서 이뤄지나요 아니면 앉아계신 그 민원실에서..

A: 짧게 끝나는 민원같은 경우는 그냥 이뤄지고요.. 좀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오래해야한다거나 뭐 신규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는 상담실을 이용하구요.. 그러니까 뭐 짧게 이뤄져야 되는 거는 간단하게 이분이 뭐를 알아보시러 오는.. 본인의 학비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수급자 증명서 끊으러 왔다든지 해서 이분이 담당 직원 옆자리에 앉아계시는데 저쪽으로 들어가시죠 하고 왔다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가 상담실을 이용하구요 그리고 상담이 이제..

Q: 선생님께서는 상담실을 많이 이용하시려고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뭐랄까 아무래도 이용하는게 어렵고 하니까 이용을 안하려고 하는 편이세요.

A: 저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Q: 그런일이 자주 있나요? 상담실을 이용해야 할 일이..

A: 왜냐면 신규로 전입들어와서.. 저희는 영구임대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들어 오시잖아요.. 빈집에.. 그럼 그 때 상담할 때.. 그럼 신규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상자 간단한 서류 제출하고 가면 되는데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상담실을 이용해요

Q: 신규 상담은 많이 해보셨어요? 신규로 들어오신..

A: 여기 와서요?

Q: 아 죄송한데 여기 동으로 오신건 몇 년 정도 되셨나요?

A: 얼마 안됐어요..

Q: 얼마 안되셨구요.. 일년 넘으셨나요?

A: 아니요. 4개월.. 4월 20일 쯤 실제로 여기에 왔으니까 얼마 안됐죠..

Q: 아 얼마 안되셨구나.. / 신규 받아보지도 못하셨을 수 있겠네요..

A: 아니죠.. 그래도 신규가.. 5-6 건은 된거 같은데요.. 전에 있던 지역보다는 적죠..
여기가 영구임대기 때문에..

Q: 어느정도나 신규가..

A: 이게 그 동별담당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 전에 있던 지역에서는 상담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신규 상담건수가.. 근데 여기는 영구임대잖아요 그럼.. 여기는 기존의 살고 있던.. 여기서서는 나가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녀가 다 성장을 해서 (조기가) 됐다는 뭐 이런 사유이기 때문에 변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만약 일반지역을 담당한다.. 그러면 거기는 전출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영구임대가 아닌 다른 지역들.. 임대아파트라든지 장기임대라든지.. 뭐.. 일반주거지역들.. 거기는 이제 많죠.. 사람마다 달라요.

Q: 그러니까 여긴.. 전출 말고 신규로 와가지고..

A: 그러니까.. 예.. 신규상담..

Q: 상담을 하실 때 공무원 분들마다 상담을 하는 과정이 절차가 다른 면이 있더라구요

A: 어떤 면에서요?

Q: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상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상담을 하러 오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저는 신규로 왔는데 수급신청 어디서 어디서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었는데 보통 선생님은 어떻게 처리.. 일을 하시나요?

A: 기본적으로 그분의 생활실태같은 거를 다 듣지요.. 듣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분 관련조사 받는거.. 소득, 자산, 부양자.. 이런 관계들을 다 물어보죠..

Q: 물어보는 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기준이 3개가 있잖아요. 크게 3개가 예를 들어서.. 소득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있으면 파악하는 데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A: 부양의무자도 어렵고 소득도 어렵죠.

Q: 재산은 기준이 정확하니깐 어렵지는 않으시고요?

A: 재산은.. 없는 분들 같은 경우 금융 재산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Q: 서류같은 건 어떻게 제시하셔서 일을 처리하세요?

A: 서류같은 거는 기본상담을 하면 신청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관련사항은 체크를 해드리죠. 어떠한 서류를 언제까지 가져오시라고.. 갖춰지는 대로

Q: 수급자분들이 서류같은 거 받으시면 잘 이해를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질문을 많이 하시나요..

A: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서류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거든요. 집계약서하고 진단서하고 소득확인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는 고용인정확인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서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뭐.. 보험, 증권이 있다던지 그러면.. 근데 그렇기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지는 않아요.

Q: 직접 수급자 분들이 작성하시나요?

A: 직접 작성하시죠.. 왜냐면 신청서는 나중에.. 어떤 근거 서류가 되니까. 그 소득, 자산 같은게 허위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만약 허위로 신고하시면 저희 업무인데, 추후에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 본인이 작성한 바가 없다면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없으시면 저는 적으라 그래요.. “정직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본.. 그 신고서 안에도 그 내용이 나와있구요. 성실기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뭐 이런저런 조항들 있잖아요..

Q: 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굳이 이야기 하시구요?

A: 읽어보시고 서명하세요 그러죠..

Q: 서류 이러저런걸 준비해 오세요 했을 때 보통 어느 정도나 기간이 걸리나요

A: 서류가 간단하신 분들은 하루도 안 걸려요. 집계약서 가져오고.. 만약 일용노동하시는 분들은 일용노동 소득확인서만 내면 되잖아요. 집계약서하고.

Q: 보통.. 어느 정도나..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얼마나 걸리시는 데요 최고로 많이 걸리신 분은..

A: 글썄요.. 그렇게.. 지금은 (통합적으로) 다 조사를 하잖아요. 부양자 관계 서류같은 걸 안보잖아요. (통합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본서류만 올려드리기 때문에.. 보통 하루 이틀.. 늦으면 일주일 정도.. 뭐 고용임금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뭐 사주가 없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보통은.. 뭐 진단서류를 끊는데 의사선생님이.. 뭐 이번주에는 출근 안하고 다음주에 오신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 이외에는 얼마 안 걸려요.. 오늘 아침에 상담하고 당장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 하루 이틀..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아요

Q: 실제로 통합조사팀.. 주민생활지원법 전달체계 개편되기 전 생각해보시면 실제로 보통 신청부터 통보까지 대체로 몇일정도 걸리나요? 규정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약간 다를 거 같은데

A: 지금 현재 시점에서요 아님 과거시점에서..

Q: 과거 시점에서요..

A: 과거 같은 경우에도.. 2-3주 정도요.. 저희가 서류를 받고 ..

Q: 신청이라는 게 수급자들이 찾아오셔서 나 수급신청하러 왔다고 한걸 신청으로 보시나요 아님 서류를

A: 아뇨 서류 낸날..

Q: 규정에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서류가 다 만기 되서 그 된 날부터.. 그날이 이제 신청일이 되는 거지.. 그날부터 14일 까지 개괄통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있는 거죠?

A: 그렇죠.

Q: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신청하러 온 상담때부터 신청일이라고 결정이 되는 그날까지 시간은 사실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A: 그렇게 많이 안 걸리기도 하는데요. 사람마다 달라요. 간단한 서류인데도.. 내는 서류가 신청서랑 소득확인서 하나 뿐인데 그 서류 해가지고 오는 데 시간 한참 걸리는 분도 있어요. 대상자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요 그게 근데 그 서류를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Q: 노인분들이나 이런..

A: 아뇨.. 노인분들이 아니고 .. 다 알아서 해주지.. (뭇하러 나보고 서류 떼오라고 하나?)

Q: 아.. 다알아서 해주지 내가 굳이 이런 서류를 떼와야 되고.. 이런 말씀이죠?

A: 그러신 분이 있어요. 저희가 만나는 분들 중에는 전산으로 그런거 다 나오잖아 니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해야 되고 나한테는 일체 물어보지마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신청은 하겠다 이런 분들이 제일 어려워요.

Q: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이야길 하세요

A: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도 조사는 해야 되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 절차에서 굉장히 힘들죠. 부양의무자 조사라든지 이런거 저런거 있고.. 그러신 분 꽤 많아요.

Q: 나자빠지면은 그래도 어떻게든 하긴 해야 되는데..

A: 해야죠.. 안그러면 민원 내니까.. 본인이 신고해야 할 부분도 신청 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니네가 다 해라 하는 분도 있어요. 저희가 만나는 분들 중에는..

Q: 그럼 안하면 민원넣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까?

A: 민원을 제기한다고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나는 말했는데 너는 왜 안해주냐.. 있죠..

Q: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A: 있죠.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작정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나는 무슨일이 있어도 수급자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예요.

Q: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까요? 어떤 사례였다..

A: 그거는 좀 그렇구요. 하여튼 좀 그래요..

Q: 좀 어떠세요.. 상담받으러 오시면은..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수급자 분들이 지방내려가면 낫들고 쫓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수급 시켜달라고 뭐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급자분들 상담하시면.. 마음이 좀 어떠세요?

A: 권리의식을 굉장히 많이 주장하세요.. 지금 현재..

Q: 수급자 분들이..? 제도가 바뀌면서 더 그렇게 됐고..?

A: 제도가 바뀌면서.. 그죠.. (여러분의 권리)니까 그렇게 되었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시행될때.. 90년대 이후에 만나던 생활보호 대상자와 2000년대 이후에 만나는 이 민원이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힘들어요.

Q: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보실 때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까요?

A: 서울지역이 좀 세겠죠. 공단지역.. 인천 뭐.. 이런데.. 좀 셀거구요..

Q: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A: 그리고 좀 식자(제도에 대해 어디서 들었던 분)가 있으신 분들이..

Q: 좀 아시는 분들이?

A: 정확하게 모르시게 그러는 분들이 많죠.

Q: 어디서 이런 거 들어봤는데 나는 왜 안 해주냐 이런거?

A: 그것보다도 본인이 기준을 잘못 알고 있는데 내 기준이 맞으니까 니가 잘못된 거다 지침을 보여줘도 안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침을 보여주고 이걸 이런식이 다 말을 해도 '너 경력이 얼마나 됐어'..

Q: 아.. 세계 나오는 구나

A: '너 왜 그정도로 밖에 못해' 그래요.. 말을 함부로 하는게 엄청 폭언이 세요.

Q: 그럼 경우에 따라서 수급자 분들하고 싸워야 되거나 갈등, 감정상할 일들이 너무 많으시겠어요.

A: 주로 담당자들이 참죠.. 저희는 말 못하죠..

Q: 참으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A: 참죠.

Q: 참으세요.. / 다른 분들은, 남자분들은 모시고 나가서 담배도 같이 피고 그러시던데...

A: 참죠.. 저희쪽은.. 그래서 별로.. 직업이.. 그런 이야기 안들어 보셨어요? 사회복지사 직업 권하지 않는다는 말?

Q: 저희도 다 사회복지 전공인데

A: 아니 이 공무원 쪽에 사회복지직.. 행정직 저희랑 같이 근무했던 분들은 자녀들이 사회복지학과 안 가게 한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하는 일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으시죠.. 행정직 공무원들이..

Q: 일이 힘들다.. ?

A: 사람을 대하는 거가 힘들죠.. 지금 이 제도가 바뀌고 나서부터 훨씬 힘들어졌죠. 강도로 치자면.. 엄청난 강도예요.

Q: 기초보장생활계도로 바뀌면서 힘들어졌다 이거죠.. 혹시 이곳에서 4개월정도 근무하시면서 좀 경험해 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는 지역 동사무소에서는 영구임대에 있는 분들은 이것저것 소문 같은 것도 많이 듣고 해가지고 여론무리식으로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왜 이거 다른 집은 이거 해주는데 나는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따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일하시면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A: 그럴 수도 있죠. 보통은 저희가.. 만약 그 집에 대해서만 그렇게 나가는 경우에는 할머니 댁만 나가요 그러니까 소문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죠.

Q: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나요?

A: 주는 게 상당히.. 저희 쪽에서는 조심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집하고 이 집하고 달라요. 이 집이 조금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원했어요. 근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그럼.. 심하게 말하면 담당이 (좀더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도 먹었냐 이런 말도 하구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해야 되요.

Q: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참으세요? 규정을 보여주시거나 그러시나요? 설명을 어떻게 하시나요?

A: 설명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감정적인 부분에 설명이 안 통해요. 감정적

인 부분으로 할 때는 그래서 이 업무가 쉽지 않아요.

Q: 기존에 대해서 선정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쭙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에서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으셨나요? 제도 때문이라든가 수급자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라든가.. 재산기준 때문에 어려운 게 있으셨나요?

A: 그렇다기보다는.. 그런거죠.. 어려워요.. 실제로.. 이분 말을 듣고 있으면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저희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 소득인정액 기준이니까 재산을 소득환산했더니 기준을 훌쩍 넘어버리더라..

Q: 이해 못하시는 부분들이 꽤 있을거 같은데..

A: 저희가 들어도 참 어렵고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집만 있는데 소득은 없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그 집 팔아서 병원비 대고 생활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어느 한쪽을 위한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비형평성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그것을 감당할만큼 주면 안될것이라고 봐요.

Q: 소득기준으로 보면 소득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어려우세요? 기존에 좀 적용하는 데 있어서

A: 근로소득 파악이 어렵죠. 우리나라는 정식 직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보다는 비정규직 분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Q: 자영업자라든가..

A: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별로 없고.. 행상 뛰 이런거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일일 노동에.. 일일노동이란 말이죠. 파출부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죠.

Q: 그럼 그런 분들은 자기 소득 제대로 잘 이야기 안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저 같아도 사실 안 할건데.. 그런경우는 어쩔 수 없이 추정할 수 밖에 없잖아요. 추정소득을 매기기..

A: 추정소득은 함부로 못매겨요.. 추정소득은 함부로 매겼다가는 소송당해요.

Q: 그렇죠.. 어쩔 수 없죠..

A: 소송당하면 굉장히 골아파요.

Q: 소송을 당해보신..

A: 제가 당한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당했는데 고달프다는 거죠 그 과정이..

Q: 그럼 추정소득을 한번도 적용해 보신 적 없으세요?

A: 적용을 하긴 하죠.. 조건부유에 같은 경우에.. 추정 소득을 그거 할 때는 그 당사자한테 이리이러한 사유로 해서 우리가 부과한다,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 민원인이 그 말을 듣고 '나 안먹고 안산다.. 그리고 누가 나 반찬줘서 먹고 살았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소득 잡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고 봐요.

Q: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은 일을 안하니까 상관없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해야되고 그런분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할래 아니면 밖에서 일을 할래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활사업에 참여하겠다면 상관없지만 참여하지 않겠다 하면 이런분 들은 이제 (다른 데서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을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분 스스로는.. 그래야지.. 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자기 소득을 제대로 잘 안하기 때문에 추정소득을 하는 거고

A: 소득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저희가 매기죠.

Q: 그쵸. 근데 보통 그때 보면은.. 파소보고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걸 그대로 받아 들이지 못할 경우가 생길 텐데

A: 신고 소득에 어느정도 의존 하게 되죠.. 대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활사업도.. 저희들 힘드게 뭐냐면.. 자활사업장에서도 사람을 가려받는단 말이에요.

이분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겠다 의지를 밝혔어요. 근데 자활사업장에서 거부 한 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이일도 못하고 저일도 못해요.

**Q: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 자활급여라고 보통 이야기 하는데 그런게 있나
요? 자활근로..**

A: 네 있어요

Q: 어떤 분들이 주로 자활근로를 하세요?

A: 저희 쪽 근로(지향)은 대체로 약간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연세가 있고 이런
분들이 하신다구요. 그러니까 50대에서 60대 그리고 장애도 5급, 6급.. 질환이 있
긴 있는데 경미한 질환. 이런 정도..

**Q: 오히려 건강하신 분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시겠네요. 자활사업이라든지 고
용안정센터라든지**

A: 근데 고용안정센터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대책이 없는거예요 저희쪽에서 보내왔
는데.. 그쪽에서도 애들(수급 신청한 근로 능력이 있는 연령대가 어린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거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뭐하지만
은. 그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애들에게 취업자리 알선을 해준대도 한계가 있구
요 또하나는 애들이 번번이 거기서 그런걸 하다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수급자이기 때문에 그런거에 참여한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저희쪽에서 의퇴
를 하면 '이 사람 의지가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왜
이런 사람을 보냈느냐..

Q: 그럼 거기서 다시 되돌려 보냅니까?

A: 하여튼 그런 관계 때문에 고용안정센터 선생님하고 이걸 제도적으로 노동부하
고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했던 거다 2000년도 당시에.. 어차피 서로 힘드니까.. 저
희도 그 쪽 입장알고 저희 입장도 이해해주셔야..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었고 저

희는 의뢰할 수 밖에 없다. 근데 거기서는 실제로.. 거기서도 머리 아픈 거예요.

Q: 돌려보낸 경우가 있나요? 우리는 이분 참여 못하겠다.. 못시키겠다.. 그러면 어차피 급여정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A: 급여 정지가 못들어가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분은.. 나는 가겠다 했던 말이에요. 나는 가겠다 했는데 이쪽에서 조건 불응, 상담 불응을 했다든지 이래야만이 (조건부 정지)처리가 되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할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수급자가 나는 가겠다 했던 말이에요. 근데 당신은 의지가 없으니까 안된다 이래가지고는 (조건부예)처리가 안되요.

Q: 고용 센터에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은 일하겠다고 왔지만 일할 의지가 안보인다..

A: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Q: 그렇죠.. 거기는 뭐.. 하겠다고 이야기 했으니까..

A: 정부가 다 책임질 수 없구요.. 실제 그렇잖아요. 과거 생활보호 시절에는 어쨌든 근로능력있는 분들이 나가서 일을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이야기 담당직원들이 하셨을거예요 과거 생활보호대상제도가 더 낫다고 그 이야기 안하시던가요? 그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할거예요. 생활보호 시절을 같이 경험해 왔던 사람들은..

Q: 어떤 점에서 그 부분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A: 지금 영국에서도 이거는.. 일을 위한 복지했지만은 정부가 다 떠안을 수는 없다는.. 그게 나오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자활파트가..자활후견기관에 그쪽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제도 자체가 인간의 선함을 믿고 시작했다는 데 이 제도의 실패 요인이 있다 이 말을 하더라구요.

Q: 하하.. 인간의 선함을 믿고.. 물론 그렇기는 한데

A: 자활 후견기관 쪽에서도 이분들이.. 공동체로 내보내려고하면 급여가 오르잖아요 그럼 수급자 탈피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단, 그만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고 또 다른 사업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담당을 하는 인력도 얼마 없지만은 그런저런 관리도 어렵고.. 원래 생각했던 자활사업을 해서 일자리 연결이 되고 사회속으로 보통사람들처럼 복귀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경계선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구요 이분들이.. 저희는 항상 '제도는 그 시점의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생각은 '한번 떨어지면 다시 붙는 게 엄청 어렵다고 들었다. 그러니 나는 머무르겠다.

Q: 일은 대충 어느 정도 수준만 하겠다..

A: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취업을 할 건데 어떻게 되나요.. 아 그럼 그 일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런분도 있어요. 옛날같으면 감히 사회담당한데 그런 질문 못하죠. 본인 담당한데 그런 말은 못하죠, 다른 담당한데 물어볼 수는 있지만요.

Q: 그런 수급자 분들에 대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같은 경우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런 수급자를 굳이 제도 내에서 책임을 져야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그런 회의같은게 있는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A: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Q: 그 기한이라 함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요?

A: TANF.. 그게 어느정도 평가를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거 모르는데요.. 일정 부분 그런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 그동안에 지원해줄 수 있는 건 다 지원해주고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Q: 본인들의 일에 따라서..

A: 아니죠. 그 이전에 사전고지를 하는거니까요.. 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되겠구나.. 근데 지금.. 어제 자료를 보다보니까 그런게 나오던데.. 빈곤이 대물림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빈곤이 대물림 되거든요. 대물림되는데.. 수급자 가정에서 자라났든지.. 생활보호가정에서 자라났든지.. 이 자녀들은 이 제도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제도권으로 빨리 편입되죠. 편입되기도 하고..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조건부과를 해야되는 장애라서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집 굉장히 어려워요.. 상담이.. 여러차례 연락을 해가지고 간신히 연락이 되요. 연락이 되면 '내가 왜 그걸 해야되는데요? 내가 평생동안 일 안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나 일 안할거예요' 이런 의식을 은연중에 이 제도가.. 지금 이제 청소년들.. 그 가정에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러는 게 있어요. 그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지금현재 대학나온 사람도 직장 구하기 어려운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차비를 몇 천원씩 들여서 먼 직장에 60만원 받으면서 그래도 그 직장에 고맙다면서 다니는 사람 있고 그리고 실제 남는건 나한테 40만원밖에 안 남는다고 하더라도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 정도 난 그런 일이라도 할 수 없다. 나는 화이트컬러 일하고 싶다. 번듯한..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저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Q: 꿈만 꾸고 실제로는 안하고..

A: 그게 현실이에요.

Q: 그러니까 수급자들의 복지의존성이 강해지고 있다는 건가요?

A: 그게 많이 강하죠.. 강해져 가죠..

Q: 그럼 반대로, 그건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지원해 주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부자 가정이라든지, 노인가정이라든지..

A: 지금 현재 지원이 되잖아요.

Q: 거기에 대해서는 별 거부반응은 없으신건가요?

A: 그렇죠. 그거는 도와줘야 될 사람은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런거 같아요. 제가 사회담당하면서 본거는 뭐냐면, 본인이 의지가 있는 사람은 제도권 안으로 안들어 오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근무 했던 지역은 한달에 상담을 한달에 한 10번 했던 거 같아요. 신규 상담을.. 근데 그렇게 하면, 대상자로 측정되는 케이스는 한 두 케이스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대상이 안되서 그런게 아니고.. 그 분한테 이런 제도 이런저런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말씀 드리거든요 그리고 아주머니 같은 경우 모자원도 신청할 수 있고 영구임대주택이 란 것도 있고 의료비 이런저런 거 다 안내해 드려요 그러면.. 이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안하세요.

Q: 그런 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희가 그 분들도 조사를 했으면 해서..

A: 그건 개인에 대한.. 왜냐면 그분들은 사회담당은 일단 내가 어렵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대상이라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 한 3년 정도 계속 관계를 가졌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는 이분이 현재 대상이 안 되 도 메모를 해놔요. 메모를 해놓고 있다가 어떤 비공식적 지원이 들어오면 연결 을 해줘요. 그러면..

Q: 공식적 지원은 안하더라도 다른..

A: 그분이 싫다고 했으니까..

Q: 국기법에 대한 적용은 싫고 민간자원에 대한 그건 그나마 좀 낫다... 그렇게 말하시는 건가요?

A: 아니죠 그분들은 모르죠.. 민간자원이라는 거는 수시로 있는게 아니잖아요 저희 가.. 그분들은 처음엔 본인이 어렵다고 해서 찾아왔지만은, 막상 상담을 해보고 자격이 된다는 것 까지 본인이 알았어요. 근데 내 능력껏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가시는 거죠. 제가 그래도 나중에라도 어려우시면 찾아오십시오 지금 현재 아주 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끝났지만은.. 다른 지원루트가 있으면 연결을 해줘

요. 연결을 한다는 게 10만원 일시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집은 그렇게 해서 한번에 끝나는 집도 있고 뭐.. 연속해서 계속해서 관리했던 집이 있어요. 그 집같은 경우는 본인도 의지가 강했던 분이고 그리고 애도 대학등록금도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해결이 되구요 4년 장학금이.. 그리고 그 분 자신이 그런 자원을 알아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구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똑같은 환경에서도 자기 의지대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녀들도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말한 케이스는 대부분이 이렇게 부정적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상당수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가정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가정도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들도 대물림하게 되고..

Q: 제도안에서만 있으려고 하고

A: 그런것들이 있죠.. 그리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니가 취업하면 내가 떨어진다.

Q: 아.. 취업을 하게 되면 내가 제도에서 탈피해야 되니까..

A: 그렇죠.

A: 그렇죠. 저는 차상위 의료비 지원 제도가 이게 생긴 게 아마 4-5년 됐을 거예요. 그때 수급자에서 보니까 의료비문제 때문에 탈락되기를..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생기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의료비가 해결이 되니까 그럼 제도권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까 했는데.. 그건 여전히.. 다른 계층을 포용을 한거고 일종의.. 수급자는..

Q: 의지가 없으니까.. 할 의지가

A: 어렵겠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예전에 140만원짜리 직장에 취업한 애가 있었는데 직장이 멀다고 그만뒀어요. 한달만에.. 그래서 곧바로 수급자 신청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취업하자마자.. 취업을 했으니까 이제 중개가 됐

죠..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상당히 열받아요 솔직히.. 보통 사람은 그렇게 그만두지 못하죠. 내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

Q: 그 친구가 원래는 수급자 가정애..

A: 그렇죠.. 수급자 가정에서.. 저희가 5월달에 취업해서 5월달에 중지가 됐죠. 이제 상용직으로 취업이 된거니까. 한달 봉급받고 그때까지.. 중지가 됐죠. 일하고 나서 곧바로 그만뒀으니까 수급자 신청해주세요.

Q: 그때 마음이 어떠세요 어이가 없으시지 않겠어요?

A: 황당하죠 어떠시겠어요? 황당하죠.. 140만원이면 쉽게 그만둘 직장은 못되요 솔직히..

Q: 만약 선생님의 친구나 친척이 국민기초생활보호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은 선생님은 받아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알리고 싶은..

A: 저는 그런 이야기 안해요. 그냥 본인이 그쪽 해당 등에 알아보시라고 그러죠

Q: 그게 좀 궁금했는데 근로능력 판정기준이 있긴 하지만 선생님은 어떤 걸 중요하게 보세요. 이 사람의 근로능력이 있다 없다를.. / 판정 기준 표가 쓸모가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내야되긴 하지만..

A: 근거가 되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3개월 이상의 진단이 있는 사람은 근로 무능력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타 질환에 대해서 고시를 하겠다 했지만 고시된 건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성위염, 관절염 이런 거로 해서 진단서 끊어온단 말이에요 3개월 이상.. 그러면 직장인 중에 만성위염 없는 사람 어딴구요 관절염 없는 사람 어딴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빈혈.. 그래서 난 3개월 이상 진단서 끊어왔으니까 일할 능력 없다 근데 왜 난 일을 시키냐.. 복지부한테 물어보겠다. 우리 규정에는 분명히 3개월 이상 적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게 있어요.

**Q: 선생님은 보통 이 사람은 근로능력 있다 없다가 어떻게 판정하세요. 진단서
꽂어오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좀더.. 선생님만의 기준같은 거는 없으세요?**

A: 진단서는.. 진단서의 내용 같은 게 중요하겠죠. 진단서라는 게 진짜 일을 할 수 없는 게 있고 위염도 그냥 위염하고 우리 일반인들도 건강검진하면 다 나올 거예요. 혈압, 고혈압 다 있죠. 근데 그것까지고 일 못한다고 보긴 어렵잖아요. 근데 당혹스럽죠. 민원인이 그렇게 말을 하면.. 개월 수를 명시해왔는데, 나는 근로무능력으로 판정되서 개월 수를 해왔는데 왜 나한테 일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Q: 그럼 3개월 있다가 또 옵니까?

A: 진단서를 저희가 또 확인하죠.

Q: 3개월 있다가 또..

A: 그런데 어차피 그런 질환이라는 게 보통인들도 가지고 있는 질환이 그냥 꾸준히 평생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이야기 라는데 기타질환이라서 보건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1차병원하고 3차병원하고 진단서를 꽂어주는게 달라요. 3차병원에서는 3개월 이상 별로 안 꽂어줘요. 근데 1차는 6개월 이상, 평생, 일상생활의 거동이 불편.. 그럼 일상생활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범주가 어디까지인가..

Q: 진단서를 3차병원에서 꽂어오게 해라.. 그게 낫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A: 아니.. 그것보다도 자활사업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자활사업장들이 그분들의 어떤.. 미래를 열어준다 그렇게 가치가..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그런 업체를 발굴하기 어렵다는.. 제가 어저께 연구기관에서 자료를 조금 봤는데 어느 분이 영국 블레어 정부의 일을 위한 복지를 써놓은 것을 봤는데, 그래서 궁금했죠.. 우리나라나 거기나 매한가지인데 거기서도 정부가 다 해결해줄 수 없는 데 정부가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글을 보니까 영국에서도 역시 어려웠구나를 느꼈거든요.. 근데.. 저희도 정부가 다 하기는 어려워요. 마스크는 정부가 다 책임질라고 하지만 정부가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근로능력자에게는 어느 정도 정책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로무능력자는 도와줘야죠.

Q: 이 두개를 좀 구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게..

A: 그렇죠.. 과거에 자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생계비지원이 없었던 말이에요.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다 살아남았거든요 애들은 고등학교졸업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생활비가 어느 정도 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득과약이라는 것도 어렵구요. 현실적으로.

Q: 소득확인에 있어서 임시일용직 같은경우는 고용임금확인서를 떼오라고 하잖아요. 고용주가 떼주는거요.. 그런 서류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신뢰하세요. 개인적으로?

A: 그건.. 신뢰 한다 안한다의 문제 보다는 인정을 해요.

Q: 그런 경우 혹시 있으세요? 포장마차라든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소득신고를 스스로 하기도 하지만 지침상으로 보면 쉽진 않지만 직접 나가가지고 주변분들한테 '이분 얼마정도 버세요?'하고 물어보라고 되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나요?

A: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근데 대상자들이 적어오는 수치가 거의 비슷해요.

Q: 다 맞춰서 오는거 아니에요?

A: 아니 그것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어렵잖아요. 생산이라는 것도 내가 구역확보를 하지 않았으면 돈 뜯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거리에 대한 권한이 다른 팀에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 팀이 하라고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구역도 이 사람들은 옮겨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쉬운건 아니에요.

Q: 사람들이 오면 보통 내가 자활사업에 참여안하고 벌어들였다 했을 때 적어오는 소득이라는 것들이 같은 업종이라면 거의 비슷하다.. 경험상. 이런 말씀이신가요?

A: 일반적으로 수급자분들이 적어오시는 수치가 비슷하다는 거죠.

Q: 다른 업종이라면.. 내가 만약 파출부 일을 하는 데 일주일에 5일 나가서 몇 시간씩 일을 한다면 어떤 분은 60만원 받는다고 적혀있는데 어떤 분은 30만원 이다하면

A: 그건 건강진단서 같은 걸 보죠. 진단서 상으로 아파가지고 일을 많이 못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진단서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이 없다고 보는 건 아니고 진단서는 냈지만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받아야 같이 받아야

Q: 만약에 근데 진단서 관계 없이 그런다면은?

A: 그럴 때는 지출실태조사서를 작성을 하죠. 저희가 실제 소득이 있는데 없다고 하신 분들은 지출실태조사서를 받아요. 그럼 역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지출은 이 정도 나가는 데 어디서 나셨어요 하면 마이너스 통장이 나온다든지 이런저런 증빙이 되어되는 거죠. 그게 그나마 보안이 되는 거거..

Q: 아까 그 찾아가는 그거하고 관련해서 여쭙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례관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수급자분들 직접 찾아가시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는 거.. 사례관리 관련해서 수급자 분들 찾아가시는 편이세요? 보통 빈도가 어느정도 되세요?

A: 일일이 찾아가기는 어려워요. 저희가..

Q: 대체로 한달에 나가셔서 보는 게 어느 정도 되세요?

A: 문제가 있는 가정은 매일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매일같이 간 가정도 있어요 최근 들어..

Q: 선생님같은 경우 어떤 것을 사례관리라고 생각하시나요?

A: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자원연계까지구요. 그다음에 조금 즉흥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자살충동을 느낀다, 그럼 아이가 자살충동을 느끼는 데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걸 민간기관과 어떻게 연계할 건가.. 저같은 경우 상담을 하다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아이가 3층에 사는 앤데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실제로 그 아이는 사채업자한테.. 지금 현재는 찾아오지 않지만 과거에는 사채업자로부터 그런 경험도 있구요 그리고 아이가 받았을 스트레스들 이런 저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쪽 (프로그램) 담당자 연락했더니 거기서는 10만원을 내야한데요.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전혀 없잖아요.

그 엄마가 10만원을 어떻게 내겠어요. 근데 아이는 상태가 심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애를 복지관에 의뢰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관도 풀가동이 되잖아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는 아이한테 전담할 수 있는,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했다구요. 아이한테 관심을 최대한 보여주고..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놀이치료나 이런 쪽으로 경력이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나 해가지고 연결을 했어요. 일단 법원에서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자원봉사자 분을 만나봤어요. 왜냐면 무작정 의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이 분이 그 정도를 카바 할 수 있는 분인지 저도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면담을 하고 이분이 라면 괜찮겠다는 신뢰가 들어서 이런 케이스인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고 선생님이 오케이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리이러한 분을 제가 했는데 어머니생각은 어떠냐 하니까 아이 생각이 중요하다해서 아이한테 공부를 지도해주겠다. 너의 우울증 때문이 아니라..

Q: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신거군요?

A: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아이가 거부하죠. 그래서 학습지도하는 걸로 했고, 그래서 그 아이도 오케이 했고 어머니한테 제가 이분 사정 어느 정도 알려드렸다, 직접 말하긴 어려울 거고 이 분도 그 상황에서 커버할 수 있는 지를 들어야

지, 어긋나면 곤란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어려운 생활을 이야기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엄마가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싶다고 저한테 왔었어요. 고민했었어요. 그 순간에 아이 엄마한테 고아원을 알려줄 건가 말건가.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알려줘봤자 이 엄마는 당장에 보내지도 못할 거고 알고 있다는 자체가 자기 스스로 다른 방법이 있을 때, 내가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다른 뭔가가 이 아이를 보살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식이에요 사례관리라는 게 지금 굉장히 부각되고 있지만은 저희가 실은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거 보면 논스탑서비스 뭐 이렇게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것 같은..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그렇게 매달리고 싶지만 매달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기존 행정업무가 계속 쌓여있잖아요.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저희가 관리해야 될 대상들을 집중관리를 하는 거죠. 어제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치매 노인이에요. 가출했다가 여성일시보호시설에 있어요. 3개월 지났어요.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아무도 데려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난 안보겠다 동사무소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말해린거예요. 자녀들이 다.. 근데 보호시설이 또 전화가 왔어요. 3개월을.. 6개월을 받았으면 거기서도 그렇게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서 동사무소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데려다주겠다고 하니 저희도 난 감한거예요. 이 할머니가 시설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1년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저희가.. 보통 (시설안에 기존에 계시던 다른 분이) 돌아가셔야 자리가 나니까. 이런 케이스.. 그래서 일단 할머니 시설에 입소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하니까 일시보호소에서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시설에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례관리라는게 갑자기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기존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어 왔던거고 그게 이런 사례관리라는 이런 부분으로 들어온 거라고 봐요 저는..

Q: 원래 의도가 그거였으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가 많으신데 사례관리 기존에 안하고 있었던거는 아닌데 그게 부담이 많이 되니까 업무를 사례관리만 하고 나머지 조사업무는 (저쪽에서) 다 해라 이렇게 떼어놓은게 이번 개편 제도잖아요.

A: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돌아가고 있어요.

Q: 그쵸 어차피 일차조사를 여기서 해야되니까

A: 그리고 저희가 담당해야될 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을 조사를 저희가 계속 하게 되요

Q: 그러니까 생각하시기에는 개편 이후에 업무가 더 늘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A: 줄어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전산조회만 저희가 입력 안한다 뿐이지 그리고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근데 그런 건 있죠 정말 저희도 대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구청에서 정리해주는거 그런 건 있죠

Q: 여기서 올려놓으면 거기서 어떻게든 해결을 봐주니까

A: 근데 제대로 안된 사람 올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감당 못해요

Q: 그쪽에서 뭐라그러니까 또

A: 아니 그것보다도 처리 시한 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 자리가면 그 일 해야되는 거고 똑같은데 그래 나는 너 상관 않겠다. 이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안되는 사람이에요. 자동차 있어서 안되고 뭐있어서 안되요 근데 올려달라니까 다 올려줘요. 그럼 담당직원 못해요.

Q: 1차적으로 걸러내야 된다는 거죠

A: 걸러내야 할 부분은 걸러내죠. 그리고 올려가지고 보장 부적합 판정 받아야 될 집은 그렇게 하고

Q: 혹시 이런 경험 없었습니까 여기서 기존에 안되요, 선생님은 재산도 있고 차도 있고 해서 안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이 혼자 구청을 가셔가지고 한다든지

A: 그렇게 해가지고 접수된 케이스는 없었어요 저희는 다 저희쪽을 통해서 올라가
요.

**Q: 다른 데는 그런게 있더라구요 여기서 안되는데 구청을 간거예요. 구청에
서 하다하다 안되니까 신청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동사무소로 안오
고 구청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 사례는 여기서 없었습니까?**

A: 모르죠 저희 구청에서는 있었을런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동사무
소 담당이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면 내가 구청가서 너희 쪽 일을
했는데.. 사후에도 계속적으로 .. 그렇죠. 규정상 안되는 경운데 됐다. 그럴리는
없겠지만은 그러면.. 그.. 어렵죠. 일하는 게 어렵죠. 구청에서도 어렵구요. 지금
시스템 같은 경우 구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동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은 먼
곳에 가서, 저도 구청가려면 택시타고 가요 한 5천원 나와요 많으면 6천원도
나오고 그렇게 왔다갔다 해야되는 데 동사무소 오시죠.

**Q: 사례관리 관련해서 규정상 새로운 수급자를 발굴하고 해야되는데 실제적으
로 그게 가능합니까?**

A: 상담을 하다 보면, 이분은 간단하게 다른 일로 와서 상담을 하다보면 이 분 실
제 어려운 걸 안내해드리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 이분이 차상위 장애수당이라
는 것을 신문에서 보고 오신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기초생
활도 될 수 있는 분이예요 근데 이분은 차상위 장애수당만 보고 장애수당만 신
청하러 온 거예요 그럼 차상위장애수당으로 올리지 않아요. 기초생활로 올려드
리죠.

**Q: 그럼 그거 외에, 본인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본인이 직
접 수급자를 찾아나선다든지, 통반장을..**

A: 통반장은 저 같은 경우 민원들어온 적 있었어요.

Q: 통반장을 통해 이런 케이스가 있다 수급 신청해달라하고 민원들어오는 경우

가 종종 있나요?

A: 그렇게 많진 않죠. 그렇게 많진 않구요 통반장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과거에 수급자였던 분들은 직접 오시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게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게 하루하루살기 바빠서 이런걸 몰라서 그런거라면 통장님이 전화해가지고 이런 집이 어렵다하면 직접 전화 주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전화하게 전화번호 달라고 하든지 그래요 그렇게 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통반장님을 통해서 온 케이스는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미 알고 있고 어떻게 지원할 수가 없어서 민간자원이 있으면 그때그때 연결해주는 케이스..

Q: 그럼 오시는 거 외에 직접 나가서 발굴하는 거는 어렵지 않나요..

A: 직접 나가서 발굴하기는 어렵죠

Q: 그쵸 거의 찾아오시는 분 위주가..

A: 워낙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가 잘되어있어요. 보세요 지하철 타보시면 여러분 논스탑서비스 이뤄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 엄청 했죠 또 은행에 입출금하러 가면 그 기계(ATM)에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뜨죠. 홍보방송에서 엄청 나오죠. 제도를 몰라서 안된 분들은 별로 없다고 봐요.

Q: 근데 이런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가난하긴 한데 관심이 없어서 눈에 안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가난하긴 하지만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이렇게 잘 안들어오는..

A: 근데 그런 경우에 주위사람들이 가보라 그래요. 주위사람이 가보라고 그러는데 대상이 안되신 분들은 많아요 오셔서 그래요 난 안 오려고 그랬는데 주위에서 가보라 그래서 왔어요 이래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안되시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Q: 그럼 보통 오신분 대비로 해서 수급자로 선정되시는 분은 어느 정도되나요

A: 지역별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Q: 이 지역에서요 수급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A: 여긴 영구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기존의 보호 대상자였다가 탈락되었다가 소득상 실패가지고 다시 신청하시고 이런 케이스들이죠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신청한다고 보시면 되요 영구임대 주택은 주로.. 그리고 일반 주택같은 경우는 실제 생활이 좀 어렵고 정부가 도와줄 수 있다거나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가 볼때는 홍보는 엄청많이 되어 있어요. 홍보가 안되었어서 신청 못한다 이거는.. 서울지역은.. 아닐꺼라 봐요.

Q: 신청 대비 확정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인가요 한 열명이 신청하면 몇 명정도..

A: 여기같은 경우 90%이상 될거예요 신청이라는 게 서류까지 완전히 받는거.. 근데 초기상담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는 이미 과거에 저희한테 다 기록이 남잖아요 어떤 사유로 제외가 되었었는지 또 생활에 변동은 없는데 담당이 바뀌면 다 한번씩 오세요 떨어졌던 분들이.. '나 같은 사람 안 해주고.. 나 좀 해주지' 하면서 오세요. 근데 변동사항은 없어요. 과거 담당 발령났다는 소문 짝나면 가보자 하죠. 그래서 발령나면 초기 석달은 과거 떨어졌던 사람들.. 여기같은 경우 그렇죠 일반지역같은 경우 좀 다를 수 있어요.

Q: 혹시 그런 케이스 있나요 지역 의원들이나 동장님들이 이 케이스 받아줘라 압력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A: 아뇨 저같은 경우는.. 그냥 이 케이스 어떠냐 그러면 이야기 들어보고 안되는 되요 그러죠 안되는 경우는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Q: 여기 동장님은 어떠세요 동장님이나 윗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업무의 차이와 만족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여기 동장님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A: 글썬요 뭐라고 해야할지

Q: 윗분들에 따라 차이가 좀 실제 나더라구요 행정에 대한 체계라던가 약간씩 달라지더라구요

A: 글썬요 저희쪽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상세한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Q: 지침위주로.. 동장님은..

A: 아니 그러니까.. 똑같죠.. 이런 사례를 검토해 달라 말씀하시면 대상이 아닌 경우는 이리이런 사유로 안됩니다 보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변수가 있다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면 안되는 거기 때문에 안되는.. 저희들 입장이라면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담당들이 누구를 제외시키려고 하거나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의 관련 여러 가지 지침을 검토한 단 말이에요 저같은 경우도 어제같은 경우 상담건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분같은 경우 부양자의무대상자가 안되세요 근데 해달라고 오셨더라구요 어려워요 생활은.. 지원을 해주던 분이 끊겼대요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 기초생활보장지원은 안되지만 암환자의료비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의 병이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되느냐 아니냐도 달라져요 그리고 무료 암검진할 때 했느냐 안했느냐.. 그렇게 해서 이분 같은 경우 의료비가 필요한 입장인니까 차상위도 안되고 기초생활보장도 안되는거예요 그러면 (보건사무소) 검토해보는거예요 그래서 해드리는거예요. 어쨌든 최대한 도와드리려는 입장에서 하는 거지 저희가..

Q: 동사무소는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들 있죠 복지관이라든가 주민단체.. 관계가 좀 어떤 편이세요? 혹시 복지관이라던가 주민단체 새마을이나 부녀, 이런데서 케이스가 있으니까 신청좀 해주세요 한 케이스는 없나요?

A: 글썬요.. 그건 제가.. 지금 여기 온지가 얼마 안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복지관이 있는 경우는 복지관이란 연계를 가지면서 일을 해요. 같이 협력해서..

Q: 여기 기관은 자원연계가 어떻게 되나요? / 민간자원은 뭐가 있는지..

A: 저희같은 경우 월계복지관이 있거든요. 월계복지관하고 저희가 관계성 갖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대상자한테 문제가 생기면 복지관에서 연락이 오고 저희쪽에서도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그렇게 ..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장 최근까지도 복지관선생님하고 방문한 집이 있었어요. 제가.. 그 집이 좀 심각한 상황이어 가지고 그럼 복지관은 어떤 자원을 줄 수 있는가.. 또 저는 행정쪽으로 해서 어떤 분야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의견을 공유하는 거예요

Q: 연계가 잘 되는 편이세요?

A: 잘된다고 봐야될 것 같아요

Q: 월계복지관 말고 다른 곳은 근처에 없나요? 지역자원으로 쓸만한 자원이라고 생각되시는..

A: 그렇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월계 복지관..

Q: 그럼 다른 동의 전담공무원과의 관계는..

A: 다른 동과의 관계요? 어떤거요?

Q: 예를 들어서 양천구인가 어디를 갔더니 거기는 동사무소 공무원 구.. 전체 모임이 있더라구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해라 서로 조언을 해준다든지..

A: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같은 경우 (동내 직원이) 구십몇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기는 어렵구요 그런 건 있죠 어느 분야에 대해서 어느 직원은 잘 알 것이다. 이런 사례가 있는 데 어디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까하고 물어볼 순 있죠 그런데 그렇게 도움구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 어렵죠. 아는 범위가..

Q: 그거 외에 자활기관이라든지 그런 기관과는.. 동사무소 외에.. 자활기관 이

런 기관과의 관계성은 어떤가요? 협조가 좀 잘 이뤄지는지..

A: (결끄러울 수도 없고) 협조가 잘 이뤄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런거 있잖아
요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해결되는 케이스고.. 그렇죠

Q: 그런 의무적 관계..

A: 그렇죠.. 그리고 사례 회의라는 게 있어요 월계 4동, 저희 동(사무소), 그리고 보
건소, 후견기관, 복지관, 가정도우미 하여튼 참여하는 대상이 한 10여군데 되는
거 같아요 정신보건센터 이렇게 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 사례를 발표해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회의가 있어요 이거는 주민생활지원이 시작되기 전
부터

Q: 종교단체나 이런 단체와는 자원연결이 별로 없으신가요?

A: 종교단체는 갖기 어려워요 제가 따듯한 겨울 때도 좀 도와주십사하고 갔었는데
어려워요.. 물론 그렇게 크게 하는 교회도 있죠 꽃동산 교회라든지

Q: 그 교회는 꽤 큰 편에 속하잖아요.

A: 근데 거기도 자체적으로 하실 거예요. 대체적으로 사업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
업들이 많아요 그런 큰데는..

**Q: 급여 수준은 선생님이 보시기에 가구형태나 규모에 따라서 적합하다고 보세
요**

A: 어떻게 보세요? 신문에 이게 최저생계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나왔던데..

Q: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A: 글썄요 그건 다른거 같아요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려워요.

**Q: 저희야 뭐 보건사회연구원 거기서 최저생계비 계측을 하니까 애초에.. 그것
이 적절하다고 보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A: 근데 일반인들은 훨씬 절약하면서 살아요

Q: 그쵸.. 근데 실제로 이것저것 빼고 받는다고 하면 4인가족 같은 경우 이십몇 만원.. 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받는 건 백만원 미만 보통 받잖아요 공제 금액 빼고 이것저것 빼고 하면 백만원도 채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급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모자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자르다는 게 왜 자꾸 모자르다 이야기를 하시는지..

A: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줄 때는 하나만 주면 좋겠고요 하나주면 두개 받고 싶고요 그리고 매스컴에서는.. 시민단체에서는 그러죠 옛날에 댓글 막 올라왔었잖아요. 너무 심한거 아니냐구..

Q: 솔직히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

A: 아니 이러이런 비용으로 이게 작다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 이런 댓글올라오고 그랬었잖아요.. 인터넷에서

Q: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 급여수준이면 근근히 살아가는 데 괜찮겠다..

A: 그건 말하기 어려워요. 저같은 경우 생활비 얼마 안 들거든요.

Q: 어떤 분들은 영구임대주택 이런데 계신분들이야 주거비 나가는 게 적으니까 그런데 월세사는 분은 월세만 20만원, 30만원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거고..

A: 그쵸 어렵죠.. 어려운거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걸 다 채워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학원 보내려고 하는 데 우리애는 학원을 보낼 수 없다 이런 말씀들 하세요

Q: 다른 지역과 여기 영구임대 주택을 비교해 볼 때 영구임대 주택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덜 나갈 가능성은 있고 어느정도..

A: 주거는 안정됐죠.. 주거는 안정됐는데 관리비 내고 월세내고 하면 십여만원 나

갈 거예요 여기도..

Q: 생활실태가 차이가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구 저 쪽에는 다 주택으로 되었거든요 그쪽이랑 영구임대주택에 있는 분들이랑 생활실태가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A: 생활실태요? 비슷하겠죠.. 비슷할거 같은데..

Q: 사례나가시면 집안에 있는 가구나 하고 다니는 모습이나..

A: 요즘 가난하더라도 가난하지 않아요 걸모습은 부자로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은 옷 잘입고 다니죠 이렇게 봐가지고는 알 수 없죠 가난한지.. 아주 부자인지는 않겠죠. 명품 들고 다니면..

Q: 혹시 이런 사례 있습니까 보면 딱한데.. 보면 딱한걸 알겠는데, 기준에 어떤 한가지가 넘는거예요 넘으면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안되잖아요 그런 분들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민간 연계라든가..

A: 그러죠 정말 어려운데 도와드릴 수 없어 미안하다 그러죠. 미안하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자원이 생겼을 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연락을 드리는데 언제라고 기약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도움을 받고 싶으셔서 오신건데 연계를 해준다고 그러면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럼 저희도 부담스럽구요

Q: 그럼 여러 기준 가운데 하나만 안될 때 그 하나만 충족시키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경우 그런 분들을 다른 조치를 통해서 수급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나요?/ 융통성을 발휘하는 ..

A: 융통성을 발휘한다기 보다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차가 있어요 이 분이.. 사용은 안하는 차예요 과거에는 뭐를 하나 했던 말이에요 내가 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병으로 인해서 그 차를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럼 차를 처분하세요 그러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 이외에 다른 .. 저희쪽에서 일하는 사람

(공무원들)은 민간쪽에서 일하는 분들과 다르다고 봐요 지침을 정확하게 준수를 하되 그리고 도와드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곳 통해서 도와드려야 한다고 봐요

Q: 주로 자동차가.. 그나마..

A: 자동차의 경우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죠.

Q: 이게 뭐 백분화되니까

A: 근데 그 이외의 대상자체가 안되는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든지.. 이렇게

Q: 그렇게 부양의무자 때문에 갈등같은 거 많지 않으세요? 파악하기도 좀 쉽지 않고..

A: 파악하기가 쉽진 않죠

Q: 부양의무자 파악하실 때 어떤 사건등이 있으신지 여쭙보려고 그러는데 그.. 뭐라그러지.. 부양의무 관련 때오는 서류 있죠? 부양능력확인서던가? 그거 때오면 그 서류를 잘 신뢰하시는 편이세요?

A: 일단은 신뢰해야죠 신뢰안하면 일 할 수 없잖아요

Q: 부양의무자 파악하는 데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려우세요

A: 저같은 경우 소득자산서를 측정할 때는 제가 다 받아췄어요. 제가 직접 측정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저희 구에서 하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소득 자산 이런거.. 직접 쓰시게 하셨어요.

Q: 보통 부양의무자 파악때문에 14일 안에 통보하는게 쉽지 않다고 하던데요..

A: 서류를 갖춰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초기 상담할 때 미리 전산조회를 (정했죠) 저같은 경우는.. 그러면 서류 갖춰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리시잖아요 그럼 대충 맞

추는 거죠 대충 맞다는 거죠. 왜냐면 원래는 제가 초기상담을 하는 시점에서 서류가 들어오면 전산조회를 올리는 데 그렇게 할 수도 있구요

Q: 그러면 초기상담에서 얼마나 사실을 파악을 하고 좀 전산조회는 늦더라도..

A: 그렇죠 저희쪽에서 먼저 조회를 해보는 거죠

Q: 다른 데 보니까 항상 부양의무자가 문제더라고요 보고는 14일 내에 하라고 해놨는데 14일 내로 그게 잘 안되니까

A: 부양의무자가.. 근데 국민기초가 그렇잖아요 본인도 중요하지만 부양의무자도 중요한 축으로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조사팀에서 하는게 부양 의무자 조사가 힘들거예요

Q: 하긴 그 쪽으로 넘어갔으니깐 동사무소 사회전담공무원들은 일손이 좀 줄었을 것 같기는 한데..

A: 그래도 관리는 어차피 저희가 해야되기 때문이에요 구에서 정확한 조사가 안된다 고 하면 난감한거예요

Q: 왜 그렇죠?

A: 저희가 담당을 하잖아요 그분을.. 계속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조사가 서로간에 이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조사 담당도 초기상담에서 그냥 헛으로 하는 거 아니구요 저희도 부양의무자상담 다 한다구요 그 분 부양의무자 지금 뭐하시는 지 다 파악을 해요

Q: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업무가 이중이 되네요.

A: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구요

Q: 어떤 데는 좀 덜하긴 하겠지만 예전에는 왜 선정 안해줬느냐 이런걸 따지는 건 상대적으로 좀 덜하겠지만

A: 글썬요 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지금현재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안좋은 점도 있고

Q: 바뀌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뀌는 게 좋은 건지..

A: 그건 말하기 어려운 거 같아요

Q: 부양 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약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A: 부양의무자 기준이.. 글썬요.. 담당들 입장에서는 없었으면 하죠

Q: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A: 실제로는 자녀들 부양을 못받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틈새계층 특별보호라는 게 있어요 생활이 어려운데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자녀가 있는데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경우 이러면 틈새계층 특별보호라는 게 있어서 그게 십칠만 얼마 정도 지원을 해줘요 한달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노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되요 관리비 내고.. 최소한의 생활은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십칠만 얼마가 많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들도 노인분들 가정을 가보시면 저는 겨울에도요 난방을 안넣으세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저 같은 경우 일반지역에 있었으니까 가정방문 나가잖아요 노인분들 집 가면 썰렁해요. 전기도 최소한으로.. 그렇게 다들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자로 인해서 일정한 생계비.. 오히려 이분들이 들어가는 돈이 더 적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자체예산이 있지만 다른데는 그런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백 얼마 번다고 해서 1인가족 같은 경우에 여기 1인 이고 여기 1인 이면 한 백만원.. 약간 넘는 백십만원 정도 되면 중지대상일 거예요.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해서.. 그럼 이제 이사람도.. 백만원정도 소득을 받는 사람은 전셋집도 보통 없어요 월세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상할도 하기 어려운데 부모를 책임져라..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힘든 이야기

예요. 몇백만원을 벌어도 부모님한테 몇십만원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Q: 그런데 기피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걸 징수하잖아요 부양의무자에게

A: 근데 보장비 징수에 대해 체납이 많이 되죠.. 많이 들겠죠.. 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데 그걸 급여에서 압류하면 모르지만 급여 압류를 하면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Q: 그런 분들이 급여 제대로 받는 경우는 또 없을 가능성이 크니까

A: 급여를 받아도 지금 제도가 저희가 부상권 행할 수 있게 되 있지 않아요 보통 부상권 청구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 들어가고 내 자녀로부터 봉급 압류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보통 이 수급자 제도는 부양 자체를 기피하면 보장비용징수가 들어가죠. 이거는 구에서 받아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난 안 내겠다 하면 물론 압류가 들어가긴 하겠죠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그분 자체의 급여에서 압류가 되가지고 법원에 공탁금이 걸리고 공탁금을 이분이 찾아가고 이런 시스템이더라구요 어떤 다른 케이스를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좀 일이 낫겠죠. 근데 어려운 이야기예요.

Q: 신규 측정까지 2-3주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급하게 도움이나 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긴급생계급여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쭙보려 그러거든요.

A: 거의 없어요 한번도 없어요

Q: 지원한 적이 없으신가요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이 없으신가요

A: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말이냐면 대체로 생활이 이 수준에서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준에서 신청을 해왔었기 때문에 긴급생계가 이루어질 만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갑자기 이 상황에서 이렇게 확 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상자들이..

Q: 그럼 그런 경우 있죠 급여는 계속 받고 있는데 가구원 수가 바뀐다거나 시설에 계신 분들이 퇴소해서 급여액이 증가 또는 감소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가요

A: 그냥 증가되거나 감소 할 경우에는 지침대로 하는 거죠

Q: 지침대로 하더라도 수급자 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을 테고..

A: 급여 만약에 증가가 되는 경우에는 돈이 더 들어왔네 하고 전화하시는 분 절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민간자원 연결해줘도 전화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가끔씩 고맙다고 전화가 오는 데 저희가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열 사람을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한사람이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하고.. 그런데 감소가 되는 것은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요. 이러이런 사유로 해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Q: 수급을 잘 안하시지 않나요?

A: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안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안하시는 경우에도 저희 지침에.. 최대한 설득을 하죠

Q: 그런 경우 있으셨나요 지역 주민들이 부정수급이나 소득을 불성실 신고 해가지고 내 옆집 사람은 돈을 더 받는 것 같다, 이 사람은 수급자 될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신고 같은 게 들어온 적 있나요?

A: 글썄 그런 경험은 없었는데요 .. 만약 있다고 하면 조사를 다시 해야겠죠

Q: 영구임대에서는 서로 어디선가 듣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A: 제가 여기 온지가 4개월밖에 안되서..

Q: 주거급여 관련해서 현물급여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안된다고 보세요?

A: 그렇게 도움이 안된다고 봐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만이천원 (주거급여임) 말씀하시는 거아니에요?

Q: 에 아니 주거급여 말고 주거급여에서도 현물급여 있잖아요 도배 이런거

A: 글썄요 저는 그렇게 신청을 해본적이.. 왜냐면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방은 많을 수 있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무료 임대에 사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되죠.

Q: 수급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줄 필요가 있느냐.. 옛날 생활보호제도처럼

A: 교육하고 의료비는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 분들 만약에 생계비가 그렇다고 하면 일정 기간은 해줘야겠죠 그치만 지금 현재 제도는 내가 지금 이 상태를 평생 나름대로 유지하겠다 하면 이 상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의료급여 같은 경우도 구비예산으로 원래 한다고 했다가 처리가 된 상황이지만은 지금 모든 국비 예산들이 구비예산으로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국비예산으로 시작했다가.. 자치부에서 감당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실은 빈곤의식을 형성을 한다는 거죠 빈곤문화도 형성이 되고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아이들이 그런 거를 보고 배우는 거죠 IMF 때 한시적 생활보호가 생겼어요 그 때 제가 영구임대주택에 있었거든요 그때 영구임대주택의 사람들이 대거 왔어요 (병원이 있기 때문에).. 장기임대주택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영구임대나 장기임대나.. 장기임대주택에서는 많이 안 왔어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뛰라고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지금 현재 사례관리가 들어가도 초중고 이런 애들에 대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빈곤이 되물림 되지 않기 위해서는..

Q: 어떤 수급자들 이야기 하시는 거 보면 생계비야 되는데 애들 학원비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미래에 빈곤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A: 학원비만도 아닌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내가 꼴등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건.. 내가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을 가지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그거는 자기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

요 저는.. 그리고 기계 작동법 이런 것도 똑같이 배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가하면 아까처럼 내가 평생 동안 놀건데 어떻게 하실거예요 이렇게 말을 아주.. 저랑.. 그 어머니도 똑같더라구요 도대체 우리에게 뭐하라는 거예요

Q: 굉장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 도와줘야 되고 그 기준이 저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 수급을 계속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 나태한 사람들이다..

A: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는 전체 프로티지에서 어느 부분을 차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갈수록 심각해 질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제도의 취지 자체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아지는 복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더라도 어느 정도 제한기간이 있을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에.. 근데 빈곤이 대물림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Q: 보충급여니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을 하면 이만큼은 채워주고 일을 안 하면 다 채워주고 ..

A: 그런 거 있죠

Q: 근데 만약 일을 하면 더 준다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면..

A: 그래도 똑같은 거예요

Q: 그래도 똑같다.. 일을 안 하면 안주는데..

A: 글썄요 그건 참 어려운 거 같아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Q: 그건 뭐 저희한테도 어려운 이야기니까.. 혹시나 이 업무를 하시면서 과거

랑 생각이 달라지셨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수급자에 대해서라든지 일에 대해서라든지.. 또 빈곤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빈곤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막상 수급자들 만나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별로 다르지 않다 라는지

A: 그렇게 말하긴 참 어려운 거 같아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Q: 많은 분들이 생각이 바뀌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구조적 문제니 사회적 문제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이 됐다가 실제로 막상 와보니까 아까처럼 일을 해야 하는데 안 하겠다 이런걸 많이 보게 되니까

A: 실제로 노력을 하시는 데도 안 되시는 케이스도 있구요 케이스는 다양해요 근데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들을 말씀을 안 드리는 거죠 지금 현재 어쨌든간 제도개선을 위한 그런거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제도에 있어서 저희 지금 담당 복지사들이 느끼는 것들.. 이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거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Q: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데도 빈곤한 사람이 있고 근로빈곤자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일부분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로 능력있는 사람 모두를 다 기한을 두는 게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분리하는 게...

A: 분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지침상으로 지금 현재도 지침이 복잡한데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3개월이란 진단서가 마의 3개월이잖아요 만성 위염으로 나 일 못한다. 지침에 나와 있는데 나한테 일하라 그러냐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복지부 장관한테 따지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말짱하게 걸어 들어가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나 일 못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기한을 둘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희가 외부에다가는 이런 얘기를 못하죠. 생활보호시절이 불편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 전담공무원들이.. 저희가 지금 2000년도에 들어서 사회복지사들 많이 충원했잖아요 지금 과거에 제도를 모르는 직원들은 어떻게 변천이 됐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건데 과거의 제도를 알고 있었던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Q: 생활보호제도가 더 낫다고 이야기 할 때는 그것이 빈곤과 관련해서..

A: 그렇죠 빈곤의식을.. 지금 같은 경우는 직장을 어느 선에서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 자녀들이 취업하는 것도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담당공무원한테 직접.. 그럼 저희는 취업하셔야죠 이러죠.. 근데 취업 안해요. 그런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엄마들이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안 아파서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디스크 질환있고 다들 아파요 그래도 백만원 짜리 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라고 봐요 전.. 어느 정도 기한은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2000년도 이후에 들어온 복지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실무진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맞닿아 있잖아요. 맞닿아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거고 구청의 라인은 또 다르겠죠 직접 안 겪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다 다른거죠

Q: 이런 케이스는 보셨어요. 수급자가 일을 하는 데 일을 하는 태도가 영 이상하다 혹시 일을 하시면서 직접 보신적은 있으세요 자활사업이라든지 자활근로가 됐든 ..

A: 어떤 일어요..

Q: 수급을 받는 분들 중에서 근로가 조건화 됐을 때 조건부 근로를 정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한다든지 동사무소나 다른 데서 일을 한다든지.. 혹시 그런 분들 일 하시는 거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A: 치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보죠

Q: 어떠세요 일을 하는 태도라는게..

A: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남의 일에 간섭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개개인의 특성이

Q: 그럼 그런 분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A: 글썸 그런저런 생각은 안해봤어요.

Q: 어떤 분들은 보면 담배꽁초하나 줍는데도 시간 한참걸린다고 하더라고요

A: 그런 분들 있죠. 내가 치료사업하다가 골병이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동사무소 치료라는 게 골병이 들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게 됐는데 그러니 날 수급자 해줘야지 의료비 지원해줘야지 그래요 그러면 좀 황당하죠 황당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을 하는게 길거리 청소하는 거 밖에 없는 데 그 정도 해가지고 다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Q: 뭐라고 하세요?

A: 뭐라고 하겠어요 그정도 해서 그러셨겠어요 하면 안되죠 더 까칠하게 나오면 곤란해요

Q: 참으실 일이 매우 많으시겠어요

A: 복지사들이 많이 참죠. 상대방이 쌍욕을 해도 참죠 저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체로 참아요 남자직원이나 여직원이나

Q: 수급자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생활보호때랑 지금이랑..

A: 굉장히 달라졌죠 굉장히 달라졌어요

Q: 지금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

A: 더 달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니가 알아서 다해라. 니가 두드리면 나오는 거 왜 나한테 내라고 해. 이런 사람도 있구요.

Q: 권리 의식이 확실히 증가했다는거죠?

A: 그건 개인차죠.. 상식선을 잘 지키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Q: 예전에 그런 사람 생활보호 때 그런사람 잘 없었잖아요. 더 내나라 그렇게..

A: 예전엔 그렇게 그러지 않았죠 지금은 보충급여잖아요. 옛날에는 거택보호 대상자가 거의 자녀가 없고 이런 분만 거택보호가 됐단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그것가지고 그럴 일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보충급여기 때문에 내가 만원 더 썼냐 안 썼냐에 만원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십만원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죠. 돈문제는 치열하잖아요

Q: 그죠.. 잘된건지. 권리의식이 있는 게 잘된건지

A: 권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어려울 때는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개개인의 차라는 거죠.. 상식범주에서 움직이는.. 상식범주에서 움직인다는 게 내가 일할 수 있으면 일을 해서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생활보호 시절에는 그랬었어요. 큰 자녀가 졸업을 하면 그동안 저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었어요. 그리고 조그만 지원을 해줘도 고맙습니다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거 없어요. 전화오면 당황스럽잖아요 제가.. 그리고 담당을 조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담당을 현금지급기로 알아요... 담당을 조르면 뭔가가 나올 거다. 가지도 않아요..

Q: 수급자 만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혹시..

A: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지금까지 말한거..

Q: 그러니까 만나기 꺾끄러운 부분들..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 하려고 하는 데 만나기 꺾끄러운 부분들 있을 수 있고

A: 쌍욕을 해대는 사람도 있죠. 한시간정도 쌍욕을 해대는 사람도 있어요 전화해서.. 아주 쌍욕을 해대요. 전화 끊고 싶어도 참아요

Q: 끊으면 또 전화 할테니까..

A: 그렇죠. 어떤 사람은 쫓아오세요. 실제로 폭력에도 노출되 있는 게 사회복지사
구요

**Q: 안그래도 위험하다고.. 자기 몸.. 사해관리 다니다보면 영구임대주택 다니다
보면 위험하다는..**

A: 문 열어 놓고 상담해야죠 그리고 들이 가거나 그렇게 해야죠. 언제나 폭력성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치는 사람들 있어요. 폭
력은 순간이거든요.

Q: 여기 뒤에 영구임대 주택이 알콜릭이라든가 뭐..

A: 많아요.

Q: 많아요? 교정시설에서 나오거나 보호감찰 받으시는 분들도 많구요...

A: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알콜은 굉장히 많아요.

Q: 정신질환.. 정신적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A: 그런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저희 조사에서..

Q: 북한이탈주민도 많죠?

A: 새터민 많죠.

Q: 그런분들은 어떻게 대하세요? 새터민 같은 경우는?

A: 뭐라그러시던가요..

Q: 아니 뭐 저희 직접 만나보진 못했고..

A: 그러니까 다른데에서.. 만나기 어렵죠? 새터민 있는 지역이 몇군데 없으니까..

Q: 만나기 어려우니까.. 몇 군데 없다고 봐야죠..

A: 뭐라고 말하기 어렵네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고

**Q: 어떤 부분이..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 예를 드신다면 어떤 점이 어려웠더라..
과거에**

A: 여기 새터민에서 정보교류가 상당히 빨라요. 더 정보교류가 빠를 수 있고

Q: 보통 수급자 분들 왕래 잘 안하는 편에 반해서

A: 영구임대도 왕래가 많죠. 영구임대도 정말 그 집에 수저가 몇 겹지 알거 같아요. 제 생각에.. 십여년 함께 같이 살면 알죠.

Q: 이런 제도에 관련된 정보교류도 서로 빠르고..

A: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일반주택에 살 때는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퇴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중퇴하고 막 이래요 그럼 엄마들한테 자녀들하고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가지세요 그래요. 아이들이 순식간에 휩쓸리거든요. 학교 중퇴하고 나도 뭐 옷하나 사입고 싶고 가출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훨씬 신경 많이 쓰라고 그러는데 일반 지역같은 경우 쉬여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은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지 모델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한 집건너 수급자 한 집건너 수급자 이렇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세를 차지한다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세를 차지한다는 거죠. 문화가.. 대세를 차지해서.. 빈곤문화가 만들어 졌죠.

Q: 그 이야기는 많이 나오니까 다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다시 넣어야 된다..

A: 근데 그게 어렵겠죠. 영구임대 주택 만들 때도 사회복지사들은 반대했었는데 방치하는 건 좋지 않다.

Q: 예상외로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지금 끊을 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러가지고

A: 많이 걸렸네요..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 조사지역 : 대도시
- 응답자 개인사항

성별	연령	학력	근속기간	자격증 여부
여	50	대졸	해당지역 1년반	있음

- 기관환경

읍·면·동사무소의 상담환경 - 조사자 기록
- 별도의 상담공간이 마련되어있음. 타지역과는 달리 출입문이 하나였음. 전담공무원은 실무자의 인권을 강조하였음.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 당초 조사대상자로 섭외되었던 공무원이 질문을 잘 캐취하지 못하거나 응답하기를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음. 그 과정에서 본인과 함께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자활, 의료급여담당, 차상위담당)을 불러 함께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하였음. 30여분이 지난 이후 두사람과 동시 인터뷰 진행함.
- 인터뷰 과정이 다소 길어지고 산만하였음.

Q: 저희가 받아적기 위해서 녹음쯤..

A: 어 나 녹음 싫어요 그런거~ 그런거 싫어요

Q: 아니 저희만 듣는거예요

A: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무슨 심문하는 거 같고 싫은데 진짜..

Q: 아니 제가 다 적을 수가 없어가지구요..

A: 아니 그래도 좀 .. 저희로서는 부담되죠

Q: 아니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되요 저희가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런게 아니니까 /그런건 절대 없구요

A: 그리고 우리는 사회복지사가 3명이거든요. 점심을 교대로 먹으러 가서 지금은 아직 안 온상태인가봐 보통 1시에서 2시 12시에서 1시..

Q: 그럼 3분이 업무분장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A: 3명이고 우리 지금 국가에서는 복지 그것도 있고 하지만 행정직을 한명 7월1일부터 조직개편이 됴므로서 행정직도 사회업무를 같이 하게 된..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하지 않으면 전문적인 건 행정직이 또 보고 있거든요

Q: 그럼 세분이 전부다 사회복지직이신거예요?

A: 3명이 사회복지직, 그리고 계장이 한분이 생겼어요

Q: 그럼 4분이 사회복지

A: 아니.. 행정 5.. 모두 5명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 주민서비스라 그래서 요즘엔 사회복지라기 보다 주민서비스라 그래서 광범위하게 바뀌었잖아요 7월1일자부터 그거는 알고계시죠

Q: 여긴 언제부터 바뀐건가요

A: 7월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Q: 아니 시행시기가 다 달라요

A: 7월 1일이요

Q: 작년?

A: 올해

Q: 된지 얼마 안됐네요 딱 한달된거네요.

A: 예 그렇죠.. 아니 올 초였나.. 올 초였구나 거의 1월달이었죠..

Q: 주민생활지원팀에 이제..

A: 예 원래대로 07년도에 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업무분장이 1월달부터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Q: 선생님은 그럼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세요?

A: 기초생활은 사회복지사들이 3명이서 하구요 행정직은 아동.. 아동업무하고 노인 업무는 행정직이 보고 주민서비스관계라든지 이웃돕기는 계장님이 보고.. 그리고 저희들은 장애인이라든지 사회복지업무 전담이 볼 수 있는..

Q: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A: 그러니까 생계비같은 거 총괄로.. 그것도 다 분담해서.. 생계비, 교육급여, 영구 임대 보고 있는데 이런.. 자금.. (생육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이라든지 그런거.. 전 출입 담당.. 다.. 거기에 부속되 있는 거예요

Q: 그걸 세분이서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A: 아니요 그리고 또 장애인 .. 아니 그것만 제가 보고.. 한사람은 .. 업무분장 표를 갖고 와야 되겠네..

Q: 아니 괜찮습니다.

A: 장애인 업무 주로 보고 한사람은 우리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특별지원이라고 있어요 분기마다 하는거 차상위 계층에 뭐 특별지원 그런 업무도 보고 의료급여 보고 자활업무보고.. 그렇게 세명이 나뉘서 봐요 기초수급에 대한.. 그런거..

Q: 선생님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A: 저는 사회복지사로.. 2000년도니까 거진 7년 됐네요.

Q: 이지역에서는 얼마나 되신거예요?

A: 1년 반이요.

Q: 선생님 영구임대라는 업무가 따로 이렇게 있어요?

A: 아니요 영구임대라는 것은 국민기초수급자들,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 철거민,, 그 시장님이 하는거. 그런 사람들이 영구임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돼요. 그러면 대전시에서 전부 신청을 해요. 그리고 새터민도 있도..

Q: 모부자 가정도 있고

A: 모부자 가정도 있고.. 거기 포함되는거.. 그럼 보통 그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1년에서 2년 사이에 대기자들이 입주신청하고서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영구임대가 20호에 15층이면 300세대 , 300세대,, 600.. 301동에 12에 15면 얼마예요.. 그렇게 세대.. 301동은.. 모두 3동이 있어요. 그러면 240세대가.. 그렇게.. 301동이.. 302동 303동은 300세대씩.. 그 중에서 거기에서 원래 그런 조건에서 들어오면 중지자들있죠? 중지자들은 그냥 사는 거 같더라고요

Q: 그럼 선생님 전출입 업무랑 같이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럼 지금 선생님

**하고 계신 업무중에서 기초생활제도 관련 업무 기준이 어느정도 되세요?
50%정도 아님 80이상?**

A: 기초수급이.. 80이상이지 근데 업무를 보다보면 그날 그날 민원 상대, 상담상대, 찾아오는 민원일이든지 아니면 생계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보고자료같은 걸 뽑으면 그날 업무시간도 부족해요. 기초수급자 방문하고 조급한것만 막 나가게 되지 일률적으로 조사같은거 나가기가.. 벅차요. 그런건 좀.. 원래 주업무는 국민기초수급자 관련인데..

Q: 그럼 수급자 발굴에 관한 업무는 하시기가 많이 어려우시겠어요?

A: 그니까.. 우리가 나가서 하는 거 보다 주변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어렵다든지 통반장님 통해서 오면 우리가 직원 조사도 있을 수 있고 가끔 보면 저기가 와요 구청에서도 반전, 반수, 체납된거 그런거 조사하고 통장님이라든지 이웃주민들이 와요.

Q: 본인이 직접오시는 경우는?

A: 본인이 직접 오는 경우도 거진 80%.. 직접 오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신청자 중에서.. 80% 는 본인이 직접 와요.

Q: 오시면 얘기는 잘 꺼내세요? 여기 직접 오시면..?

A: 좋은 점이 있다면 내가 나이가 많거든요 그니까.. 50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제 장점이 있다면.. 그분들이 이제 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딸같아서 말하기가 쉬울 거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많은 사람이라 자존심이 덜 상하는 거 같은.. 그런 장점이 있더라구요

Q: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나요?

A: 젊은 사람들도 오죠 많이 와요..

Q: 그럼 대부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근로 능력이 있을 거 같은데요 근로 능

력잔데..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수급받고자 상담오거나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A: 그러니까 첫째로 아프냐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느냐 그것부터 상담을 하죠 일단 요즘 처해있는 여건이 어려운 점이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상담을 하죠 근데 대체로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데 가구원이 많다 보니까

Q: 부양해야 되는..

A: 그렇죠. 자기 자녀들이라든지 이런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리고 요즘 노동일 같은거 돈벌이 없다그래서 재산이라든지 그런게 없으면 거진 수급권 안에 들어오긴 해요 그럼 2중으로 책정되는 경우도 많죠 본인들이 직접 어려워서 찾아오다 보니까 거진 된다고 보고 찾아오는 사람중에서 젊은 사람 중에서 10%, 20% 그런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 단지 요즘에 취업을 못해가지고 생활이 어렵다든가 능력은 있는데 자기한테 맞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Q: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주세요?

A: 그러니까 그건 65세라든지 어떤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는 하고

Q: 연계해 주는 곳은 없으세요?

A: 취업 뭐.. 차상위자활같은 게 된다하면 그런걸로.. 오늘 같은 경우도 하나 차상위 자활.. 신청하고 갔어요

Q: 후견기관쪽으로 그럼..

A: 예 연계를 해서 해주는 자활 담당이 우리는 있..

Q: 아 선생님한테 초기상담하러 오시면 자활담당분한테 연계를 하시고..

A: 보통은 그렇죠 보통 조그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혼자 다하지만 우리는 수급자가 많고 하니까 내가 맡고 있는 수급자가 210세대 전후거든요..

Q: 만나러 가기도 진짜 힘드시겠어요

A: 예 그러니까 급하게 전화하고 상담하고 그런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Q: 일반 주택도 많이 계신가요?

A: 나는 영구임대하고 일반 주택도 맡고 있어요

Q: 거리가 좀 띄엄띄엄 있어요? 아무래도 영구임대 밀집이 좀 되었으니까 나올 거 같은데..

A: 근데 영구임대일수록 집에 거진 더 없어요. 그래서 만나기가 힘들어..

Q: 주간에 안계세요?

A: 저희 생각에는 집이 따닥따닥 붙어있다고 수급자 영구임대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맡는 가구수들이 더 많아요 그걸 어떤 기준인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그 거 돌아다닌다고 해서 시간낭비가 아니라 어떻게 만나느냐가 문제지 영구임대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200세대에 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사.. 150세대에서 200세대.. 근데 일반주택은 100세대에 한명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Q: 합리적이지 않다 .. 아니 그런말씀 해주시면..

A: 아니 난 싫어요 .. 그런 불만 같은 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Q: 근데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A: 근데 그건 조금 잘못됐고..

Q: 예 말씀을 해주셔야 .. 밀집지역이라 이렇게 하는 거아니다.. 이렇게

A: 내가 1년 반밖에 안됐어요 나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영구임대는 다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이웃집에 누가 뭐를 후원해 준다 그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우선 부정적인 면만 이야기 할게요 부정적인 면을 보면 우리집에는 왜 안주냐 이런 항의전화를 예를 들어서 후원회에서 김치를 100

세대 후원이 왔다 그러면 아파트에 다 줄수는 없잖아요. 우리로서는 최선의 어렵고 단독가구, 무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세워서 해주는데 전화가 불통이 되요. 왜 우리집은 안주냐 그러는게 영구임대의 단점이에요

Q: 그럴 때 좀 곤란하시겠어요

A: 예 할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는 김치받았으니까 빨리 가서 동사무소에 받으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럼 왜..

Q: 아.. 나 받았으니까 알려준다는 이야기죠

A: 예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Q: 그럼 선생님 수급자들 신청을 하러 오면 초기상담은 대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처음에 딱 왔다.. 신청하러.. 그 진행과정 있잖아요

A: 처음엔 우리가 왜 어려운지 상담부터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Q: 그럼 작성해야 서류나 이런 것도..

A: 있어요 신청서류 일단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된다 안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사를 할 때 왜냐면 우리가 자산조회 올리는데 있어요 그게 보통 7일에서 10일 걸리면 우리가 처리 기간이 14일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올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초기 상담을 하지만 일단 자산조사를 올리고 그리고 이후 조회는 통합조사팀의 사회과에서 있어요 우리가 책정하는게 아니고 그 쪽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사.. 초기조사 상담해서 올려요.. 그럼 그쪽에서 자산조회 해서 안되는 사유까지 통보하게 되었으니까 요즘은 그렇게 처리를 해요 된다 안된다..

Q: 예전보다는 업무가 덜어지신 거예요?

A: 더 뭐라그럴까.. 덜어졌다고 볼 수는 없구요 일단은.. 옛날에는.. 똑같죠

Q: 그럼 별 차이가 안 느껴지시는.. 그런거예요?

A: 통합조사팀이요?

Q: 예 그렇게 조사팀이 있어도 특별히.

A: 아니 통합조사팀이 있으면 .. 덜어지긴 덜어졌겠다.. 자산조회라든지 방문은 그 쪽에서 조사를 해서 살살이 조사를 하니까 .. 우리는 오면 방문을.. 책정이 되면 수급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방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은 없으니까.. 일은 크게 줄었다기 보다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관리되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정했을 때 그런 서류를 참고를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또 대화하고 이런 건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Q: 선생님 그럼 초기상담 하실 때 민간 자원 지역사회 사회복지관이랑 연계나.. 자원을 연계해주신 경우도 있으신가요? 수급자가 어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어린이 집에 보내야 된다가나 그런데 아직 차상위계층이라서 안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마음은 안타까운데 수급자로..

A: 아니 그러니까 할머니같은 경우에는 어떤.. 후원자들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같은 경우는.. 우리 동사무소 주위에 노인병원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서 노인병원을 자기네들 홍보도 하면서 진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간병인값 안받고 봐주겠다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데로 우리가 후원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주고 그런 일도 있죠 상담을 하면 수급자는 되지 않더라도 그쪽에서 가격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라 어렵다 해서 연기해 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Q: 선정 기준이 몇가지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 14일 안에 해내기는 진짜 어렵다 이런 기준이 혹시 있으셨어요?

A: 부양의무자 조사할 때죠 부양의무자 조사할 때 왜냐면 타시도에 살고 이러면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죠 그데 지금 통합조사팀으로 갔으니까 근데 아마 그거는..(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 함께 근무하는 동료와 인터뷰 진행 =

Q: 아.. 선생님보다 선임이신거예요?

A: 아니 선임은 저긴데요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젊고 이러니까.. 같이 이야기하고..

Q: 선생님께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거예요?

A: 국민기초량 자활이랑..

Q: 아 선생님 자활담당하고 계세요?

A: 의료급여.. 아까 특별지원.. 그러니까 업무가 좀 다른 그건데..

Q: 잘됐네요 안그래도 자활쪽 여쭙보고 싶은거 있었는데 여기 초기상담하러 오신 다음에 조건 부가가 되시는 분이 그쪽으로 연계 되신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한테 근로능력 판정을 해서 배치를 하시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를 보면 자활 사업 안내를 보면 근로기준 표가 나오잖아요 판정..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표를

A: 그 표를 활용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람들 거기에 맞춰서 보내면 사업장이 다양해 졌는데 사업이 한정이 되었고 거의 대부분 청소나 이렇게 한정 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사람들이 그거대로 처음에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아 그 사람이 점수표에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가야 되는데 근로유지형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진입형으로 가야 되는데 더 낮은 단계에 있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보냈어요 처음에는

Q: 후견기관쪽으로 보내신거예요?

A: 그쵸 시장진입형으로 당신은 점수표가 높은 점수인데 왜 이 단계에 있냐 해가지고 안간다는 사람 억지로 보냈어요 근데 그게 안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냐면 시장진입형으로 갔다가 안하고.. 솔직히 그게 자활이 성공이 되려면

진단서부터 없애야되요. 진단서 딱 내고 다시 돌아와요.

Q: 이유가 뭐라고..

A: 이유가 나는 그렇게 힘든 일을 내가 할 정도면 내가 수급자를 하지도 않을뿐더러 나는 이정도 일 할꺼면 식당에서 일하지 이정도까지 자활사업하고 싶지 않다 나도 뭐 아픈 사람이고 진단서 내고 안 하겠다.. 해서 근로유지형으로 떨어졌어요.. 저희쪽에서는 솔직히 진단서 내면 근로무능력자로 처리를 해야되잖아요 6개월 있으면.. 솔직히 이 사람 생활실태를 봐서 여태까지 일하던 사람인데 더 강도 높은 일을 시킴으로서 본인이 진단서 내고 쉬는 거 보다는 차라리 근로유지형이라도 시키면서 생계비를 적게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근로유지형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Q: 그럼 선생님이 전부 관리하시게되는 인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로유지형이면 동사무소..

A: 예 그렇죠 근데 저희 동에서는 솔직히 근로유지형을 관리하는거 자체가 데리고 나가서 일을 시킨다든가 이러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복지관 쪽에 파견을 해요

Q: 아 복지관에서도..

A: 예 근로유지형으로 시켜요 그리고 동네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집이랑 가깝고 그리고 애기들 어린애들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끝나고 바로 올 수 있고 접근성도 있고.. 다양하게 일을 줄 수 있잖아요

Q: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A: 독거노인들 돌보는 거 있잖아요. 도시락 배달도 하는 거 같고 그리고 급식, 청소,

Q: 그러니까 사업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A: 많지도 않고 근로 능력표대로 이사람들이 가지도 않아요 거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없고 진단서 내면 어떻게 할거예요.. 진단서 자체가 문제예요

Q: 혹시 그럼 후견기관의 실무자분하고도..

A: 예 알아요. 친분이 있는데

Q: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

A: 후견기관쪽에서는 이런 사람 못받는다 물어봐요 그사람들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해서 분명 의지가 없겠죠 수급잔데 얼마나 의지가 없겠어요

Q: 조건부수급이면 의지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죠

A: 아니예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이분이 2000년도부터 거의 봤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해서 생계비가 더 나오고 이런 근로유인을 할만한 그게 없잖아요 보충급여잖아요 나는 안해도 되는데 한다는 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업장까지 도대체 올 필요가 있냐 동네에서 가까운 복지관쪽에 일을 하면서 생계비 받으면서 어차피 근로를 해야된다면 그정도 쉬운 정도 일을 하면서 하고 싶지 누가 뭐 높은 단계의 일을 해서..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후견기관쪽에서는 상담을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만 받긴 받는데 빠꾸를 많이 당해요. 행정기관 보냈다가 후견기관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죠 니네 못하면 우리 안 받는다고 돌려보내요. 그럼 동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돌려보내면.. 받아야죠. 그렇다고 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후견기관에서 못 받는다는데 울며 거저먹기식으로 받아야죠.

Q: 그분들 일하는 걸 보셨어요 혹시 복지관에서?

A: 저는 봤죠

Q: 느낌이 어떠셨어요?

A: 솔직히.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나?

Q: 아뇨, 아닙니다.

A: 그럼 솔직히 이야기 할게요 이분들이 솔직히 뭐.. 자기가 ..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건부과니까.. 어쩔 수없이.. 시간때우기식이에요 말하자면..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9시부터 3시잖아요 근로유지형은 그 시간내에 강도를 줘.. 많이 시키면 인터넷에 떴어요 얼마전에.. 내가 뭐.. 공무원만 인권이 있고 자기는 이정도 일 이래저래 시키는 거 싫다 이거예요 이정도 나갈 정도면 자기는 안한다 이거예요 요즘 진짜 시키지도 못해요 예전에 하난 이렇게 있었었는데 어떤 분이 몸이 좀 안 좋긴 했는데 저희가 볼 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분이예요 가사도우미나갈 정도는 됐었어요 게시판에 진단서 올린다는 거예요 왜올리냐 그랬더니 가혹하게 시킨다고.. 말도 안되죠 아니 원래 9시부터 3시까지 일을 시킨다는 건데 아침에 한시간정도, 오후에 한시간정도인데, 그정도 강도도 못한다는 거는 말도 안되죠 그러니까 일 자체를 때우기 식이지 그거를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고 위에서 주니까.. 눈치 보고 해 이런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사람들은 되게 당당해요 당당하고 니네가 뭔데 이런 일을 시켜 나 아픈 사람이야 다 진단서 나와요 솔직히말하면 위염으로라도 끊어와요 솔직히 말하면 진단서 들이밀면 끝까지 .. 나중에 인터넷에 올려요 복지부에 질의해요.. 그러면 복지부에서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진단서 나왔는데 왜 안 쉬게 해주냐 끝에는 저희가 다치잖아요 진단서 까지 들이밀면..

Q: 선생님 그럼 선생님만의 근로능력 판정 기준이 혹시 있으세요? 이사람은 동사무소에서 근로유지형 하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다

A: 그거는 가구 여건을 좀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애기가 어리다거나 어린이집 갔다올 시간에 그 시간에 집에 있어야되잖아요 갔다 오고 나면 그쵸? 그리고 간병을 해야 되는 가구가 있어서 떨리는 못간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의지 있잖아요 그사람의 수급자 범위 안에서 하고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걸 배워서 진짜 취업을 하고 싶은건지 그거에 따라서 저는 근로유지형으로 할지 아니면 의욕이 있고 다른거라도 배우고 싶다 하면 다른데 보내든 그렇게 해가지고 ...

Q: 급여 증지 사유가 몇가지 있잖아요 선생님들 각각 급여증지 사유에 대해서 발생한 케이스나 그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 얘기 좀 해줄 수 있겠어요?

A: 일단 취업같은 경우죠.. 가구원 중의 취업 아니면 부양의무자 중의 소득증가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가구원이 예를 들어서 전출가구에 소득이.. 그런

Q: 아 전체가구원 중에 빠져나가니까..

A: 예 취업해서 가니.. 쉽게 말해서 취업이죠.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이런거 많죠..

Q: 자활 조건 불이행도 있잖아요

A: 있는데 불이행한 경우가 ..말했잖아요 진단서를 가지고 딱 첨부하기 때문에

Q: 아 자활사업 참여하십시오 했는데 참여 안하시다가..

A: 아니 그건 아니고 처음에는 한다고 해요, 한다고 하다가 몇주 다니다가 나오기 싫은 거예요 억지로 상담을 해서 자활을 해라 근데 나중에 나가기 싫고 몸이 좀 아프고 하면 무조건 진단서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럼 불이행으로 할 수도 없어요 조건제시 유예로 빠지던가, 조건부 제외로 빠지든가 부가 제외로 빠지지 불이행.. 왜냐면 진단서는 다 나오거든요.

Q: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으신가요?

A: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죠 일하기 싫으면 진단서 들이 미니까..

A: 잠깐 이게 약간 그런 사람들의 케이스를 이야기하다보니까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그런 케이스를 이야기 하는거지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체가 있어요. 녹음하시니까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해서 잘 해야 될거 같애

A: 불이행하는 케이스는 한 분 있었는데 하남 2동에도 한분 있었고 여기도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알고 봤더니 따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신고

를 안하고 연락이 안된 상태였었고 한분은 난 일 못하겠다 차라리 다른 일 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소득신고 해서 ..

A: 그리고 선생님 선생님 따로 분야를 있어요?

Q: 아니에요.

Q: 저희는 같이 지원했기 때문에.. 아까 사후관리 어렵다고 하셨는데 자활 급여 받으시는 분들 사후관리 하셔야 될거 같은데 혼자서 다 하기는 힘드시잖아요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고 요즘에 사례관리도 이슈라서.. 팀원 짜기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방식들이 있으신가요? 아까 통반장 많이 활용하신다고 수급자 발굴할 때.. 사후관리도 그 분들이 도와주시거나 이런 방법은..

A: 그런건 없어요 우리가 다해요 거진 다하고 예를 들어서 후원자 같은거.. 사후 관리는 직접 담당자가 모든 책임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체제에서는 보건복지부.. 아직까지 담당 체제에서는 담당자가 무조건 다 책임인 거 같아요

Q: 자원협동가들이 돕는다던가 이런건 없구요?. 그럼 지역의 복지관하고는

A: 연계는 요즘에 되기 시작해요.. 요즘 그런거는 많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까지는 복지관 사업을 해서 큰.. 그것도 대답하기가 좀 힘든 게 여기 온지가 우리가 담당이 다 얼마 안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여태까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는 어떤 사례관리가 생기면 우리도 복지관에서 사업같은거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같은 케이스도 아빠가 노동일을 나가야 되는데 애들을 돌볼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일을 많이 못하겠다 해서 자활을 해줬고 애는 공부방이라든지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을 연계시켜 주려고요. 그런식으로 연계가 되다는 이야기죠

Q: 따로 모임은 없으세요? 복지사나.. 여기

A: 모임은 없어요 모임은 없고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할 때 서로 전화해서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도와줄 길 없느냐 서로 그래요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오고.. 그런 연계로 있지.. 이제 그게 주민서비스가 앞으로 국가에서도 그걸 하는 거 같더라고요. 07년도 부터는.. 서비스를 앞으로 그걸 계획하는 거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Q: 예전에 대전에 왔을 때 복지만두레가 있던데요.

A: 그거 그러니까 그건 담당자가 많이 지원을 해주죠..

Q: 지금도 복지만두레 있지요?

A: 동마다 틀리니까 근데 저희 동에는 없어졌어요 거진 없어졌어요 활동을 중단할 정도..

Q: 예전에 대전 쪽방지역 갔을 때 그쪽은 복지만두레가 잘 되고 있었거든요

A: 그랬어요 지금도 연결이 있긴 있어요 그당시에는 일사일 결연이라 그래서 이런 후원자를 우리들한테 의뢰를 했어요. 한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도시철도도 있었고 아니면 라이온스 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서 이제 한명씩을 어려운 사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도와준다든가.. 지금도 우리가 그 일사일 결연에서 한 열세대 정도는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Q: 그런데 이걸 위해서 조직화되거나 모이시거나 이러지는..

A: 근데 그게 일사일이라든지 그때는 약간의 시장님의 특수시책에 의해서 도시철도 같은데서 그런 사업을 하라 그래서 우리한테 의뢰가 왔지만 의뢰오는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기관도 없고 회사도 없고.

Q: 왜그리죠?

A: 경기가.. 글썽 그건 모르겠어요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그렇고 그때 했던 시장.. 그때했던 저기는 계속 하고 있고 .. 열세대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데 글썽요 그때는 약간의 강제성을 띄었을까? 근데 그거는 아닐거구요 모르겠어요 그거를 자꾸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거기까지 나가서 개발하고 이러는게 담당공무

원으로서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업무자체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민원 전화 쓸데없는 전화 예를 들어서 그런 전화가 너무 많아요 시시콜콜 ..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까지 원하느냐면 아프다 병원에 갈 누구..

Q: 좀 대달라..

A: 아니면 여기 찾아왔어요 나 다리아파서 못가니까 우리집까지 데려다 달라 아주 요즘에는 진짜 너무.. 안했던 물론 그거는 우리가 인력장도 많고 바쁘지 않고 그러면 얼마든지 해줘야 할 의무일수도 있어요. 공무원으로서 근데 너무 당당히 요구를 해 요즘에는 그런 민원 서비스들이 그런걸로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 저기는 안된거 같애 그저께 있었던 케이스데 어느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우리 공익 시켜서 모셔다 드린 .. 거진 한달, 일주일에 두세번은 와요

Q: 그 할머니가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A: 거동이 좀 불편한 분이긴 했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모셔다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동 불편하다고 이야기 안해도 우리가 거동 불편하면 공익이라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Q: 꼭 이 안에서 말고 보건소에 방문 강사도 있고 장애인 활동보조도 있고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지 않나요?

A: 그게 바우처 사건도 있는데 그게 자부담이 들어가고 신청률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이 국민기초수급자들은 오늘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할게요

Q: 예

A: 그분들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돈을 이렇게 내가 지불해서 한다는 거는 생각을 못해요.. 지금도 의료급여가 처음에 본인부담제가 1000원씩.. 이러한 거에 대해서 문의가 엄청 와요 그런게.. 왜 돈을 내야 되느냐 항의도 하고 할머니들은 모르니까 시책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거 답변하기에는 진이 다 빠지는 거야 뭐 시행이나 그런게 좀 바뀌면..

Q: 그럼 반상회나 이런걸 좀 활성화 되면 한번 가서 딱 설명해주면 되지 않아요

A: 반상회도.. 근데, 그 시책을 읽어보면 공무원도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의료급여 담당인데 저도 공부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하고.. 반장님들 가서 얘기해준다고 그걸 이해하시지도 못할뿐더러 말한다고 누가 그걸 수급자한테 다 퍼트릴 순 없잖아요

A: 그런데다가 그사람들 개별 보호.. 보안 이런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생활 보호.. 그리고 또 뭐냐면.. 뭐 하려다 잊어버렸다.

Q: 그럼 선생님 생각하시는 동안 선생님 바뀐 의료급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A: 제가 알기로는 1종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생긴거예요 원래는 계속 무료였잖아요 월 6천원 한도내에서는 무료고 병원급여에 따라서 틀리고 5천원, 1500원, 6천원.. 1차,2차,3차 다 틀리고 그 6천원을 넘어서면 본인이 돈을 내는거예요 그대 본인이 돈내는 게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맨날 물리치료를 받아왔어요 한의원에서.. 그럼 갈때마다 한의원이 1000원인데, 1000원을 ..6번밖에.. 나머지는 본인이 다 해야되니까.. 그러니까 선택병원을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의원에.. 거긴 계속 무료거든요. 근데 문제는 선택 병원이라는 거는 한쪽만 선택을 하는 건데 그 병원만 무료지 다른 데 가려면 의뢰서 없이는 또 못가잖아요 그 이야기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할머니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선택병원을 하면 구속이 되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세요 돈은 당장 자기 손에 안 드니까..

Q: 저희 조금 아까 만났던 수급자 분은 그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 보름에 한번씩 가서 약을 이만큼 씹 타오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었다는데 약값을 맨날맨날 계산해가지고 6천원이 드는거냐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A: 아니죠.. 방문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달에 두 번가면 한번 갈 때 천

원. 방문때만이지 약값은 아니고 근데 그건 있죠 선택병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고혈압으로 두군데 병원을 다니면 안되죠 한군데만 다녀야 되는데 두군데 약.. 만약에 한대를 갔어 그럼 한달이 30일이면 60일로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한달에.. 만약에 약을 두군데서 타왔다면 의료급여 일수가 많아지니까 선택병원을 해야되요 나중에.. 그런거 빼면 상관없어요. 똑같이 하시면 되요.

A: 내가 아까 이야기 한거는 너무 법이 자주 바뀌니까 그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경로연금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부양의무자라든지 보는 각도라든지 그게 너무 다르니까 기준이 너무 달라요 그걸 한 가지로 통일해가지고 이 사람은 차상위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나눠줬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Q: 지금.. 소득기준을..

A: 아니야니 그게 아니라 노인 같은 경우는 다 더해서 부양의무자 다 더해서 나누기 가구원 수를 해서 따지잖아요 근데 다른 수급자 같은 경우 그게 아니잖아요 부양의무자 기준 따로 있고 수급자 기준 따로 있어요 또 모부자는 부양의무자를 안봐요 완전히 기준이 난립이 된거예요 시책이 점점 많아지는..

A: 우리같은 거기에서도 다 갑자기니까는 또 자주 바뀌고 이러니까는 장애인같은 경우도 3년전에 봤던 업무를 지금 보려면 너무 생소해요

A: 이런식으로 하면.. 물론 같은 기준을 해서 소득 인정액을 110, 120, 130 이런 식으로.. 똑같은 기준인데 소득인정액 100, 120, 130 이런식으로 기준을 달리하고 부양의무자도 100%, 120% 이런식으로 하면 될걸 다 다르게 특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수가 자꾸 많아 지는 거 같아요. 예외를 자꾸 두다 보니까.. 저희는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솔직히.. 다 찾아서 하고

A: 그때그때 정말 실수를 해서는 안되니까 바뀐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하기는 하는데 너무 많더라 이야기지 왜냐면 담당 의무자가 옆에 없으면 또 그걸 보고서 해야 되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좀..

A: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상위부서라 그러잖아요. 복지부에는 여성가족부 이런식의

로 나뉘잖아요. 자활..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만의 기준이 다 틀린거예요 솔직히 깔때기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다 똑같아요 책이 이만큼씩 한권씩 나오는데 밑에서는 동에서는 니네가 알아서 배워서 해라라는 식이니까 위에서는 통합을 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자기들 부서만 늘리잖아요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거죠

Q: 선생님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A: 아니 교육은 계속 하긴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위에서.. 위에 부서부터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계속 늘리면서 자기들 기준을 각각 달리하면서 니네가 알아서 해서 적용을 하라는 식이니까 감당이 안되요 . 어떤 체계를 한가정에 대해서 똑같이 해놓고 이사람은 경로연금.. 뭐 .. 기준만 다르면 됐는데 여기는 부양의무자를 보는 거 있고 여기는 안 보는거 있고 그런 기준이 틀리단 이야기죠

A: 부서 자체의 의미도.. 통합이 되어야 해요. 지금은 안되었고 커지기만 하는 거예요.

Q: 급여 별로 기준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시고...?

A: 선정기준 자체도 다르고 급여도 다르고, 그쵸.

A: 업무대행할 때 자기가 맡은 거에 열심히 해서 하지만 업무대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같은 경우.. 더군다나 우리 같은 큰 동은.. 조그만 동은 골고루 다 보고 하니까 괜찮겠지만 ... 아니 장애인 같은거 3년 안 맡다가 다시 보려면 정말 생소하다는 이야기지 그정도로 많이 바뀌고 틀리고.. 바뀐 다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좋은 거지만 그래도 어떤 기점은 똑같아야 하지 않느냐

A: 제도는 자꾸 늘어나는 데 버리지 않아요 필요한 거는 버리는 것도 솔직히 혁신이거든요 버리지 않아요

Q: 어떤 걸. 그럼?

A: 예를 들어서 제가 노인을 잠깐 봤을 때 병원가서 건강검진 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솔직히 다 하고 계세요 노인분들이 다.. 검사 하려고 하면 사람 모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안한다고 하세요 다.. 자기는 건강검진을 다 했고 다니고 있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사람을 어거지로 끌어내가지고 해야되는 사업이에요 전 산등록까지 해야되요. 이런거는 몇가지가 필요없는 사업은 없앨건 없애요 진짜 필요한 것만 하고 해야되는데 없애진 않아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자기 부서일 없앤다는 거 자체가 안되잖아요

A: 한 제도를 없애기가 쉽지 않은 거는 위에서 그렇게 아니냐 . 그런 뜻인거 같애..

Q: 그럼 다시 기초생활급여로 넘어가서 질문을(웃음)

A: 하하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Q: 아닙니다.

A: 이건 진짜 우리가 부정적인 것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한거지 그런거는 우리가.. 기준을 보세요

Q: 가구별 급여가 정해져 있잖아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말씀을 좀 해주세요 각각 이왕 두분이 오셨으니까

A: 내가 생각하는 것은 기준이 월급쟁이들이야 진짜 자산조회 이야기에요.. 자산조회 결과.. 노동같은 게 너무 안나가니까 그 기준이 같은 동이라도 담당자라도 이게 좀 틀린 거 같애.. 그 소득신고하는 그게 .. 그럼 거기에 따라 소득신고 하는 거에 따라 생계비가 나가잖아요 나는 내 요점은 그거고 그 기준.. 글썸..

Q: 뭐 1인 가구 같은 경우 37만 얼마를 받고..

A: 걱정하다든지 그걸 물어보시는 거 같은데 저는 그건 걱정하다고 생각해요

Q: 모자르다고 맨날 그러지 않아요 할머니들이..

A: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끝이 없는데요 저희로서는 .. 저는 그냥 걱정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유 없이 왜냐면 올리고 자꾸만 이러면 끝이 없더라구.. / 그리고 너무 집착을 하게 되요. 나라에 주는 돈에 집착을 해서 수급자를 탈피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지면..

Q: 복지의존성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A: 그쵸 의존성에서 탈피를 할 수가 없어요

A: 대물림 까지 있어요

Q: 수급도 대물림해서요?

A: 대물림 되요.. 집안 자체가 수급자면 그 형제들이 수급자체가 대물림 수급자에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 소득신고를 어떻게 하면 수급자 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급자 상담을 하면 얼마까지여야지만 수급자 재산이 범위안에 들어옵니까 그렇게 묻지 내가 어느 생활에 얼마를 받는데 수급자가 됩니까 하는 케이스는 좀 드물어요. 그게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참 그거 대답할 때는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구요 지금 현재 처해있는 생활이 어떠십니까' 하고 제가 다시 묻는 케이스예요

A: 급여를 줄 때 이건 제도의 문제이긴 한데 근로 능력이 있는 지 없는 지 그거에 따라서 똑같은 동일 급여잖아요. 예전에는 성별, 연령별 이렇게 인구 통계학적으로 쪼갠잖아요. 근데 다시 인구통계학적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수급자 떨어지면 큰일나는 줄 알아요. 젊은 사람들이 한번 되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Q: 젊다면 연령대가 대충..

A: 연령대 30-40대죠.. 여자분.. 30-40대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뒤에서 일을 하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수급자라는 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노인이 일 못해서 하는 사람들이랑 젊은 사람들이랑 물론 이 사람이 질병이 있긴 하지만 중대한 질병이 아닌 이상에는 급여를 달리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예 안주던가.. 이 사람한테는 필요한 급여만 주는 거죠. 의료급여라든지..

Q: 급여가 분리가 되면.. 오히려 그렇게 줄겠다

A: 그죠. 오히려 연령에 따라서 분리하는 거예요 똑같이 주지 말고.. 아니면 아예 일자리를 줘요. 자활 쪽으로 일자리를 줘요.. 일자리를 줘버리든가 급여를 주지 말고.. 급여를 젊은 사람한테 주면 안 될거 같아요.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A: 또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면요 한번은 신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모자가정인데 애기가 갓난 애기였어요 애기 때문에 소득이 없었어요. 애기를 본다고 소득 신고를 안해서 소득이 없었는데 그 어느 가게에서 일을 한다.. 본인은 절대 신고를 안했죠 그리고 우리 서류상에는 애기를 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소득활동이 없다고 왔는데 신고가 들어왔어요. 조사가 다음 날 나갔죠 사실은.. 나갔는데 정말 일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소득신고를 해라 했어요. 그런데 그 애기는 누구한테 맡겼냐면 이웃집한테 맡긴거야.. 물론 이 여자는 생계비 갖고 생활력이 있으니까 그 갓난 애기를 자기가 돌봐서 국가에서 다 받을 수 있지만 한푼이라도 더 벌고 싶어서 그런거예요 사실은 이여자.. 그 취지는 참 이쁘더라구 자기 갓난 애기를 돌보지 않고 남한테 맡기고 돈을 번다는 건 참 좋잖아요 어쨌든 당신은 소득 활동을 하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해라 했죠. 그 다음날 어땠을 거 같아요 그 사람 소득 신고 했을 거 같아요?

Q: 일을 관두었나요?

A: 일 관뒀죠. 그 이야기에요 쉽게 표현하면 국가에서 소득신고를 하면 그 만큼 생계비가 줄고 이러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지..

Q: 그거는 보충급여 방식.. .. 보충급여 방식이기 때문에 일을 안하게 되는 거죠..

A: 그거예요 제도가.. 그게 모순점이라는 이야기죠. 누구는.. 그 여자는 국가가 인정하는 국민 보장법에 의해서 돈을 받고 할 수 있지만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그 여자가 얘기를 그것도 우리 생각해보면 나쁜 거지만 그 여자는 속인거가 나쁘지만 일자리 갖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수 밖에 없지 일을 안 하죠. 그 부분이 제일 에러점이 그거죠 우리로서

Q: 그 통합 급여.. 보충 급여 이야기는 선생님들이 다 하세요.

A: 그건 진짜 필요해요

A: 정액으로 해야 될거 같애 인구통계학적으로 해서 정액급여 있잖아요

Q: 필요에 따라서 주면..

A: 그리고 18세가 되면

Q: 그러니까 정액 급여.. 욕구에 맞춰서..

A: 그러니까 노인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 기준안에 들어오면 같은 급여액을 주는 거예요 장애인 같은 경우 일 못하니까 같은 급여액을 주는 거예요

A: 그리고 자기가 일하면 일한 만큼 더 받고 .. 그 얘기지?

A: 아니아니 일을 하는 사람은 급여가 안 나가는 거지 인구통계학적으로 지금은 1인 가구 35만원에서 일을 하면 15만원 주잖아요 보충급여를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진짜 일 못하는 사람만 추려서 인구통계학적으로 추려서 정액급여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할 사람이 해요 아니면 진짜 안해요

A: 근데 그럴 경우 또한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 국민기초.. 65세 이상.. 우리 아까처럼 이야기하는 얘기 엄마 케이스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떨어졌지만 그냥 일을 할 때는 자기가 일한 만큼 그건 인정은 해줘야 된다 이말이지 내말은..

A: 그러니까 제말은 말이 약간 핀트가 안 맞었는데 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급여

를 주면 안된다는 말이죠. 제말은

A: 65세 넘어도?

A: 아니야니 그건.. 인구통계학적으로 해야겠지만 그거는 다시 조사를 통해서 해야겠지만, 기준을 세워야겠지만 그거를 보충급여 하니까 속이고 하는 경우나 두가지 경우가 생기잖아요. 속이고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일을 안 하잖아요. 수급자 대물림 까지 되고.. 오히려 보충급여 때문에 더.. 일을 안해요. 생산의 복지가 안돼요. 대충 자활안하고 시간때우고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Q: 자활사업에 잘 참여해서 기반을 닦아줬다거나 그런 케이스는 많이 못 보시나요?

A: 없어요 다시 돌아와요 시도를 하는 경우는 본인이 있지만, 수급자라는 제도 자체를 탈피하는 거 자체를 두려워해요. 특례자 같은 경우도 다시 일반으로 와요 수급자로 와요..

Q: 이유가..

A: 이유는 수급자에 대한 .. 두려움이죠 딱 떨어지면

Q: 다 떨어지니까?

A: 죽는다 자긴 아무것도.. 생활할 수가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급자라는 법적인 의존도를 그걸 벗어나기란 어려운거 같아요 한번 갔다온 사람은 반드시 10만원이라도 받던 사람은 떨어지면 난리나요. 그 의존도가 엄청나거든요 안돼요 잘..

A: 그리고 왜 아까 그 35만원이 예를 들어서 왜 1인 기준에 적정하다 하면은 국민기초에 대한 혜택이 전기로 감면.. 하여튼 그런 부수적인게 굉장히 많아요 어제 뉴스가 보니까는 대학교도 그런거 있더라구요 대학교.. 서울이런데도 보면 수급자에 대해서 그런 프로테지가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이 많기 때문에 수급자가 돈은 더 안 받아도 생계비는 안받아도 혜택이 너무 많다해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거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려고 안하는 거죠. 그런게 있어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어렵고 생활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법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게 수급자로서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것도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Q: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수급권이 어떤 사람에게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로능력이 없고 부양의무자도 없고 정말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A: 장애인 세대라든지.. 노인세대라든지.. 일시적인.. 솔직히 취업이 안되서 수급자 된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자리를 줘야죠 수급권 주지 말고 일자리를 줘야죠

Q: 수급권이라는 게 권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급권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권리기 때문에 와가지고 뭐도 해달라 뭐도 해달라 말 씀하시잖아요 그 권리라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솔직히.. 이걸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A: 근데 그런 케이스도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장애인 세대 정말 그런 세대.. 노인세대라든지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까 부정적인 면이 그런다.. 하면 우리도 막 화가 치미는데 공무원이라 짝소리 못하죠 진짜 그런 사람 있어요. 너무 심해요

A: 솔직히 말하면 전 학교 다닐 때 권리라고 배웠어요 못살면 받는 게 권리지 뭐 인간답게 살아야지 했는데 지금은 가난한 사람도 개인적인 문제가 큰 거 같아요 물론 사회적인 문제도 있죠 그 사람이 못배우고 하지만 의지만 있으면.. 그건 개인적인 문제가 큰 거 같아요

Q: 본인 책임이라는,?

A: 물론 본인 책임이 더 커요 사회적 책임도 있지만 본인 책임도 크고 권리는 아닌 거 같아요

Q: 일을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일을 안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난한 것과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가난하기 때문에..

A: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지만 그사람들이.. 다시한번

Q: 가난하다는 것과 일을 하는 게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거냐.. 일을 하는 데도 아까전에 개인적인 요인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A: 아니 일을 하는데도 물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요 가난하지만 일을 안하면서도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가난을 탈피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기가 가난하고 하면 어느정도 일을 해야지만 탈피.. 아니 탈피는 아니더라도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 어차피 일해도 가난하고 안해도 가난해. 차라리 난 수급자혜택받고 어차피 이래저래 가난하니까 이 범위 안에서 살래 이럴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이쁘죠. 솔직히 생계비를 이사람은 가난한 거에 대해서 아예 포기하고 술먹고 일 안하고 진단서 딱딱 내면서, 이사람은 가난하지만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일을 내가 생각을 하면서 근데 수급 돈 자체가 나가는 게 틀리잖아요 이사람은 일을 안 하지만 마땅히 나가지. 이 사람은 돈이 이제 감해서 나가잖아요 저희가 볼때는 이 가난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좋게 보이죠 사람이..

A: 가구원이 많아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데..

A: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별로 못본거 같애요 한번 수급자 되면 하던 일도 팽개치고 놓고.. 했었어요. 일을 했는데 수급권을 받게 되면 이게 보충급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안하게 되죠 진단서 내고 안하게 되요. 뭐 몰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못한대요. 난 이제 못한대요

Q: 선생님 각각 업무맡은 부분에서 사례관리란 뭘까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A: 사례 관리라는게 개별가구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도 해주고 문제점도 사정해주고 이런거 같애요 근데 사례관리라는 거 자체가 세대수가 50세대 정도 되야지 진정한 사례관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다른 업무 없구요 저희같은 경우 세대수가 너무 많고 솔직히 방문을 해야 되요 이 사람 가구가 어떻게 살고 있고.. 아프다고 하는데 애가 얼마나 아프지.. 이런거 솔직히 봐야 되잖아요 말로만 진단서 내고.. 아프다고 하면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람 문제점을 알수가 없어요 사례관리라고 하는게 그 사람 개개인 가구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해결해 주는게 사례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문제점 있나 상담도 계속 해줘야 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Q: 아까 540-550세대가 수급가구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A: 35명.. 고거밖에 안되요

Q: 아.. 상당히 작은 퍼센트죠

A: 작은 편은 아니죠. 보통 이정도.. 저희는 많은 편인데 차상위까지 합하면 좀 많아졌는데 많이 늘었었어요

Q: 차상위 분은 몇분이나 되시나요?

A: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합쳐서 45명정도 되요

Q: 선생님께서는 수급 받고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할 때 어떤 절차대로 상담을 진행하세요?

A: 우선 가구원의 상태를 봐요 누구랑 사는지,.. 상황을 물어보죠 어느정도.. 어떤 소득 활동을 하고 가구원은 뭘하는지 대충 물어본 다음에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혜택이 있는 데 그 중에 원하는 게 뭐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물어본 다음에 그 범위안에 저희가 대충 알잖아요 이사람이 범위안에 될거 같다 안될거 같다 되실거 같으면 상담실 와보셔서 상담하고.. 초기상담에서 데리고 필요한 서류..

Q: 대부분 본인이 다 작성하시나요?

A: 작성을 해와야 되요 본인이 원래 근데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건 적어드려야죠

Q: 상담 기준에는 들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A: 그런 사람들은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사위랑 딸은 잘 안도와주는데 사위 소득이 많아서 중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법에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따로 동마다 관리를 해요 이 사람은 어려운데 법적 범위안에 못들면 적어놨다가 쌀 같은 거라도 그 사람들 좀 주고 어려워니까 실제로는 어려워니까

A: 후원자들.. 이런 영구임대가 끼었고 수급자 수가 많으니까 후원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10세대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있지만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어려운 가구는 적어놨다가 주죠

Q: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있지 있지않나요? 활용을 좀 하시나요?

A: 그런거 있어요

Q: 그것도 활용을 하시나요?

A: 그렇죠

Q: 어떤 경우에..

A: 사랑의 열매.. 이번 사랑의 열매.. 긴급 지원 그거는 의료비 지원같은 게 많구요

Q: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A: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에서 해가지고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거 활용을 많이 해요. 그러면 수급자들이 병원이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생계비 60만원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긴급으로 발생했을 때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가 입원을 해서 병원비는 얼마 안나왔지만 거기 병원입니다 이러면 생계비 같은거 지원을 해주니까 애들 학교 들어갔는데 교육비가 없다가 뭐 그런거.. 그런걸로 해서 꽤 많이 해요

Q: 아까 저희 만났던 분도 자기가 너무 급하게 병원비가 생겨서 부탁하니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A: 그걸로 많이 활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크게 어렵다든가 이런 수급자가 국가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은 큰 문제점이 없는 거 같아요 하다못해 이사를 가는데 보통 아파트 임대 보증금이 200만원 이거든요 없다면 거기서 60만원 지원해주고 생계비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 근데 이제 근런 사유 없이 노동력은 있고 이런 가구 혜택만 받을 때가 안타깝긴 하죠 근데 거진 차상위로 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Q: 예? 무슨말씀인지

A: 국가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은 다 혜택을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Q: 그런데 왜 빈곤한데도 수급을 받지 못하거나 이런분들 계시잖아요 흔히 말하는 사각지대요.

A: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 긴급발생.. 아까도 이야기 하는데 사각지대라는데 아까 부양비, 사위소득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는 안되는데 뚜렷한 어떤 도움 없이 아니면 아파서 병원비 발생 안했다든지 이러면 그런 집은 좀 어렵죠

Q: 발굴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분들을..

A: 그런 분들을 동반장님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이 와요 생활이 어렵다 부적합 사유로 떨어지는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예요 생활이 어렵다. 우리가 쌀 같은거 ... 그렇고 밖에 지원이 안되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저기가 없고 예를 들어서 어렵다고 매일 오는 할머니가 한분 계셔요 단골로 오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분이 사위는 고위직이라 그럴까 좋은 회사, 좋은 직장에..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할머니는 맨날 어렵다고 오죠 우리로서는 도울길이 없는거예요. 그러면 쌀 같은거 들어올 때 20키로 도와줄수 있는 거 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할머니 말에 의하면 사위가 안 도와준다 이거지 여태까지 생활은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수급자처럼 35만원이라든지 경로연금이라든지 그러면 40만원이 넘잖아요. 그런 돈에 비해서는 딸이 주는 액수가 적으니까 생활이 쪼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가 그 할머니를 상담하면서 느낀 거죠

Q: 여기 앞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안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겠어요

A: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그런 분들이 진짜 힘들면 힘들지 정말 수급권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진짜 좀 뭐라그럴까 그렇게 어렵다 이런걸 우리는 못느끼겠어요 그런 사각지대가 있긴 있어요

A: 빈곤 계층이면 최 하위층이잖아요. 이사람들은 자기 사생활은 말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수급권은 받으려고 그래요 수급권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거는 당연히 얘기 해야될 의무잖아요 변동사항이라든지 근데 그런거 까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얘기가 모자가정인데 태어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봐야 되는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우리가 수급권 주고 있기 때문에 화를내요.. 왜 내가 이런거 까지 너한테 이야기를 해야되냐.. 그럼 참 수급자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데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그사람이 너무 자존심 상해할 까봐.. 그렇게 까지 말한다는 건 자존심 상한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말해야 되는데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이..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이 사람이 최 하층민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거지 개인적인 그런 얘기

를 해줘야 되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자기는 그걸 의무라고 생각 안
 해요 돈만 받는 거를 권리지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의무가
 아니라고 .. 그냥 서류를 내세요 하면 짜증을 내요 왜 내야되니 안낸다고 버티고
 이렇게 되게 많아요 처음 신청할 당시만 서류를 내고 하지 나중에 관리는 어렵
 죠. 이 사람이 어떤 의무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요 좀 부담이 되는 거 같애요..

Q: 선생님 그럼 고지 의무에 대해서 그런 수급권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A: 신규들한테는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왜냐면 기존 사람들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자들 같은 경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해줘요 왜냐면 이사람들이 처음에 받던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아니잖아요. 변동이 생기면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지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된다고 이야기를 해
 요 다 알았다고 하죠 처음에 근데 나중에 전화해서 왜 이렇게 보내셨냐 이러면
 대답도 안하고 갖고 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죠.

Q: 그럼 급여 변동이 생기면 수급자랑 갈등상황이 벌어지지 않나요?

A: 갈등 있죠..

Q: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세요?

A: 도망다니죠.(웃음)

Q: 예를 들어서 급여가 줄었다든지...?

A: 사실 정말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칼들고 와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칼을 들고 와요. 저희는 사실 무서워요 사회복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는 있지만 솔직히 칼을 들이대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좋게 이야기 하는 사람
 이 어디있겠어요? 급여가 떨어지면 자기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칼들고 와요 진
 짜.. 거짓말이 아니라 니가 뭔데 내 돈 깎냐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해요 그냥.. 처음엔 달래다가 안되면 어쩔 수 없다 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 해요 찌르든 말든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쪽에서는 공무원이 어차피 법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 부르라고 난리.. 오히려 지가 경찰을 부르라고 하는데 그냥 안된다고 해요 안된다고.. 법에 따라 일을 하긴 하는데 갈등이 너무 많죠

A: 제일 안타까운 거는 노동력은 있는데 직장이 없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자기는 생활이 진짜 어려워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도 있고

A: 클라이언트 폭력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예전에는.. 지금까지 제가 볼때는 행자부에서.. 제가 이야기 예전에 했어요 상담실 내에 동사무소는 CCTV해야된다 왜냐면 너무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솔직히 정신병자들도 시설입소 안 시키잖아요 다 재가하잖아요 사회랑 어울려야 된다 적응해야 된다.. 그 사람 인권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희 일하는 사람 인권이 위험하잖아요 제가 CCTV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하는 말은 민원 보호 차원에서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만 인권이 아니잖아요. 저희 전화 폭력시달리죠 욕하고.. 맨날.. 벼레벌.. 뭐 듣지도 못한 욕하죠 뭐 폭력행사하죠 유리깨거나 이런것도 많아요 사실 와서, 신고하래요.. 이런식으로 저희는 클라이언트한테 되게 많이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경험하셨잖아요 잠 못자고.. 그리고 인터넷에 무조건.. 그 사람입장에서 인터넷에 띄우는 거예요

A: 그러면 공무원들은.. 불친절하다고.. 이해타산이 떨어지면.. 생계비가 떨어지면은 무조건무조건 불친절 하다.. 설명을 안했다 그런.. 항상.. 우리야 말로 녹음기 있어가지고 설명해드린 거를 들어주고 싶더라구요 근데 녹음기도 인권 보호 그런 거에 대해서 못하게 되었고동의하에서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것도 못하게 되었고 그런데 공무원의 애로점은 그런게 참 많아요 더군다나 인터넷에 띄우면 불친절하다고 띄우지 자기들 생계비 줄어서 그런 사유로는 절대 하진 않아요

Q: 다른 데는 분이 2개더라구요 선생님 그래서 공무원이 웬만하면 문쪽에 가깝

게 앓고 .. 그렇게 설치를 하거든요 여기는 문이 아까 들어오니까 하나 밖에 없어서 하나 더 내달라고 하세요. 여자분들이니까..

A: 그걸론 안되고 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해요

Q: 여기는 창도 다 다르고 하잖아요 불투명 유리고..

A: 좀 제재가 있어야 될거 같아요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해서 어떤 행정기관에 말하자면 폭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소신있게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법이 있는데 법대로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협박을 하니까..

Q: 급여가 주는 경우는 많이 있나요?

A: 많죠

Q: 어떤 경우에 주나요? 아까 말씀 하셨다 시피 취업했다거나 이거 말고..

A: 그거 말고 부양의무자 때문에 주는 경우가 제일 옥먹는 경우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떨어져 줄어드는 경우, 국민연금이라든지 보험에서 주는 연금같은 걸 받으면.. 공적이전으로써..

Q: 하긴 여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겠네요..

A: 그런 사유가 많죠 65세가 되면..

Q: 조건부 수급자 같은 경우요 조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급여 중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급여중지를 결정하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 급여중지를..

A: 생계급여 중지요?

Q: 예

A: 자활에서?

Q: 예 자활에서..

A: 그냥 뭐 주 3일에 연속해서 3일이상 불참한다던가 1/3 이상..

A: 근데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하면 하세요. 그전에 우리가 왜 안나오냐 전화로 이야기를 .. 서류까지 가기 전에 .. 문제점을 해결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Q: 이런 경우에 급여정지로 인한 갈등상황이 벌어진다거나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A: 자활로요?

Q: 예 있죠.

A: 관암2동에 있을 때.. 쫓아왔지.. 여자.. 왜 안나오냐고.. 조건불이행 했으니까 안 나온다고.. 내가 여러번 통화도 했고 시도 했는데 저는 등기로 몇 번 반송되게 보여줬죠 당신한테 했는데 응답을 안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하겠어요.. 중지한다 해서 중지했죠.

Q: 왜 반송이 됐죠?

A: 그 사람이 말했잖아요. 다른 데서 소득활동을 ..대전에 집이 여긴데 청주에 가서 소득활동을 한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받지도 못했고 나중에 알고보니까 나중에 통장을 보니까 돈이 안나와서 쫓아온 거예요 오히려 나한테 혼나야 될 사람이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자기가 막 큰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좋았었죠 그때..

Q: 주거급여같은 경우예요 현물급여가 수급권자들에게 도움이 되신다고 보seyo? 주거급여 액이 되게 작잖아요 집수리도 하고 이런것도 하고 하고 있는데

A: 별로 도움 안되는 거 같아요

Q: 여긴 아무래도 영구임대 주택이라 자가일 경우에는 연결이 가능하지만

A: 영구임대는 현금 급여를 공제하지 않으니까 저긴데..

Q: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A: 아니 근데 주택도 있어요. 현물급여 나가는 대상이 우리도 15명이나 있어요

Q: 주로 뭘 고치시던가요?

A: 보통 3년에 1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온 지는 1년 반 밖에 안되
서 잘 모르겠어요

Q: 집수리도우미 이런 걸 활용하고 계신가요?

A: 있어요 대동 복지관에 집수리 사업단이 있는데, 필요하신 명단을 그쪽으로 .. 근
데 그러기 전에.. 집수리도 하기 전에 집 샌다 뭐한다 동사무소로 다 연락이 와
요 후원자들 복지관에서 했던 후원자들이 있어요. 그럼 가서 도배같은.. 집단이
있더라구요 도배하는 사람들 그런 모임이 있어요 자원봉사에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전화해서 해주고 엇그저께도 보름전에도 이사집, 이사를 해달라 아예 그
렇게 와요. 그럼 있어요 또.. 네문가 뭐 이사 자원봉사 단체에서 그렇게 있더라구
요.. 대전시내에.. 그래서 그런 데로 해서 이사도 해줬고..

**Q: 전체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쪽쪽 정리해 놓은 브로셔 같은 거
있으세요?**

A: 없는데 우리 담당자들끼리...

Q: 뭐 만드셨어요?

A: 아니 이제 동구 내에서 전자결제를 떠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줄 사람 없나요
아니면 이런 이사집 도와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Q: 동구 전체에 인트라 넷이 있는 거예요?

A: 사회복지사 끼리 메일을 보내서.. 자기는 이런거 있으니까 필요하면 연락을 해라 이런식으로.. 우리가 거기서 적당히..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사짐..

Q: 이메일로..

A: 전자결제 우리 편지주고 받는 게 있어요 이메일로.. 쉽게 이야기 하면..

Q: 동고 전체에.. 그럼 그거는 어디에 개설이 되있는 거예요?

A: 전산망.. 우리 직원들.. 전산망통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사 끼리 협력해서 해주는 거 있고 MBC에서 아까 생계비 지원있다 하면 그런데 추천하세요 하면 뭐 동이 있으면 추천하고 그런식이에요

Q: 자원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A: 크게 불편한 거는 없었던 거 같아요 누가 뭘 한다면 후원기관들이 있더라구요 MBC, 사랑의 열매,, 복지관도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생명복지관, 하남복지관, 그런게 있으니까 그 쪽에 연계해주고 본인이 원하는 거는 우리도 될 수 있으면 100% 다 해주려고 노력했었구요 그리고 크게 못해준 케이스가 있다든가 이런거는 없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걸 찾아서 와서 해줄때, 단지 우리가 방문을 못나가는 거는 인정하고 본인들이 필요하면 와요, 전화한다든지..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 민원 같은게 진짜 업무량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가 출장도 못나가고...

Q: 영구임대주택 내에 부정수급자들도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A: 많죠

Q: 발굴하신 적이 있으세요?

A: 잡았어..

Q: 많이 소득차이가 나는 사람이었나요?

A: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수급자였는데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남편이랑 이혼한 상태였거든요 제가 조사할 당시는 .. 근데 애가 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차가 2대나 있대요. 그런 사람 아니다 모자가정이고 수급자인데.. 한번 가보래.. 몰래 갔어요 카메라 들고 가서 차번호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었나봐.. (그런 케이스 많아요 많아요 진짜) 차량이 계속 있는 거예요 2대가 .. 찍은 거예요 그리고 불렀어요 그리고 호적을 다시 때보니까 언제 혼인신고를 한거예요 신고를 나한테 안하고 몰래 해놓은 거야. 그래서 불렀죠 여자분은.. 그 남자 앞으로 차량 2대가 되있는 거예요. 조회를 해보니까. 불렀더니 나는 그남자랑 이혼할거래. 이혼 할건데 이 남자가 자꾸 자기 집에 온다는 거예요 자기 싫은데.. 그러면서 자기 차가 아니래.. 이젠 자기 남편차지 자기 차가 아니기 때문에 난 상관 없다 이런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줌마.. 사실 지금 아저씨.. 차가 계속 앞에 내가 사진찍은 걸 보여줬죠 이거 계속 몇주동안 찍은거고 아저씨 차가 맞다는 거는 이혼한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 같이 사는 거 아니냐 아저씨 차 아줌마가 몰고 다니는 거는 아니다 그건 아줌마가 몰고다니는 거다. 중지시켰어요

Q: 그건 정말 수용할 수 밖에 없는..

A: 그런 케이스는 좋은 케이스고 예를 들어서 서류상에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야기 하기가 땀땀하지만 정말 이사람들은 사실혼이었어도 동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싸울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정 안해요 죽어도 안해요 이런 케이스는.. 우리도 우리가 저요 진짜 맨날 가서 살수도 없고 이런 케이스는 오히려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혼인 신고를 안한 .. 없잖아 있어요. 우리도 알아도 그러니까 서류상 그걸 만들어 온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아까 표현하는 게... 2시에 갔더니 남자가 있는 거예요 모자가정인데 .. 소문을 듣고 간거죠 남자가 딱 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낮에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친척이래.. 누구냐고 .. 친척오빠라고 끝까지 우겨요.. 우리가 친척오빠라 그래서 상담하면 호적에 있어요 이혼을 했는데.. 주위에서 전화가 와요 저사람 모자가정이라 그랬는데 아니라고.. 남자 왔다갔다 한다고.. 갔어요.. 갔더니 남

자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서 얼굴을 보고 왔는데 끝까지 아니래요 심방은거래요. 와서 등기등본조회 했더니 그 남자인거예요 남편이었던 거예요 전남편.. 그래서 잡은 적 있어요 절대 사실혼은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인정을 안해요 그러니까 어렵죠

Q: 아참.. 형사같습니다.. 형사같애요

Q: 끝으로 저희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제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A: 아까 말한거.. 클라이언트 폭력.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어..

A: 소득 기준같은거 통일화 시키고 아까 같이 급여 주는거에 대해서 소득 같은게 정확히 예를 들어서 남자 노동자면 얼마 기준이 딱 일치시켰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왜 있잖아요 임금 뭐.. 노동법에서 의한.. 그런걸로 적용시킬 수 있게끔.. 급여가.. 자기 신고하기 나름이니까.. 통일성이 없죠 그사람한테 50만원 버는데 당신 70만원 벌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A: 그렇게 해가지고는 딱혀 들어가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90만원 번다고 고대로 하면 수급자가 생계비가 하나도 안나와.. 예를 들어서.. 근데 정말 이 사람은 우리가 봐도 힘들어..

Q: 장시간동안 말씀 감사했습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 조사지역 : 대도시
- 응답자 개인사항

성별	연령	학력	근속기간	자격증 여부
남	44세	대졸	18년	유

- 기관환경

읍·면·동사무소의 상담환경 - 조사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상담실 마련되어 있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음 - 조사 시 동사무소 안쪽 동장 table 옆 쇼파에서 인터뷰 함. - 수급자 상담 시 별도 상담실에서 하기 보다는 일반 민원과 같이 처리한다고 함.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임대주택아파트 단지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음. - 장기간의 근속연수로 인해 burnout 되어 있는 듯 함.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업무의 80~90%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의 이해도가 떨어져 같은 질문을 2~3번 반복해서 해야 했음. -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 질문 외 이야기를 더 많이 함. - 주민생활지원팀에 관한 질문에서는 인터뷰 자리 때문인지 이야기 하는 것을 꺼려 함(동장 옆 라인 table 인터뷰).

* 녹음파일의 음질이 좋지 않아 수급자의 답변뿐 아니라 조사자의 질문도 정확히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음. 또한 수급자가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여 수급자의 이야기를 부정확하게 기록하였을 수 있으니 녹취록을 전반적으로 세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녹음파일 1이 17분 20초쯤 부터 재생불가.

(녹음파일 1 시작)

Q: 금곡동사무소로 오신지는 몇 개월 안되신 건가요?

A: 2007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Q: 그럼 그 전에는..

A: 구청에 있다가 그전에는 또 동에 있다가..

Q: 그럼 이 업무는 계속 맡으셨던 거죠

A: 예

Q: 장소만 옮기시고..

A: 예

Q: 그럼 뭐 빠삭하시겠네요

A: 아니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한가지 업무만 보다 보니까 지쳤다고 할까...

Q: 일반직이신가요?

A: 아니 사회직입니다. 사회복지..

Q: 그럼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만 맡고 계신거예요? 복지업무 다른거 다 맡고 계

신거예요?

A: 금곡동에서요?

Q: 예 여기서요.

A: 여기서서는 거의 99% 기초생활보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Q: 여기 수급자가 많나봐요

A: 여기는 사회적만 12명에 담당계장 포함 총 13명, 그리고 수급자가 한 3천 5~6 백세대. 복지대상자 해가지고 경로연금, 보육료, 모부자 등 장애인 빼고 총 복지 대상자만 해도 10,000세대. 그리고 여기는 생계비 한번 주고나면 3,4일은 시달립니다. 많이 주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작게 나간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의제기를 하고 (흔히 말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리고 여기는 별집처럼) 그리고 여기는 거주자들이 짝 몰려있기 때문에 1단지 그리고 4단지가 영세민아파트거든요. 사람을 모아놓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서로의 생활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사는 방식은 다 똑같은데 부양의무자를 해가지고 아들 딸 해가지고 아들 딸이 왔다가지. 아들 딸이 왔다가고 잘 도와주는데 생계비는 왜 100% 다주고. 여기서서는 자료가 없어요 사실. 심증이 있는데 물증이 없다 이겁니다. 물증이 있는 사람 때려버리면 저항을 하거든요. 저항이라는게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자기들끼리 싸우고 와서 동사무소에서 풀어달라. 또 사실 장애인, 정신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말이 왔다갔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 특히 노인,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Q: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

A: 그리고 청각장애인 같은 사람들도 좋은 말은 다 알아듣는데 나쁜 말을 못알아 들어요. 여담이지만은 좋은 말은 다 알아들어도 나쁜 말은 '뭐라꼬요? 귀가 안들려서 그래' 그런 일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Q: 업무를 기초생활보장 하고 그 외 노인..

A: 그런건 없구요

Q: 기초생활보장만 하고..

A: 예 ..

Q: 그럼 이 업무만 90% 이상..

A: 예 시책, 기초생활관리, 사회복지일반..

Q: 그럼 다른 직원들하고 업무분담이 통반별로 구역별로 나눠서 하십니까 아니면 업무별로 구분하십니까?

A: 1인당 250세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12명에서 수급자 관리는 담당구역별로 250세대 다 하고, 아까 말한 노인이나 장애인은 개별업무, 단위업무로. 그렇게 합니다.

Q: 저희도 대상자들이 많은 구를 선택하다보니까 여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보가 다 교환이 되고 신고도 되게 많이 들어올 거 같은데. 주위에서 수급자 신청이나 아니면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A: 살고 계시다가 서로 사이가 좋으면 말이 없어요. 한잔 먹다가 싸워버리면, 니 한번 두고보자 양값음을..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 화살을.. 우리만 싸우면 되는데 그 화살을 어디다 두느냐 서로 부정수급자놈이지.. 그럼 싸움이 동사무소로 들어옵니다. 싸움이.. 그러면 통장 나가라 반장 쫓아내라.. (**)나가라.. 이 이야기가 한바퀴 짹 돕니다. 왜냐면.. 사실 알아보면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던 심증을 가지고.. 알고 보면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단서 내 놓고 흑가다 일하는 사람은 있어요.) 신고 오는 거는 사실 양심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그건 엄격하게 대처합니다. 왜냐면 단호하게 대처해야지 자꾸 말썽이 안나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전산이라든지 부양비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거는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특히 부정수급에 대

해서 금전적으로는 금융은 저희는 몰라요. 왜냐면 수급자들은 몇 번 타봐가지고 (받아봐서) 우리보다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금융조회하면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구청이나 복지부에 제공했다고 다 공문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냥 뒤 (돈을) 방석밑에 놔 두어도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기초생활하기 전에는 생활보호제도를 했다 아녜니까. 그때는 수급자들이 이렇게 박식하지 않았고 요즘은 받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몇 월달에 뭐 한다 몇 월달에 뭐 나온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욕 무지하게 얻어먹고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내용을 달력에 일일이 표시를 합니다.

Q: 수급자 발골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찾아오시는 분이 많나? 아니면 홍보를 하나?

A: 지금은 햇수가 7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구임대 단지는, 여기서 책정하는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수급자가 들어와 가지고 규정에 안 맞으면 바로 중지시키는데, 여기서는 거의 8할이 전부 전입자입니다. 부산 각지에서, 서구라든지, 동래라든지... 왜냐면 수급자 우선권이 있다보니까. 영구임대 단지이다 보니까. 전부 전입자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작년까지는 수급자 신청하면 동사무소에서 조사해가지고 구청에서 확인받고 이랬는데, 지금은 신청만 받아놓고.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날아옵니다.

Q: 어디서 날아옵니까?

A: 뭐 전기, 수도, 가스 등 체납자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날아 오거든요. 우리가 날아 오는대로 수시로 체크하고. 그리고 단독가구 같은 경우 자활하는 사람들 위주로 방문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에 자활하는 사람이 160명 됩니다. 그래서 1인 가족만 전부 추려가지고 24명이 영구임대 아파트만 돌아다녀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케이스웍 케이스(cA:se work cA:se)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Q: 그럼 자활대상자들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A: 그렇지요.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나 이런건 일지를 쥐가지고 동에 제출할 수 있으면 받아 오고

Q: 그럼 사례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A: 예. 동사무소 발급서류도 보내고 그 사람이 중지됐다 그러면 인편으로 보내주고, 받아올건 받아오고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듣고.

Q: 사례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네요..

A: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바닥계층이다 보니까 케이스마다 다 틀립니다.. 그 사람의 환경이나 성격이 그러니까.. 특수성이 그러니까.. 오지마라하는 사람도 있고, 가면 빨래해달라 청소해달라 같이 놀자 하는 사람도 있고

Q: 어르신들이 좀..

A: 예.. 또 가사도우미 해가지고 후견기관에서 요청하면 나가는 사람도 있고

Q: 그럼 민간기관하고도 연계가 잘 되나봐요 / 수급자 발굴할 때 복지관이나 그런데서..

A: 근데 좀 어려우면 일반 지역 같은 경우 통반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어렵다어렵다 하면 데려오는 데, 여기서는 어렵다하면 전화를 하거나 자기가 자발적으로 옵니다.

Q: 어.. 다들 정보가 있어..

A: 예 왜그러냐면 영구입대단지는 처음에 들어올 때 다 수급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들이 실직했다 이러면 다시 조사하겠으니 퇴직확인서 가져오시라고 하면) 다시 첨부해서 구청에 올려주거든요. 또 체크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군대제대하면 엄마 아버지가 수급자니까 자기들도 제대하자마자 바로 신고를 해요. 수급자 제대했다고. 자기들 의료급여는 군대가더라도 중지 안하거든요. 의료급여는 살아있기 때문에. 생활급여만 중지하기 때문에 알아서 다 신고해요.

Q: 그럼 거의 자발적으로 ..

A: 지금은 제도자체가 영구임대단지에서는 정착되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차가 있다 소득이 얼마면 된다는 것을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지요. 여기 근무하면 제일 좋은게 뭐냐면, 진단서 3개월 짜리 아닙니까.. 며칠까지 내라고 하면 보내면, 칼같이 내놔요. 안 내놓으면 중지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단서의무기간이 지나면 다시 내놔야 할 판이다 하면 안내면 나가야될 판이다 이러면.. 안내면 계속 손해봐야 된다.. 갖다주고.. 또 의무기간이 지나면 또 놓고..

Q: 자기들이 더 알아서 착착착착..

A: 여기는 왜냐면 한동에 140가구 되거든요. 그 중에 수급자 안되는 사람이 한 40-50가구. 공급 세대가 4900세대 되거든요. 4500세대 그 정도 될거예요. 한 60%가.. 아까 3365세대니까.. 자꾸 올라가거든요. 수급자가..

Q: 그럼 전입자가 굉장히 많나보네요

A: 1~2월. 특히 생계비 지급일이 20일 아닙니까. 15일까지는 거의 하루에 4,5,6세대, 어떤때는 10세대씩 들어와요. 거의 전입입니다. 우리는 책정을 하지 않는데, 계속 전입이 들어옵니다. 오는 사람을 막지는 못하거든요. 오면 거의 수급자니까. 한사람 아니면 두사람 빼고 중지 안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들어오는 수 밖에 없어요. 소득전산조회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민간 연계에 대해서는, 연계는 요청하는 대로 다 해주고요. 제가 볼 때는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급자 있는 사람들이 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 영구임대단지에서는 별도로 홍보가 필요가 없어요. 일반지역에서는 살다보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서는 더 잘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복지천국이라는 말이지.

Q: 그럼 왔을 때 상담은 그래도 하실거잖아요. 그럼 상담은 어디서 하세요? 여기서 하세요?.

A: 여기서도 하구요. 일반적인 민원은 담당자별로 하고 있습니다.

Q: 개인적인 느낌을 여쭙보는 건데, 수급자들이 신청하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A: 거의 대부분이 질병입니다.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일단 몸이 아프면 쇠약하고 힘도 없고 근로능력이 없으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굶어죽을 판이다, 도와달라 이거죠. 근본적인 이야기가 내가 볼 때는 10년 전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을 많이 가졌나 그렇게 못느꼈는데, 여기오니까 전부 비보험이에요. 장애인, 질병, 제일 많은 게 디스크 환자. 허리디스크. 제일 많아요. 얼굴 보면 아 아픈 사람이다. 아프다보니까 병원에 가도 답도 없을 것이고 여기 와서 도와달라. 요즘은 제도 자체가 최저생계비율이 높다보니까. 여기서는 상당히 높아요.

Q: 여기서는 높아요?

A: 예. 서울에서 낮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볼 때는 상당히 높아요. 농어촌은 더 높게 보일거고.

Q: 급여수준이..

A: 지금 소위말해서 1인 43만 5천원 아닙니까. 생활비가. 43만 7천원이거든요. 거의 다 봤을 때... 1인 가족에 비해서는 별로 높은 게 아닌데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만원.. 높아요. 내가 볼때. 그러면 수급자 신청하면 다 되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례기준을 적용하던지..

Q: 그럼 아까 여기 답함.. 어떻게 보면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뽀뽀뽀쳐서 정보가 교환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A: 그건 일부 그렇습니다. 다 그렇진 않구요.

Q: 안 그래요?

A: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단호하게 개별적으로 연간조사계획에 의해서 이분은 분기별로, 이분은 반기별로 조사를 하는 거지. 사람들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거든요. 왜 저 사람은 조사 안하고 나만

조사하냐 이러거든요. 저 사람은 분기별로 하는데 이 사람은 반기별로 하니까.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정부...(이하 녹취 풀 것)

(녹음파일 1이 17분 20초부터 재생불가.)

(녹음파일 2 시작)

A: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만일 환자, 수급자라고 하면. 사실 아프다 하면 병도 낫지도 않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짜증만 나고 걸으로는 무료라고 하는데, 거의 병원에 가면, 예를 들어 희귀질환 걸렸다 그러면 비급여래요. 거의 60~70% 비급여래요. 이 돈 자체가 병원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생계비자체가. 집은 집대로 관리비가 체납되고 돈은 좀 쓰려고 하면 병원에 다 갖다줘버리고 없다 이거예요. 그럼 하소연할 수 있는 데가 동사무소 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대를 보면 참 일하기가 어려워요.

Q: 비급여 비율이 높네요.

A: 예 거의 다 진찰료, 뭐 이런거, 간단한 주사료, 이런 거는 혜택이 되는데 거의 뭐 급여 보면 60% 70% 비급여입니다. 희귀질환인 경우는 더 비율이 높고요. 특수약물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에 다 가가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세대를 관리 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이웃돕기, 부가급여 조금 나가고. 그것도 일년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밖에 안되거든요.

Q: 그럼 지원이 되는 의료 비율을 의료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종류별 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비용을...

A: 그러니까 급여 쪽을 좀 늘려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Q: 의료급여를 늘리는 게 좋은 거 같아요?

A: 아니 의료급여 혜택을 늘려달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면 눈에 안 보

이는 병이지만 우리가 보는 병이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병이 낫지는 않아요. 사실. 통증만 계속 있고. 급여비율 평균을 보면 60%가 비급여라고 하더라고요. 직장이나 지역에 비해서는 비급여가 낮게 되었지만은.

Q: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수급자들이 기초진료 대부분 기초진료만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쇼핑을 다닌다는 양상 때문에 7월 1일부터 자부담을 해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애긴가요?

A: 의료쇼핑은 예전부터 이야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거는 유지하는데 그건 병원을 너무 자주 가는 걸 이야기 하는 거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 거고. 이거는 병에 걸렸는데 워낙 비급여 쪽이 많다 보니까 그걸 좀 의료 혜택이 되는 쪽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Q: 비급여 되는 부분을 줄이고 혜택되는 비율을 좀 높여주면 좋겠다는 건가요?

A: 예 급여쪽으로. 예 그 이야기입니다. 자주 가는 거를 왜냐면 그건 당연히 이리 가나 저리가나 답도 없을 건데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계속 치료를 하면 거의 60%가 입원했을 경우에 비급여라는 말입니다. 수술 이런 거는 급여혜택이 또 되거든요.

Q: 그러면 그렇게 전문적이 케어가 필요하거나 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거나 이런 케이스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여기와서 하소연을 할 거 아니에요

A: 그거는 200만원 이상 본인 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이웃돕기 모금회로 지원하고 200만원 이하의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하고. 200만원 이하의 차등급여해가지고 70만원미만은 30만원, 100만원 미만은 50만원, 120만원 미만은 60만원. 이렇게 차등지급하고 있고. 200만원 이상 했을 때는 250만원 했으면 200만원만 본인한테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Q: 아까 자활근로자들이 여기 되게 많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근로 능력을 판단하실 거잖아요. 그거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판단 기준 그런게 있잖아요. 나름대로 지침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하세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A: 아니요 지침 가지고 합니다. 지침대로. 3개월 이상 진단이 안나오면 자활 사업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안내를 합니다. 자활사업이 뭘니까 이러면 공공근로 사업 그런 사업인데, 구직알선, 직업훈련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보충급여라고 해서 급여를 주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셔야 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건강하신 분은 구청 위탁 사업장, 자활 후견기관, 구청주관 사업장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올바른 진단서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사무소에 배치를 합니다.

Q: 근데 근로능력 점수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활용 하세요?

A: 예. 보통 20~30대는 취업대상자라고 해가지고 75점. 근데 그 나머지는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일이 힘들다 하면 동사무소에 오려고 하거든요. 동사무소는 더 편하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왜냐면 보내놓으면 올라고 하고, 그러면 나 안할거라고 하고, 안그러면 진단서 끊어야 하고 그러니까.

Q: 그럼 거의 그 기준표를 활용을 해서 근로능력이 있다 없음을 판정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인 기준이 있으신 건가요?

A: 그거는 점수표는 75점 이상은 사업장 배치를 위한 이야기고, 있다 없다는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있다 없다는 진단서 가지고 판정을 하는 거죠.

Q: 자활사업 참여자든, 일반 수급자든 일하시는 것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세요?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보시는 거죠?

A: 예

Q: 이분들 일을 어떻게 하는 거 같아요? 대충 요령껏 시간만 때우고 이렇게...

A: 근데 처음에는 자활사업 일을 시켜보니까. 한 2~3년은 좀 된거 같아요. 후견기관에 가보고 견학도 해보고 하니까. 하나둘 이야기가 들어오더라구요. 보니까. 술을 먹고 논다. 담당자 있을 때만 일을 한다.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사실 이 자활사업은 구청하고 구청 위탁사업, 예를 들어 청소과 같은 경우 재활용 선별장,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공원관리,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는 노인 간병.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하는 거는 참 잘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사실 좀 미흡해요. 왜냐면 아침에 출석 부르고 반장 정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어찌보면 좀 그런 건 있어요.

Q: 그럼 일하는 거를 보시잖아요. 그럼 기초보장제도가 사람들에게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 같아요 아니면 아닌 거 같으세요.

A: 그건 직업화 돼 가는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자활특례도 어떤 사람은 돈 많이 주는 데를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직업적으로 다닌다고 하고. 자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직업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Q: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한 수단인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다는 생계수단으로 생각한다는 말씀?

A: 수단이 아니고 여기서 일하다가 시장에 가면 일반 시장에 접근을 못해요. 왜냐면 이쪽의 눈높이가 이렇게 높게 있다가 여기서 막 밑바닥에서 일을 하려 하니까 보통 한달을 못 견뎌요. 그리고 수급자 하다가, 특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일 하다가 많이 견디면 2,3개월 견디다 대부분 나와요. 그러고 2달 정도 지다오 나면 또 수급자로 들어오고. 또 일하러 다닌다고 하더니만 또 그만두고. 계속 책정했다 그만뒀다 책정했다 그만뒀다 이런 식이죠.

Q: 일할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수급한다는 것은 이 제도가 그 사람들에게 복지 의존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을 해서 자기 벌 수 있는데 제도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

A: 지금은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우리가 있으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는 한. 왜냐면 들리는 이야기는 아침에 밥 먹고 몸은 낫지는 않고,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산으로 가고. 그리고 뭐든지 숨겨야 된다. 숨겨야만 급여가 많이 나온다. 그런 건 일부 감시하는 사람은 감시하고 있지요. 오히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편해지는거죠. 숨기면 숨길수록 자료가 없으니까. 왜냐면 몸은 나아져 되고 안정을 취하라 하는데 일하면 안될거고. 어찌다보면 토, 일요일날 일하러 가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왜냐면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오라 그러는데 시내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면, 경우에 따라 그런 경우는 혹 가다보면 있어요.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그물망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르바이트취업을 해도 전부 국민연금 가입시켜야 되고. 고용보험도 가입하라고 하는데 안하고 있거든요.

Q: 향간에는 기초보장제도에서 돈을 받으니까 일을 안하려고. 일을 안해도 돈이 나오잖아요.

A: 예 그러니까 숨겨놓은 것이 많다는 말이죠.

Q: 예. 복지의존성을 높인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A: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산에 올라갈 힘이 있으면 당연히 일을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허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목이 아프다 해도 운동으로 치료 한다 하는데 일거리가 있으면 일을 한다고요. 일을 해도 돈이 안되고, 일을 안해도 돈이 나오는데 왜 일하러 하느냐. 여기 사람들은 그런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안하는 게 더 낫다 이거지요 몸도 나을 수 있지요, 월급 나오지요. 그러니까 의존도는 더 높아간다고 봅니다. 특히 새터민 같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가장 우선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오자마자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서울로 간다고요. 조금 연고가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산다고 합니다. 연락도 안되고. 그건 또 이번에 바뀌었대요. 7월 1일자로. 옛날에는 조건부 유예가

1년 이었는데 지금은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다시 조정해서...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더 정보가 빠르더라고요. 무조건 숨겨야 된다. 아까 예를 들었지만, 자료가 안 나오는데, 숨겨서 복지의존도 높일라고. 수급자는 부자 만들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고하세요라고 해도. 대답은 예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이 터지면 왜 수급자 해주느냐. 그런 화살이 동사무소로 돌아오거든요.

Q: 그런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

A: 제가 볼때는 아까 말 한대로 달면 삼키고 쓰면 내 뺀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것 밖에 모르고 조금이라도 비위 안 맞으면 불만을 내색하고...

Q: 가난한 것과 일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요한건데 일을 함으로써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데 가난 하고 일과의 관계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일을 잘 안 하더라. 아니면 가난한 사람은 일을 해도 계속 가난하더라. 어떤 거 같습니다까?

A: 지금은 빈곤의 개념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 안하거든요. 사회적인 문제라고. 여기 있으면 당연히 준다는 생각을 하고. 일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모부자가정 설정해봐도 자기들끼리 연락 다 하고 있고, 하루아침에 신발이 몇 개 바뀌어 있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일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성년자 애를 데리고 있으면 양육해가지고 소득부담을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 밖에 있고 여긴 모자, 부자 이렇게 있고. 요 안에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그런 사람이 한 분씩 있기 때문에...

Q: 사회복지쪽 일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시는 걸 느꼈나요? 예전엔 실태 잘 모르다가 수급자들이..

A: 예전에 생활보호 제도일 때도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열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내가봤을 때.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지런해요. 남

자들은 대부분이 질환자, 장애자고 아니면 알콜의존 해가지고 술을 먹고 여기 보면 요기 동네에 아지트가 많아요. 20일 급여주고 나면 장날이 있거든요. 여자들 같은 경우 60%는 일을 중시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 역으로 바꾸어서 40% 정도 일을 중시하는 거 같고. 젊은 사람일수록 일을 근로의 의무라고 중시하고, 젊은 사람일수록 일을 해야 된다. 백치라도, 백치라도 해야 된다. 단순노동이라도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요즘 보면 아파트 건설 붐이라고 해서 집을 많이 짓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일용직해서 하루 10만원 번 것을 떼여서 노동의 대가를 못 받고 해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많아요. 모자부자 해서.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안들어오고 고발, 고소 하면 기계 부렸다 뭐다 핑계 대가지고 변상해가지고 나머지 차액 받고 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이 드신 분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안될 때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지요.

Q: 수급확정 되고 나서 사후 관리는 어느 정도 하세요?

A: 사후관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인당 보통 280가구에서 300가구, 차이가 좀 있는데 350가구로 보거든요. 근데 다 엑셀로 관리를 해요. 엑셀로. 이분이 이런이런 책정을 했으면, 진단서 3개월이면 4월달에 나름대로 표시를 해가지고 4월달에 안내문 발송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행정은 그게 안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단서 제출받고 조건제외. 3개월 동안 적용하러 냈으니까 3개월 지나면 받고 또 소득신고하라고 하거든요. 신고하면 따라가서 이야기 들어보고 적용할거냐 그냥 올릴거냐 판단하고. 그런식으로 관리합니다.

Q: 그러면 수급자 방문이나 이런건..

A: 방문은 자활 그 사람들과 담당자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다 가지는 못하고. 한 사람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말하는데 30분 이러면 2시간 잡는데,,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Q: 왜냐면 수급자가 먼저 상담을 신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텐데, 주로 어떤

상담을 합니까?

A: 주로 생계비 조정, 의료비 지원. 거의 생계비 조정입니다. 아까 말한대로 20일날 생계비 지급하면 거의 적다 많다. 의심을 받아가지고. 의심을 받으면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Q: 주로 깎이는 경우에 항의가 많겠죠. 사실대로 설명을 하시면 수급을 합니까?

A: 지금은 거의다 얘기를 들어보면 1월달에 부양비, 3월달엔 졸업생들, 3~5월달엔 졸업생들, 신입생들, 6~7월달 이맘때는 부양비. 자녀들 취업을 했나 안했나 다시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9월달부터는 억수로 바쁘고. 동절기 이래가지고 12월달까지. 이웃돕기 성금 모금 할 때 까지. 그렇게 1년이 지나갑니다.

Q: 이렇게 급여정지 되는 경우에 설명을 하시면 수급을 하십니까?

A: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 5~6번 계속 설명하지요. 어렵פות이 대응했다가는 커지니까. 계속 하다가 안되면 보호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이러이러하다. 나중에 보면 결국엔 그 사람이 수급자가 되요.

Q: 그럼 수급확정 이후에 가구원이 변동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건 파악이 잘 되세요?

A: 그건 제가 볼때 상당히 기간을 달리하기 때문에. 군대가면 병무청에 확인해야 될거 아닙니까. 신고하는 사람이 열 사람 중 하나나 둘밖에 없습니다. 파악하기 어려워요. 또 교도소 가는건 안 좋은 일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안해요. 그래서 도우미가 가가지고 파악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우미가 가가지고 아들내미가 군대 갔답니다. 이 사람이 교도소 갔답니다. 동네 소문이 나니까 도우미가 가가지고, 100으로 봤을 때는 20-30퍼센트 미흡하다고 보죠. 그 보통 보면 복지부에서 연간 통보가 오면 정리가 되고, 통보 안되면 이거는 많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너무 많다보니까.

Q: 그럼 수급자 만나기도 어렵겠네요

A: 만나기는 쉬운데. 집에 있거든요. 거의다. 여기 보면 401,402,403동은 젊은 사람이 많이 살고, 404동은 장애우가 많이 살고, 405동은 노인들이 많이 살고, 406동은 예를 들면 새터민이 살고 그렇게 모아놨어요. 여기 영구임대 아파트는 일반 지역에 비해서 관리하기는 좀 나아요. 왜냐면 안내문 보내면 소득서류 다 갖다 주거든요. 몇 몇 안내는 사람은 있지요. 수급중지한다 하면 사전에 소명안내문을 내거든요. 차가 있거나 자녀가 부양자 의무가 있어서 중지한다 그러면 월례별 딱 오죠. 고함을 치고, 도와준다 해놓고 왜 중지하냐고.

Q: 그러면 여기 워낙 세대수도 많고 사례 관리도 하고 업무가 엄청나게 많으시겠네요?

A: 하나 업무 내려오면 부피가 많아요. 수가 많다 보니까. 근데 개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얼마 안되요. 일반 동하고 거의 비슷해요. 개별담당자가 열두명이니까 한 개 하더라도 열두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책을 만들라고 하면 열두개를 올려야 되니까, 두 개 하면 24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볼 때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거죠.

Q: 주민 생활 지원팀으로 바뀌었잖아요. 서비스 전달체계가. 그리고 나서는 업무가 많아진거 같으세요? 아니면 적어진 거 같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화가 없으세요?

A: 그거 왜 만들었답니까? 제가 코멘트 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 전달체계 개선이라고 해서.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대로. 더 이상의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Q: 예.. 알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A: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Q: 일은 더 많아지신거예요?

A: 제가 볼때는..옛날에는 공무원이 여기 15명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 사람을 빼갔다 아녘니까.

Q: 개인적으로 보면 일만 많아진건가요? 조사업무는 구청에서 가져갔는데...

A: 당연히 그렇죠. 책정액이 2001년도하고 2006년도 작년까지는 일이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정착했거든요. 해준 사람은 아직도 노인인구가 2~300만이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웬만한 그런 사람은 다 흡수됐다고 봅니다. 7년이 넘었는데, 헛수로 8년 아녘니까? 책정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4명이 하고 있거든요. 계장까지 포함하면 5명인데. 당초에는 우려해가지고... 왜냐면 친구나 사하구 같은 경우는, 사하구는 6명이고 친구는 8명인데 못하겠다 이래도 지금은 7~8개월 되도 다 해내고 있는 거 보면 자기 불일 다 보고 하다 보니까 일이 그리 많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여기만 좀 많고. 금곡. 영구임대 지역에는 좀 많고.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는 전달체계 개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하시던가요?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나요?

Q: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만들었냐. 똑같이 말씀하세요 업무량만 늘어났고, 도움이 전혀 안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똑같이 생각하시는군요.

A: 제가 볼때 그래요.

Q: 근데 여기가 보면 전담 공무원이 12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 내에서 직원들의 비중이 이쪽, 사회복지쪽으로 굉장히 많다라는 거잖아요.

A: 그건 아니죠. 지금 총 직원이 정원이 24명이거든요. 현원이 22명인가 그렇거든요. 여기가 북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인구가 4만 5천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반 이상 차지하거든요. 덕천 3동이나 덕천1동 같은 경우는 전담 공무원이 6,7명 되거든요. 행정직은 4.5명밖에 안되고. 직원이 13명이니까. 13명 중에 절반이상이니깐 그리 보면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인구수가 많다보니까 높다고 볼 수가 없죠.

Q: 그래도 대부분 동사무소나 어느 조직이든지 윗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편하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그렇던데 여기는 윗분들이...

A: 시대변화가 있는데요. 옛날에 업무를 해보니까. 옛날, 2000년도 전후로 여기서 행정조직 라인이 있다 보니까 뭐 위에 사람 입장에서는 어찌하던간에 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와주면 좋지 않느냐. 그건 여기서도 보면 맞다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조금 이야기 하면 고압적이고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건 없어요. 개방화 되어있고. 서로 의논하는 분위기. 그런데 여기 말고 구청 같은 데는 아직도 거기는 일방적인 지시 하에 일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압력 같은 것은?

A: 그런건 없어요. 압력 그런건 없어요. 여기서 더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맞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구청에 가면 고정민원이 한 서너명 있어요. 동엔 안오고 구청만 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이빨이 엄청 썩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수급자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수급자냐. 조사할건 다 조사해가지고. 구의원이나 도와달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것은 담당자가 이야기 해가지고 도와주고.. 안되는 걸 억지로 해달라는 거는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건 안된다.

Q: 그럼 여기서도 안되는건 거기서도 안되고 구에서 안되는건 여기서도 안되고...

A: 예 그래가지고 민원들 입장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은 구에서는 아무 조사를 안하는데 왜 동에서만 조사를 하느냐. 동에서 원래 조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고자질 해가지고 됐다고 하고. 또 역으로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싸우는 사람은 내가 무슨 고자질을 했느냐..

Q: 근데 때에 따라서는 동사무소에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구에서는 되는 이런 경우가 있나요?

A: 그건 담당자가 처리를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 무능력이고, 근로무능력이면 6000만원을 인정한다 아닙니까? 근데 동 담당자는 3800만원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오해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Q: 그런거 외에는 없으세요?

A: 그런건 없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6000만원 넘어도 구에서 억지를 부리면 되는데..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긴 도시다 보니까 중소도시, 농어촌 이런데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Q: 위에서 그러는 거 말고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 끼리 싸우다가 이사람 확인해 봐라 이런식으로 민원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그런거 말고 감정격한거 말고 주변에서 그거 말고 신고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내가 보기에 이사람 좀 수상하다. 가족도 있는 것 같고, 돈도 좀 있어 보이는데, 수급받고 있더라...

A: 그런 경우가 예를 들면 오래됐는데, 부부 둘 다 1급 장애자고 애는 학교 다니고 있고 두 사람 보면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신고 들어온거 보면 큰 식당을 운영한다. 김해 공단에서. 차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식당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확인서 받고 식당운영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부정 수급 배상비용 징수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움해가지고 그런 것은 많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왜냐면 140가구 들어와 있으면 100가구가 수급자니까 사람이 살다보면 아무래도 질서가 없고, 비위가 안 맞고 이러면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럼 있는 욕 없는 욕 다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이편도 못들고 저편도 못들고 가만히 있지요.

Q: 대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시겠어요. 너무 많이 봐서..

A: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저도 몸이 안좋아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예전에, 복지부 관계자한테 생계비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자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 하나면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이 생활

보장부에 약 8천명이 된다 하고 하더라구요. 그럼 일률적으로 봤을 때 책정만 하니까 현재 인력을 6천명으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력이 어디로 가야 될거나 이더더라구요. 그건 다시 제도를 바꾸던지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면 인력이 많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사업을, 다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뽑지 말고 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왔다갔다 하다가. 또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볼 때는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들. 정신장애인, 노인들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통장을 가지고 시비가 붙으면. 누가 깡을 만들었느냐 시비가 붙으면 입장이 난처해져요.

Q: 깡을 만든다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A: 그건 통장 관리하는 사람이 다 빼앗아서 통장을 깡통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Q: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A: 그런 경우도 간혹 가다 보면 있어요. 관리하다 보면 싸움이 나가지고 왜 니가 관리하냐 내가 관리할 건데. 그럼 서로 통장 자기 앞으로 만들고 급여변경 맨날 하고. 그 돈이 그 돈인데 그런 것도 있고...

Q: 아까 장애인가구가 큰 식당하는 경우도 부정수급 사례인데,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A: 부부 둘 다 장애자구요. 자녀는 학교 다니고, 신고안하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이모가 일이 많으니까 잠시 임시로 일하라 했어요. 근데 내가 알기론 몇 개월 전부터 한 것 같더라구요. 나중에 결국은 안한다라는 사항조건으로 수급자로 들어오더라구요. 그러다 또 세월 지나면 식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죠

Q: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있을까요?

A: 지금은 제도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금융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조회도 하고. 하지만 금융조회를 하다보면 이제 사람들

이 알기 때문에 인식을 하지 않는데. 해보면 왜 나만 조지느냐. 그물망에 들어온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사람은 다 빼돌렸다 이겁니다.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조회해봐야. 멋모르는 한 두 사람만 발취가 되고. 예전에는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조회해 봐야 다 빼돌려서 자료가 없어요 다 저희끼리 다 알아가지고 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금융조회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못빼냅니다라고 해도 요즘은 그물망에 들어온 사람만 손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Q: 그럼 신규 신청할 때나 확인 조사 할 때나 다른 경우가 있나요?

A: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만. 신규들은 멋모르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Q: 그럼 확인 조사 하면서 전산조회 결과랑 다르던 경우도 있어요?

A: 다르지요. 다르지요.

Q: 그럴땐 어떻게 하세요?

A: 그거는 자기는 돈이 없다 하는데, 5000만원, 6000만원 돈이 있다. 금융기관에서 내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나보더라고요. 그런 경우더라고요.

Q: 조회에서 나오는 것을 달리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A: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사과하고 그러더라고요.

Q: 그럼 그런게 확인해 댔을 때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A: 조치까지는 안합니다.

Q: 왜냐면 자기들 확인한 근거가 전산조회자료이기 때문에

A: 예. 자기들 아니라 하고 금융기관에서 아니라하고 확인서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조치할 건 없죠. 그리고 범규사항이 개인정보 이래가지고 우리가 일선에서 제대로 해볼라고 하니까 어렵게 되었더라고요. 어렵게 되었고. 또 그리고

부정수급자 결정해봐도 소득 자체가 일률적으로 안 오기 때문에, 별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돈 받아 내는 것도 어렵고 그것을 인정을 안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Q: 그럼 제도를 몇 년동안 생활보호법부터 담당을 하셨잖아요. 제도가 좀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선정과정이나 선정 기준같은 게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전반적으로 선정과정부터 사례관리까지 그냥 이런건 좀 더 보완하거나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애로사항이나... 어떤 데 같은 경우 사례관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의료쪽에는 사례관리가 따로 있잖아요(의료급여사). 그런 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부양의무자 같은 경우도 이걸 더 강화를 하던지 아니면 아예 없애던지 이렇게 말씀을하시는 경우도 있던데...

A: 제가 볼때는 부양의무자 기준 있지요. 그게 수급자의 약 1.5배인가 2.5배 정도 되다 보니까 1인 가정은 한 120만원 이정도면 부양능력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 기준자체가 내가 볼 때 워낙에 부산 같은 경우는 높게 되어 있어요. 웬만하면 수급자 신청하면 다 되요. 상시고용이 아닌 이상은. 왜냐면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구두로 이야기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떠들면 다 알고 있고, 아직도 우리나라 전산조회 자체가 지금 오는 거 보면 정규직이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깨끗하게 나오는데, 나오지 않는게 백으로 봤을 때 절반 이상입니다. 자료자체가 좀 더 국세청과 연계되어 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나왔으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금 특히 학교 선생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조회하면 무슨 교육청, 연말에 정산하면 과세표준에 얼마나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와요. 어찌다 보면 나오고 어찌다 보면 안 나오고. 소득조사 자료만 정확하게 나오면 우리가 왈가왈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데, 민원하고 계속 싸울 일이 없는데. 이러면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화하면 공문보내라고 하고, 공문 안보내면 안해준다고 하죠. 유선으로는 무슨 개인정보라서 못보내준

다고 하지. 그게 참 어려워요.

Q: 부양의무자 현재 기준 자체는...

A: 그 기준도 높고 자료자체가 어렵다 이거죠. 오는 것만 정확하게 보내주면 되는 데 자료가 정확하게 안온다 이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그 당사자를 통해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죠. 다 거짓말 하는데. 이런 문제가 개선의 여지가 있죠.

Q: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A: 그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기준을 좀 낮춰주면 좋겠다는 거죠. 높게 되어어요. 지금은 상시고용 아니면 부양의무자 기준도 가족 수가 많으면 유리하게 돼있어요. 거기다 노부모 하나 끼어넣으면 조사 안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부양원칙 해가지고. 조사할 때는 할머니가 있다가 조사한 뒤에는 없어요. 또 조사할 때는 집에 없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Q: 머리 아프시겠어요.

A: 아니 머리 아픈게 아니고. 이거 하는 사람들은 머리아프지요. 그러니까 자료를 군인이라던지, 교사라던지, 상시고용을 하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거는 정확하게 잘 나와요. 국민연금 빼고는, 좀 심한 이야기지만 개판입니다. 국민연금 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 나머지는 개판입니다. 국세청하고 자료 하나도 안 맞아요. 고용보험은 좀 맞고.

Q: 저희가 질문을 거의 다 했고 제도에 관해 하실 말씀은?

A: 그거 하고요. 그거 하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이 제도가 유지한다면 누가 이거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여기는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년 지나면 누가 근무할지는 모르지만 인력은 고정될거고 근무는 더 어려울거다. 지금 3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거든요. 한 3천 세대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은 3천5백세대 되니까. 3년 전엔 수급자를 6정도 봤는데 지금은 7정도 보니까요. 차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북구 같은 경

우는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어렵게 뭐냐하면 민원들이 저항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저항이 뭐냐면 급여조정할라하면 억센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꺾판을 칩니다. 한달 전에는 책상 유리를 깨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급여조정했다고.

Q: 그렇죠. 올라가면 아무말 없는데 내려가면..

A: 이래서 일률적으로 해버리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똑같이 주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인식하는데 그거는 인력을 줄여야 된다고 하니까 안되는거고. 일단은 급여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그게 왜냐면 나라도 그렇겠지만 수입은 없는데, 여기에 의존하는데, 급여 줄어든다 하면 좋게 생각할 사람이 없는 거죠. 싸움하기 좋은 제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Q: 줬다 뺐는게 제일 고약하다고 하는데...

A: 안내문을 내어도 별로 신뢰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참고사항밖에 되지 않으니까. 내가 볼때, 가면 갈수록 내년도 그렇겠고 예산이라던지 제도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 같아요. 내년 같은 경우 특히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해가지고 올해 8월달부터 작업한다는데. 어제 계획서를 보니까 전부 보조인력을 활용해가지고 처리하라고 되어있더라구요. 보조인력을 활용해서.

Q: 인력 충원은 안되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A: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죠.

Q: 지금 공인요원들이 있습니까?

A: 여긴 공익이 없습니다.

Q: 공공근로 자활..

A: 예 자활공공근로만 있습니다.

Q: 간단한 인적사항을 좀.. 성함하고.. 아는데.. 연령하고 학력하고.. 요런걸 좀..

A: 연령은 44

Q: 동안이시네요. 학력하고 근속기간은?

A: 학력은 대졸이고, 근속은 90년이니까 18년 됐습니다.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구요.

Q: 장시간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셔가지고. 다른 동에도 하실말씀들이 많더라구요. 다만 동마다 조금씩 특성이 다르니까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확실히 도시랑 시골이랑 또 다른 거 같아요. 아무래도 지역특성도 좀 있는 거 같고. 또 영구임대주택단지랑 일반주택단지랑 또 다른거 같아요.

A: 일반지역에 가면 이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

- 조사지역 : 중소도시
- 응답자 개인사항

성별	연령	학력	근속기간	자격증 여부
남	43	대졸	14년	유

- 기관환경

읍·면·동사무소의 상담환경 - 조사자 기록
- 동사무소 건물을 최근 증축. 그 과정에서 별도 상담실 마련되어 있었지만, 자주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음. 대신 전담공무원 옆자리에 작은 소파를 마련해 두어서 컴퓨터를 보면서 작업한다 함.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 면접대상은 전반적으로 응답을 잘 해주었음. 다만, 용상동에 온지 1년 조금 넘은 관계로 동의 사정을 모르는 부분도 있었음. - 경력에 비해 수급자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긍정적임. - 중얼중얼 대는 소리가 있어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은 잘 전달되고 있음. 다만, 근로능력자 판정과 관련해서는 질문 이해를 잘 못했는지, 의도와는 조금 다른 얘기가 오갔음.

Q: 얘기 하는 건 신경 안써도 됩니다..

A: 실제 제일 힘든건, 우리도 920명 되는데.. 그중에 10명~15명 가운데 30대 초반~40대 초반 사이의 남자들이 술 먹고 그럴 때는.. 어떨 때는 하루종일 전화오고 일을 못하게 하니까.. 아침 출근 동시에 항상 말은 안해도 긴장을 합니다. 읍면동 행정 이란게 일이란게, 어차피 행정직업무는 어떻게 커버되지만, 사회복지업무는 사실 들어서 다 해결해야 되니까.. 사실 수급자들 하고, 특히.. 술먹고 오면 달대기도 했다가..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 안그러면 떡살도 잡고.. 그러면 안되지만.. 한번 그러고 나면, 일이 안되는 거라요.. 그걸 속으로 컨트롤 해야한다고 해도.. 그걸 염두에 두고 아침마다 출근해야 하니까 인간적으로 제일 힘들고.. 나머지 일이야.. 또 안동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무소도 시범지역하다 보니까.. 혼선을 겪고 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시에도 건의했지만, 실제로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은 읍면동에 더 신경써야 되거든요.. 지금은 안동 같은 경우는 항상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겪기도 했는데.. 실제로 보면.. 저도 시청에서 2년 근무하다가 왔는데.. 좀 내려 와야 되는데, 안내려오고.. 그건 우리 문제지만..

Q: 그럼 여기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하면서.. 읍면동에 있던 인력조정으로 분들이 상당수 시청으로 옮겨 가셨나요?

A: 옛날에는 실지로 읍면동소속이 아니고, 사회복지 소속이니까.. 다 시청의 사회복지 소속이죠.. 그니까 거에서 읍면동으로 파견직으로 되었다가.. 작년에 정식으로 7월부터 읍면동 소속으로 되었죠..

Q: 지금은 어쨌든 바뀌고 나서는, 신규 수급자들부터는 새로 조사하시거나 그런것들은 다 시청으로 다 넘어간거죠?

A: 그건 잘된거죠.. 시청에서 조사팀이 있으니까..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조사할 때.. 아무래도 객관적인 (부분에서).. 담당자가 자기 재량이랄까.. 기준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시에서 조사팀에서다 일원화되서 조사하니까.. 그건 참 좋은 거 같아요..

Q: 어떤 데는 그것 때문에 업무량이 더 많아 졌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A: 실제로, 오면은 기본적 상담을 해가지고, 사실 15년해보면 얘기 해보면 대충 감이 오니까.. 꼭 될 사람만 어느 정도.. 드문드문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못하지만..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전산에 조회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 아니면 거의 다 맞죠.. 올리면 95%이상 거의 다 맞다고 봐야죠..

Q: 여기서 어느 정도 스크린해서 올리시는 거죠?

A: 네. 여기서 상담을 거의 다 하고 하나까.. 실제로 시의 조사팀에서는 전산조회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하나까.. 실제로 조사팀이 두 군데 있다보니까 말이 많아가지고.. 통합 조사1팀, 2팀 이래가지고.. 인제 이걸 바꿔버렸어요.. 자꾸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잘못된 거 수정해가고 있어요..

Q: 1팀 2팀 나눠져 있던 걸 하나로 뭉쳤어요?

A: 하나로 뭉치고, 인자 복지부 매뉴얼 대로.. 행자부 전달내용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Q: 1팀 2팀 있을 때, 문제가 나타났던 거는.. 팀간에 조사하거나, 기준적용하는데 차이가 있거나 그런건가요?

A: 그건 아니에요. 어짜피 조사하는 건 다.. 조사 1팀, 2팀이 있어도.. 조사 1팀이 실제로 조사하는거고, 2팀은 그것의 지원 택이니까..... 우리도 사실은 인구가 2만 4~5천명되다 보니까, 수급자도 우리가 두 번째로 많아요.. 땅도 켈 많아요.. 인구가 켈 많아요.. 안동에서는.. 사실은 어디 나가질 못해요.. 솔직한 말로.. 지금 행자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행정직 분들이 커버를 해주면 되는데.. 사실 문제는 뭐가 하면.. 마지못해 하긴 하지만.. 행정직 분들이.. 거의 다 신규애들(이라서).. 마지못해 시키면 6개월-1년되면 지나면 쉬었다 와뿌고.. 업무 바뀌고, 행정직이 잘 바뀌니까.. 거의 우리도 사실, 자꾸 공문 내려오면.. 아이고~ 몇 달 뒤면 헛갈릴 때도 많거든요.. 근데 개들이 한다고.. 행정직들이 한다고(해서) (일을)줘냈는데.. 또 6개월 있다가 가뿌고.. 항상 우리가 업무를 보더라도, 신경을 거기다 써야해요.. 실

제로는 지금도 서류상으로 해봐도.. 실제로, 복지업무 이거는.. 행정직 욕하는건 아니고.. 아직 체질상 복지업무를 해야겠다 생각을 안하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간단한 복지업무만 시키지, 어차피 거기도 신경을 잘 안쓰고.. 우리가 또 업무가 연관되기 때문에.. 내 업무 보면서 신경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예로 사항이 많아요.. 저도 91년도 와가지고.. 어찌 보면 기초보장제도 생길 때, 그 때 참 많이 힘들어졌고.. 요새는 뭐.. 바우처, 노인, 장애인... 어~너무 막 내려오니깐.. 우리도 수급자 업무만 몰라했는데..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하나까.. 일단 공문은 내려오는데.. 내것만 해도 골치아픈데.. 일하면서 딴것도 다 할라니까 힘들고..

Q: 임대아파트가 이동에 있어요?

A: 아니오 옥동에.. 안동에서 옥동이라고.. 거기를 갔다 오셨습니까?

Q: 아니오.

A: 거기가 수급자가 750가구 있는데..

Q: 그럼 여기서는 처음에 상담하셔가지고 좀 스크린해서 통합팀으로 넘기시는 거네요?

A: 그렇죠.. 모든 서류를 수급 신청할 때, 진단서, 퇴원서.. 거의 다 실제로는.. 그런 걸 시에서는 확인조회만 하고, 집에 방문하고..

Q: 실제 여기서 상담하실 때, 거의 예전에 하던 대로.. 지금도 조회다 가능하신 거잖아요??

A: 기존의 수급자 되있는 분들은 우리가 체크하지만, 신규는 아직은..

Q: 신규는 아예 안하시는 거지요?

A: 네.. 그건은 시청 조사팀의 고유 업무니까.. 실제 우리도 다 봐야 되는데.. 사실 한두시간 갔다오면 밀리니까.. 나중에 대충 보면 아니까.. 급한 분은 일과 후에..

실제로 낮에 30분 -1시간, 어떨때는 2시간-3시간 자리를 비우면.. 그만큼 각종 민원이 들어오면, 내가 처리해야 되니까.. 배로 더 힘들기 때문에.. 되면 하고.. 꼭 필요한 것은 저녁에.. 꼭 필요한건 메모 해놨다가 업무 끝나면 나가고 있어요.. 남자니까, 주말에도 생각나면 나왔다가 .. 시간이 구애 없으니까.. 여자분들은 아 마 좀..

Q: 여기 오신지가 작년에 오신거세요?

A: 지금 제가 1년 6개월 됐어요.. 옛날에 이 옆의 중구동사무소에 한 7년 있다가.. 면사무소 4년하다가.. 시청에서 2년 근무하다.. 다시 여기 왔어요.

Q: 기초생활만 14년 하신 겁니까? 원래 이걸로 발령 받으신거고? 이제 베테랑이 되셨네요?

A: 예. 옛날에는.. 보리쌀도 퍼주고, 사실 그 때는 여유가 있었던거 같애요. 요새는 뭐 전산이란게 있으니까.. 뭐 사람이 잠시도.. 그리고 또 민원인도 요새는 또 많이 알고 덤벼 드니까.. 어떨때는 법은 되지만, 실제 사는 형편 봐서는 안 해줬음 싶은데.. 알고 덤비는데는.. 요새는 많이 알고 오니까.. 옛날에 그런 경험 당해 본 적이 있어가지고.. 실제 법은 되지만, 보니까 사는 형편이랑 하는 행동봐서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읍면동에서 했으니까.. 안된다 해 놔더니.. 이 사람이 청와대로 가가지고, 거꾸로 내려오니까.. 왜 되는 걸 안해주냐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안되겠다 싶어서.. 일단 되는 방향으로.. 되면 해주는 것으로.. 일반지역 사회는 훨씬 다 알거든요.. 단, 겉으로 보이는거 보면.. 저 사람은 그리 안보이는데요.. 일반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아인테 왜 해주냐고.. 그러면 제가 그렇습니다. '그건 잘모르는 소리고요'라고 말하죠.. 남들이 없어도 다 있는 척하지 않다고 합니까?

Q: 그렇게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옆집 보니까.. 대충 사는데 수급 받고 있더라고 하면서 민원을 넣는 사람이?

A: 대부분... 넘겨짚기로 많이 하죠.. 그런데 저도 쳐보면 거의 알죠.. '그 사람 이름

대보라' 그러면 그사람 조사를 새로해 가지고.. (조치하겠다)..그러면.. 대부분 그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러는 거죠..

Q: 대개 그럼, 이 동에서 통반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나요?

A: 그런 일들은 일단.. 머 통반장님들은 주로 해달라고 하는 스타일이고.. 주로 주변에 친한 사람들끼리.. 주로 할매들끼리.. 비슷하신 분들끼리.. 그런 분들을 자식들 때문에 되고 안되고 하는데.. 자기들 끼리 봐서는 잘 모르죠.. 드러나는 소득을 잘 모르죠.. 어차피 우리도 드러나는 소득을 봐야 되니까.. 사실 인원이 보완되면, 저도 좀.. 진짜 나가면 좋죠.. 시간도 잘가고.. 실제로 그 집을 갔다 와보면 켈 좋은데.. 저도 지금 아직은.. 툼툼히 가도 500가구 중에 반도 다 못채웠는데.. 반도 안되겠다.. 한200가구.. 주로 일이 연관되었을 때 가고.. 사실 아닌 상태에서, '한번 가볼까' 하는 건 힘들어요..

Q: 전화로 필요한 일있으시면 많이 하시나요?

A: 꼭 급하면 가지만.. 보통 전화로 해서 될 건은 전화로 하고..

Q: 한달에 보통 신규가.. 혹시나 이쪽으로 신청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A: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쪽이다 보니.. 모자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에 평균 신청을 한5-10건 정도 들어오는데.. 세야려 보면 되지만.. 실제로 시에 보내는 서류는 일주일당 평균 3-4건 정도 됩니다.. 자르는 거예요..

Q: 그분들은 대개 혼자 옵니까? 어떻게 알고 오시나요?

A: 혼자 오는 분들도 있고, 아프신 분들은 보호자 분들 데리고, 여자분들은 친구들 하고.. 저희 같은 경우, 여기도 영세민 임대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조금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4동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중산층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젊고 이렇다 보니까.. 크게 많이는 없는데.. 이혼한 모자 가정들.. 아무래도

지방에서는 여자 혼자 돈 버는게 마땅찮아요.. 그런 경우가 많고.. 다리 건너서 이쪽이 진짜 없는 경우(잘 못사는 경우)가 많고.. 여기는 4인기준에서 조금 미달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모자가정 이런 경우.. 이쪽 시장이 슬럼가 비슷한.. 알콜 중독(가구)도 몇 개 있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조금.. 조금 못사는 사람들이예요.

Q: 혹시 물어보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오시는지? 그 분들이..

A: 영세민 제도를 알고.. 주로 남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아~ 저사람 받더라.. 소문 듣고.. 대부분 집에 환자들이 다 있으니까.. 요새는 정신장애인들 많으니까.. 보호자들이 이제.. 최근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다.. 2/3는 아파서.. 정신질환이나, 중증질환 환자의 보호자들이 나오시고.. 한 1/3은.. 남자들 잘안오고, 여자분들이.. 모자가정 이혼하고 사별하고 이러면 애들 키우기 힘들니까..

Q: 동사무소에서 직접 나가서 홍보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시죠? 팜플렛이 있다거나..

A: 사실, 오는 민원만 처리해도 처리하기 힘들어.. 사실 저도 인간적으로 진짜 더 홍보하고 싶은데.. 할 일 있는 것만 해도.. 하루에.. 예를 들면, 한명 오는데도 어떨때는 나도 기본만 챙겨드리면 되는데.. 전부다 챙겨드리고 싶어도.. 저도 인간이다 보니 한계를 느껴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것은 처리해 주고.. 꼭 필요한 것은 메모해놨다가.. 진짜 어떤 때는 건성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자기 필요한게 있기도 하겠지만.. 진정으로 꼭 필요한걸 해야하는데.. 최근 지방에도 주는 게 많다 보니까.. 근데, 너무 많이 주니까.. 나중에 수급자들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쁘게 표현하면 많아요..

Q: 그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A: 영세민 이게.. 떨구기 힘들어요.. 되기도 힘들지만.. 한명을 탈락시키려고 하면, 확실히 아닌데도, 그래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확실한 자료가 있으니까 대부분 하는데.. 어떨때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확실한 자료가 아니지만, 남들이 보기

에.. 그런 경우가 있고..

Q: 부정수급의 경우에 탈락시켜 본적 있으세요?

A: 탈락은 많이 시키는데.. 주로 자료가 늦게.. 자료가 넘어오는.. 객관적 자료를 보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많다 보니까.. 실제로 보통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경우 3개월 정도 사회적응 하라고 봐주고.. 자료가 늦게.. 어떤 거는 6개월 정도 뒤에 파악 된것도 있고.. 그러면 사실 컷는걸 막상.. 그렇게 하긴 힘들고.. 그런 경우는 자기들도 미안해 해서.. 열에 아홉은 다 인정하는데.. 드문 드문.. 속된 말로 돈에 맞을 본 사람은.. 안 된사람은 와서 깡판부리지요..

Q: 어떻게 하세요? 깡판부리고 그러면?

A: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카지요

Q: 그렇게 탈락시키기 어렵고 그러면, 여기 근로능력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추정소득 적용하시고 그런 사례들은 꽤 어렵겠네요?

A: 일단, 그 사람들이 진단서를 안된다면.. 그걸 부과하지요.

Q: 그쪽에서 그거를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떠세요?

A: 대부분 오면.. 자기들도 수혜를 받는 쪽이니까, 극히 일부가 대들고 하지.. 대부분 다..이건 이렇다 라고 하면.. 그래도 안동사람들이 순한 편이라.. 지방이라..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술 먹고 그러는게.. 대체로 이해를 해요. 물론 말하기 나름이지만.. 특히 지방사람들은 여자들을 많이 무시해요.. 안동같은 경우도.. 남자들이 말하면 좀 듣죠.. 지방에는(웃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도 원래 대구 있다왔지만.. 덜한데.. 여기는 여자들 보면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가지고.. 근데, 아저씨들.. 어떨 때는 소리칠때도.. 좋게 했다가도 강하게 나오면, 또 강하게 해야 되니까..

Q: 대개는 추정소득 부과하는 경우,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진 않으세요?

A: 어차피 18세에서 64세 사이에는.. 책을 보여주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프신게 있으면 진단서를 가져오도록 하면은.. 대부분은 이야기해도 안되면, 책을 보여드려요.. 촌사람들이 또 책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나도 공무원들이 법대로 해야 합니다. 책에 이렇게 되어있지요?’(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아프면 감안해서.. 대체로 책보여주고 하면, 대부분 다 이해 하더라구요.. 대부분은

Q: 처음에 신청하는 분들이 신청하러 오시면, 바로 이쪽으로 오십니까 ? 아니면 저기서 하십니까?

A: 여기는 주로.. 처음에 초기면접 같은 경우는.. 특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모자가정이나 정신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여기로 데려오고.. 아직 전산이 안되어 있는데.. 저도 제 자리를 일부로 구석에 해놓은 것도.. 어차피 전산을 보면서.. 웬만하면 보면서 천천히 하면 되니까.. 서류도 챙기면서 해야 하니까.. 보통 살살 이야기 하면, 작게 이야기 하면 다 되고.. 그런거에 많이 민감한 사람은 여기에.. 사실 여길 잘오기 힘듭니다.. 그렇게 민감한 사람이나.. 기존의 수급자중에 시끄럽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야기 해도 안되면.. 그리고 어떨때는 할매들이나 청각 장애인분들.. 일하는데 크게 소리치면서 이야기하면 안좋다 아십니까? 할매들 이야기 안듣기는 분들은 이리 오시라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무난하더라구요.. 아까 말도 했다지만, 밖에 상담나간다든지, 여기도 마찰가지.. 여기 와서 숙된말로 세월아~네월아~ 하나부터 열까지 쪽쪽 이야기 하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좋은데.. 진짜 거짓말 안하고.. 1분이 진짜 (중요한).. 지금도..(웃음)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 민원이 많이 오는 데다가.. 한번씩 동이 크다 보니까.. 수급자도 많고 보니까.. 공문도 하루에 한 건씩, 두 건씩 크게 내려오니까.. 남들이 보면.. 항상 추가근무가 항상 일등이예요. 남들이 보면, 어디 잘보일일 있나..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잘보일 데 없지만.. 이왕 일 하는 거, 밝아야 하니까.. 실지로 마음은 항상 급해요.. 항상 웃는것 같아도.. 나와보면.. 딴 사람이 보면.. 그것도 너무 티낼수 없으니까.. 조용한 가운데 내 일을 하는거죠.. 시간을 1

분도 아껴써야 해요.. 옛날에는 체제가.. 우리 안동시가 24개 읍면동인데.. 여기에 원래는 4명이 있었어요.. 지금은 두명이 있어요.. 옛날에 넷이 보던 업무를 둘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시에서 그만큼 일을 더 들고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일이지만.. 몇 번 건의를 해봤는데.. 시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욕심에 아무래도.. 시본청이 진급하는데 유리하니까 나가기는 싫고.. 저도 시청에 한 2년 있다가 (나왔는데).. 시청에 가보면 계별로 서로 업무로 안 도와주고.. 그게 안 맞더라구요.. 성격상.. 그래서 제가 원해서 다시 내려왔는데.. 체제가 현재 읍면동은 안동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지역) 이야기를 해서 좀 뭐한데.. 앞으로는 점차 수정해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되긴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참고로.. 요새는 옛날 보다 다 반으로 줄었어요..

Q: 다 시청에 다들어가시지요?

A: 네

Q: 다른데도 가보니까 그런식 이더라구요. 통합팀이 생기면서 읍면동에 계신 분들.. 특히 급수가 높으신 분들을 시청으로 보내 보니까, 읍면동에는 급수가 낮으신 분들.. 처음 일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A: 그게 왜냐하면, 선배가 있어서 배워야 노하우가 쌓이는데.. 요새 뽑다보니까.. 주로 면은 민원이 덜 있으니까 신규애들을 많이 (배치) 하거든요.. 그래도 개들도 많이 배우는게 있어야 하는데.. 민원은 없지만은.. 민원이 동보다 면이 덜 있으니까.. 안동같은 경우, 큰 데는 하루에 사회복지 민원에 장난 아니면 20-40명정도 있는데도 있고 하니까.. 하루에 계속 전화오고, 민원오고.. 신규애들이 동 일도 좀 힘들죠..

Q: 그럼, 업무가 시에서 더 업무를 가져가야 되는 업무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A: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옛날 하는 방식대로 되돌려 달라고.. 지금 (시하고) 읍면

동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Q: 사람은 한번 올라 갔다가 안내려오고.. 일은 계속 남아 있고..

A: 물론 2/3은 더 일을 할라 카는데.. 어디든 다 그렇겠지만.. 1/3은 일을 덜하면서
기득권은 챙겨먹을라 하고.. 뭐.. 우리는 일단 건의는 해놨으니까, 잘 되리리라 믿
어야지요..

**Q: 기존 수급자들 관리 하실 때.. 주로 노인 분들은 소득변동이나 그런 것은 별
로 없으시니까..**

A: 부양의무자 조사하고 금융자산 이런거... 실제 노인들 65세 넘으면.. 어떨 때 잠
깐 날품가고 이런거 우리가 소득으로 잡겠습니까? 잘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어
찌보면 그거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거고.. 사실 65세 이상 쉬어도 되는
데.. 자기 열심히 하는거 그냥.. 10-20만원.. 많은 것도 아니고.. 그거는 담당자 재
량껏 (하지요).. 어짜피 65세 이상은 안 먹이니까..

Q: 그럼 젊은 분들은요?

A: 젊은 사람들은 자료를 체크 할 때도 있고.. 드문드문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주로 내려온 자료에.. 젊은 사람들은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힘드니까.. 자
동차 산정한다든지..

Q: 자료나 그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내려 오나요? 갱신된 새로운 것이?

A: 네. 일괄적으로 복지부에서 내려오니까.. 시(市)에서 다 조회해놓은 게.. 요새 전
산을 따로 안 해도, 복지행정에 다 있는 수급자 관련 부양의무자 정보가 다 있으
니까.. 이걸 다 해서 내려보내주더라구.. 젊은 사람들이 조사할 때는 많이 도움이
되죠..

**Q: 그게 어느 정도 주기마다 내려오나요? 자산이나 그런 거는 크게 바뀌지 않
아요?**

A: 지금 소득.. 이런 거는 일년에 두세 번 정도 오더라구요.. 보통.. 수시로.. 외국에 갔다온 사람들, 교도소 출소자 이런 사람들은 분기별로 한번 하고.. 그리고 수시로..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한 번씩 1/3일 정도는 사람들 들리는 소문이나, 소위 말하는 카드나 통신회사에서 나오는 거.. 그런거 확인해기도 하고.. 그러면 쉽게 알수 있어요..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래서 정신을 깨고 있어야 하고.. 소문도 잘 들어야 되고.. 15년간 해보니까..

Q: 최근에 기존 수급자중에서 일 안하다가 일하게 되어서 소득변동이 있는데, 신고를 안할 걸 알게 되셔가지고 확인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A: 그거는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거라.. 실제로 위에서 내려 오는 거 아니고는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문.. 그거 밖에 없지요. 그 나머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우리도 드문드문 일 년에 한 두번 정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그때 하고..

Q: 그럴 때 체크하셔가지고, 소득확인서 같은 거 일하는데서 받아 오라고 그러세요?

A: 일단 진단서나.. 중요한 거는 없으면은.. 오시면 무조건.. 진단서는 최소한 일년에 한번은 받아오라고 하고.. 그것도 돈이니까.. 재확증명서 같은 것도 좋고.. 오실 때마다 이야기는 하죠.. 촌사람들이라서 속이는 건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시키는 대로 잘해요.. 지방이라 보니까.. 대부분..

Q: 시골은 속이면 옆 사람이 다 알고 있어서..

A: 안동이 서울의 두배, 2.5배 면적이라고 하는데.. 면적은 커도, 다 들려요.. 대충 드러나는 거는.. 어떤 거는 봐도 알지만.. 이야기 같은 것도 들리거든요.. 진짜 한 다리 거치면 다 아니까..

Q: 동 주변에 복지관이나 그런 것들은 있습니까 ?

A: 저희 사무실 2층, 3층이 원래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쓸라 했는데, 아직 시에서 예산확보안되가고..

Q: 아~그럼 새로 노인복지관 개소를 하려고 하셨어요?

A: 네. 아직 안동이 재정자립도가 20%도 안되고 열악해서.. 종합복지관은 옥동에 영세민 아파트 있는 곳.. 거기 하나 거 밖에 없어요.. 안동은 좋은 게.. 시설은 전국에서 쟁 많아요

Q: 아~ 시설은 많아요?

A: 장애인시설.. 안동에 머 병원도 많고, 장애인 시설도 많고.. 시설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혜택은..

Q: 복지관은 저쪽(옥동) 말고는 없나보죠?

A: 없어요. 종합복지관도 한 개밖에 없고.. 작은 거 그런거는 소소하게..

Q: 여기 주변에.. 수급자분들에게 다른지원이나 민간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줄 수 있는데가 많지 않은 편이네요?

A: 지방이라 보니까.. 우리는 주로 구정이나 추석때.. 한번씩 내려오면 그때.. 그리고 드문드문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연결시켜줄 때도 있고.. 저도 안동 토박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은 한계를 조금 느끼는데.. 보통 계장정도 되면.. 이 지역 토박이가 되면.. 발이 넓으니까.. 저도 계장님이나 통장님 같은 지인들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 제일 힘든게, 수급자 혜택을 못받는 고 바로 위에 있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이 분들은 차라리 차상위라고 해서 병원 혜택 보지만.. 차상위 그 주변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일 힘든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오시면 연결시켜 줘요.. 한달에 평균 그래도 한 10-20만원 정도 들어오니까.. 주로 구정이나 추석때 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제일 크고 그러니까.. 저도 최대한 자원을 뺏겨다 해주고 싶은데..그런 분들이..

Q: 그런 분들을 따로.. 좀 관리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A: 네. 있어요. 메모를 해놓은게..

Q: 신규를 신청하러 오셨다가 수급자는 안되시는데..

A: 진짜 딱한데.. 그래도 노인들 대부분 자식들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가보면 아프시고, 안됐다 (싫은 분들).. 그런 분들은 적어 왔다가.. 열댓가구에서 스무가구 정도.. 또 내년 기준이 향상되면.. 수급자로 신청해주고.. 집수리나 이런 거.. 그렇게 연결시켜주고..

Q: 수급자 선정할 때 머가 제일 어려우세요? 예전에.. 지금은 안하지만 과거에..

A: 실제로, 제일 좋은거는 시간이 여유가 되면, 집을 가가지고 거기서 묻고 하는게 좋은데.. 그게 제일 아쉽고.. 잘 못가니까.. 꼭 필요한 경우나.. 의심이 갈 경우에는 갈 때가 있긴 한데.. 사무실에서도 상담시간이 촉박하니까 키포인트만 묻고.. 허긴, 그것만 물어도 90%는 다 들어오니까.. 최근에는 드문드문.. 여기서 처음에는 조희가 안되었으니까.. 드문드문 거짓말 하는.. 특히 아줌마들..(웃음) 그런 경우는 저도 안동시에서는 나름대로 고참인데.. 시에 (서류를) 보낼때는.. 다 계장 밑으로는 후배들이 많이 보는데.. 최대한 엄선해서 신경써서 보내야 하는데.. 드문드문.. 올리면 거의 95%이상, 98%는 다 맞거든요.. 드문드문 황당한게 나오면.. 그 때 줌.. 아~아니다 싶은게.. 그게 거의 다 여자들이예요..

Q: 대개 그런분들 속이는 게 소득이잖아요?

A: 자식들.. 자식들 아이다.. 그런거 또 늦게.. 은행에 예금들어 놓은거 늦게 들어난다든지..

Q: 자식들 일하고 있는 것들을 보통 애길 잘 안하시고..

A: 근데, 대부분은 그리 좋은 직장은 아닌데.. 그래도 일단 기준은 초과되는.. 어쨌든 그걸 알 수도 있겠지만.. 좋은게 아니니까.. 단지, 기준 좀 넘는다거 뿐이지..

Q: 소득이야기 잘 안하시자나요?

A: 실제로 어찌면 모를 수도 있겠죠.. 깊이 있게.. 사실 대기업..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월급이 썩다 아납니까? 거긴 아예 (수급자가) 안되지만.. 보통 중소기업 이런데는 사실 본인들도 모를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해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자식들 얼마 버는지..사실 저도 애들 키우지만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현실적으로 알기 힘들어요.. 알면서도 법이.. 저도 최대한 법 틀 안에서 되는 방향으로 해주는 대도 불구하고.. 또 일부에서는.. 일단 되면 해줘야 되는데.. 안되다고 하고.. 저는 법이 100이면은 97-8정도 되면, 조금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덜 해주지' 이러더라구.. 그런 게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나름대로 더 기존 수급자들에 대해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죠.. 우리는 매달 영세민 생계비 나갈 때, 그때 하나하나 조목조목 챙길때거든요.. 그때는 야근을 많이 해요.. 그때가 20일이면, 15일 전후해서 돈이 나갈때.. 돈에 제일 민감하니까.. 그때 하나하나 지난달하고 체크해가면서.. 그때 아니면..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그 때 아니면 보통 평상시에는 잘.. 하다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다가 걸리면 탈락시키 버리고..(매달 한 두건). 이래 저래 일이 많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아요.. 좋기야 참 좋은데.. 근데, 행정직분들 무시하는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행정직 분들 사고 방식이.. 행정직으로 들어와서 너보다 나은데.. 옛날에는 저 들어올때만 해도.. 행정직분들이 제일 쫄다가 이 업무(사회복지업무)를 봤다고.. 소위 말하는 3D업종이라고.. 맨날 싸워야 되고.. 사실 우리는 그래도 사회복지사라.. 맨날 노인네들 오고, 냄새도 나고.. 그래도 우리같은 경우는 아니까.. 괜찮은데.. 일반 행정직 같은 사람들은.. 한번도 안해본 사람들은.. 그럴수도 있거든요.. 그런 애로점이 있죠..

Q: 추정소득 얘기 아까 잠깐 나왔지만. 소득에 관해서, 특히 자영업하시는 아줌마들 오시면, 소득을 잘 이야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추정소득을 부과하시나요 ?

A: 근데, 안동같은 경우는 보통 자영업 할 정도라면 잘 안와요.. 자영업을 한다하면, 허름한 시장에.. 요앞에 구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선술집하는 이런 거지..

굳이 자영업한다면 거의 없어요.. 소위 말해 장사가 부도나고 이러면 오죠.. 현재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다면, 허름한 술집이나 머 그정도 밖에 없지..

Q: 하긴 여긴 또 뻥 보이니까.. 장사한다고 하면..

A: 여긴 뭐.. 사실 지역이 아무리 넓어도 다 아니까.. 실제로 자영업은 하면, 백에 두-세명 정도 될똥말똥.. 와도 맨 그런 식으로.. 선술집.. 지역적으로 틀리겠지만.. 안동은 그래요..

Q: 상대적으로 소득파악은 쉬우시겠네요..자영업자에 대해서?

A: 그렇죠.. 자영업자는 좀 낮죠..

Q: 그럼 부양자가 어려운가요? 여긴 특히 노인분들이 많으시니까..

A: 부양의무자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자료로 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하는거지.. 우리가 더 따로 깊이 있게 하진 않아요. 문제되는 건수가 생길 때나 그 때 파헤치지.. 사실 둘이서는 따로 하기 힘들어요..

Q: 설명하시기는 좀 어려우시죠? 안된다고 말씀 하시기가..

A: 보통 객관적 자료가 오면은.. 확실한 자료가 있으면..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기 자식이라도, 관계가 단절된 상태..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확인서 첨부해가지고.. 실제 그런 경우는 집에 찾아가고.. 사람도 한번 봐주고.. 그런 것은 감안하죠..

Q: 제가 궁금한 게.. 소득이랑 재산상황을 파악할 때, 여긴 시골이니까 먹는거는 대충해결이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잡힐까 대게 궁금했어요.. 도시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어차피 돈주고 다 사야 되지만.. 시골은 다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거는 소득으로 잡하지 않잖아요?

A: 그렇죠. 그러는 우리가 뭐.. 보통 집관계는 사적 이전 소득으로 판정하지만.. 먹는거는 안한다 아닙니까.. 보통 주거만 판정하고..

Q: 시골분들은 먹고 하는 건 문제가 안 되실거 같은데..

A: 예. 대도시 같은 경우에 비하면.. 실제로 문제는 면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나 노인들 계시면.. 한달에 최소한 이삼십만원 나온다 아입니까? 면지역은 암만케도 허름한 집이 있고, 먹는거는 대충 해결되고, 읍면지역.. 농촌지역은 작게나마 한달에 십만원~이십만원 매달 적금을 해요.. 노인네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자기들 기본은 되니까.. 그거 가지고 없는 자식들한테 다부쳐주고 그래요.. 그런데, 동지역은 자기집 없으면 사글세 한달에 5만원 10만원 집세 내야되고.. 동지역은 먹을건 사먹어야 되고.. 동지역은 빠듯하고.. 다른데는 더하겠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감안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면지역은 사실 돈은 모은다고 먹는것도 사실 아껴서 먹지만..

Q: 사실 그런 걸 반영하면 정확한건데.. 반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읍면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금보다 깎일 수도 있어서..

A: 여기는 또.. 읍면지역은 기존에 있는게 있고.. 소소하게.. 여기 있다보면 또 여긴 댐수몰지역이 많다 보니까.. 댐수몰지역에 관련해서 소소하게.. 지원되는 게 있고.. 좋게 보면, 농촌지역 살리는 측면에서 보면.. 혜택이 많은..

Q: 그러면 수몰지역이나 그런데서 근무하셨어요?

A: 네.

Q: 그런거는 멀로 잡거나 그러시진 않으시죠? 수자원 공사에서 보상비슷하게 일시적으로 뭔가 주는 것을..

A: 네. 계속 들어오면.. 석달이상 들어오면 잡아도 되지만.. 실제로 일회성에 그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정부에서.. 70대 후반 80세 되시는 분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인데.. 인간적으로.. 제가 객관적으로 들어오는걸 잡아야 하는데.. 나 혼자서 비공식적으로 아는 걸 놓기 뭐할 때도 있고.. 물론, 억수로 많다 싶으면... 근데, 그리 많지도 않아요.. 일시적으로 한 몇십만원 들어올 때 있고..

Q: 노인분들 사적이전 자식들한테 받은 거를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죠?

A: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계속 들어오면, 내가 안받았다하면 모르고..

Q: 와서 직접 짚어주고 통장으로 안보내면 알 수 없는 거죠.. 순진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끔 저희가 조사를 가면 통장 숨기시려고..

A: 저도 어떨 때는 드문드문.. 순진하다고 해야할까요.. 어떤 때는 믿고 했는데.. 안되면.. 양심상 최소한으로 잡고.. 신고한 사람들은 신고의 의무에 충실했으니까.. 또 배려해서 잡고.. 아예 신고 안한사람도 있는데..

Q: 신청서류가 준비되어야지 신청이 완료되는 거라고 하던데.. 신청하고 싶다고 온 때부터 신청완료가 되기까지 그 기간이 보통 얼마정도 걸리나요?

A: 보통 첨에는 전화상으로 묻고 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 잘 몰라도.. 딱게 있습니까? 기본서류는 여기 다있고.. 주로 진단서, 재학증명서, 무료의탁 확인서.. 그런 정도인데.. 보통 신청이 한번 들어오면 그 다음날 다와요.. 최대한 빠를수록.. 대부분 다 병원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니까.. 서류 받고.. 본인만 부지런하면.. 그 다음 날..

Q: 여기서 시로 올리면, 지금은 수급확정 될 때까지 보통 어느정도 걸리나요?

A: 보통 서류가 구비되면, 보통 그날은 무리고.. 보통 그 다음날 만들어서 보내면.. 최대한 14일이니까.. 안동같은 경우, 그래도 10일? 쯤 빨리되는 편이이에요..

Q: 조사가 용이하다는 건가요?

A: 좋은게 뭐냐하면, 그것도 전문화되니까.. 한 가지만 하니까 빨리되더라고.. 그 중에서 특히,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낼때.. 개인적으로 좀 빨리 해달라고.. 좀 더 일찍 해주는기고.. 그렇다고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진짜 딱한 경우에.. 그리고 드문드문 100에 한-두건 혹은 서-너건 정도는 신청했는데.. 보내기 하루-이틀 고 사이에도 잘못된 게 드러나는 경우는 있어요.. 어떨 때는.. 애매모호 할 때는 뜯들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다보면, 경험이 있어가지고.. 약

간 짹짹한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뜬을 들였다가 하고.. 그게 맞을 때도 있고..

Q: 긴급지원은 많이 활용이 되나요?

A: 긴급지원은 지금 시에서 하는데.. 주로 병원 아플때 하고.. 교도소 출소자.. 우리가 사실 여건만 되면, 그런 사람도 챙기고 하면 좋은데.. 우리는 일단 되면, 어떤 일이든.. 시간상 진짜 딱하면 수급자 쪽으로.. 어차피 긴급생계지원 하는 것도.. 교도소 출소하는 분들에게는 긴급생계비가 있지만.. 나머지는 실제로.. 아프신분들은 바로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그거는 좋더라고 분리되었으니까.. 대부분은 다.. 감이 오니까.. 일단 수급자 신청하게 한다든지..

Q: 그런 경우는 바로 그냥 정식으로 수급 신청하는 절차로 들어가시는군요?

A: 대부분.. 그 정도 되면 수급자 신청하는 쪽으로.. 거의 다 보면 대충 알아서.. 이야기 좀 하다보면 감이 와요.. 현실적으로 저도 사회복지하는 사람이고,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그런 시간적인 한계 여유가 없으니까.. 어떨 때는 좀더 챙기고 싶긴 한데.. 참~ 그계.. 그럴때는 참.. 어떨때는 저녁에 야근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진도가 안나가고.. 근무중에는 빠지게 막 이렇게 하는데.. 일반행정직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왜그러냐고..

Q: 수급자분들이 증명서 떼와라 그러면 잘 떼옵니까? 사실확인복명서인가 그런 것들..

A: 자기가 혜택 받기 위해서니까 그건 잘해와요.. 그계(서류가) 다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진단서 들어오고, 안들어 오고가 생계비에서 차이가 나니까.. 한번씩 최근에는 우울증 환자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지만.. 대부분 100에 95은 자기가 혜택 받는 거니까.. 그래 얘기하죠.. 진단서 가져와라.. 다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할려고 하는데.. 누가 마다합니까? 그 말은 잘 들어요.. (웃음).. 일단 본인들이 원해서 왔으니까..

Q: 다루기 제일 힘든 수급자 유형이 어떤 사람이죠?

A: 지금 수급자중예요? 아까 그 30대초반~40대 초반 알콜릭 중독자들.. 기존 수급자중에는.. 어떤 사람은 하루종일 전화해.. 일하는데 계속 생계비 더 올려달라 이런식으로.. 어떤 수급자 중에 긴급구호자가 아닌데도 자꾸 올려달라고.. 저도 최대한 해주는데도.. (이 사람은) '이게 아닌데'.. 그런데도 계속 전화와서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먹고 와서 횡패부리는 사람도 있고.. 거의 사무실에서도 보면, 또라이들이 오면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다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이것도 나름대로 스트레스예요.. 제가 올해 43인데.. 어떤 때는 (내가) 교통 사고나서 입원했다가, 목 뒷골땡겨서 아프고 덜 나왔는데.. 술먹고 와가지고 횡패부리고 있는 거야.. 다들 그냥 다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 있으면 시끄러워서 안되니깐.. 데리고 나와서 이야기하고.. 제가 여기에 오래되었으니깐 달래면 가는데.. 어떤 사람은 좋게 말하면 안듣고.. 어떨때는 뭐라고 한마디 해야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엔 일단 아니까..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아니까.. 그 사람이 깡패도 아니고.. 완전히 그런 애들은 상대할 순 없지만.. 진짜 막가는 사람한테는 뭐라 할수 없지만.. 말로 해서 듣고, 좀 인간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나이가 적은 친구는.. 어떨 때는 달랬다가.. 어떨 때는 먹살좀 잡았다가.. 어쨌든 싸우면 안되니까.. 그렇게 늘 항상 초긴장 상태죠.. 말은 안하지만, 그래도 늘 신경이 쓰이죠..

Q: 불평하던 사람이 또 계속 불평하니까..

A: 최근에는 읍면동이 여자분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적다 보니까.. 다른 사람 일하는데.. 술먹고 소리지르고 이러면.. 다른 사람 일도 안될뿐더러.. 윗분들도 '어휴~ 이거는 좀 사회복지 담당자가 좀 알아서 해라' 다들 이래요.. 제가 없으면 또.. 이게 또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며 교육간다거나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자분들이나 높으신 분들이 달랬다가.. 어떤 사람은 술먹고 욕이나 하고.. 그러니깐.. 당황하고 그러니까..

=== 누가 찾아와서 잠시 면접중단 =====

Q: 근로능력 판정에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에 관해 여쭙볼려 그러는데.. 판정기준이 사실은 나와 있긴 하잖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많이 적용을 합니까?

A: 근로능력자.. 거의 그건 이제 시스템이.. 기존의 수급자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규자가 수급자가 되면.. 시의 자활지원계에서 분류를 해요.. 또 1차로 우리가 분리하기 때문에.. 그 뒤에 만약에 그 사람이 근로능력이 있다가, 아파서 아니게 된 경우는 진단서 해서 다시 자활지원계에 보내면 빠지고.. 그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거 같아요.

Q: 예전에 여기서 직접 판정을 하실 때에는 그 기준대로? 진단서 가지고 오면, 그거 보고..?

A: 네. 제가 3년전에는 제가 안봤으니까.. 요즘은 그대로 하고.. 그 전에는 약간 사실 좀 애매했으니까..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3년 이후부터는 법이 좀 바뀌어서 되어 왔으니까..

Q: 근로능력이 없는 거로 내려 왔다가, 이후에 다시 예전에 진단받았던 것이 호전이 되어서 근로능력자로 바뀌거나 하는 그런 케이스는 많진 않죠?

A: 네. 그런 편이죠.. 생계수급자로 체크된 거고...

Q: 저희가 생각하기에 반대의 경우는 많을 거 같은데.. 아까 수급자 선정해서 탈락시키기 어려운 것처럼, 근로능력자가 아니었다가..

A: 원칙적으로 본인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우리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지만.. 한계가 있죠..

Q: 전적으로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진단서에 의존 하실수 없는거예요?

A: 예를 들어, 장애등급 가은 경우 1,2,3급은 심한거지만.. 4,5,6급은 그리 많이 심한게 아니니까.. 그리고 진단서 보면 대충 안다 아닙니까.. 심한지 안심한지.. 병력을 봐가지고 .. 주로 뇌졸중이나 이런식으로.. 일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은 하고..

간단한 이런거는 우리가 구분되니까.. 그런거는 감안해가지고..

Q: 여기서도 자활센터? 자활후견기관이 근처에 있습니까?

A: 예. 안동에 한군데 있긴 있죠..

Q: 그쪽으로 가는 사례가 있습니까?

A: 여기 지금 920명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젊은 모자가정 아줌마들이.. 요새 안동은 사회복지사무소에서 그거는 잘되어 있어요.. 간병사라든지, 집수리 그런건 잘되어 있어요..

Q: 근로능력이 있고, 그쪽으로 가시겠다 그러면..

A: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있는 사람들은 시에다 보고하고.. 대부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신규자는 수급자 될 때, 자체적으로 걸러지죠.. 이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가 아니다..

Q: 여기서 일단 다 어느정도는 스크린해서 올리면 거기서..

A: 그거 보면 대부분 거의 다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든 키포인트 다 찍어주니까.. 그거보면 이사람이 일할 능력이 있다 없다..

Q: 최종적인 결정을 해서 통보 할때, 시에서 그 사람에게 자활후견기관으로 보내라..

A: 네. 사실 본인이 기준이 조금 이렇게 될 듯, 말 듯할 때.. 본인이 일을 한다고 하면 해주라하는데.. 일을 안한다 하면 보통 탈락 시킬 때도 있고.. 고론 경우.. 그건 시에서.. 그것도 전문 파트니까.. 기존에 사람들은 정리가 있는 상태고.. 신규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걸러주니까..

Q: 여기서도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지 않나요

A: 우리 복지 도우미.. 두명 있어요.. 여기랑 위에도 한명 있고.. 저분 같은 경우..

남편이랑 이혼하시고...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요.. 왜냐하면 우리가은 경우 단순한 일.. 장애인 카드 발급 해주고.. 그게 사실 안동에서 제일 큰 우리 동만 해도 일이 참 크거든요.. 단순한 일이 모이면.. 우리야 많이 도움이 되죠.. 본인들도 사무실을 똑같이 인간적으로.. 힘들때 봐주면서도..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본인도 사실 또 여기있다가 재활 할 수 있는거고.. 우리한테 도움이되고.. 특히 이런 안동 지역사회에서.. 저분들 한달에 80만원 받는다 아입니까.. 80만원 받기 쉽지 않거든요.. 애들은 수급자니까 공짜로 학교 다니지.. 일년되어 가는데.. 우리한테도 도움되고.. 다 도움되죠..

Q: 그러면 행정업무를 조금씩 배우시겠네요?

A: 그렇진 않죠.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냥 단순업무.. 조금씩 하지만.. 그 틀을 넘을 수는 없죠..

Q: 그분들과 재활 후견기관으로 가시는 분들간에는 차이가 있는지요? 예를 들어, 이 업무를 잘하기 위한 분들이 여기 남는다든지..

A: 여기는 조금 젊은 분들이.. 젊고..

Q: 일을 빨리 빨리 할수 있는 분들이 남나요?

A: 크게 실력이 없어도.. 젊은 사람들은 기본은 하니깐.. 성실히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한 열댓명.. 전부다 20대중반~30대 초중반..

Q: 그럼, 각 읍면동에 내려가는 복지도우미들은 마찬가지로 시에서 결정하나요?

A: 그렇죠.

Q: 거주지 가까운데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A: 네. 자리 비는데.. 그렇다고 다 주는거 아니니까.. (담당지역이) 큰데.. 지금 사회 복지공무원이 힘든데.. 직원을 못구하고 그러니까.. 나이드신 분은 일하시는게 주

로 가사간병이고.. 남자분들은 짐수리하고..

Q: 그런 것들은 후견기관에서 알아서 다 하나요?

A: 시에서 다 선정을 해주죠.

Q: 단순 자활로 오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A: 네. 지금 여기는 7명.

Q: 그럼 그분들은 선생님께서 아침에 오시면 직접 관리하세요?

A: 아침엔 교육은 시켜요.. 나가진 못하니까.. 근데, 안나가도 아니까.. 나가면 일을 못하니까..아침에 교육을 시키죠..

Q: 업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다 관리를 하시고 그러세요? 오늘은 무슨 일을 하셔야 한다고 한다든지..

A: 주로 위에서 오더(order)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할 일 없으면 고때 고때 등에서 자체적으로.. 주1회 노인복지회관 청소도 한번 하고.. 어차피 그 분들이 연세도 있고, 아프신 분들이니까.. 많이는 못시켜요.. 우리가 업무를 보니까, 그 사람들을 아는데.. 또 아픈걸 이해를 해야 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아프고.. 속된말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조금 미흡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अच्छ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중간에서 그렇게 힘들어요.. 다르게 아니고..

Q: 다른 데에서도 일을 하라고 했더니.. 휴지통 치우라고 시켰더니.. 언제 집에 들어가서 쉬는 분들이 힘들다고 그러시던데 어떠세요?

A: 그런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업무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린 사실,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일 안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없는게 훨씬 낫거든요.. 동으로 봐서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사람들을 일반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각해버리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안드는걸 나한

테 뭐라고 하니까... 어떨 때는 속으로 '인간아~니가 한번 해봐라' 막 이런 맘도 들지만.. 그걸 이해를.. 아무래도 사고가 틀리니깐.. 내 입장에서는 여기 핑계대고.. 이분들이 다 여자분들인데.. 그 상태에서 이정도 하면.. 잘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100%는 아니더라도 80% 정도면 된걸로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더 많이 해야 하는 걸로 생각하니.. 그런 것 같으면 속된말로 수급자 안됐지.. 맨 아프시고.. 인간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생각이 좀 떨어지는데.. 그걸 우리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있죠.. 어떨 때는 일이야 더 하면 되는데.. 또 업무 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조용한걸 좋아하는데.. 막 시끄러우면 내가 더 피곤하고.. (그래서) 조용조용 넘어가고.. 그런게 인간적으로 그래요..

Q: 수급자 분들이 자활근로나 일하시는거 보실텐데.. 일 하시는게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 수급자 아닌분들이랑 일하는것과 비교해 봤을때.. 일에 대한 태도나 의지가 구별되는게 있다거나, 차이가 있다는게 보이십니까?

A: 음.. 하는 일이 단순노동이 많다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물론) 기본은 해야되지만..(알콜은 반대지만) 이리 계속 친해지고, 인간적으로 신뢰를 하고 하니까.. 저는 최대한으로 밀어 들어줬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할 건 해야 한다.. 그리 믿고 하니까.. 처음에는 사람마다 성격도 틀리니까 말이 많고, 뒤에서 속덕속덕하고.. 특히 여자들이.. 근데 갈수록 많이 나아져요.. 마찬가지로 술먹고 알콜릭 야들도 침보다는 자꾸.. 한때는 싸우기도 하지만.. 특히 애들이 있는데 이혼하고, 애들 고아원보내고 이런 사람들도.. 인간되라고 하면..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한두살이라도 많으니깐.. 일년 반 되고 하니까 좀 나아진 느낌이 들어요.. 사람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지만은.. 제일 힘든 거는 자식이 없고, 무대표인 사람들.. 그래도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이야기 하면 먹혀 들어요.. 조금씩은 바뀌었는걸 느끼는데.. 내생각에 수급자 이것도.. 꼭 기준이 100이면 105가 됐다고 자를게 아니고.. 옛날에는 사실 기준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3년간 더 봐준다던지.. 어찌면 그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좀 오바되어서 짜르면, 그게 다시 또 (들어오거든요).. 거의 확실하게.. (물론) 완전히 넘어가면 못하지만..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옛날 경상북도때는 자활자급이라고 해서 그

렇게 한 사람에게 돈도 몇 백만원주고, 상도주고 했는데.. 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도 저는 제 소신껏.. 그렇다고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솔직한 사람이 기대가 100이면, 열심히 사는 사람은 105까지.. 확신이 서도록(자립하도록) 도와주고.. 그런게 맞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단, 첨에는 엄하게 해야 되요. 첨에 엄하게 안하니깐 끝이 없어요.. 경험해 보니까.. 그래야 영세민 (기초)수급자가 되기가 (힘들구나).. 아무나 하는게 아니구나하는 그런 마인드도 많이 퍼지고.. 제 생각은 그래요.

Q: 판정할 때 소득이나 자산, 부양 의무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만약에 조금 단순화시킨다고 보면, 물론 지금 선생님께서 직접 결정하시거나 그런 업무는 안하시지만.. 만약에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는 좀 적용 안했다 싶은 거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추정소득은 안하는게 낫겠다 내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확인하기도 그렇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빼버렸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게 있으신가요?

A: 그래도 있을 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틀이 있어야.. 사람이 많으니까.. 이때 담당자가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적용을 해야.. 약간 재량도.. 원칙이 그렇지만.. 이런 저런 경우는 좀 더 넣는다든지..

Q: 그러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들에다, 나머지 것들은 완전히 빼는거 보다는 그냥 둔 상태에서, 담당자에게 재량껏 내지는 스스로 판단해서 적용하실 수 있게 하는게 더 낫할 수 있다는 겁니까?

A: 제가 보기에는 기초보장법이 더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보나는..

Q: 일부에서는 적용하는 항목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런것들이 전산으로 다 조회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복잡하니까 좀 단순화 시키기 위해서, 일부항목은 적용 안하는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것도 있었는데..

A: 제 생각은 지금 이 상태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뭐 지금도 조사원들이 그렇게 뭐.. 힘든 거 아닌것 같거든요.. 너무 쉽게 되버리면.. 속된 말로 '나도 한

번 해보자 이래 버리면, 업무가 더 과중되고.. 단, 노인들 주는거.. 경로연금, 기초 노령연금 이런거는.. 하~ 이것도 고민인데.. 이런 거는 어차피 노인들 주는거 같으면은.. 사실 이것은 건강보험산정방식 아닙니까? 그거 있는데.. 수급자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 기초노령연금.. 이런 거 같으면 줄라면 다주던지.. 다주되.. 다는 안되겠지만.. 오히려 현상태에서는 경로연금 주는게요.. 수급자 보다 더 많아요.. 경로연금 서류보면.. 더 많아요.. 오히려 더 번거롭고

Q: 기초보장처럼 똑같이 거의 적용해가지고.. 대상은 훨씬 많고..

A: 지금 수급자는 일촌 이내로만 하니까 괜찮은데... 경로연금은 호적 다파다 보면.. 끝이 없어요

Q: 그거는 내년에 바꾸면.. 바뀌면 부양의무자도 조사 안하거든요..

A: 제 주변에서는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물론 전문지식은 없지만.. 그건 놔두고.. 나머지.. 그거는 될 수 있는한 단순화 시켜야되고.. 될 수 있는한 국민건강보험도 기본자료가 있다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Q: 다른 제도들 하면서, 소득인정액 적용하면 그걸 산정하기가 더 어려우시다는거죠? 일반대상자들까지다 확인하기가..

A: 저도 기초노령연금법도 보니까.. 이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보다는 쉽게 하는 것 같고..

Q: 개념은 똑같이 소득인정액이라고 되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거 보면 사적 이전 다 무시하고, 부양 의무자 조사안하고, 그냥 오로지 그냥 노인만 딱보구서 하기 때문에 훨씬 단순할 겁니다.

A: 네.

Q: 어차피 대상이 거의 70%는 주게 되어 있는거니까.

Q: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신다면.. 제일 쟁점이 되는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급여를 주는거.. 옛날 생활보호법이랑 달라진게 근로 능력있는 사람들한테 급여를 주는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A: 저도 그것 참.. 지금도 조건부수급자 그분들이 하면 되고.. 또 자활특례로 바뀌고.. 일정 정도는 통제가 되니까.. 저는 그것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것이 맞다.. 제 생각엔 그게 좋은거 같아요.. 제가 더 큰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는기 안맞겠나 (싶습니다).. 조건부수급자에서 자활특례자로 바뀌고.. 그 사이에.. 그 기간에 충분히 교육시키고.. 본인도 자활의지도 쌓이고.. 보통 자활특례 정도 되면은 거의 다.. 주로 보니, 가사간병 쪽에나 그런.. 큰 소득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전문지식이나 전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집수리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가사간병 파트가 많이 그런 식으로 발전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좀.. 남자들은 되기 힘들더라고요..

Q: 제도에 대한 의존성이 예전에 비해 많이 커졌다고 하는 그런소리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을 안할려고 그런다.. 수급자들이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분들이 기초보장제도 좀 받아보니까 일 안해도 주더라.. 그런데 좀 느껴지시나요?

A: 제가 보기엔.. 자기가 했는 만큼 나가고, 더 일하면 하는대로 더주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을 안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근로의지가 더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 봐서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나와서도 열심히 하시고..

Q: 급여를 받으면서, 급여는 보충적 의미에서 주는 거고.. 거기에다 자기가 조금만 더 일을 하면은 돈이 좀 쌓이니까 의욕이 생긴다는 거죠?

A: 그렇죠. 보통 보면 한달에 80만원 나가고.. 부족하면 보태고.. 솔직히 자기가 열심히 하면, 아르바이트비 잠깐 며...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 나뵈니까? 안보이는것 그런 것도 보충해주면 괜찮죠.. 저도 열심히 하면, 최대한 맞춰

주려고 하는데.. 정부처지도 안그렇습니까.. 문제는 일을 안하고 챙겨 가는게 문제인데.. 저는 그 자활의도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 주변만 봐도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야 근성이 예전 타성에 젖어 있긴 하지만.. 그것도 계속 얘기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으니까.. 성실하게 바뀌는거 같아요. 좀 사고가 바뀌는거 같아요.

Q: 웬만한 일자리 있으면, 수급자로 있는거 보다, 그냥 일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보이시나요?

A: 안동은 자리가 없으니까.. 또 안동같은 경우는.. 여자가 일해서 백만원, 칠팔십 받는 일이 마땅히 없어요.. 어차피 없으니까.. 드문드문 본인 스스로 수급자 빼돌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은 조금.. 집에 아픈 사람만 없으면은, 대부분다 기회가 되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Q: 아픈 사람이 가장 문제인거 같아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돈이 천정부지로 들어가니까..

A: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생계비보다는 병원비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신중하게 해야돼요.. 한번 혜택을 보면, 없는 사람은 많이 도움이 되는데.. 제일 처음에 잘해야 되는게.. 처음에 맞을 보면 잘 안나갈라 하니까.. 특히 아픈 사람들은.. 예를 들어, 영세민 2종만 한다하더라고.. 장애인등록 되어 있으면 혜택을 보니까..

Q: 이번에 의료급여 바뀐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지 않나요?

A: 그게 불만이 많죠. 예를 들면, 노인분들은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롭고.. 몸이 불편하고 하니까.. 시내에 가더라도 택시타고 왔다갔다 하시거든요.. 봐서 그것도 좀 보완이 되겠죠..

Q: 계속 안내시던 돈을 내야 하니까..

A: 설명을 하긴 하는데.. 불만이 많죠.. 대부분은 괜찮은데.. 문제는 병원을 많이 이

용하는.. 제가 봐서는 5%~10%가 문제인데.. 딴 분들은 그리 뭐.. 물론 할매들은 물리치료 때문에 많이 가는 경우가 있죠.. 그게 편하긴 편하죠

Q: 오랜시간동안 고맙습니다.

A: 있는 대로 얘기 했으니까

Q: 끝으로 더 제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A: 될 수 있는 한, 현실적으로 인원이 충원이 되면 좋은데.. 잘 안되지 싶고.. 아무래도 행정직 분들 도움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공문에는 도와주라고 하지만.. 한계가 이있어요.. 우리는 평생 내일이라 생각하고.. 공문하나라도 열심히 하지만..한계가 있죠.. 다른거는 일이야 뭐.. 업무이외에 스트레스 같은게.. 하긴 뭐 스트레스 같은거는 다 있지만..

Q: 깡판치러 오면 사회복지 담당이 다 해결해야 된다는

A: 실제로.. 옛날보다 사회복지 업무가 많고, 제가 92년에 왔을 때보다는.. 어찌보면 그때는 마음에 여유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는 자전거 타고 왔다갔다 집에도 가 보고 그랬는데.. 요새는 진짜 힘들어요.. 전산화 되고.. 일분일초 사이에 전화가 몇통 와 있을기고 하니까..

Q: 이제 덩치가 커질려고 하는게 좀 더 보충이 될꺼고..

A: 이번해 해보고 안되면 보충을 한다고 하던데..

Q: 오늘 고맙습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 조사지역 : 농어촌
- 응답자 개인사항

성별	연령	학력	근속기간	자격증 여부
여	34	대졸	약 10년	사회복지사 1급

- 기관환경

읍·면·동사무소의 상담환경 - 조사자 기록
- 영광군은 전달체계 제3차 개편지역으로서 최근 상담실이 마련되었음.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p>※ 영광군 법성면은 농어촌지역으로 수급자의 대부분이 노인가구라고 함.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있어서 융통성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p> <p>- 부양의무자 조사에 있어 사실조사복명서를 부양자 본인에게만 작성하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양할 수 없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p> <p>- 농어촌의 전담공무원은 도시의 전담공무원보다 대상자 기준을 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됨.</p> <p>※ 전달체계 개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p> <p>- 수급자 신청 시 일반적인 초기상담과 조사는 면단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p>

때문에, 선정조사가 군단위로 간다면 절차의 중복현상만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면장과의 짧은 대화에서도 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알 수 있었는데, 도시와 다르게 농어촌 지역에서는 교통이 불편해서 해당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단위를 축소하고 군단위의 복지서비스 조직을 확대하는 것 보다는 현재와 같은 구조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었음.

Q: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A: 여기에 대한것만요?

Q: 네

A: 그러면은 1년 10개월

Q: 아 1년 10개월 정도요?

A: 예.

Q: 그럼 사회복지 업무는 어느정도로

A: 사회복지 업무는 10년 되가거든요 올해로.

Q: 10년이요? 그럼 사회복지 자격증은 있으신거예요?

A: 네.

Q: 사회복지 자격증 있으시고..

A: 네 사회복지사 1급.

Q: 저번에 확대하고 많이 뽑을 때 그 때 들어오신?

A: 그때 아니구요 97년에

Q: 그때 별정직일때요?

A: 네. 그 때 별정직일 때 들어와서 2000년에.

Q: 선생님께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A: 국민기초업무 전반하고요. 그리고 여성복지 업무 2가지

Q: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말소 업무나 이런 건 하고 계신 건 없으시구요?

A: 저는 안하고 있어요.

Q: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관련업무를 주로 하고 계시고, 여성관련 복지 업무를 하고 계신 건데, 기초생활보장업무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A: 한 80%? 여성복지 업무는, 이제 그냥 필수적으로 한다고 하는거예요.

Q: 수급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A: 지금 7월말 쯤 316세대, 500명.

Q: 500명이요? 그럼 이 세대를 선생님 혼자 담당 하시는거예요?

A: 아니요. 저희 나눠서 해요.

Q: 몇 명씩?

A: 지금, 원래 저희 복지사가 4명이거든요? 근데, 저희 사무실 여건상, 저희 직원이 두 명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애석하게도 다른 데 타 업무과 가서 일 하고 있구요.

Q: 아 그럼 두 분이서 지금?

A: 세명이서요. 나눠서 하고 있어요.

Q: 아 그럼 여기 계시다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팀으로 위로 올라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A: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4명 있는데 다른 계에,

Q: 아 다른 계통에, 사회복지 지금 이렇게, 일반직이 코어워킹 형식으로 도와주시나요

A: 아니요 저희 업무는 다른, 운영행정에 종합행정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제 업무 들은 인제 저희가 마을 담당을 맡아가지고 다 나눠서 하거든요? 근데 복지직들

은 이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 업무를 마을에다가 마음 담당들한테 맡기고 하는 건 거의 없거든요? 다른 업무는 저희가 마을 담당 맡아서 다 하는데, 저희 업무는 다른 사람들한테 맡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Q: 아무래도 좀더 전문적이라서..

A: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어쩔 때 급할 때는 저희들 이제 맡기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복지사들은 숫자도 많은데, 그럴려고 뽑았는데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느냐 이제 그런 것들인 전반적으로 많이 있고요. 아주 시급할 때는 하거든요? 일 하기는, 근데 거의 저희가 다 알아서 저희 끼리 해결하는 편이에요.

Q: 그럼 세 분이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급자 발급, 뭐 수급자 발급을 관한 사항을 어떤 분이 하시고,

A: 수급자 관련은 제가 이제 종합을 하고, 이제 신규 책정인 경우에 신규책정이랑 정기조사가 있거든요? 그것만 이제 마을 별로 나눠서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자 자기 업무 있고, 뭐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 분야별로 다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자활사업 이렇게

Q: 수급자 발굴은, 발굴은 어떻게?

A: 발굴까지는 솔직히 좀 힘들구요, 이제 의뢰해 오시는 분들 각자 마을 별로 나눠가지고 상담하고, 처음 초기 상담부터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는 이제 군에서, 국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가 이제 초기 상담해가지고 선을 접수해서 진단하면, 그 쪽에서 조사해서 할 거구요. 이전에는 각자 이제 마을 담당자로, 초기 상담부터 결정까지,

Q: 원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만든 게 읍.면.동에서 복지사가 좀 더 접근성이 있어서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초기조사를 여기서 하고 또 글로 넘어가서 하시는.

A: 예.예. 근데 평균단계가 너무 복잡해 진거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저희가 초기 상담하려면 집 위치까지 다 알아서 약도 까지 그러서 군에다 보고를 해야되요. 그러면 어차피 저희 하는 일은 똑같아요. 단계가, 근데 이제 와서 점검한다 그런 차원인거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Q: 원래는 군에서 내려와서 해야 되는 건데

A: 저희가 안하는 것은 단지 민원 접수 하고 전국 군 자산조회, 의회 그것만 안할 뿐이지 초기 상담하고, 그 사람의 생활실태 파악하고, 또 책정해서, 관리는 어차피 저희가 하게 되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일이 뭐 어떻게 줄어가지고 현장에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업무량은 제가 봤을 때는 일은 위로 한 단계가 더 늘어간 거 같아요. 저의 생각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Q: 그럼 선생님, 수급자 발급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런거는

A: 그러니까, 저희가 막 찾아 나서서 수급자를, 어려운 사람 있나 없나 보기는 힘들어요. 지금 있는 사람도, 어렵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솔직히 다 감당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수급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나 뭐 아동급식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거든요, 저희가 57세대를 배달을 하는데, 방학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니까, 목요일 마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직원이 세명있잖아요 저희 계장님이 저희한테 호의적이신 분이였거든요? 그래서 업무 협조를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장님까지 같이 나가서 두 팀이 나가면, 한 나절 걸리거든요? 따로 이렇게..

Q: 자원봉사는 없으신 겁니까?

A: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진 않아서 행정에서 하는 일들을 자원 봉사에게 맡기긴 어려워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배달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Q: 그럼, 수급자로 책정이 못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기준미달이셔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사회복지관이나 자원하고 연계를 해주시나요?

A: 네, 연계 지역의 특성상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뭐 수급자가 안되시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차상위 의료특례로 이렇게 전환을 하던가 아니면, 하다 못해 저소득 경로연금이라도 지원을 해드리고, 또 아니면 몸이 정말 불편하신데 수급자가 안되시면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이나 가정봉사원과견센터 같은 거에 다가 의뢰해가지고 이런 분들 도와달라 하면 그쪽에서 나와서 해주시고, 저희가 자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한다고는 하지만, 선정 안 되신 분들한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은 못해드려요. 그니까, 도시처럼 막 복지관도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으면, 뭐 주간보호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하는데, 여기 면단위에는 그런 시설 하나도 없고 이제 읍으로 또 나가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시골은 또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어쨌든.

Q: 처음 수급 상담을 오셨을 때, 어떠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A: 신청을 하시게 되는 원인이 되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것을 파악하고,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 어떤 지원을 바라는 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접수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서류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드리고,

Q: 수급 신청하고, 이제 14일이내 책정이 되어 하는데, 그 기준은 언제부터, 14일 ?

A: 그거는 인제 본인이 찾아온 날이 아니구요, 서류다 갖춰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신 날. 그 때부터 저희가 접수를 하거든요.

Q: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 때, 기본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은 그나마 좀 직접 물어보거나, 이제 전산망을 좀 짚 수 있는데, 부양의무자 같은 거는 또 판매

로..

A: 부양의무자는 저희는 이제 다른 읍면동에 의뢰 하면, 저희도 어차피 다른, 저희 수급자 조사하기도 힘든데, 다른 의무의뢰내용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부양의무자 조사표를 이제 부양 의무자한테 작성할 수 있도록 보내거든요.

Q: 아 그럼 기존 표 말고 따로 만드신 게 있나 보네요?

A: 옛날에 쓰던 부양의무자 조사표, 그 초기에 했던 초식이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기록 할 수 있게, 어떤 분들은 우편으로 저희가 다 못 보내 드리니까 직접 이제 드리거든요? 어떤 분들은, 전혀 연락도 안하고 사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 드리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우편, 이제 편지 이렇게 공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보내는 거니까 회신해달라고 보내거든요?

Q: 많이 오나요?

A: 안와요.

Q: 그렇게 되면, 14일 이내에 책정 해야 되는데, 그게 안와서...

A: 그거는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오면은 그걸 참고로 해서 이제 조사하지만, 이제 자꾸 독촉전화는 하지만, 연결이 안되는 분들도 있어요. 안사는 분들도 있고, 등록만 해놓고 안사는 분들도 있으니까, 또 반송오는 경우도 많고, 안오면 그것은 지급을 시킬 사유가 안되거든요? 그냥 그대로 넘어 가는거죠.

Q: 수급을 해드리고?

A: 그렇죠. 일단 해당이 되면 해드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격이 되면

Q: 부정적으로 떠안고나가게 되고

A: 그렇죠 이제 부양기피로 해가지고..근데 이제 연락 안하는데 뭐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구요

Q: 선생님 그럼 긴급생계급여는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하고 계세요?

A: 네 수급신청을 하시면 이제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이렇게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대부분 이제 초기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계비 지급할 때 차감해서 지급을 하니까... 이제 신청하고서 민원접수하고 나서 지원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Q: 긴급급여가 작년 3월에 법이 생기면서 이제 좀 강화됐는데

A: 긴급급여요? 긴급생계급여가 아니고?

Q: 예 긴급급여

A: 긴급...이제 생계급여가 되겠죠 긴급 지원하고 또 생계급여가 따로 있어요. 긴급 지원.

Q: 긴급지원. 아 그렇죠

A: 긴급생계급여 말씀하셨죠?

Q: 네 선생님 그럼 수급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금방 말씀하셨던 부양의무자 같은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A: 어려웠죠 저희가...

Q: 예 그런 뭐 사례가 있으면 좀

A: 사례요?

Q: 상담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수급자와 갈등이 있었다거나 그런거

A: 대부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농촌지역이라 어르신들이 많이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계중에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뭐 자녀들 두

세명 있고 근로 능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 신청을.. 저소득이잖아요 이제 소득상태로 봐서 저 사람은 소득이 없으니까 해당이 되세요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시골어르신들 생활이 편하잖아요. 도시에는 자녀도 있고 웬만한 직장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봤을 때는 사지 멀쩡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수급자가 되는데 나는 이제 그냥 잘 가르치지도 못하는 자녀가 서울에서 뭐 어디에서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해서 안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되게 안타깝거든요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이제 그게 법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자활을 기초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지만은 어떤 부분으로 봐서는 어르신들이 더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안 해줘야 한다는 그런 건 아닌데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충분히 일해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됐는데 나는 자녀가 있다는 그런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다는 그걸로 인해서 안된다는.. 좀 어떨 때는 용납이 안가시더라고요 그 분들한테는.. 부양의무자 조사할 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정기조사 해가지고 보냈는데 회신 온 게 한 200권도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해줘야 된다는 그것조차도 좀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편지이렇게 써서 보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조사표를 보내는 건데 이걸 왜 해마다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어 생활이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친정부모를 모시겠느냐 하면서 물음표 찍어가지고.. 인제 국가에서 당연히 지원해줘야되는데 왜 나를 자꾸 귀찮게 하느냐 이런 식의 편지가 많이 와요 그럼 어떤 분들은 개중에는 정말 죄송하다고 내가 모셔야하는데 생활이 이렇게 이렇게 어려워져서 못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오는 분들은 어찌다 한 분씩 계시는데 대부분은 다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가지고 보내세요

Q: 그럼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에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소득파악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없으신가요?

A: 어려운 점이 많아요

Q: 어떤..

A: 왜냐면 이제 다 일용직이라서 신고를 안 하시고 일을 하시잖아요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굴비가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용임금확인서라고 그거를 인제 사업장하고 같이 사업주하고 같이 이렇게 찍어서 받게 되었잖아요 그거를 보내면 이제 둘이는 이미 친분관계가 형성이 돼있잖아요 근데 이 짧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다 아세요 소득기준을..내가 어느 정도 신고를 해야지 이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 아세요. 몇인가구 이런거 얼마.. 그러니까 인제 그거를 맞춰가지고 오세요. 그럼 우리는 이게 맞냐고 근데 현실상으로 그게 좀 안 맞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사업주하고 둘이 이제.. 같이 실제로 이렇다는데 몇 시간 밖에 일을 안 해서 뭐 어쩐다는 등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Q: 어쩔 수 없이..

A: 예 어쩔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Q: 그럴 경우에 추정소득 부과가 안되나요?

A: 이미 일용근로를 해가지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가꼬 이제 기준에 맞춰서 해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려운 게 지금 왜 전국구 자산조회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부양의무자나 수급자나.. 수급자들은 이제 거의 사업자 등록 되신 분들은 안계시지만 부양의무자 가운데는 사업자 등록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경기가 한참 어려워가지고 폐업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자료가 2005년 자료가 와요 지금 조회를 하면은..이번에 조회하니까 2005년 자료가 왔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막 다 폐업인데, 이걸 다 이제 일일이 그 저희 지포씨(G4C) 그거 이용해서 폐업사실 확인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거 확인하는 것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오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보니까 그 필요 없는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

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 생각에는 국세청 자료는 안와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료가 소득신고가 정확하게 돼가지고, 정확한 자료라면은 저희도 받아서 이렇게 적용하는 데 애로가 없는데 막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소득이 보이는데도 일 년 소득이 막 백 얼마, 이백 얼마 이렇게 되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가슴만 아파요 적용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는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들어가는, 소요되는 시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료라도 최근 자료가 오면은 이제 개업인지 폐업인지는 확실하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Q: 앞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이나 내년도 2학기 근로소득지원제도 이런 거 생기면 다 큰 자녀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럼 더 업무량이 더 늘어나시겠네요

A: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희 직원들도 다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강보험자료나 국민연금 자료 같은 경우에는 최신자료가 3개월 이전 이렇게 자료가 오니까 그 자료를 충분히 활용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 소득과약이 제일 저희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셔서 하는 말씀도 우리 아들은 팔랑 직장에 다녀서 뭐 250만원, 300만원 받는데 어떤 집 애들은 이렇게 명절 때 오는 거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렇게 좋은 차타고 오고 막 이러시잖아요 이제 비교가 되시는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은 저희가 과약이 안되니까 어디 뭐 객지까지 찾아가서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뭐 얼마가 되는지.. 여기 사람들도 제대로 과약을 못하긴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수사반이 아니라서 수사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해해주시라고 하면 이해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걸로 이제 계속 항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고...

Q: 소득이나 재산 같은 경우는 정확히 딱 이렇게 나온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융통성 발휘하셔서 수급 되게 하거나 안 되게 하거나 그런 좀 그런 경우 있으세요? 혹시

A: 융통성을 발휘해서요?

Q: 네

A: 그런 경우는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정말 이분이 가서 보면은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도 인간적인 그런 게 조금은 있겠잖아요, 너무 어렵는데 정말 이분이 수급을 못 받으면 뭐 당장 안 될 상황인데도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못 타면은.. 조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안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Q: 그거 외에도 선생님 되게 생각하시기도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나 혹시 균의원들이 해달라고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A: 있어요 지금은 자주 없는데 지금도 있기는 한데 그럴 때는 이제 일단은 처음부터 안되는 상황이 눈에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거절을 하면은 또 그 분들은 이제 용납을 못하시거든요 일단은 이제 알았다고 최선을 다해서 조사해보겠다고 일단은 이제 수급을 하고 이제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해보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그러는 경우에는 이제 일단을 조사 해보겠다고 하고 이제 시간을 두고 나중에 찾아 뵈거나 전화 드려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되겠다고 그럼 인제 다른 방향의 인제 비공식적인 지원들이 있잖아요 뭐 공동모금회나 그런데서 이제 의뢰가 오면은 그쪽으로 한 번 지원해주겠다고 그런 경우에 한 번씩 이제 높은 분들하고

Q: 저번에 보니까 강원도 쪽에서는.. 강원랜드 쪽에서는 복지재단이 상당히 재산이 그렇죠? 상당히 강원도 지역을 많이 해주는게 있는데 여기서는 혹시 기업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많이 안해주시나요?

A: 원전에서 하는 데 자기들 나름대로 해요

Q: 아 여기는 안하구요?

A: 네 처음에는 이제 많이 대상자들 관리해달라고

Q: 아 원자력발전소 자기 자체내에서 따로 그런 게 있나봐요

A: 원전에서 이제 막 그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하는게 아니라 원전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거라서 경로당이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같은 경우에 각 과별로 한 분씩 연결을 해가지고

Q: 자매결연식으로 ?

A: 예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한테 안통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지원을 하시거든요 지원을 해도 저희는 잘 몰라요

Q: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원받은 분 중에 일부가 수급자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현물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현금으로도 줬을 때 안잡히겠네요? 잘못하면

A: 그렇죠 안잡히죠

Q: 그렇구나

A: 그러니까 저희 안통하고 하는 것은 안잡혀요 그 분들이 뭐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도 않고 받은 것도.. 어떤 분들은요 통장을 수급 받는 통장하고 따로 관리하세요 근데

Q: 금융기관에서 나오지 않고 별도 관리 이렇게...

A: 별도.. 금융조회를 해도 300만원 이하는 안나오니까 소득으로 안 잡혀요 바로 막 확인 이렇게 해버리니까 실수로 이제 통장을 생계비 들어왔나 안들어왔나 확인을 해달라고 갖고 오세요 그러면 다른 통장을 가져오셔서 아 이거 누구누구한테 돈 들어왔네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나한테 막 해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도 서로 이제 다 아시는거예요 그래서 인제 생계비하고 금품받는 통장 따로 있고 자녀들한테 용돈받는 통장 따로

있고 다 관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Q: 영광군 자체 내에서 수급자들이더라도 영광군 자체내에서 별도로 해주는 복지...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데 뭐 장수수당이라든지 노인같은거 @@말씀임

A: 예 저희도 장수수당 나가요 87세이상.. 올해부터 드리거든요 87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우리군 관내에 1년 이상 줄어들고 계시면 뭐

Q: 그 외에 다른 것은 없구요? 영광에서

A: 나가고.. 그 외예요? 저희 그 외 군 특수시책으로 복담골 결연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일대일 결연해서

Q: 간부들만 하십니까? 아니면

A: 아니요 전직원 다

Q: 전직원 다요?

A: 예예 기능직 포함 다

Q: 아 상당히 크네요

A: 네 규모가 커요 그거는 저희가 계획은 이제 일분기에 한 번 씩 찾아보는걸로 하고 수시로 가고 또 이제 명절 때 가고...

Q: 보통은 간부들이 많이 하시던데 여기는 또

A: 저희는 특수시책으로 몇 년간 해오고 있거든요

Q: 혹시 그 계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A: 근데 가서버렸어요

Q: 아 이번에 인사 바뀌면서?

A: 네 이번에 4월 6일자로 인사이동 했는데

Q: 앞으로 또 어떤 분이 오실지도 모르고 그거에 따라 또 업무가 바뀔수도 있겠네요

A: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저희 계장님께서 정말 좋으신 업무에 대한 그런 게 있으셔가지고 저희 계장님 업무가 환경 업무였거든요 다 하시고 저희 업무도 넣어주시고 그러시고 하셨었는데 다른 임용같은 경우에는...

Q: 일반 행정직 분들이...

A: 과장님들이 본인 그러니까 환경업무를 대부분 사회계장님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업무를 다 맡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Q: 그 늘었을 때의 그..

A: 그렇죠? 그 환경업무를 복잡한 게 많아요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요즘은 환경을 좀 저기 하기 때문에...그런 것 때문에도 좀 스트레스 많이 좀 받구요

Q: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네요

A: 이번에 오셨는데 지금 휴가가셨거든요 어제 오셨는데.. 휴가가셔서 지금 안계세요 가늠하시겠죠?

Q: 혹시 다른 일반 일이 진짜 급하시고 그러실 때는 옆에 있는 일반 행정직 분들 같은 경우 많이 도와주시나요 업무를 아님 그냥

A: 저희는 그냥 직원이니까 도와달라고 하긴 하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편이에요

Q: 약간은 원래는 주민이었다가 많은 분들이 봉급도 올라가고..

A: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안올라가요

Q: 많이 안올라가죠 예 만약에 올라가셨으면 큰일나셨겠네요 업무가..

A: 저희는 못 올라가게 애를 좀 썼죠.. 처음에는 다 이렇게 한 두명씩 올려보낼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느라고 조금.. 과정에 아픔이 조금 있었어요

Q: 여긴 이제 원자력발전소가 큰 단체인거죠?

A: 예, 뭐 큰 기업체라든가 뭐 그렇게 없어가지고.

Q: 복지관같은거?

A: 복지관에도 없구요. 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던가 이런 건 없고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한 곳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복지관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국제장애인협회라고 그 쪽에서 위탁운영 하는데 거의 대부분 지체 장애인, 장애인들 회원 관리하는 수준밖에 아니에요, 복지

Q: 자활후견기관 이런 것도 없어요?

A: 자활후견기관 있어요. 그리고 영광군내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노인 복지회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쪽도 많이 이렇게 활성화 되어있는 편은 아니구요. 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Q: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A: 그렇죠. 부족하죠.

Q: 그렇죠? 자립도가.

A: 그니까 거기는 이제 대부분 강사를 뭐 이렇게, 노인 일자리 더 교육경우로 해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업무담당이나 이런 건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Q: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생님이..

A: 네. 자활 사업은 다른 직원이 하고 있어요.

Q: 그럼 선생님께서는 수급자들 중에서 근로능력자들이 이렇게 일하는 거나 이런 거 보신 적 없으세요?

A: 일하는 거?

Q: 예. 예. 뭐 자활산업 참여하는 거라든지, 수급자가 뭐 이런 그 밑에서 일하는 거라든지

A: 있죠.

Q: 어때요? 그 태도가? 열심히 일하나요?

A: 예, 저희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일 안한다고 하면서 다른데서 조금 받고 일한다고 시간제로 일한다고, 근데 이런 식당 데 가면은 도우미로 한 번씩 일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 보면은 얼른 숨으세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 어 여기서 일하세요? 이렇게 직접 가서 이제 일부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버리고 가서 인제 어? 여기서 일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오늘 하루 너무 바빠서 전화가 와서 여기 도와주러 왔다고, 또 다음에 전화해서 그 때 거기서 일하셨는데 지금도 일하세요? 그러면 이제 안한다고 그러고.

Q: 젊은 사람들 수급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근로능력잔데 그런 사람들 일 하는 모습도 보신 적 있어요?

A: 이제 그런 분들은, 근로 능력 있다고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 드렸드시피 최하선에서 임금을 맞춰 가지고 오세요 이제 근로 능력 없다고 진단서를 떼내시거든요 그 진단서도 정말 저희한테는 골치예요. 왜냐면 저희가 보기에 정말 경미한 질환인데 진단서상 뭐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함. 이렇게 갖고 오세요. 이런데 의원들에서 다, 알아서 다 해주시거든요?

Q: 의원들이요? 의사들이?

A: 예, 의원에서 오는 진단서를 뭐 안된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해오시니까.. 근데 다들 아시니까 이제 수급자들이 가서 응 이렇게 해와라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은 다 해주세요. 근데 이제 영광 읍내에 있는 그 좀 병원들은 대부분 진단서를 잘 안써주시거든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생각이 있으니까, 함부로 해 줄 수 없잖아요. 근데 의원급들은 제가 가도 아마 해줄꺼예요.

Q: 돈을 얼마 준다거나 그러나요? 진단서 하는데..

A: 진단서 하는 데 만원. 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 아프다고 하면은 이제 몇 개월 이상 치료를 요함 이렇게 다 써오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경미한 질환인 거 같은데 이제 그거 진단서를 떼가지고 나는 이래서 일을 못하겠다 이러세요. 아 이제 실갱이를 해요. 보시라고 저기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은 더 나아서 일 하시는 거 갔냐고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하시는 거라고 하시라고 하면은 못한다고 하다가 쓰러지면 당신이 책임 질거요? 이래요.

Q: 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가에서 직접하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끊어와라 그러면 반발이 심하시겠죠.

A: 반발이 심하고 또 저희한테도 그만큼 또 타격은 오겠죠. 그 다 그렇게 상반된 점은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진단서 끊어다 내면은 저희는 일처리 하기 되게 쉽거든요? 왜냐면 그 사유를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요하니까 근로능력 없다 하면은 되는데 본인들은 끝까지 나 일 못한다고 하는데 진단서 못 끊어오면 그것도 솔직히 저희한테 스트레스거든요. 네 그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Q: 그런 분들 보면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드세요?

A: 제 마음 같아서는 당장..(웃음소리). 법적으로 이렇게 안되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제가 인제 당신은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으니까 가서 일 하세요 그러면 안해도 저희가 진단서를 떼다 내는데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진단서 지침상에..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니가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런거 내놓냐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항의는 하는데, 저희도 그분들한테 일하시라고 왜 못하시냐고 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제재를 가하거나 할 수 있는, 또 너무 알미우면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장애 등록을 안 하면 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조금 순진하신 분들은 아 그런가보다 하고 또 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번에도 한 분 이제 이번에 삼분기 조사 했는데 멀쩡하신 분이 진단서를 떼으신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안되겠길래 이렇게 하면 안되신다고 이건 너무 경미한 질환이라고 저도 진단서 떼면 이 정도 나와요 그러면서, 저도 허리가 좀 아프거든요. 저도 병원 다니면서 이렇게 나온다고 장애 진단 안하시면은 안된다고 그랬더니 그 분 다와서 나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Q: 진단서 떼오시면 3개월 6개월 뒤 이렇게 떼오시잖아요. 그 분은 계속 일을 안하실려고 하는 분이실텐데 계속 띄어 오시나요? 3개월후에도..

A: 계속 떼오세요.

Q: 3개월 6개월 뒤 이런 식으로?

A: 예. 알아서 자동으로 떼가요.

Q: 아 정말요?

A: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또 밖에 나가서는 나는 진단서 떼 내니까 이렇게 일 안해도 생계비 다 준다 이렇게 서로

Q: 아 알려주는구나

A: 예. 그래서 저번에도 전화가 왔는데 어떤 분이 어 나도 수급자 신청 할라고 그런다고,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다 소문,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닌다고, 나 진단서 떼 내니까 해준다고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진단서 떼 내면 할 수 있겠냐고 안된다고 내가 그랬죠.

Q: 그럼 조건부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근로능력 있어서 일을 뭐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라든지 일을 일만큼 해야되는데 그 시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못 채우고 계속 참여도 되게 참여율도 낮고 이런 사람들같은 경우에는

A: 저희는 이제 조건부수급자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Q: 별로 없어요?

A: 예.

Q: 삼백 몇가구 중에 몇 명이나

A: 네 대부분은 다 진단서 떼내셔가지구 없으시구요. 이제 일 하시는 분들하고 자활후견기관에 의뢰한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신보건센터에 그분 의뢰하고, 다 해서 열 명 좀 넘으려나 그 정도 밖에 안되요. 여기 있는 대부분 다 그래요. 이 지역, 영광군

Q: 불이행으로 급여 중지 되시거나

A: 없어요. 본인들이 생각해서 다 행하신 분들이라서 뭐 불이행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없어요.

Q: 급여 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급여중지를 계속... 조건부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그렇게 되거나 뭐 이래서 급여 중지를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갈등이 되게 많으실꺼 같은데.

A: 그렇죠.

Q: 어떤?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그게 어떤 경우냐면 지금까지 보호를 이제 계속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자녀가 성장을 해서 그동안 직장에 없다가 새로 직장을 취득을 하게 되요. 그런 경우

에 이제 그 결혼 안한 미혼 자녀인 같은 경우는 혼자 객지에 나가서 백오십만원 이백만원 벌어도 뭐 솔직히 별로 쓸게 없잖아요. 그 분들도 그걸 이제 다 아시니까 그런 경우에 급여를 중지하겠다고 하면은 그동안 받아왔으니까 이걸 안받으면 죽, 곧 돌아가시는 줄 알아요 진짜. 죽겠다고 이래요 농약먹고 죽어버리겠다고 그런, 어떤 분들은 차에 뛰어 들고 그러겠다고 협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당하게 농약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낚는가 수면제를 이만큼 모아노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급여중지 하겠다고, 중지 하시는 분들 대부분 오시라고 안하고 저희가 찾아 뵙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야 더 이해력이 빠르니까. 그래서 이제 죄송하게 됐다고 할아버지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수면제를 탁 내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오늘 이거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인제 그 약을 회수해오고 인제 해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다시 인제 해드리긴 했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이제 기준을 맞췄어요.

Q: 그 기준을 맞추신 얘기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A: 그니까 그 조회되는 금액하고 실제 소득이 틀리다고 이렇게 하세요. 예. 그것을 인제 실제로 받는 급여 명세서를 보내달라고 몇 개월간 받았던 거를, 그걸로 해가지고 인제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근까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전에 직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조금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를 다루는. 그 전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드시진 않고 모아놨다가 직원이 이렇게 와서 뭐라고 뭐라고 하면은 이거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근데 저희는 어르신들이 한번씩 그런 말씀 하시면 진짜 밤에 잠도 안올 정도로, 왜냐하면 진짜로 그렇게 해버리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신규 책정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그냥 해드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받으신, 오랫동안 이렇게 뭐, 생계 뭐지 생활보호 때부터 계속 이렇게 보호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평생을 이제 그거 보고 받으시다가 탈락 한다고 하면은 당장에 돌아가실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나봐요 실제로 근데, 그런 말씀한 번씩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은 솔직히 진짜 자살하는 분들 마스크에 많이 나

오잖아요 실제로 내가 그런 경우가 되 버리면 어쩔까 뭐 그런 염려 때문에 어쩔 때 잡도 진짜 안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례 제가 말씀 드리면 부부가 같이 완전 쓰러져 가는 집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인제 제가 와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그 전에 부양 의무자가 기준이 조금 이렇게 조금 전에 걸렸나봐요. 그래서 이제 몇 만원이 소득이 초과 되가지고 저기 하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되니까 할아버지도 맨날 나와서 죽는 소리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조정을 이렇게 해서 너무 너무 어렵게 조이니까 정말 쓰러져 가는 집에서 두 분이 사시니까. 이제 해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인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인제 그 기준이 인제 많이 초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자녀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리이렇게 됐다고, 어쩔 수 없지만 지금까지 보호해 드렸으니까 앞으로 자녀분들이 이렇게 좀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인제 중지를 시켰거든요. 근데 한참 있다가 그 옆집에 조사 할 일이 있어서 거기 가봤더니 그 허름한 집 옆에 무슨 별장 같은 집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고 뭐 이런 집이 없었는데, 그래서 옆집에 물어봤어요. 이 집 도대체 누가 어떻게 지은거냐고 그 집은 어디가고 여기 누가 이사왔냐고 그랬더니 그 옆집 그니까 그 전에 살던 할머니가 사신거래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수급자 빠질까봐서 집을 못 짓고 있다가 그렇게 대궐 같은 집을 지으신거예요. 별장처럼 진짜. 우리한테 안 밝히고 먼저 밝혔다는 거예요 그 분한테. 그래가지고, 저희가 진작 뻗으면 이 할머니도 좋은 집에서 진작에 살았을 것인데, 그니까 저희는 모르는 그런 것들은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일려고 들면은 정말, 저희가 정말 한 번씩은 정말 바보된 기분이에요. 정말 저희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진심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릴려고 뭐 이런거 저런거 다 해가지고 막 해드릴려고 하는데 나중에 그렇게 그런 일이 한번씩 있어버리면 진짜, 인간적인 배신감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직업병인거 같아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끝이 안 듣고 정말 저럴까? 정말 그런 게 있거든요. 처음에는, 처음 이렇게 일을 했을 때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까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그런 게 아니니까 할머니가 와서 얘길 해도 아 할머니가 정말 저럴까

Q: 제일 어려워 하시는 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초창기 마음과 흘러가면 자꾸 바뀌는 게

A: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너무 어렵게 보이니까 울기도 하고 이러는 데 지금은 왜 또 인제 왜 또 오셨을까

Q: 옛날 생활보호때, 여기 계시는 분도 많으니까 생활 보호 때 그 수급하시던 사람들의 수급권자들의 그 의식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권리성 강조된 사업의.. 많이 차이가 나나요?

A: 생활보호때, 저도 생활보호때 조금 했었거든요. 97년에 인제 임용되서 2000년에 생활기초, 그 국민기초가 시작이 돼서 제가 시작을, 그 기간 동안 시작을 했는데, 그 때는 오는 것도 되게 미안해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전 섬에서 근무를 했는데 섬 지역 특성상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기 뭘 한 가지를 이렇게 갖다 드려도 되게 이렇게 고마워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요 멀 갖다 주면은 왜 남의 집은, 다른 집은 더 좋은 거 봤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주느냐 왜 누구는 뭐 봤는데 나는 뭐 안주느냐 자꾸 막 전화오고

Q: 그 과거에 생활보호 받는,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정보라는 게 별로 없었죠. 이제는 150만이 되니 알게 되니까 정보가 되면서 혹시 이게 알게 되기, 자기가 알게 되기 때문에..

A: 그렇죠. 자기네들이요 이제 동네에 모이면 나 이번에 뭐 들어왔는데 넌 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서로서로. 그러니까 서로서로 정보가 교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상이라서 뭘 봤는데 다른 사람은 안봤을 수도 있잖아요. 뭐 혼자사는 어르신들한테 준건데 불우한 사람이나,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세요. 나도 어렵고 이 사람도 똑같이 어려운데 왜 이 사람만 주느냐, 이 사람도 혼자살긴 하지만 자녀도 다 있고 한테 왜 이 사람만 주느냐 이런 걸 이해를 못하세요

요.

Q: 그리고 급여가 주어지는 생계급여, 보통은 생계아니면 주거급여가 많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제.. 욕구별 급여라든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면이면 의료, 교육이면 교육만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저기 복지부나 많이 생각들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딱 됐을 때 어떠실 거 같아요? 일선에서 받아들이시기에.. 그러니까 옛날에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어떤분들은 생계급여 받다가 주거급여를 받았는데 이제 분리가 되가지고서 어떤 거는 이진 기준이 안 맞아서 주거는 안준다. 생계는 뭐가 이쪽에서 주거가 빠졌으니까 좀 줄어들어서 생계가 급여가 줄어든다 이러신거 봤을 때 아마

A: 그러면은 감당하기 힘들거 같아요.

Q: 일선에서는요?

A: 예. 물론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Q: 욕구별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A: 근데 그 욕구를 다 파악하는 것도 솔직히

Q: 아, 그걸 다 파악해야 되니까.

A: 예. 그리고 만약에 욕구가 파악이 안 되서 이 사람이 정말 이게 필요한데 지원이 안되버렸을 경우에 그런 것도 좀 그럴 거 같고, 물론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지금 이제 말씀 들으니까

Q: 욕구별로 나눌 때는 아무래도 어쩔 때는

A: 더 많은 민원이 생길 거 같아요.

Q: 최저 생계비가 하나로 딱 있지만, 주거급여권, 생계급여권, 의료 급여권 다

이제 세 개

A: 그리고 다 정확하게 정말로 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 정확한 자료가 저희한테 많이 있어가지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욕구를 이제 지원을 해준다면은 조금 이제 일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저희 일은 많이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렇지만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한다는 자체가 저희한테는 부담이 될 거 같아요.

Q: 그러면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논의는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피부에 와 닿을 수도 있거든요. 이미 기획단은 움직이고 있고 차기정부에서 어떻게 인제, 아 그러니까 일선에선 생각보다 어려워질 것이다.

A: 제 생각에는 그럴 거 같아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말씀 들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서 눈에 보이는 거 말고는 못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니까 뭐 자기들끼리는 뭔가 아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몰라도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뭐 다른 사람 명의로 뭘 이렇게 해놨다든지 근데 이제 더 세분화해서 급여를 하면 물론 좋겠지만 저희는 좀 더 힘들어 질 것 같기는 한데, 힘들어져도 하게 되면 해야죠.

Q: 혹시 그럼 생계, 의료, 주거, 자활후전 이런거 다 나가는 데 이 외에도 수급자들 보시면은 요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거 있으십니까? 장애해상 뭐 이런거 말고도, 혹시 뭐 더, 장애인 같은 경우는 물론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수당도 저기 있지만 수당을 아이들 이쪽 급여쪽으로 더 끌고 들어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노인 같은 경우는 아까 장수수당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 생기는 데 이런 것들을 생계로 끌어오는 게 낫다던지 혹시 그런 것들

A: 근데 이제 또 그 노령..장수 수당이나 장애 수당 같은 게 수급이 안 되면 차상위 같은 거라도 줄 수 있잖아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안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 많이 모이면 얘기 하는 게 경로연금을 기준을 정해가지고 주잖아요. 누구는 안주고 누구는 주고 하시면은 누구누구 하는 게 되게 많아서 교통

수당에서 다 포함해서 금액을 올려서 나눠서 주자 했으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논의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Q: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생기면 교통이고 뭐 다 묶어가지고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A: 그렇게 되요? 따로 안하나요? 기초노령연금같은 경우에 경로연금처럼 소득 기준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합해서 해버린다면 교통수당은

Q: 아 교통수당은 전체 다 주는 거지. 예.

A: 예. 같이 하기는 좀 힘들 거 같아요. 경로연금을 할 때에는 그랬거든요 저희가.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 교통수당이랑 같이 해서 똑같이 뭐 돈도 뭐 얼마 안 되잖아요. 3만 5천원 이러니까 그 작은 돈으로 실갱이 하는 것도 솔직히 좀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솔직히 어르신들 생활하는 게 뭐 특별히 자기 재산들 있고 하는 거 아니면 거의 뭐 자녀들이 잘 산다고해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경로연금의 또 맹점ियो, 이렇게 소득 재산 파악할 때 가구별로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나 뭐 자녀들 이렇게 대상자들 다 이렇게 가구별 수대로 나눠버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할아버지가 1억 재산이 있어요 아들들이 재산 하나도 없으면 나눠서 돈이 해당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는 재산 하나도 없는데 아들들이 많아서 이렇게 해당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르신들 지금 하기에는 분명히 저 사람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해당이 되요 근데 나는 뭐 자녀들은 재산이 있어도 나는 없는데 해당이 안 되요. 그런 경우 실제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저희한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근까 서로 비교가 되니까 비교 안하면 그냥 문제없는데 서로 서로 비교를 하니까

Q: 그리고 기타, 현재 주고 있는 급여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급여, 보시기에 크게?

A: 전 크게 생각을 안 해봐서.

Q: 지금 급여 안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수급자들에게 신청하러 오면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나요?

A: 뭐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 급여 이런거요?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시는 거 같아요. 뭘 내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생계 급여 나가고 돈 나오는 거 그거 하고 뭐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차상위 해당 안되시는 분들은 경로연금 나오고 내가 또 장애인이다 그럼 장애수당 나온 다는 거를 그걸 아니까, 아니까 이걸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의료 급여 된다는 거를, 그 정도로는 신청하시기 전 단계부터 이미 다 알고 오세요. 그리고 신청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들 받고자 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남들은 돈도 받고 카드도 주고 쓰고, 할머니들 말에 의하면 병원도 무료로 다 가는데 그런 거 신청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 하세요. 국민기초수급자 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모르시고 급여 받는 건 아세요. 그러니까

Q: 그, 국민기초생활보장 안에 주거급여랑 다 있는거잖아요 생계..

A: 주거 급여 따로 있는지는 잘 모르세요. 설명을 해도 잘 몰라요. 왜냐면 돈이 따로 나가는 건 아는데 자가가구인 같은 경우에는 설명 하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공제를 얼마씩 따로 얼마씩 해서 나중에 집수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한 다던지 그런 거 인제 설명을 하는데 대부분은 주거 급여가 뭘지 생계 급여가 뭘지 그런거는 따로는 생각을 안하세요. 생계급여로 같이 나가니까 다 현금급여니까. 그냥 다 생계비로 그냥 생각하세요.

Q: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 도우미는 쓰고 있어요?

A: 어 자활후견기관에서.

Q: 그러면은 뭐 집 고쳐야 된다고 하면 그 쪽에서 연계해 주시는 거예요?

A: 그게 연계해서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일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연말이면 만약에 2006년 말에 2007년도 집수리 대상을 선정하거든요. 그러면 한 가구당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를 해줘요. 그 때 그 때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

를 하기가 어려워요.

**Q: 아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동모금이나 이런 데서 도와주고 이런 건 없
구요?**

A: 있기는 한데 그것도 뭐 연중 계속 하는 건 아니고 거기도 이제 사업 계획이 있
겠잖아요 일년씩 그러면, 그 쪽 사업계획에 의해서 대상자를 보고 해달라고 하
면 뭐 한 읍면당 뭐 한 두건인가 될까 말까 그렇게 하거든요.

Q: 신청하러 오신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A: 집수리틀요? 오시죠. 오시면 이제 기록해놨다가 내가 연락 해 드릴게요 아, 너
무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군에다 긴급 보수 요청하면은 집수리 사업 대상에
서 그 사업비로 인제 해 주시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는 편이고
대부분은 오시면 이제 기록 해놨다가 내년 대상자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변경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해드릴게요 하고 인제 가시죠 아니면 자
녀분들이나 10만원씩이라도 모아서 좀 해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많으신데 다 국
가에다가 바라시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럴때라도 이렇게 한번씩 도와달라고 하
시라고 그렇게도 돌려 보내는 분도 있고 경미한 사항이 그렇게 되요...

Q: 이 지역에는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수급 받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A: 저희는 좀 있어요.

Q: 그러면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

A: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Q: 아까 전에 근로 능력이 있는 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A: 그니까 일용직. 임시 일용 근로자들 여기 굴비가게 많거든요. 거기서 사람 많이
쓰니까 그런 데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Q: 그 사람들이 수급 신청하기 까지는 많이 뒤, 가난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거
잖아요. 일을 하지만 가난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급 받을 자격이 있
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A: 자활을 이렇게 할려면은 좀 먼저 이렇게 손을 넣어줘야 한다는 부분이 있거든
요. 왜냐면 자녀들 이렇게 키우고 할려면 돈이 많이 들긴 하잖아요. 교육비 같
은 게 그러니까..근데 이제 조금 손을 넣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떨 때
는 그니까 알미운 부분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소득을 이렇게 딱 맞
춰가지고 신고를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은 안하구요 이
렇게 어린 자녀 학생들 있는 경우에는 저소득인 경우에 인제 뭐 교육비를 지원
한다던가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Q: 혹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수급 받는 게 복지에 더 의존하게 하
고 열심히 일도 못하게 하고**

A: 근데 일은 다 해요. 소득 신고를 낮게 하다뿐이지. 자기네들이 자기가 할 수 있
는 최대한의 일은 다 하거든요. 근데 아닌 사람들은 아까 그 진단서 끊어 와가
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신고 한 사람들은 소득 신고
한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신고를 적게 했다 뿐이지 일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밝혀내질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Q: 혹시 그 수급자가 있을, 주변에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들이 그 수급,
예를 들어서 고위분들께서 보기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
드린 그 근로자 이웃들이 보기에 아 재 이상하다 막 그러면서**

A: 어제 전화 받은 적 있거든요

Q: 막 찾아오셔가지고 재 해주지 말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A: 있어요. 그니까 아프다고 진단서 떼고 이제 두 분, 두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특
별관리대상 으로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은, 이제 딱 단서가 잡히면 이 사람들이 이

렇게 할려고 하는데 안잡혀요. 근데 그게 전화로 와요. 저 사람 어디서 내가 배타는 거 봤다. 그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자기는 소득이 있고 그 사람은 없는거예요 그 사람은 진단서를 끊어다 냈어요. 소득 그거 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생계비를 드리는 데, 상대성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배타고 일하는데 하루에 일당이 얼마데 수급자 생계비를 이렇게 다 주느냐 전화 오는 분도 계시거든요.

Q: 그 때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처리를? 어쨌든 그것도 민원이 들어온 거니까.

A: 이제 그런 거는 정식으로 제기 한건 아니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 수사관이 아니라 담당으로 그 분 뒤만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분이 이러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밖에 없다 저희가 더 철저하게 조사해 보겠다 수급은 다 하는 편은 아니지만 알아서 다 처방 하겠다고 하면은 철저하게 더 조사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끊으시고.

Q: 이 부정 수급이라는 게 참 이..공무원들한테는 참 부끄러운 것이어서 발굴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자기한테는 네거티브가 되는..책정할 때 니가 잘못 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많다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서,,

A: 그런 것도 있는데요 부정수급 하면 이제 부담비용정수가 따라야 하니까요.

Q: 그런 것도 되게 어렵고

A: 그런 부담이 되게 커요. 근까 웬만하면 이제 보장비용정수 안하는 방법을 선택 하죠.. 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잖아요 최대한 그거에 이제 접목을 시킬려고 애를 쓰고 이제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할려고 하는데

Q: 혹시 바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부정수급 관련해서 혹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되게 늦게 오는 상태에서 14일에서 더 연장해서 30일 까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A: 14일을 더 연장할 수 있거든요.

Q: 그래도 그거 안됐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줬다가 또 부정수급 가게 되는데 기간을 어떻게 연장한다던지 아님 기간을 없애버린다든지.

A: 없애버리면 안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일이 많다는 핑계로 또 그걸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분들한테는 자기 나름대로 어려워서는 온 건데 되든 안 되든 결정은 빨리 해줘야 맞을 거 같아요.

Q: 만약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 하셨으면 좋으시겠어요? 부정수급 이런 것들..

A: 이게 다 평가 할 때보면 부정수급이라든지 아까 말씀 하신 대로 부당비용징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 항목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당비용징수 같은 그게 또 되게 저희한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건을 징수를 올렸어요. 또 이렇게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걸 그냥 제가 부담을 했어요. 징수를 못하니까.

Q: 아 그러시는구나... 그분이 고생이.. 힘드시니까?

A: 그니까 어떤 경우였냐면, 딸하고 같이 사셨던 분이었던데요. 근데 딸이 이제 여 기 상고를 졸업 해가지고 직장 취직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뭐 80만원인가 얼마가 소득이 있어가지고 그 때 당시 기준으로 초과가 됐어요. 근데 그 아저씨, 할아버지는 아닌데 이렇게 좀 보기에 좀 안되보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때 실제 생활도 되게 어려우셨거든요. 딸도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수급자 해서 겨우 가르쳐서 객지에서 80만원 받으면 솔직히 젊은 사람이 쓰기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알면서도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동안 이렇게 해갖고 자녀 성장해서 했으니까 이렇게 좀 안되겠다고 그 분도 이제 수궁하셔서, 차상 위 자활사업 다시시는 분이었던데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도저히... 신고를 안하셨어요 딸이 취직했다는 것을 , 그래가지고 인제 나간 돈에 대해서 다시 돈을 회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도저히 인간적인 그런 걸을 봐서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은 금액이었거든요 주거급여 나가셔가지고, 그 분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셔가지고 다행이 생계 급여가 안 나가서 이제 2만 1천 얼마

가, 그게 두 달이 나갔었어요 수급 그거를 그냥 달라고 못하니까

Q: 선생님께서 그냥?

A: 네 제가 그냥, 거기도 그렇고 또 또 그 정도 금액 해가지고 제가, 아 근데 그거
 를요 실제로 그 부담비용 징수를 저희 같은 경우엔 그 때 그 때 못하거든요?
 그러면 심의를 그 때 그 때 못 넣으니까 뭐 1년에 한 두 번 이렇게 보장징수를
 하는데, 작년에 증지를 시켰는데 보장 지원을 올해 와서 한다고 그러면 그걸
 주겠어요.

**Q: 했기는 했으니까 인제, 보통 보편은 작년에 발굴 되서 올해 징수하고.. 이런
 것들도 지금 상당히 있는 거 같은데**

A: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심의를 해가지고 부양의무자 초과되는 경우는 그
 심의를 해서 징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또 보장 대우를 징수를 하기 위해서
 심의를 또 수시로 교체할 수가 없잖아요. 검사점사 이렇게 하면 좋은데

Q: 참여심사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A: 하긴 하는데 이제 군담당자도 솔직히 혼자서 이렇게 국민기초 담당하면서 하기
 가 솔직히 힘들거든요. 저희가, 맨날 야근해요 막 10시 11시 군 담당자인데...
 저희는 그래도 좀 빨리 퇴근하는데 거기 담당자들은 거의 주말에도 나오시고
 그러거든요.

Q: 혹시 급여 조정같은 것도 많이 이루어지시나요?

A: 급여 조정, 예, 이제 갑작스레 일하시던 분이 이렇게 뭐 사고가 나가지고 뭐 했
 다던가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실직하신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직했다고 증
 명서 같은 거 떼오시거든요. 아니면 이제 실직했으니까 조회해봐라 애네들이,
 다 컴퓨터 쳐보면 나오잖아요 바로 나오는 지 아시거든요. 그래 해봐라 해갔고
 실직한 거 확인이 되면 이제 그런 경우에 뭐 부양비가 부과 됐었는데 어떻게
 조정한다던가

Q: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와서 말씀 안하실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A: 그렇죠. 예. 안 오세요 취직했는데 뭐 우리 아들이 어디 취직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어찌다 한 분 있기도 했어요. 저 여기 근무하면서 한 10년 됐는데 세 분정도?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고 축하해달라고 나는 그만 하겠다고 그거 어려운 사람 해달라 하면서 이제 오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이제 우리 아들이 어디 좋은 데 취직했는데 이제 필요 없겠다고 하시면서 의료보험 카드 그쪽으로 취득해서 쓰겠다고 하신 분 계셨고.

Q: 그런 경우는 그럼 거의 발굴이 안 되는 건가요?

A: 이제 정기 조사 하면서, 이제 그 때나 이제 알죠. 부양의무자 정기조사 할 때, 아니면 지금은 중점관리대상 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월별로 그 조사 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수립이 되갖고 있잖아요. 뭐 국민연금자료 검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자료가 내려오면은 또 이제 그거에 의해서 조사 하고,

Q: 아까 배로 인한 사고가 많다 그러면은 가장이 배타고 갔다가 갑자기 다치거나 그러면은...

A: 수급자들이 거의 배가 없어요. 남의 배를 타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Q: 긴급지원같은 거는 없겠네요

A: 긴급 지원 같은 경우는 생계는 거의 없어요. 긴급지원에 생계는 없고 의료비 지원은

Q: 다치거나 그러시거나 아님 일하다가

A: 두달에 한 번 꼴로 질병으로, 요새는 암 걸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시골에, 저희 이쪽에도 최근에 암 걸리셔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 두 명이나 암 걸리셔가지고 이제 치료 받으시는, 요새는 암이 되게 잘 걸리시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치료비 이제 긴급지원 신청해가지고 지원 해드리고 의료비 그리고 이제 수급자 조사해서, 생계비 긴급지원은 이제 거의 없고, 예 의료비가 많아요.

Q: 혹시, 근로능력 이런 거 판정해야 되잖아요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 기준이요?

Q: 예. 선생님께서 가장 중점을 두고 좀 판단하시는 부분이랄까.

A: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멀쩡하잖아요. 정말 이 사람한테 근로 능력이 있다고 하면 좋겠는데 저의 눈으로 보는 주관적인 생각은 별로 소용없거든요. 서류가 중요하니까. **진단서?** 저희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정말 안되겠는 분 경우에는 얘기 하는데 대부분, 정말 이제 와서 그래요 자활 사업이라도 하시라고, 일자리가 없어서 일 못하시냐고 자활사업 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땡벌에서 일하다가 쓰러지면 어제께도 그런 분 계셨거든요. 진단서 갖고 오셨길래 이러이러해서 아저씨는 인제 여태까지 이렇게 치료 받으시고 해서 호전 되셨으니까 이렇게 진단서는 끊어오셨어도 일 하시라고 그러면, 어제도 자활사업 하시라고 그랬더니 만약에 땡벌에서 일하다가 내가 쓰러지더라도 하시면은 당신이 책임 질거요?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책임진다고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이제 그런, 진단서를 의존 할 수 밖에 없어요 저는,

Q: 그 근로능력 판단 기준표 있잖아요. 그 기준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가요? 어떤 분들은 그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던데...

A: 저희는 그거 활용 안하는데요.

Q: 아 그래요? 활용은, 근로능력 판단기준이 필요하잖아요.

A: 기준표가 뭐 연령하고 뭐 그전에 직업 있었는지 없었는가 뭐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 대부분 다 그거에 뭐 대항해가지고 해봤다고 이제 있는 사람들이 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있다고 신고하는 사람들은 다 소득신고를 하니까, 이제 조건부 수급자로 해당이 안 되고 근로능력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니까 안하고.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하거든요.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뭐 여기서 자활산업 하는 게 정해져 있잖

아요 할 수 있는 게..근로지정 하는 게 없으니까 저희가 하는게.. 그니까 뭐 특별하게 그게 필요는 없더라구요. 판정을 하기는 해요 시스템상 하게 되었으니까 근데 특별하게 그걸 가지고 뭘 조정을 한다던가 그러지는 않는 거 같아요. 담당자 보니까.

Q: 지금 급여 수준이요 뭐 수급자들이 정말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A: 부족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요. 장기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거 작년엔 그거 개정해가지고 줄였잖아요. 많이. 그게 좀,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니다 싶어요. 왜냐면 병원에 입원해보면 들어가는 비용들이 꼭 식대 아니고도 이것저것 많거든요. 그리고 입원해있으면 밥 말고 또 간식도 사먹어야 되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남들이 사먹는데 나는 안 먹을수도 없고 그렇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생계비, 이제 집에서 생활하는 것만 보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다 그 얘기 하는데 그걸 이제 공제, 굳이 물론 의료 급여를 해서 받기는 하지만 그렇게 공지해버리면 좀 힘들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장기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신 병동에 입원하신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소변 못 가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라든가 간식비도 정기적으로 내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급여 안내는 분들이.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1종 수급자라도 최하 뭐 50만원에서 많게는 뭐 백만원, 중중인 경우에는 백만원까지 든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옆에 사람들이 부담을 해줘야 되요 가족들이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거든요.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거든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가족들이 연결이 안 된다고 비용이 안 되거나 그러면 한 번 찾아뵙기라도 할텐데.. 그렇게 되버리니까 이제 가족관계까지 단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니까 생계 급여라도 이렇게 대충해서 주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너무 좀 그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건진 모르겠는데, 꼭 그 식대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병원에 입원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드는 것들이 있고 또 아까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 안 되는 분들이 그 분이 더 많으니까 공제 하는 게 조

금 와서 왜 이렇게 공제를 했냐고 여쭙보시면 설명은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 하세요. 병원에 있다고 해서 돈 안 드는 게 아닌데 좀 너무 적다고 저희한테 그러세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조금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입원 해 보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 이렇게 좀 공제를 해버리니까 그니까 물론 장기 입원해가지고 자기 집처럼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더 어려워서 중증 질환 있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 그런 거 같아요.

Q: 수급자들 혹시 상담하러 자주 오나요? 뭐 민원 넣으러 자주 오시나요?

A: 자주 오죠.

Q: 한 달에 몇 번이나 몇 달에 한번, 얼마나 오시나요.

A: 안 오시는 분들은 한 번도 안 오세요 오시는 분들만 계속 오세요. 그니까 불만 있으신 분들은 계속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불만 욕구사항이 안 들어주면 오늘 왔다가 또 내일 올 수도 있고 또 전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그냥 그 급여에 만족하시는 분은 한 번도 안 오세요. 오시라고 해도 잘 미안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꼭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세요. 요구사항도 많고, 해줘도 또 더해달라고 그러고.

Q: 선생님 이 지역에 조손가구주나 편부모가구 아이들 지금 방학했잖아요. 혹시 애들 그 급식도 지금 없고 그럴텐데 혹시 전화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뭐 필요한 건 없는지 그런 건 확인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A: 그거 확인은

Q: 잘 못하시나요?

A: 그니까 저희가 급식지원을 일주일에 한번씩 하거든요. 가니까 이제 편부모 가정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Q: 방학이나 이럴 때...

A: 그니까 그럴 때 애들한테 이제 뭐하고 있느냐 부모한테 전화까지 해서 너희들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네요.

Q: 그러셨어요?

A: 네.. 한 번 해봐야 되겠네요 진짜.

Q: 방학이라서 좀 급식이 잘...

A: 그리고 저희 여기 지역아동센터 있거든요.

Q: 면에요?

A: 관내에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거기 한 24명인가 25명 정도 거기서 직접 하시거든요. 거기서 많이 이제 발굴 해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애들은 그 쪽에서 다 데려다가 하시더라고요.

Q: 그럼 직접 아이들이나 욕구가 있을 때 뭐 이런 게 필요하다 학원 같은 데 소개 시켜주시거나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을 연계해 주시거나...

A: 거기까지는 저희가 해 본 적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도시하고 좀 틀려서 학원 같은 거 이렇게 많지도 않고,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복지관도 연계할만한 데도 하나 별로 없고.

Q: 선생님 한 가지만 더, 그 신청하러 올 때요 본인이 직접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이장님 뭐 이런 분들이...

A: 이제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이 오셔요 그리고 조금 자기가 꺼리고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 시켜서

Q: 그냥 옆집 분 이런?

A: 아니 이장님들이나 지역 유지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마을에서 말 꽤나 하시

고 그런 분들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와가지고 저희는 솔직히 이장님들이 물론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 하시니까 이렇게 얘기 하시면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다 A:le지는 않아요. 저희가 실제로 가보면 말씀 하신 거랑 좀 틀린 것들이 많거든요. 의뢰를 하면 조사는 하는데 그 분들 말을 백프로 믿지는 않아요. 어쩔 때는 이장님들이 말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뒤통수 때리는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다 그러시진 않는데 이렇게 인간관계라는 게 자기하고 친한 사람을 뭐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있어도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백프로 다 와서 의뢰한다고 해서 믿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제 참고만 하고

Q: 어떤 경우가 더 많나요? 본인이 직접 오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A: 본인이 오는 경우가,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장님들 같은 분이 오시는 경우가 더 많으시구요 옛날에는 별로 이렇게 자녀들이 와서 신청 안했었거든요. 요새는 근데 자녀분들이 많이 오세요. 정말 자녀분들이 많이 오는 거 같아요. 담당하세요, 왜냐면 내가 못들어오면 내 세금 내가 내니까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게 당연하다

Q: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A: 예. 옛날에는 정말 자녀분들 오면은 직원들 다 이렇게 지역 살림 하니까 알잖아요 손가락질 받을 까봐서 안 왔는데 지금은 큰소리치는 것도 자녀들이 와서 큰 소리 치고 이런다니까요

Q: 수급 권리라고

A: 권리라고 생각하세요.

Q: 예. 감사합니다, 여쭙볼꺼는 나중에 또 생각나면 전화로

A: 예 근데 답변을 제가 좀 횡설수설 해가지고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

- 조사지역 : 수도권
- 응답자 개인사항

성별	연령	학력	근속기간	자격증 여부
여			8년 (전체 업무)	

- 기관환경

읍·면·동사무소의 상담환경 - 조사자 기록
- 동사무소 원편에 별도의 상담실 존재. 주민생활지원팀이 있는 책상과 가까움. 1평 정도의 공간으로 의자 및 탁자가 있었음. 상담실에는 큰 유리로 된 창이 있었으며,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블라인드를 친다고 함.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 조사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인상적. 응답자가 구청에도 근무했으며, 자활 업무, 의료급여 업무 등을 담당했기 때문에 풍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음. 다만 조사지역이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이므로 수급자에 대한 생각이 이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판단됨.

Q: 이 지역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수급관련해서..)

A: 지금 현재 수급자는 1450세대가 넘구요. 1450몇 세대인지 모르겠다. 정확히 1407세대 이정도 되구요. 왜냐하면 여기가 영구임대 단지가 있어요. 영구임대 단지가 3단지가 있고 6개동이 있는데 영구임대 단지의 2/3정도는 수급자시고, 1/3정도는 비수급자시거든요. 영구임대단지가 있어서 수급자가 많고 부평구에서는 중심지역이라기보다는 외곽 지역인데, 지금 점차 또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4월10 날짜로 삼산동에서 삼산1.2동으로 분동이 됐구요. 그래서 택지개발된 쪽, 소위말해서 좋은 아파트쪽은 2동으로 됐고 저희 동은 영구임대를 낀 구도시로 있어서.. 그럼 영구임대를 신청하신 분이 영구임대 들어갈 날이 가까워지거나 현재 살던 집에서 전세기간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시면 영구임대 알아봐서 1년 있다 당신 들어올겁니다 하면 또 애들 학교문제 때문에 이사오시는 분들도 있구요. 수급자만 1457세대 정도 되고.

Q: 선생님이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A: 제가 다 담당하는 게 아니라 총 5명. 저희 팀이 주민생활지원팀제로 바뀌면서, 개편되면서 저희 동에.. 저희 팀이 5명인데요, 다 사회복지직이구요 팀장이 사회복지직인데.. 팀장님이 계신데 팀장님이 저보다 더 오래되셨죠. 그런데 실무자 중심으로 해서 그런가(조사를 자신이 한 이유가..).. 팀장님 사회복지직이시고 그냥 직원 4명, 저희 총 다섯명이고 나눠서 하고 있죠

Q: 어떻게 업무분담이..

A: 업무분담같은 경우 일단 주민생활팀 되면서 주민생활팀 고유 업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팀장의 고유 업무가 있어요. 주민생활팀장의 .. 팀장은 여기서 저희끼리 업무를 적당히 나누는 게 아니라 지정된 업무가 있어요 문화공모부터 이웃돕기, 이게 서비스 전달하는 체계가 바뀐거잖아요, 어떤 그런 후원이라든지 불우이웃쪽 은 팀장님이 하시고

Q: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A: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고유 업무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팀 고유업무가.. 그래서 고유업무 하시고 있구요 저희는 이제 수급자 같은 경우가 1400세대니까 수급자 관리 자체는 4명이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1인이 350세대 정도 대충 수급자 관리하고 있는데 단위 업무는 업무량에 따라서 .. 저는 실무자 중에서 고참이어서 생계비랑 수급자 전출입,, 전출입이랑 영구임대 쪽 그런 거 하고 있고.

Q: 안 그래도 홈페이지를 보고 왔거든요.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되있더라고요. 지금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A: 저는 2000년 6월 21일이니까 만 7년 넘어가고 있고

Q: 계속 여기서만?

A: 아뇨,아뇨. 첫 발령 구청에서 3년 정도 있다가, 다른 동에 있다가 여기 편입된 거.. 기피동이에요 삼산 1동은.. 부평구 사회복지직들은 삼산 1동 발령 났다 그러면 죽었구나.. 이렇게..

Q: 너무 많아서요?

A: 너무 많고 사람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거친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해 수급 오래 받으신 분들이 영구임대에 계셔서 이쪽에서 몰려서 계시다보니까..타성에 젖어서..알콜,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알콜릭도 와가지고 그런것도 있고 받는 걸 당연히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타동네보다 거치세요. 수급자분들 자체도. 제 목소리가 이렇게 쉬는게..조용조용 얘기해서 안되요. 목이 안 나아요 잘.

Q: 그럼 신규 수급자들은 얼마나 오세요? 신청해서 상담하시는 그런 분들..

A: 일단은 영구임대 단지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여야지 영구임대 들어오잖아요 신규수급자는 수급자에 비해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그렇다고 워낙 동네가 다른 동네에 비해 저소득..좀 못사는 동네라 없는 건 아닌데, 1400세대가 넘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그런건 아닌데..얼마나 되려나..일주일.. 저같은 경우

일주일에 많으면 2,3건 .. 그러니까 4명이 합치면 한 달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거 같은데

Q: 뭘 기준으로 그렇게 세대를 나누신 거예요?

A: 아, 나누는 건 지역으로 나누거든요. 1동부터 몇 동까지는 너,너 ,여기 동도 101동부터 106동까지 있거든요. 너는 몇동몇동 나누는데 나누는 게 이제 순서대로 나누다가 보다는 숫자를 얼추 비슷하게 가져야 되잖아요 350세대씩.. 어떤 동은 되게 많아요. 1에서 6동까지 가는 데 영구임대 말고 일반 주택도 있잖아요. 영구임대는 거의 비슷해요. 1,2,3,4 하나씩 갖고 2동이나 6동이나 반씩 잘라서 갖고 일반 통은 1-6통 8-11통 해서 갖고 근데 이게 세통만 갖는다고 해서 적은 게 아니라 더 밀집되어 있는 데니까 수급자 수 맞춰서 지역으로..

Q: 삼산동에 혹시 쪽방지역도 있나요?

A: 쪽방지역은 없어요. 쪽방은 소위 말하는 다운타운에.. 여기는 쪽방까지는 없고, 비닐하우스.. 요즘 그런 조서가 많이 내려오더라구요 수요자 있냐 없냐.. 쪽방촌은 없어요.

Q: 선생님, 그러면 수급자들이 처음 오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A: 일단은 주민생활지원으로 개편되면서 저희 일단 초기상담만 해요. 얘기 듣고 서류 드리고 근데 이제 초기 상담 때 듣고서 수급자 서류 드리고 가져 오시면 저희가 구비해서 구청으로 넘겨요.

Q: 서류를 직접 그분들이 작성하시고

A: 그쵸. 하실 건 하시고 떼어오실 건 떼어오시고. 호적이나 이런 건 저희가 떼는 거니까 저희가 떼거 해서 서류 다 구비되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 보내면 거기에서 접수해서 거기에서 조사해서 거기서 책정, 결정까지 되는 .. 내려오면 되셨고.. 그다음부터 저희가 관리하는 거죠.

Q: 얼마나 걸리던가요? 바뀌고 나서..

A: 바뀌고 나서 조금 오래걸려요. 저희는.. 이런거 이야기 해도 되요?

Q: 예!! 편하게 !! 제도가 제대로 바뀌었는지 안바뀌었는지 모르잖아요!!

A: 사실은 이게 약간.. 원래 법정기간은 14일 이내잖아요. 이런거 이야기 해도 되나 (웃음)?

Q: 저희가 !! 그런거 여쭙보러 왔어요

A: 14일내에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별로 없거나 조사하기 쉬우면 14일되면 저희가 전산 보내는 거 아시죠? 전산 서류를 전산을 보내는데 이게 별로 전산상 문제가 없으면 일주일이면 와요. 신청하고 서류 떼서 그날 보내면 약 일주일, 전산 꼬이면 열흘.. 이렇게 오는데 더 빠를때는 5일만에 올때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대충 일주일을 잡아요. 일주일을 잡아서 그런데 자리 뭐가 없거나 말씀하신대로, 수급자 말씀, 신청하신대로 조사결과가 나오면 다행인데.. 다른게 더 생긴다던가 부양의무자.. 우리아들이 조금 번다고 했는데 저희 예상했던 거랑 틀리게 되면 그 부양의무자에게 공제되는 것을 빼줘야 되는데 다시 상담해야 하기 때문에 14일이라는 것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동에서 할 때는, 그러면 일단.. 아 이런거 이야기 해야되나.. 일단 가신청을 받아요. 일단 서류는 내지 말고 할머니 말 듣고 될고 같으면 서류를 받지만 아들이 너무 많고 하는 일 모르고 직장도 다니는 거 같고 안 될거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일단 할머니 내가 내가 호적 떼봐서 어르신 같은 경우 조사를 1차로 해보고 되실거 같으면 서류를 받을 게요. 그래요 제가 포장만 보고 전산을 보내요 원래 그러면 안되는데(웃음). 아니면 서류를 받고 조금 며칠 갖고 있던가. 왜냐면 14일은 지켜야 되니까.

Q: 그거 안 지키면 뭔가 패널티가 오거나 이러나요?

A: 나중에 감사 때 접수대장을 쓰거든요 접수대장을 쓰는 데, 7월 1일 날 신청을 했다고 써놨는데 7월 16일 날 측정이 됐다. 며칠 지났다. 그러면 왜 지났는지 명

확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사유가 없으면 전산이 물론 사실대로 할 수도 있죠. 전산이 늦게 왔다던가..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만 하면 모르겠는데 다른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 모르겠어요 이게 다 변명일 수 있는데.. 말하다 보니 그렇게 들리네(웃음).. 며칠 정도는 그런 구두를.. 가시적으로 받았었어요 사실.. 저만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그 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받고 하루 이틀 늦게 접수하고... 왜냐면 15일 전후로 급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넘지 않는 수준에서... 13일날 신청하는 데 16일날 신청을 받으면 그분한테 생계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지만 2일날 신청하시면 5일날 신청한걸로.. 원래 그렇게 하면 안되지만 ..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가신청을 받아서 했던 것도 있는데 이제는 정확히 된거죠. 정확히 오늘 제가 보내면 내일, 하루나 이틀 있으면 접수가 돼요. 구청에서.. 그러면 그때부터 하니까 대부분 보면 보름, 14일 안에 되는 분은 별거 없으신 분들은 14일안에 되는데 부양의무자가 많고, 부양의무자 조사를 내신거와 똑같지 않을 경우엔 거기서 우편이라던가 전화상담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화연결이 바로 안된다던가..또 뭐 조사에 잘 응하지 않아서 등기우편을 보냈는데 잘 응하지 않으시면 거기서 정식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기간, 조사기간 연장 결제를 받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늦어졌는데 수급자가 느끼기에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서류상 볼 때는 조금 늦어지는 데.. 사실상으론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절차를 더 맞게 하시니까 그게 맞는거죠.

Q: 부담은 훨씬 덜해지셨겠어요. 조사는..

A: 그렇죠 그거 자체는.. 조사는 덜 하죠.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구청직원이라든 거랑 저랑 보는 시각이 틀릴 수 있잖아요. 조사담당인 저희는 다 사유적으로 되어 있는 데, 나는 이 사람이 수급자가 되더라도 나라면 사적이전소득을 잡을 텐데, 구청직원은 안잡았다말이에요. 물론 제가 추후에 잡을 수도 있는데 수급자가 느끼기에는 구청에서 이렇게 했는데 사회담당인 너는 왜 나를 안주려 그래고 사적이전 소득이나 다른 소득을 못 잡아서 안달이냐..구청에서는 받을 수 있는 만큼 100% 최고치 받을 수 있는 만큼 했는데 이런 것도 약간씩 있어요.

그럼 사회담당은 구청에 전화해서 왜 이렇게 했냐 이런 경우도 몇 동 있는데 그렇게 혼하지 않고.

Q: 여긴 언제 개편이 된건가요?

A: 작년 7월부터요

Q: 딱 1년 됐네요 이제.

A: 그렇죠 1년 좀 안됐죠..

Q: 구청에서 하게 되면 실태조사를 좀 더 느슨하게 한다는 뜻인가요?

A: 느슨하게 하는 건 아니구요. 제가 볼 때는 잘 하세요. 왜냐면 그것만 전문으로 하시니까. 그 업무만 하시니까 잘하시고 제가 볼 때 저는 만족스럽거든요. 우리 삼산 1동 담당이 잘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만족스러운데, 간혹 식견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재상담을 하고, 수급자 관리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민원인이 느끼기에는 구청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했냐 그래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있지, 뭐 구청이 느슨한건 아닌 것 같아요 더 철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조사라든가 그런건..제가 느끼기에는..시간도 그런 것들도 더..

Q: 전달체계 개편 관련해서는 만족..

A: 아뇨 만족 못해요. 저는.. 왜냐면.. 솔직히.. 이게 그..저는 잘 모르겠는데..말을 잘 못하겠는데 주민생활지원팀으로 하면서 수급자, 저소득자, 일반대상자들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체계에 전달하고 무조건 공적부조, 나라에서 생계비주는 것 뿐 아니라 민간, 공적 사회복지서비스를 법적 저소득층 뿐 아니라 일반대상자까지 체계에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 한 거잖아요. 물론 형식상 잘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팀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그게..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저 자체도 피부에 안 닿아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체계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같기도 하고.. 사실.. 자기들은 뭐를 했는

데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더라구요. 개편해줬으면, 아니면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수를 늘려준다든가, 똑같이 10명이면 10명에서 나눈거거든요. 저는 그래요.. 나눈거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 저희 동은 사회복지직만 4명이 있으니까 공무원수가 많지만 다른 동은 한두 명, 많아야 두세 명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동 인원이 많아야 열명에서 열세명이예요 동장님까지 해서..근데 거기서 팀을 나눠서 한다는 게 되게 웃겨요. 구청같이 그런 조직이 아니라 동 단위에서.. 이전에 동장, 상장, 직원,, 이렇게 있을 때..조그만 직원 깎해야 11명 12명 있는데서.. 팀을 두개로 나눠서 팀장이 또 있고, 좀 웃겨요. 예전에. 지금 들어온 신규 직원들이야 이렇게 되었으니까 모르지만 예전에 사무장님 있고..이런 거 보다는 나눠가지고.. 동 자체에서 두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들고, 그리고 요즘에 저희 부평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서비스 쪽에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내려오고 하고 있는데..다 좋아요 .. 다 좋은데.. 다 변명 같은데 수급자 관리하기도 벅찬데 서비스 까지 하려면 어떤 그걸 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건 별로 제가 볼땐 없고

Q: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 줄 자원도 없고..

A: 그쵸. 저희같은 경우 민간자원하고 통합적으로 하라는데 이미 해오고 있었던 거 같아요. 민간자원은 해오고 있었고.. 다 있었던 건데.. 그거를...잘 모르겠어요. 서비스담당도 아니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정리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정리만 하고.. 정말 제대로 하려면 돈이랑 사람을 대줘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단계는 1년 지나서, 평가하려고 이것도 다하는 것 같지만 저는 별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합조사팀에서 하고 있는 조사가 다 못해요 통합조사팀도 솔직히.. 왜 또 불만이 많냐면 통합조사팀 주민생활지원팀하고 사회복지과 이렇게 과가 분리됐잖아요 통합조사팀을 하는 데 행정직보다는 사회복지직이 하는게 좋다해서

Q: 착출로 나간 걸 말씀하시는거죠?

A: 예 사람을 뽑아가면 어디서 뽑아가요 동에서 뽑아가요. 3명 있던 동이 2명이 되

고, 2명있던 동이 1명이 되고. 저희같은 동 경우에도 물론 2동이 되긴 했는데 1400세대 1500세대 조금 안되는데 팀장님 제외한 4명이 한다는 건 되게 웃기다고 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소 실무자만 5,6명은 있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자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면 정말.. 지금 업무만 하고 말라는 것 밖에 말라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할 수가 없어요 생계비 안줄 수 없잖아요. 수급자가 일제조사 5월부터 7월까지 일제조사 기간이 있는데 일제 조사를 어떻게 하나 이거예요 4명 중에 1400세대 갈려요? 350세대 2달 만에 한다는 게 말도 안되고, 그래서 저는 계속 하면서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어떤 질적, 양적 기대를 또 하잖아요. 잘 되고 있는가.. 조금.. 그래서 각 동.. 특히 부평 동같은 경우 그렇게 굉장히 많아요 2명이 있었는데 주민생활팀 오셔서 팀장님이 오셔서 그리고 이제 행정직까지 업무를 조금 보는 데 같은 경우 더 좋아진 동은 저희 22동에서 몇 개 안되요. 빼가는 게 많은 동부터 빼가요. 1순위 저희동이고 또 갈산 2동이 영구임대가 또 있거든요? 2명인 동에서 1명 빼는 것 보다 5명 있는 데서 1명 빼는게 낫다고 생각.. 그렇게 되기 때문에

Q: 아..물론 세대수를 보는 게 아니라

A: 물론 세대수를 보는데.. 최소필요 인력은 있잖아요. 대부분 빠진 동이 3명 있는데서 2명..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굉장히 불만이 많죠. 그리고 책정보다 중요한건 관리란 말예요. 책정하긴 쉬워요. 근데 중재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관리하기도 어렵고.. 하고 전문적으로 하니까 좋은 면도 있긴 한데 일단 우리가 인원을 빼가니까 그리고 완전히 모든 그 책정 업무를 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예요. 구에서 7명이면 22개동을 그 사람들이 다 감당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는 수급자랑, 저소득 모부자 가정만 구청에서 조사를 해줘요. 근데 차상위 관련, 보육료,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차상위 장애 수당, 그런것 들은 동에서 또 해요. 완전히 책정 업무를, 조사업무를 다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원래는 지침상으로는 다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거기도 인력을 늘려.. 문제는 사람을 부족하다는 게 문제죠. 거기서도 인간적으로 볼 때 지침상으론 다 가져가야지 해도..또 인간적으로 볼 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그 팀에 갔다 생각하면 못해요. 차상위까지 다하려면 거기 인원을 충원시켜 주던가.. 아니면.. 그래서 지금은 저희도 2개만 하고 있어요. 신규 그리고 수급자 책정이랑 신규 모부자 가정.. 거기서 안되시면 다른거 연결 .. 뭐 차상위나 될 수가..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시지만 그 외에 처음부터 수급자는 안되고 차상위나 장애수당 이런 분들은 다른거 신청 많이 들어오지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더 업무가 줄었냐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는.. 피부로 당케끔.. 진짜.. 주민생활 개편되고 나서.. 정말 효율적으로 공무원도 줄고 잘 조사되고 있다라고 못느껴요.

Q: 초기상담 동사무소에서 하잖아요. 그럼 자활근로로 가실 분들 후견기관으로 가실 분들 여기서 정해지는 거죠?

A: 여기서 확정은 못 짓구요. 저희가 이제 뭐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일자리가 없으면 자활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로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걸 알고 계시고 조건부 수급자도 알고 계시겠지만 종류가 되게 많아요. 후견기간으로 가실 분들, 근로유지형으로 가실 분들 그 다음에 더 안 좋으신 분들은 사회적응이나 지역봉사로 갈 수 있고 젊은 분들은 노동부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해주고 제가 볼 때는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일 하셔야 되요. 그리고 구청에서 하면서,

Q: 그 쪽에 자활 담당이?

A: 어디서 어떤 일까지는 그쪽에서 말씀하니까 조건부 수급자로 일 하셔야 된다는 거까지는 꼭 이야기를 하죠. 일하셔야 될 분은.

Q: 예전처럼 근로유지용 자활근로 하려면 동사무소에서 골라내거나 이런건 전담공무원 선을 떠난거네요?

A: 일단 신규만 그래요, 신규만. 그렇기 때문에..지금 저희도...구청은 어떻게 되있다면 조건부 수급자 생계 책정때 측정이 되면 사회복지과 자활담당으로 넘겨서 상담을 해보고 사회적 일자리나 시장진입형만 자활후견기관으로 의뢰하는 분만 거

기서 하구요. 그 이하, 근로유지형, 사회적 지역 봉사자는 동사무소로 내려보내서 저희가 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근로유지형부터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근로유지해야 될 거 같애. 그러면 저희가 다시 상담해보고 저희쪽에서 다시 배치를 해요. 그래서 자활부분은 크게 업무가 줄어들었다고 못 느끼겠어요. 업무가 줄었다고. 제가 업무분담이 바뀌어서 자활근로는 안 보는데 올 5월 까지 자활을 봤었거든요. 저희가 자활..조건부수급자가 80명정도 되는데

Q: 얼마 안 되네요

A: 그렇죠? 수급자에 비해서.. 독거노인하고 장애인이 굉장히 많으니까.. 80명인데도 많은 편이긴 해요 따지고 보면,, 수급자 비례해서 많지는 않아서.. 80명 정도 되는데 그거 관리 다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로 근로유지형 관리하는 거도 마찬가지고 자활자체도 지금 초반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가 지금 포화상태기 때문에 신규추정 되시는 분들이 갈데가 없기 때문에 근로유지형으로 일단 당분간은.. 자활은 어차피 자활후견기관으로 빼면 다시 와요. 저희가 또 상담해서 배치를 또 해요.

Q: 후견기관에 일자리는 많이 있다고 하던가요?

A: 저희는 2군데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기도 포화상태예요. 지금 2월에년도사업이 시작되는.. 07년도는 2월에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자리가 있어요. 새로.. 지금은.. 하반기로 넘어오면 딱 찼을 거예요. 참여자들이 일이 있어서 못한다거나 빠지거나 조금 더 늘어나거나 해서 한두명정도 여유가 있으면 몰라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 많지는 않은 거 같애요 특히 조금 나이 많으신 분들.. 할 수 있고 열의 있으신 분들..

Q: 많이 제외되죠

A: 예. 많이 제기가 되더라구요 동시에 30대랑 50대 오면 저희도 30대 쓰겠죠. 자리가 여유가 있으면 다 쓰겠지만..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40대고, 건강하신데,

근로유지형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나와요. 자활도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취지는 그거잖아요. 자활을 해서 자립.. 자기가 해서 나가셔야 되는데, 나가면 수입이 보장이 안되니까.. 안나가고 3년있다가 자립못하면 다시 하라는데 솔직히 되게 웃겨요. 행정력 낭비지.. 어차피 하면 그거 자활할텐데 원칙은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다 행정력 낭비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하기 전에 3년 이내는 어떤 강제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진짜 본인이 그거 해서 자립하는 분은 진짜 거의 없어요.

Q: 근로유지형 자활 근로가 개월이 이렇게 끊기나요? 12개월 계속 가는 게 아니라 ?

A: 저희는 2월부터.. 2005년도까지는 3개월 단위로 해서 열흘인가 쉬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부터는 노동법에 준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Q: 계속 고용해도 상관이 없다

A: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자활담당은 아닌데 3개월 끊는 의미가 없다고 주위에서 그런 말도 있더라구요.

Q: 저는 중구나 용산구 쪽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일하시는 분들 거긴 2개월 3개월 다 끊는 거예요.

A: 저희는 지침을 받았대나? 끊는 게 노동법에 준한 게 아니라 생활보장에 의한 자활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3개월씩 끊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잘 모르겠는데 자활담당이 정확히 알 텐데, 그냥 2006년부터는 쪽 이어서 2월부터 그 대신에 1년 짝은 아니고 2월부터 12월까지.. 아니면 근로유지형이 너무 늘어나면 예산범위 안에서 쪽..

Q: 선생님 자활 하셨으니까..저희 자활 안내 보면 근로능력판정기준이 나오잖아요. 그게 실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A: 안나요 안나. 전혀 안나..

Q: 안맞는다는 말씀이시죠? 기준이?

A: 예.. 기준이 너무 넓어요. 조금 더 .. 나이도 30점이면 건강상태도 30점.. 이렇게 너무 넓어요. 좀 더 많이 줘서 진짜.. 그리고 근로유지형.. 그 점수대로 해서 또 일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점수만 정확히 판정되서 일자리만 보장된다면 그걸 말씀대로 더 좁혀가지고 정확하게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일자리를 주면 좋을 텐데, 후견기관, 아니면 근로유지 아니면 젊은 애들 노동부..아니면 지금 상태로는 그걸 정확히 판단해 봤자인거 같고.

Q: 갈곳이 너무 적으니까

A: 그렇죠

Q: 기준 외 선생님이 보기에 중요하게 판단하시는 따로 그런 건 없으세요?

A: 저는 의지를 봐요. 젊으신데 못한다. 하기 싫다. 가지가지 핑계를 다 대요. 젊은 엄마들은 애기가 어려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엄마들은 별 핑계를 다 대요

Q: 일을 시켜달라

A: 아니, 일을 안 하겠다고 왜냐면 문제가 자활.. 근로유지형 말고 후견기관에서 일하는 거 50-60만원 받아요. 자기가 만약에 두식구면 생계비 거의 안나가니까 근로유지형하고 탱자탱자 해도 생계비로 하니까 받는 돈도 비슷한데 자활 후견기관 가서 하는 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물론 자활 장려금 쪽에서 버는 만큼 30% 더 주니까 그거 욕심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의지가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생계비로 그걸 보존해주니까..

저는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나, 시장자립형 점수 안 되시는 분들이라도, 건강만 하시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의뢰를 해드리는데, 제가 아무리 뻥뻥 우겨서 보내드려도 거기 가서 딴 소리해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허리 진단서도 없는데 허리도 안 좋고 못한다. 그리고 여기서도 상담 후 자리 배치 안됐다고 내려오면 어차피 저희가 다시 상담해서 근로유지형 하거나 불이행을 걸거나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무조건 불이행을 걸 수는 없잖든요. 왜냐면 이분이 상습적으로 그러면 모르겠

는데, 처음부터 지나고 난 다음에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진단서 물론 띠어오라고 하지만..하여튼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의지를 좀 보는 데 의지 있으신 분이 별로 없어요. 이거 받나 저거 받나 나라에서 돈 받는 건 똑같거든요. 자기가 좀 열심히 해서 배워서라도 일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제가 그걸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든 전화해보고 그러는데, 애가 어려서 못한다느니 뭐가 이래서 못한다느니 별.. 우리가 할 때 가구 여건보고 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회적 일자리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핑계를 굉장히 많이 되세요. 사회담당이 강압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의지를 보는 편인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동같은 경우 예전에 수급자 받았다가 수급초과해서 중지됐다가 또 수급자 신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재신청자.. 중지됐다가 다시 신청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 1원만 넘어도 안 되는. 기준에..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수급자를 탈피했다고 해서 여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조금 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거의 임시나 일용노동자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괜찮아 졌다가 다시 경기가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으면 수급자로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신청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활이란 것도 젊으신 분들 많이 아시는 거 같고.

Q: 여기 전출입이 빈번한가요?

A: 전출입은 그렇게 빈번하지 않으니깐.. 유동인구가 변동이 없고

Q: 선생님 사무관리 하시기엔 조금 많이 아는 분들이 생기셔서.. 어떠세요?

A: 많이 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Q: 자주 보기도 하고..

A: 근데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주 와서 얼굴 보여주시는 분들은.. 알지만, 진짜 장애인이라서 못 오시거나 그리고 그런 분들은 부양의무자 없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수급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가서 방문하지 않으면 얼굴 보기가 힘들죠. 워낙 많으니깐.

Q: 얼마나 한번씩 가세요?

A: 자주 못가요

Q: 전화는..

A: 전화는 자주하는데, 상담을 위한 상담이라고 보다 이걸 가지고오셔야 되요. 독촉의 전화가 많아요 진단서 내셔야 되구요 의료급여는 내셔야 되요.. 이렇게 많죠.

Q: 영구임대니까 복지관 끼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별말 안하나요? 그쪽에서도 아웃리치를 좀 해주면..

A: 근데.. .. 근데 제가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해달라고 하기는

Q: 여기는 연계가 좀 되면.. 늘 사시는 분들이니까

A: 그런 건 잘 되어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수급자 상담이랑 저희가 생각하는 수급자 상담이랑 틀린거 같애요. 같은 어려운 분을 봐도 상담이 상당히 틀려요. 왜 틀리냐면.. 저도 복지관에서 일했거든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3년 동안 복지관에서 일 했는데.. 거기서는 상담을 하고 물론 기준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융통성이라고 하나..사회복지사의 권한이 좀 많은 거 같애요. 내 결정범위가.. 수급자가 꼭 아니어도 법정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했을 때 어렵고 그러니까 후원도 연결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지원을 해줄 수 도 있고 내가 판단 내려서 해줄 수 있는데, 저희는 그냥 어렵다고 해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자산조사. 나를 속이고 일을 하지 않나.. 진단서는 이런 병을 내면서 나라면 충분히 일할 수 있을 텐데.. 초점이 좀 틀린 거 같애요. 저희한테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하면 그렇게 할 텐데. 감사라던가.. 저희는 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많고 해달라는 사람도 많고 상담이 많아서 연기하거나.. 복지관이랑도 그런건 많이 되어 있어요 문제가 생겼다.. 하면 복지관이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상담이나 조사의 차원이 약간 틀린거 같아서 그분들한테 맡기면 다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은 수급자, 클라이언트들이 말하는 거에 기준으로 해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부양의무자라던가 자산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하고 있다. 물론 부양의무자랑 가족관계가 단절됐다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다 연락되고 이렇게 하는 데 무조건 부양의무자가 어렵다고만 저희한테 이야기 하시면 저희는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그것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려요. 여기랑 연결돼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있고, 특히 여기는 독거노인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만약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한테 말하면, 저희도 몇 가지 같이 하는 것들. 이렇게 꽤 많거든요. 저희쪽에서는 할 수 없는거 복지관에 부탁도 하고 복지관에서 할 수 없는거는 또 저희한테. 해가지고 같이 몇가지 이렇게.. 굉장히 속상해 하는 사람들 문제 많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 거는 있는데 어떤 그런 거 까지 기대하기는 힘든 거 같아요.

Q: 그거면 됐죠 뭐..

A: 수급자를 바라보면 관점이 틀려요.

Q: 복지관 말고 다른 기관이랑 연계는 안하세요?

A: 연계할 데가 없는데.. 저희는.. 인제 보건소 .. 보건소랑은 조금 .. 여기 정신질환자들이 되게 많이 사시거든요. 정신질환.. 정신 쪽은 보건소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Q: 정신보건센터?

A: 예.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활후견기관에서 거기서 간병인하고 가사 도우미 파견해주시잖아요. 저희가 또 그쪽이랑..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희 동에.. 그쪽에 의지하고 있고.. 또.. 병원..

Q: 다른 지역 같은 경우 통장..

A: 통장은 기본이에요.. 통반장님들은 기본이니까.. 일단 뭐 있어요. 이렇게 돌아다

니시는데 말썽피우시는 데 안보인다 그럼 통장님한테 바로..

Q: 같이 사시니까..

A: 예.. 동네에 사시니까.. 오늘 그분 안보이면 바로.. 그분 안 보이는 데 매일 동사무소에 출석도장찍으시는 분들 있어요. 정신지체나 이런분들.. 며칠 안보였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 내가 봤는데 집에서 어떻게 하는 걸 봤는데.. 그런건 당연히 되요. 통반장님은 당연히 되고..

Q: 그럼 수급자 관리하고 이런 측면에 도움이 좀 되는 건가요?

A: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모르는 정보도 꽤 많이 알고 계세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저긴 아니지만 우리가 연락할 부양의무자가 없다고 그러면, 딸이 있는 것 같던데 딸이 왔다갔다하는 거 같던데. 그럼 한번 만나요. 이런거라던가.. 같이 하시고 동네에 사시니까.. 그리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안되는 수급자들이면 통장님한테 부탁해서 요즘 봤나? 우리번호는 이건데 통장님 혹시 다른 번호 있나라던가.. 그런 거 긴밀하게 되요. 특히 영구임대 통장님들은 아시기 때문에.. 그 동네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Q: 부정수급 이런거 민원들어오거나 그런거 많이 있나요? 뉴스 많이 나잖아요 자동차 세워두고 그런거 때문에 중형차들 서있고 이런거 때문에

A: 들어오죠

Q: 어떻게 처리하세요?

A: 들어오는 게, 왜 들어오나 이렇게 보면... 잘지내다가 애가 보기 싫은데 나는 수급자가 아니고 애가 수급자면.. 잘 지내다가..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게 있으면 해요 대부분.. 그런식이고 아니면 재가 나한테 돈짜갔는데, 난 수급자든 아니든 돈 안 받고, 그러면 이런 어떤 이해관계가 다 있더라구요. 그냥 순수하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신고하시는 분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하면은 조사 하죠. 미행한 적도 많이

있어요. 몇 번.

Q: 그렇게 해서 혹시 발각된 적은 없어요?

A: 있어요. (어떤 경우?) 많진 않은데 가끔.. 장애인.. 근로능력 3급이었거든요. 일 안 한다 그래서 했는데.. 일한다는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방문하죠. 집에 있나 없나 일하시나.. 일 안한다고..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와요. 원한관계가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인데 보기 싫은거지.. 그러면 어디서 일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계시더라구요. 근데 일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파트타임을 조금 하시는데, 며칠 전부터 시작했다 소득신고 하셔야죠.. 그런데 어떤 신고에 의해서 부정수급이 많이 저기되는 건 그렇게 높진 않은거 같아요.

Q: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 그런게 아니라..

A: 그런거 .. 일을 시작했는데... 요 정도.. 그리고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터무니없는 것도 되게 많아요. 터무니없는 신고들.. 원한관계가 있고..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보면 나중에 알아보면 두 사람 사이 되게 안 좋고.. 서로 싫어하고 잘 지냈다가 돈 빌려줬는데 안 갚은게 열받아서 ..

Q: 수급 받으시다가 중간에 변동사항 생겨서 수급 끊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항의 같은거..

A: 굉장히 많죠. 중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생계비 변동 될 때랑 중지할 때랑 진짜 장난 아니예요. 그걸 인정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여기는 자기가 일을 해서 소득초과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걸 인정을 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이러니까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는데 특히 부양의무자에 의한 중지는 정말.. 진짜 싸워야 되요. 싸운다고 표현해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인정을 못해요. 결혼해서 나간 자식인데 개네 때문에 왜 내가 중지해야 되냐. 먹고 살지말란.. 죽으란 이야기냐..

Q: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일 엄격하다고 보시나요?

A: 조금 엄격하다고.. 조금.. 지금 .. 뭐죠?

Q: 작년부터 변경이 됐잖아요

A: 아니.. 변경이 됐는데.. 조금씩 .. 부양의무자를 누굴 부양의무자로 볼 것인지, 그 건 좀 완화되서 좋아졌는데 부양비 그 산정하는 거나 부양의무자 능력 있음 없음이 120%예요 120%에서 아들은 40, 출가한 딸은 12%를 먹이는데 4인이 123만원 되나? 그럼 120%면 얼마 안되요. 4인 가족 솔직히 120%면 150되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솔직히 4인가족 150가지고 쓰라는게.. 근데 또 이제 이거는 부양의무자 120% 그걸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전 아직 미혼이라..그걸 체감 못하는데 결혼하신 사회복지사도 내 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있으면.. 그 기준이 점점 너무 낮아서..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왜냐면 수급자 분들 오셔서 하는 이야기는 애들 공부시키고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를..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국민정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게 어느 정도 되어되는데 제가 사실 생각하는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지금 상태가 저는 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국민기초 초창기 할 때는 그 집 소득 다 봤기 때문에 손자, 손녀 소득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는데..

Q: 소득 수준..

A: 예 120수준에서 그거를.. 거기서 조금만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나도 4인가족인데.. 저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면 힘들죠.. 그분들 같은 경우 부양의무자로 중지가 되지만 부양의무자가 부양안할꺼란 말이에요 그런게 뻔히 보이는 집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중지하는 집도 많아요 가족 관계 단절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빼줄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개네들 보기에는 솔직히..그런거 많아요.

Q: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외에 추정소득 부과라든가 이런 거엔 갈등이 없으셨어요? 민원 들어오고..

A: 추정 소득 갈등은 굉장히 많죠. 근데 납득하게끔 이야기를 잘 해야되구요.

Q: 주로 어떤 케이스에서 그런 게 발생을 하나요?

A: 5,6급인데 장애 5,6급인데 진단서 없는 분들.. 그런분들은 굉장히 그래요.. 일을 하기에 애매하고.. 근데 또 아파야 되는데 아픈데도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럴 경우에는 근로유지형이나 지역봉사 이런 걸 하는데 그것도 힘들죠..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중요한건 차량.. 그래서 장애 5,6급은 대부분 병이 있으세요. 그렇게 많지 않는데 차량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제가 볼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고 사시기도 힘든 분 같은데, 차량 쓰나타를 딱 뽑아요. 아니 뽑진 않고 중고차를 누가 줬다 그러면서 하시는데 솔직히 아무리 장애인 LPG로 하고 많이 운행 안한다지만 보험료는 장애인이 더 비싸잖아요. 자동차 세만 안내는 거지, 보험료 내야지.. 한달유지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을 하죠 생계비로 한다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도저히 볼 때는 누가 대주지 않으면 못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분 같은 경우 추정분 매기겠다 그럼 반발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차량 기준을 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좋아요 차량기준이.. 전 지금 차량 기준에 좀 불만이 많아요 장애인 차량 소나타.. 뭐..다 뽑아요. 그리고 LPG는 장애인용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부분 째 팔(0.8)에서 1.0뽑으세요 1.8에서 2.0도 있고..

Q: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닐까요?

A: 근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Q: 이동하는 데 있어서.. 뭐.. 택시비 보단 싸다던가.. 이렇게 아닐까요?

A: 글썄요.. 전 좀 차량기준이..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Q: 선생님 지금 급여 수준, 급여액이 적당히 매겨진것 같다고 보세요?

A: 모르겠어요.. 사실..

Q: 민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A: 다 적다고 하죠. 많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372000원이 1인 최고치라 그러는데, 그거 드리고 노인 분들 같은 경우 경로연금 받으시고 독거노인 목욕비받고(인천시..) 교통비도 받으면 한달 평균 제가 볼 때 40만원이 넘으세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월 임대료랑 관리비가 나가니까, 12-13만원이 평균적으로 빠져요. 그리고 생활하시니까.. 적다고 느끼시겠죠. 근데 제가 노인 분들 아무것도 안하고 밥만 먹고 관리비만 내고 자기하기에는 아끼시면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데.. 대부분 이분들이 건강하시고 밥만 드시고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의료비 쪽으로 다른 쪽으로 아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모자르다고 느끼시죠. 근데 제가 언젠가 보건복지부 사무관이신가? 그 최저생계비하시는 분이래요. 그 분이 최저생계비가 나오기까지의 어떤 그런것들을 설명해주셨는데, 왜 최저생계비가 1인이 약 43만4천원정도 되는데 솔직히 43만원갓다 자기 주거부터 다 해결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걸 또 설명 들으니까 또 납득이 가더라구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쓰시기 나름인데.. 그렇게 적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수급자 분들은 많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장애인 부부에 어린애들 같은 경우 최고치 받으면 진짜 100만원 넘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렵겠죠. 근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잖아요 많대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는 거 같아요. 물론 이 정도도 지원해 줄 때는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많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는 거 같아요. 최고치 받으셔도 더 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Q: 주로 어떤 케이스가.. 가구유형이나 여건이랑 상관없이?

A: 상관없이... 더달라고.. 모자란다고.. 그리고 장애인 신문 쪽에서 홍보를 많이 하나 봐요. 그 생계비 기준 이하면 수급자도 될 수 있고 생계비도 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 최저생계비 수급자 되는 기준이랑 생계비 주는 기준이랑 틀리잖아요. 생계비 최고치랑 잘 이해를 못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43만 4천원인데 왜 나 37만 몇 천원만 주냐. 이러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보여드려요 지침을.. 그런데 그 정도까지 이해하

시기에는 .. 이해를 하실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Q: 저도 잘 이해가 안되는 데요 통합급여는.. 외국 사람들도 의아해 하더라구요 왜 차이가 나냐. 급여가 다 묶여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A: 아니 기준이랑 주는 게 틀린 이유가

Q: TV 시청료나..

A: 예 그런 감면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산출해서 제하고 드린다는 거죠. 근데 수급자 분들은 납득을 못하고 저한테 그러세요. 주는 건 없으면서.. 수급자가 되신 후에 기타 다른 혜택들을 합친 후에 제하고 한 7만 얼마 그게 나오는데 .. 납득을 못하세요..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Q: 주거 급여 현물급여 많이 연결 되나요?

A: 많지 않아요. 현물급여 같은 경우 자거나 전체 무료 임차잔데, 여기는 영구임대가 일단 많고.. 영구임대는 제외대상자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 올해 신청 몇 명하셨더라? 현물급여.. 60세대 정도 뛰는데 제하고 하는데 올해..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10세대 미만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Q: 그 분들이 만족하던가요?

A: 그래도.. 그거 자기가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도배만 하나 하려고 해도.. 또 본인이 잘하시는 기타 다른 것도 해주시니까..

Q: 그리고 제도에 대해서 수급자 분들이 많이 아시나요? 처음에 신청하러 오실 때 본인들이 알고 오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니면..통장, 장애인 신문 이런거..

A: 잘 몰라요. 조금 젊거나 조금 어느정도 인터넷을 하신다던가 하는 분들은 얼렁 똥똥 못 넘어가요. 자기들이 어디서 지침을 보고 와서 다다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글도 모르시는 분들..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 많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 돈 받는 거 일정하게 받는 거 밖에 모르시

지.. 그리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자기 급여 일수를 계산해서 내야 되는 데 그걸 몰라서 모든 걸 다 사회담당한데 의지하세요. 니가 떼어오라면 떼어오고 떼오지 말라면 안 떼오겠다. 그러니까 한 두 명도 아니고 저희가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 급여일수를 필요한 분은 전화해서 하는데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더.

Q: 그럼 신청하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루트로 오신 거예요?

A: 그냥.. 자기 어려워졌으면.. 정부지원 있다던데.. 아니면 옆집도 받는다던데.. 어떤 분들은 이제 통장님이 어렵다 하니까 가봐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기는 수급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찢러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안 될거 뻔히 알면서도.. 저 옆집 할머니도 받는데 나도 되지 않을 까 해서 서류를 1년에 한 번씩 꼭꼭 내시는 분들도 있고.

Q: 여기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A: 여기서 하기도 하고 간단한 거는 옆에서. 나가서 하기도 하고.. 근데 심층 상담은 여기서 하죠..

Q: 뺨 찔려있어서..

A: 근데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저기 앉으시고 제가 여기 앉고. 또 이런 거에 수치심 느끼는 분들은 내려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내리는 건 전 좀 반대거든요. 사회복지사도 보호를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내리진 않고 이쪽에 앉으라고 하죠. 제가 이쪽에 많이 앉아요.

Q: 그럼 제도를 다 설명해 주는 편이세요? 일일이

A: 저는 오해가 없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신규부터 이게 줄 수 있는 있는 건 이만큼이고.. 다 설명하려고 노력해요

Q: 수급은.. 이해를 다 하세요? 수급자분들이?

A: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못하겠거니 하고 알려드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해요. 이게 워낙 지침이 어려워요. 생계비 주는 것도 너무.. 다는 못하지만 개괄적으로.. 수급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너가 수급자 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나 너 수급자 되면 이렇게 할 거고.. 이 정도는 처음 되셨던, 중간이든 있으면 저는 설명해요 왜냐면 수급자 대부분 분들이 몰라서 얘기 안했다고 굉장히 오리발을 되게 많이 내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의 의무가 있고 나도 수급자에게 이리이리 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 그래요 왜냐면 나중에 소득이 몇 달 있다 저희에 의해 조사가 되면 너 왜 안 했냐 그러면 몰라서 못했다 그러면 오리발이긴 한데 더.. 저기 하계끔 이야기는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Q: 어떤 일에 종사를 하시나요?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A: 대부분 그냥 단순 업무나.. 젊은 애들 있는 데는 상시고용 가기도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취직 됐으면 괜찮아지겠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Q: 임시일용직 같은 경우는 고용임금확인서 이런걸 가져오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신뢰하세요?

A: 그거 안 믿어요. 사실. 왜냐면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나이에 하루 종일 하는데 그거 밖에 안 받을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 같은 경우 자활소득 이상으로 안 받아오시면 너 자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데 50만원 써오면 분명히 50만원 더 받을 거 같거든요.. 자활하면 55-60만원 이상 넘는다.. 아주머니 이렇게 받아오시면 이거 하시는 거 보다 자활하시는 게 훨씬 소득이 높는데.. 같은 시간 투자해서 자활하시는 게 낫지 왜 이걸 하시냐 그러니까 이걸 하셔라.. 그럼 일단 이러니까 다음에 더해서 소득을 바꿔온다고 하세요. 그럼 빨리하셔야 된다고 한주일 있다 올라와요.

Q: 그럼 얼마 대부분 얼마 정도로 작성해 오세요?

A: 기본이 50-60만원 사이예요. 정직하신 분들은 70만원 이상 해오시는 분도 있어

요. 제가 볼 때 70만원 넘어가면 전 좀 믿는데, 70만원 이하면 좀 안 믿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나마 고용임금확인서 받아오신 분들은 그나마 믿으려고 하는 편인데..고용임금확인서도 받아 올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자기 양심 믿고 소득신고 만으로 인정해줘야 하는데.. 전 좀..

Q: 어떻게 적용하세요? 그런 경우?

A: 적용해야죠.. 쓰는대로.. 근데 터무니없게 적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추정소득 부과하겠다고 하던가, 아니면 더 좋은 일자리를 찾던가 아니면 자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어느 적정 수준에서.. 제 심증만으로는 막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하되 자활하던가 아니면 정직하게 적어오셔야 된다고 얘길 하죠. 그래도 저희는 60만원..적어야 50만원. 근데 40만원 30만원 적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활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연계를 해주는 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의심을 많이 하죠. 30-40만원 적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Q: 상담을 하시다보면 기준에는 안 맞는데 이 사람 생활이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주고 싶다..

A: 예예..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내 직권 조사만으로는 되는 방법이 없으니까

Q: 어떻게 수급자로 되기 위해서 팁을 주신다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A: 좀 있어요(웃음).

Q: 어떤 경우?

A: 그러니까 많이 넘지도 않고.. 부양의무자 때문에 중지가 되게 생겼는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많이 없지도 않아요 많이 없지도 않는데 어려워.. 부양의무자랑 이야기 해봐도 너무 어려워.. 그러면 시부모님 부양하시면 그냥 제외시키잖아요. 같은 주소지에 직계존속을 모시면.. 그런 텃정도는 드리죠. 근데 실제로 거주 하나 안 하나가 문제기 때문에 선불리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주소만

옮겨 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왜냐면 그냥 노인분이라면 모르겠는데.. 되게 병이 많으시다던가, 되게 중증의 질환을 앓고 계신다고 하면 솔직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런거 정도는 드리는데 또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Q: 선생님 수급자들 보면 수급 상담하러 온 사람들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한 7-8년 일하셨잖아요.

A: 아..또 이런거 얘기해도 되나... 사회복지 다 전공을 하셨잖아요. 실무에서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할 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하잖아요. 하다가 6개월 지나니까 좌절에 제가 빠졌었어요. 사람들은 저 밑바닥에서 허우적 거리는데 사회복지를 하는 나는 방문 해서 뭐 해줄수 있는 것도 없고 동사무소같은 경우, 봐도 되게 문제가 많은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생계비지급이라는 것 밖에 없을 때.. 초입때는 되게.. 처음 발령났거나 전 3년 하다 왔기 때문에 처음 사회복지 일하면서 6개월 정도 됐을 때 굉장히 좌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뭔가..사회복지사는 하는 게 뭔가.. 난 선생님 소리를 왜 듣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복지관에서 일하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면 무더져요. 전 굉장히 무더졌어요. 싫은 소리 굉장히 잘해요 수급자들한테.. 저..불친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싫은 소리 전 많이 해요. 싫은 소리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젊은 애들 오면 너무 웃겨요. 너무 말하는게.. 일하지.. 하면 하기 싫은데요. 너 이렇게 살거야? 뭐 이런식 이라던가 싫은 소리 많이 하고.. 수급자가 와서 막 울어요. 힘들다고 울지 마시구요. 동요가 전혀 안 되요. 지금은.. 동요가 안되요.(웃음) 되게 웃긴다. 옛날에는 어떻게 해.. 저사람.. (지금은) 울지 마시라구.. 휴지 드리고.. 그리고 노인분들이 와서 아프다고 막 보여줘요 나 여기 아프다구.. 울리지 마세요. 나 의사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전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무더졌어요. 근데 또 사람이 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이 방문하잖아요. 수급자들이 방문 해서 이야기 하면 정말 어려운 가보다 하는데 집으로 방문하면 관계가 더 낫더라고요 와가지고 난리치는 민원도 뭐 해달라고 난리치는 민원도, 해줄게 없는데 어떻게 해.. 일단 다음에 있으면 연결해드릴게요 이러구.. 보내요. 좀 지나면

집으로 가요. 가서 이야기를 하면 난리쳤던 사람도 좋아지더라구요.. 나를 위해서 집에 왔고 보러 왔구나.. 당장은 아니지만 니가 그래도 나를 위해 신경쓰느라 한번 왔구나. 수급자 입장에선 그러신거 같아요. 자주는 못봐도 난리쳤던 분들은.. 왜냐면 저희 팀장님이 15년 하셨으니까.. 와서 난리치면 집에 한번 가봐 그러시거든요. 뭐 문제있다고 신고 들어오는 사람이나. 한번 집에 갑시다 오늘 있다가 4시에도 집에 가기로 했거든요. 이런식으로 하면 집에 가면 막 전화해서 죽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약먹고 죽어버리겠다고 이런.. 굉장히 많아요 그럼 조금.. 누그러뜨려야.. 그럼 저도 왜그러세요(상냥하게) 이렇게 안 그러거든요. 그런 소리하지 말라고(명령조로)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럼 좀 누그러든.. 오후나 그 다음날 그 집에 방문을 하거나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좀 나온 거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그러지 사회복지사에 대한 신뢰도 쌓이는 거 같고 그래서 방문은 또 하고 싶은데.. 그게 안되요 그게 또 안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좀 순서를 정해가지고 하루에 인원이 없을 시간 5-6시 까지 없을 시간.. 하루에 한 두시간이라도 가자. 근데 이게 마음 뿐이고 와서 난동을 부리거나 전화해서 난리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만 방문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좀 힘들거든요. 근데 방문을 하면 좋긴 한거 같아요 근데 그 여건이 진짜 힘들어요.

Q: 수급자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사회문제로 빈곤이 된 거냐.. 개인적인 문제로 된거나 어떤 생각이 드세요?

A: 저는 사회문제로 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할 수 있는는 거 같아요. 왜냐면 보면은.. 이어지는거..부모에서..대를 이어서 수급자 분들 굉장히 많아요. 보면 가난했어. 아파. 그래서 일을 못해. 어려워, 그래서 수급자가 됐어. 자식도 공부를 잘 못 시켰어. 그 자식이 젊었을 때는 수급자 아니고 그 자녀분들이 일용을 하든 뭘 하든 해. 그래서 똑같이. 무슨 위기가 닥치면 수급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면서 이걸 개인적인건데, 교육, 무조건 교육받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아무리 다 교육 학력 다 필요 없다 해도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도 대졸자랑 고졸자랑 틀리잖아요. 저는 교육.. 적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된다고 .. 그래서 전 자퇴하는 애들이 그렇게 아쉽더

라구요.

Q: 많이 있어요?

A: 굉장히 많아요 여기.. 교육급여 담당이었는데 한 분기에 몇 명씩 나와요. 몇 명씩 나온다는건 꽤 나온다는 거거든요. 개네들 뭐할거야.. 자퇴하는 애들.. 솔직히 좀 배달 같은 거 하다가 남자애들.. 주유소 좀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정말 그 대물림을 끊는 거는 교육.. 그래서 대부분 잘.. 중지가 되었는데, 괜찮게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대학졸업해서 취직하면.. 최근에는 선생님, 교대 간거예요 딸이 임용고시 붙었어요.. 이런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수급자 탈피하는 경우인데, 무조건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소득해서 하는 건 좋은데 고졸자는 그나마 나아요. 자퇴자들은.. 저는 교육이 대물림을 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교육조차도 돈이 있어야 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더 그렇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 대물림 이거는.. 어쩔수 없다고 ..이거는 사회적인 게.. 깊이 들어가서 빈익빈 부익부 까지는 저기고.. 사회적인 그런.. 근데 요즘 조금.. 조금 아주머니들 보면 개인적인 문제도 많아요 특히 아주머니들..

Q: 이혼하신..?

A: 뭐 이혼이나 되게 이상한 아줌마들 되게 많아요. 하여튼 그런 분들.. 사생활이 굉장히 안 좋거나 자활에 의지가 없는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문제라 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파고 들어가보면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개인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죠.. 60-70은 사회문제로 인해서 빈곤층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발생되지 않느냐.. 저는 교육,, 교육이 끊는 거 같아요. 그것만은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Q: 선생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

A: 근데.. 이중적인 게..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만나면 그렇지가 않아요. 막 되게..

Q: 그 안에서 머물려고 하는 사람 많나요?

A: 아 많고. 왜 저러나 이렇게 많기 때문에.. 2000년도에 국민기초되면서 어떤 진짜.. 수급권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예전에는 진짜 없었어야 되잖아요. 부양 의무자도 없고 호적상 깨끗하신 분들만 신청을 하셔야 됐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면서 확대되고..

Q: 근로능력자도 지원받고..

A: 예 그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악용하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잠깐 지금 어려워서 수급 받고 자기가 자활해서 빠지고 다른 분이..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한번 이게 마약이랑 같다고 우리가 이야기 하거든요. 농담으로.. 이게 마약같은데..

Q: 본인들이.. ?

A: 아니 저희가.. 사회담당..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그걸 끊겠냐. 어떻게든 붙어서 받아내려고 그러지.. 이게 중지되면 죽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문제도 뭐냐면 이게 중지되면 다 끊기잖아요. 어느 여지를..생계비부터 교육, 의료 다 끊긴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생계비는 안 나와도 수급자가 되고 싶은거예요. 다른 혜택을 받으니까.. 생계비는 안 나가도 수급자 유지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용직도 아니고 상시고용직이기 때문에 뭐를 더 부가할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활하셔가지고 부인은 상시고용으로 100만원 벌어요. 남편은 자활해가지고 60,70 받아요. 170이면 자활특례로 변경이 되잖아요. 그런대도 불구하고 수급자일을 하고 싶어해요. 일만 달라..가 아니라 일을 하면 다른 부과 혜택이 있으니까.. 학비 나가죠. 의료급여도 주죠. 그 다음에 영구임대 자격도 일단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중지가 되면 진짜 죽는 줄 알아요. 젊은 사람들도, 연세드신 분들. 저 같으면 빨리 해서 빨리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 기준을 넘어서 중지가 된다 할 지라도 아까 말했지만 확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 기준 조금 넘게 많이 벌거든요.

Q: 근데 차상위 계층까지 급여 확대하고 이렇게 좀..

A: 근데 차상위계층한테 확대된게 부분이잖아요. 의료나 이런 거기 때문에 진짜 아프신 분들외에는 차상위 의미가 별로 크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중지되면 다 중지되기 때문에 더 이런 것도 생기는 거 같아요. 그런걸 좀 더..

Q: 급여의 분리, 개별 뭐 이런거..

A: 예.. 그럼 더 골치 아플거예요. 사회담당은 진짜 머리 아프겠지만.

Q: 다 욕구 조사해서 하나하나..

A: 근데 모르겠어요. 준비되서 뭐가 필요하면 1년 동안 교육급여 고등학생 있으면 다음, 다다음까지 교육급여를 준다던가.. 무조건은 아니지만 제한이나 이런 걸 좀 다른.. 노인분들이나 이런 차상위 안에는 언제까지 약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감면받던거 다 안되죠 부가혜택 받던거 다 안되죠. 의료, 교육급여 다 안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오려고 해요

Q: 제도 자체의 문제 때문에 복지의존성이 높아진다.

A: 예.. 예예..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하면 할수록 높아지는 게 지금 저는 삼산동 생계비가 5억 9천만이 나가요. 생계 주거비만.. 그러니까 장애수당, 경로연금 합하면 엄청 많아요. 한 달인데.. 6억에서 몇십 만원 빠져요. 지난 달꺼 보니까.. 아.. 이러다 나라 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면서 생각하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사회보험 있잖아요.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런 게 제도적으로도, 잘 되야지만.. 진짜 여기는.. 소위 말하는 영세민만 받도록 해주고, 실업되면 실업급여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걸 제도적으로 잘 사회제도를 보완을 해야지만 국민기초의 문제가 없지. 국민기초만 잘 해 논다고 문제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여기서 어떻게 할 순 없지만, 알아서들 하시겠지만.. 되게 그래요. 왜 나라 망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육료 이거랑 상관없지만 여성가족부에서 보육료 지원하는 것도 엄청나가던데요 그런것들.. 탁아, 그런 것들 지원하는 거 빨리 저기로 해야되요. 무상, 의무교육처럼.. 보육료 이거

한다고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그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다 해야되지 않을까..

Q: 선생님 자활 쪽 조금만 더 여쭙볼게요. 여기서 일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관리를 하셨잖아요. 일하시는 직접 나가서 보시기도 하고.. 어떤 느낌 드시나요?

A: 그냥 그 사람들 위해서 일을 만들어 준거기 때문에 저는..그 사람들 그걸 위해서 진짜 자립을 한다던가.. 왜 시키는 일이 청소 내지는.. 이런거잖아요 그런 건 없거든요 이사람들이.. 근로의욕도.. 문제예요. 비슷한 사람들 끼리 몰려다니면서.. 저희는 또 많고 그래서 파견을 좀 하거든요. 복지관에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몇 분하고 근데 수준이 다 청소..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놀릴 수만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공공부문에 투입시켜서 이렇게 하는 그것도 알겠는데.. 근데 또 일을 그 정도 수준밖에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좋은 대안은 없지만.

Q: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는 어떤 건가요?

A: 이 분들이 근로능력이나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청소밖에 안 되는 수준이 근로유지형으로 가시는 거예요. 보면..약간 배움도 적고 기술도 없고 그러신 분들이 거이기 때문에 .. 근로 유지형도 동사무소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죠. 옛날에 이야기 하면 취로사업, 취로사업 대체하는 것 밖에 안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안은 없는데 문제는 또 안 시키면.. 일을 완전히 못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Q: 참여는 잘 하세요?

A: 협박이 있으니까. 왜냐면 불이행을 하시면 생계비가 1인치가 안 나가는데 1인치가 그냥 안 나가게 아니고 추정소득을 부과해서 안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심해요 우리가 그냥 1인치 생계비를 중진데 그냥 중지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에 범하는 추정소득을 부과한 다음에 1인치를 안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심해요. 혼자 수급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가 그냥 안 나간다고

보면 되고, 2명 사시는 분도 많이 안 나간다고.. 거의 안 나간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타격이 굉장히 심해요.

Q: 원래 기준이 그래요?

A: 예. 조건부 수급자로 불이행을 해서 생계급여를 우리가 중지한다고 하잖아요. 1인치가 19만 얼마예요. 근데 그것만 안 주는 게 아니라 너가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근로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너가 별 이유 없이 불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대가 30얼마 정도 받으시거든요. 그만큼 추정소득 매기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일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1인치를 중지, 19만원이면 안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이 돈이.. 거의 안 받는 다고 생각해요. 2명까지도 거의 생계비가 안 나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긴 나오지만 실제로 나오지만 이게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 참여가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하는 정도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뭐 고취시키거나.. 그런 어떤 .. 저희가 없어요

Q: 근데 그런 예 말고 진짜 좋은 급여를 받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일에 대해 전망이나 이렇게 있으면 그분들도 좀 달라지거나 할 그런 여지는 없을까 하거든요

A: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내가 일한 만큼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면 일한 만큼 줘야 되는데 일한 만큼 주는 게 아니거든요

Q: 만약에 그런 구조가 있다면 그 분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자활 시장이나 사회적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그 급여를 주는 게 자기들이 일해서 생산적인 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정부지원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걸 해가지고 뿌려서 나가서 일자리를 해서 하면 그런 걸 느끼실지 모르지만 이 구조에서는 좀 힘든 거 같아요. 문제긴 한데 안 시킬 수도 없고 진짜.. 그래서 저 위에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 자활이 물론.. 지금 국민기초 범 생긴지 7년 .. 10월 되면 다 되는데 자활은 물론 실패다 성공이다

이야기 할 순 없지만, 어떤 근본 취지와는 다르게 성공자가 별로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자활후견기관에 가서 자활 참여를 하시고 성공한 사람은 정말 전국에서 몇 명인가.. 이 사람이 그걸 하면서, 그거와는 별개로 구직을 해서 나가면 몰라도 그걸 통해서 정말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저 예전 동네에서 저.. 간병 해가지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고 제가 볼 때는 간병사로 나가셔도 되는 분이 있는데 안 나가시더라구요. 꼬치꼬치 물어봤더니 그걸 나간다고 해서 이만큼 일자리가, 수입이 보장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더 중요한거는 거기는 여기보다 일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시장에 뛰어드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정도만 하면 그래도 수입이 이 정도 있고 생계비 있지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별 방법도 없는 것 같고

Q: 영구임대 같은 경우 더 수급벗어나기가 힘들 거 같아요. 왜냐면 여긴 임대료가 되게 싸니까 민간인들이 여기만큼 싼데가 없잖아요.

A: 예 수급자 같은 경우 4만얼마 내시거든요 임대료.. 그리고 수급자 중지되면 살 수는 있는데, 임대료랑 보증금이 올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싸요 다른 아파트에 비해 싸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주택공사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국민임대 수준으로 수급자 아닌 분들은 올린대요. 보증금이랑 임대료랑.. 영구임대 임대가 많잖아요. 주택공사에서 하는 게.. 영구임대가 제일 싸고 국민임대, 잘 모르겠지만 임대료가 많은데 국민임대는 더 높거든요, 다른 거보단 싸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비상이라니까요.

Q: 나갈 분이 많이 계시겠네요

A: 근데 지금 같은 보증금 수준으로.. 수급자 분들은 400 얼만거 같아요 500만원 좀 안되는데 이정도 수준으로는 월세 보증금 밖에 안 되는데 월세를 낸다고 하면 10만원에서 20만원,, 아무리 싸다고 해도 15만원 이상은 내야 되니까 여기 같은 경우 중지가 되면 영구임대 주택까지 타격을 받으니까.

Q: 선생님 아까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실 때랑 지금이랑 사후관리, 상

답이나 이렇게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선생님 현재 위치에서 생각하시는 사례관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A: 사례 관리.. 소위 말해서 쪼임을 받거든요 사례 관리 너무 쪼임을 받는데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긴 해야 되는데 사례관리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민간이랑 같이 하거든요 제가 사례관리 담당이 아니어서 같이 이야기는 안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초점이 틀리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희는 법정지원뿐 아니라 다각도로 지원하고 문제 해결 하고 하는데.. 사례관리.. 솔직히 저 잘 모르겠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그만큼 또 그래요 여건도 안되고.. 여건 탓만 할 수는 없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담당자 별로 몇 번씩 해가지고 하여튼 지금 하는데 좀 장기간 해야 되겠더라고요..

Q: 사례관리 그룹에 어떤 조직들이 들어오는 건가요?

A: 저희.. 다른 덴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 사회복지 담당이랑, 복지관, 삼성복지관, 사회복지사랑 같은 저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해서.. 일을 하고.. 한다고 하고.. 회의에 팀장님 참석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해결하는 시각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거를 조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면 잘 되겠죠.

Q: 이게 자생적인 조직인거예요 아니면

A: 자생적인건 아니구요. 구청에서 담당이 내려보냈어요.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일주일을 하고 4,5준가 해가지고 이게 민간도 통합 전달체계 개편되고 나서 민간 자원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팀을 만들었더라고요. 팀은 그건 아닌데, 팀장님이신데.

Q: 대상자도 나눠서 관리하더라고요. 세 집단인가?

A: 예. 그냥 복합적인 저기가 필요한 사람 아니면 잠재적인.. 해가지고서 지금 제일 문제 있는 그거 위주로..저는 솔직히 사례관리 그래요.. 수급자 관리하면서 안 되는 거는 저희가 다 하는데 지금 상태는 체계적이고 우리가 그동안 사례관리를

안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수급자 관리는 했는데 어떤 체계나 형식 없이 했던 거죠. 지금 체계나 형식 어떤 것들이 없는가 모색하는 과정이지 아예 안했다고 보긴 어려워요. 수급자 하나하나가 제 사례죠 뭐. 케이스 관리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로 그걸 더 체계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근데 문제는 뜬금 없이 사례관리 해서 뭐..내고 하라고..우리가 뭐 관리 안했나..

Q: 사례관리라는 게 사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조직하는 거잖아요

A: 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사례관리를 안했다고 할 수가 없는게 수급자를 하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연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결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그냥 수급자 관리에 묻혀서, 그냥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그냥그냥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사례관리를 안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체계적으로 조직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마치 없었던걸..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양.. 이쪽에서 어떤.. 성과를 과시하려는 게 웃긴거 같아요. 물론 새롭게 개편을 했으니까 성과는 분명히.. 성과는 나와야겠죠. 그렇지만 막 대단한 뭔가가 나온 것처럼...좀 웃겨요 너무 황설수설해가지고(웃음)..

Q: 아네요.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 선생님께서 아쉽다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아까도 많이 이야기 해주셨지만

A: 근데 저는.. 솔직히..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제대로 된 전달체계 개편이 안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솔직히 사회일선에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만든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더 조직을 담당하시는 분들, 정책하시는 분들 선에서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인력.. 좀 문제죠.

Q: 지금 전달체계 개편은 전혀 현장성이 반영된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도 나아질 거 같지 않고..

A: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다지.. 물론 보완해 나가려고 자꾸 이런 걸 하는 거 같

은데 별로 좋아지진 않는 거 같아요.

Q: 선생님 그러면 원래 복지 사무소가 만드려고 했었잖아요. 그거랑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A: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복지사무소는 복지사무소는 관심이 없었고. 저희가 다.. 인천이 다른데 보다 빨리 개편을 했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Q: 지금 딱 차면 일년이에요

A: 예 다른 데 보다 더 빨리 했다는 거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복지사무소도 문제는 많았다고 그러더라구요. 시범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좋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복지사무소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신경도 안 쓰고 우리부에서.. 뭐 인천에서도 안하고 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었겠지만 좀 현장성 반영 안 된건 그건 진짜 맞는 거 같아요 어떤.. 동사무소의 분위기라든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거 같아요. 그리고..아 휴..

Q: 그리고 예전에 몇 번 예비조사 같은 걸 했었는데 조직 팀장님의 성격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A: 어떤 팀장님이요.. 조직을..? 예.. 조직에 관련된거는 저희는 감독님이 하거든요.

Q: 업무 관장이나 이런 것도 팀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A: 그렇죠. 여기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많은게.. 그렇죠 그렇죠. 틀려요 사회적이든 행정적이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 별로 트러블이 없는데 딱 있어요 딱 선긋고 이걸 니가 하고 난 이거 한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테이블이 두개잖아요. 저쪽은 행정적이고 저쪽은 사회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주민 생활 이렇게 바뀌면서 행정적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사회적 업무도 됐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되고 이런 데서는 행정적이 어떤.. 우리가 소위 옛날에 말하는 가정복지 업무..교통수당이라든가 급여업

무라든가 요런 거는 해서 하라고 만들라고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당연히 원하죠. 근데 저쪽에서 못준다.. 굉장히 많아요 .

Q: 분위기 이상해지겠네

A: 그렇죠. 그리고 윗선에 어떤.. 동사무소 딱 인력 주면 여기서 알아서 하는 거지 위에서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구청 윗단 위에서는.. 여기서 업무분담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저쪽 팀에 누구나 사람 많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팀에 사람이 많아서 더 여유 있게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저쪽 팀에 사람이 여유가 있는 거 같은데 전혀 생각이 없죠. 그리고 행정직들 자체도 내가 왜 사회업무를 해? 이래요

Q: 선생님 혹시 의료급여도 관여를 하시나요?

A: 지금은 안 보는데 저번에 5월..

Q: 7월에 개편이 되서.. 혹시.. 그런거 때문에

A: 지금 제가 의료급여.. 제가 5월 달에..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업무분담하면서 의료급여를 소위말해서 다른 분이 뺐어요 뺐는데.. 의료급여 되게 기피업무예요. 왜냐면 연장이 굉장히 .. 아까도 말했지만 수급자 개개인이 자기가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 뭐 안내면.. 또 그분이 돈을 물어내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랑 관련되서 민감한데 7월1일자 개편이 됐는데 개개상담은 다 해야되요 지금.. 선택변경제..그래서 의료급여 담당이 힘들긴 한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초임 발령이 구청에서 의료급여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의료급여 문제나 이런 어떤 과다이용 한다던가 너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의료.. 많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하긴 해야죠.. 수급자 의식 전환이 필요할거 같아요. 그리고 1종이나 2종이나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안하면 이 정도 못 다녀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건강보험 대상자들 같은 돈에 같은 질병, 수준 봤을 때 너무 많잖아요. 정형외과도 다니구요, 플러스 침도 맞으러 다녀요.. 둘 중에 하나만 건강보험자들이 쓴다면 우리 수급자들은 2개를 다쓴다는 거죠. 물리 치료

매일 받으러 다니고 매일 아프고 좋다는 거 다하고.. 병원.. 소위말해서 의료쇼핑을 본인들은 아프다고 해서 간다지만 내 돈내고 다닌다면 그 정도는 못하는 거예요.

Q: 사람들이 의료급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보네요

A: 근데 이해를 잘 못하세요. 노인분들이 많아가지고 너한테 6천원 주는데 여기서 제한 다음에 나오면 내년에 주고 이걸 넘을 거 같은 경우 병원을 설득해서 이것만 다녀라.. 얘기를 해도 모르시고 또 병원에서 병원도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요번에 인터넷에 기사 떴다고 팀장님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거 같던데.. 의료급여 대상자들 부담정도는.. 그거 뭐 기사가 났다 지금요 환자 유치하려고요 병원에서 무조건.. 선택 병의원제 환자.. 의료병원 선택해서 동사무소에서 내라고 야니면 돕는다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병원에서도.. 제가 볼때는 과다이용하는 것도 병의원에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 병원에서 저 병원 두 군데 같은 약 먹는 분들은 전산 상으로 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과다 중복 의료 쇼핑하시는 분은 막을 수도 있는데 그 쪽이 너무 센 거죠.. 의사분들이.. 어떻게 거기는 하지 못하면서 여기만 쫓는 거예요. 근데 수급자 분들도 분명히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되게 막 쓰고 많이 쓰시고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그리고 이거 마지막.. 갈때기예요. 사회복지사 갈때기.. 동사무소 갈때기라 그러거든요 다.. 끝에만 사회복지사 담당이고 다 와요.. 모든게.. 갈때기 현상이라고 해요.. 모든 업무가 이렇게 하다가 사회담당, 사회담당, 사회담당, 사회담당, 어떤 저소득이랑 관련된 거면 다 사회담당이에요. 저희가 하는 게 교육청에서 하는 유치원 보조까지 여기서 조사해서 주는거 아시죠. 그러니까 보육료는 이렇게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유치원도 감면혜택이 있고 어린이 집도 감면혜택이 있어요. 유치원 저희한테 책정.. 다, 그리고 학교, 학교에서 외 저소득 학생들은 저기해주잖아요. 급식비랑 학비 감면.. 학교 자체.. 그것도 사회담당을 통해야 되요. 지금 조금 완화되서 동사무소에서 확인만 해주면 되는데 어떤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사회담당을 거쳐요 공동모금회 하는 거 다 사회담

당 거치고.. 모든게 다 사회담당 우릴 안 걸고 넘어지면 안돼? 우린 막 이러는데
갈때기라 그러는데 끝으로 다 사회담당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적인걸
목표로 하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Q: 아까 말씀하신 인적 물적..

A: 예. 지금 사람들이 복지욕구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런 저소득뿐만 아니라 일반대
상자도 굉장히 많은데 감당을 못해요.

Q: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

- 조사지역 : 중소도시
- 응답자 개인사항

성별	연령	학력	근속기간	자격증 여부
정수경	37	대학교졸	14년	사회복지사1급

- 기관환경

읍·면·동사무소의 상담환경 - 조사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실은 출입문 바로 왼쪽에 설치되어 있음. 약 3평정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음. 쇼파(4인)와 찻잔용 탁자가 배치되어 있음. - 동사무소의 민원실은 ㄱ 자 형으로 배치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부서는 출입문을 기준으로 왼쪽에 일렬로 배치되어 있음. 사회복지부서와 행정부서는 반투명한 유리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줌. 따라서 수급자 또는 사회복지관련 용무가 있는 자들은 다른 민원인들과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음.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면접 상황을 고려해보면 본 공무원의 답변은 신뢰 할 만함(솔직한 답변이었음). - 공무원은 비교적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가짐. 특히, 일을 할 수 있는 수급자를 굳이 제도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 - 14년간의 베테랑 공무원이라 그런지 말을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판단하여 대답하는 것 같았음

- 사례 위주 보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어 답변에 대해 구체화 할 수 없었음.
- 지역의 특성이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음. 공무원은 본 지역으로 발령받기 전까지 수급자를 배려하여 융통성있게 업무를 하였지만 본 지역의 특성(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 그로인한 수급자들의 요구 증가)으로 인해 과업중심적, 관료적 절차(지침위주)에 충실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음
- 본 공무원은 준비된 응답자?(본 연구와 성격이 비슷한 여러 연구를 통해 면접을 하였는지 답변들이 준비된 대답이라는 느낌이 들었음.)
- 임대주택이 밀집된 동의 전담공무원보다는 그렇지 않은 지역의 공무원(수급자도 포함)도 면접하여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Q: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하게 어렵거나 그런 질문하는 건 아니구요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랑 그 다음에 제도상으로 이제 어떤 제도들이 거기에 대해 생각가지고 계신것들 그리고 혹시 사례같은 것들 있으면 저희가 좀 많이 받을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니깐 크게 부담가지실 필요없을거 같아요 바쁘시니깐 아무리 늦어도 한시간 반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A: 네 가능하면 한시간 안에

Q: 한시간안에요?(웃음)

A: 한시간안에

Q: 아까 여기 들어와서 보니깐 여기가 지금 상담하는 곳이죠? 지금 수급자분들 저희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해서만 여쭙볼거거든요 여기서 상담을 거의 다 하시는 건가요?

A: 아니요 여기가 상담실이긴한데 실행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니깐 여성분같은 경우에는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라던지 인제 그런것 때문에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할 수 있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쪽에 모셔서 하는데 실상은 여기 평화2동은 영구임대 아파트예요 그니깐 수급자 밀집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단 똑같은 수급자라 하더라도 사고방식이 많이달라요

Q: 다르다는 뜻은 전주에서도 이 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심하게 밀집되어있는 지역인가요?

A: 네 가장 많아요 완산구에18개동이 있는데 이 곳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제일 많아요

Q: 몇 가구 정도 될까요?

A: 저희가 기초수급자는 약 1500정도

Q: 1500세대요? 오... 몇분이 전담으로 일 하세요?

A: 현재 4명이예요 저희 원래 5명인데 한명을 빼갔구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쪽에 신사업지원(전달체계 개편을 말하는듯함.)팀이 생기면서 행정직을 전환을 했어요 복지부와 행자부에서 맨처음에 애시당초에 요거를 계획을 했던게 일단은 문제점이 있어도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해보자 인원충원없이라고 말했지만 그거는 정말 어찌해보면 정말 탁상이에요 저희 실무자측에서는 왜냐면 업무자체는 너무 늘어나고 계속 쏟아지는데 직원은 이곳 저곳에서 빼가고 너희 실무에 있는 사람들이 해봐라 하는데 그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례관리 얘기하시는데 사례관리 택도 없어요

Q: 그건 어디가나 똑같이 말씀하시는...

A: 그건 될 수가 없고 얼마전에 행자부에서 노무현대통령한테 이 제도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다는데 전산화가 되어서 인원은 확충을 안해도 업무량은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시다라고 했대요 저 그거보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Q: 원래 다섯분인데 한분이 빠져나가시고

A: 네. 우리 일 하려면 6명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Q: 최소 6명이요?

A: 인구 5만이거든요 전라북도에서 인구 가장 많구요 수급자도 가장 많구요

Q: 지금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 업무가 기초생활보장...

A: 기초보장담당하고,그외 여성복지및 기타 하고 있어요.

Q: 아 여성복지쪽두요 다른 분들도 기초보장제도담당하시는

A: 그쵸 구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Q: 아까 담당자가 4명정도이시라고... 구역별로 담당을 나누신거예요?

A: 네. 저희도 직원하나가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 업무만 기초수급자 업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역별로 나눈 이유가 일단 한사람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사람 기초수급해당이 안되면 나머지 저소득모부자 이렇게 서비스가 연계가 되어 되는데 이걸 업무별로만 나누다 보면 그게 끊겨질수가 있어요 최초상담자에서 부터.. 그래서 우리는 수년전부터 그런거 염두해두고 (일을) 해왔고 또 실상은 저희 여기 행정위원회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영구임대아파트쪽에는 복지관이 원래 상주하게 되어있잖아요 다 연결해주거든요 복지관 연결해주고 간병인 연결해주고 이런 부분들 해왔는데 글썄 요기에 인제 전산시스템이 갖춰져서 하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실무자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인력. 인력 때문에 그런거죠

Q: 4분이 150세대면은 일인당 삼백...

A: 400세대

Q: 400세대 담당하신다는 건데...선생님이 직접 담당하시는 기초보장세대가 대충 몇가구 정도지 혹시?

A: 400이요

Q: 400이요? 정확히 400씩 나눠서요?

A: 근데 실상 사례관리 말씀하셨잖아요 못해요

Q: 그쵸

A: 네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동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렇게 얘기를하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례관리를 못하니깐 저 여기 온지 1년됐거든요 구청에 있다가 여기온지 1년이 됐는데요 기초수급자세대 가정방문 정말 힘들어요

Q: 혹시 여쭙보고 싶은게 있는데 사례관리라고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사례관리란게 어떤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A: 사례관리라는 것 이번에 내려온것 보니까 유형 1, 2, 3 해가지고 그니깐 그냥 일반 지원 보통 수급자들한테 나가는, 문제가 별로 없고, 근데 성향이 없는 수급자들한테 나가는게 유형1 어느정도 조금 뭐 어떤부분이든 부분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 (유형) 2 아주 알콜릭 이런 사람이 유형 3이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여기같은 경우도 알콜리즘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동사무소 담당선에서 안되는 부분이 뭐냐면 알콜리즘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 상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Q: 그쵸

A: 그런 위험이 있는데 예전같으면 예를들어서 동사무소 직원하고 함께해서 정신 병원에 반 강제적으로 입원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한 7년전쯤?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안되잖아요 그럼 저희 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부분은 그거는 전문가하고 개입을 해가지고 해야되는 부분들 그런 거는 사례관리 3에 해당될 것이고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중점적인게 사례관리쪽 해가지고 그 개개인에 어떤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에 가장 중점을 둔거 같은데 실상은 지금 현재 읍면동사무소 실정엔 안맞다라는 거예요 사례관리할라하면 그만큼 가정방문 많이 해야 되구요

Q: 따로 사례관리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A: 네. 전문사례관리사 그니깐 의료쪽엔 전문사례관리사가 있잖아요 이쪽도 사례관리사가 필히 있어야되요 그렇지 않고선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보면 행자부쪽에서 사람들에게 메일을 많이 보내는데 충북 어디의 사례관리 성공사례 보내는 데 전 그런거 보내는거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기존에 해왔던거를 포장해가지고 말을 꾸며가지고 성공했다고 내보내는 거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런거 읽으면 속이 좋지 않아요 (웃음)

Q: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전담공무원들을 만나다보면 관내 수급자들의) 알콜...알콜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A: 왜냐면 진짜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끼죠 우린 일을 할때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4단지 영구임대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 거리 가깝거든요. 왜 만하면 걸어서 안가요 왜냐면 여기가 정말 위험해서요. 여기서 성인남자의 한... 심하게 말하면 60% 아님 50%정도는 알콜이나 그리고 그중에 30~40%가 인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강간죄나 강간살인미수였던 분들이 있어요.

Q: 그러면 그런 아버지를 가진 아이들도 있나요

A: 있죠

Q: 그 아이들은...

A: 그 아이들은 성향은 제가 얘기하지만 정확히 성향 파악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문제는 있겠죠

Q: 그 가정들도 부자가정으로 분류가 되는...

A: 네 그쵸

Q: 선생님 지금 업무가 기초보장생활쪽으로 전체업무를 100으로 보면은 기초보장쪽 하시는 업무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나요?)

A: 전반이에요 총괄

Q: 거의 그럼 100%다 일을

A: 아니죠 60

Q: 60정도 선생님 업무 자체가

A: 60정도

Q: 나머지는 여성복지

A: 70정도 되겠네

Q: 70(%) 정도요?

A: 여성복지쪽 모부자가정 이런거 하는게 제가 한명빠가는 바람에 제가 지금 모부자복지 맡은거예요 원래는 국민기초 전반하고 기타 다른 사회복지 일반 이렇게 했었는데 한명이 충당이 안되니깐 저희 동장님까지 업무를 가져가셨어요

Q: 네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A: 업무는 계속 또 요번에 아동 바우처인지발달 관련해서 업무 떨어진거 아시죠? 여성쪽 또 나올거고 업무는 일단 서비스 지원쪽으로 계속 확대가 된단 말이죠 사람은 정말 안줘요 오죽했으면 저희 그냥 단체 사표를 던질까도 생각해 봤어요.

Q: 힘드신데도 불구하고지만 4분이서 계시고 동장님도 계시지만 선생님이 보시기에 직원들간에 업무분담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님 어느 한분쪽에 많이 몰려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저희 직원간에? 저희는 업무분담을 동장님이나 계장님이 해주시는게 아니고 같이 상의해서 해요 상의해서 하는데 업무 어느쪽을 갑자기 떠받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시작을 했어도 갑자기 새로운 업무가 딱 떨어지면 그때마다 업무분담을 다시 할 순 없잖아요? 일단 상의를 하는거라 치우쳐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Q: 동사무소 배치가 처음부터 이렇게 일반업무랑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팀이랑 분리가 되어있었나요?

A: 아니죠 저희 바꿨어요

Q: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언제 분리하셨나요?

A: 5월부터 바꿨어요

Q: 5월부터요? 특별한 이유가 뭐 있어요?

A: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저희가 원래 이렇게 일자로 꺾여져 있어요 이쪽이

동장님실이었는데 배치가 이게 입구조 출입문이잖아요 요렇게 꺾여지고 이쪽이 민원 등초본 사회복지쪽 이렇게 났는데 문이 양쪽인데 이쪽을 주로 이용해요 이렇게 하다보면 모든 민원이 사회복지쪽을 거쳐요 그럼 사회복지는 그렇지 않아도 하루종일 상담해야되고 입에 진짜 이 쓴물이 많은데 일반민원까지 한번 거쳐서 예를 들어서 “등본 어디서 뜨나요?” 한마디라도 가는게 너무 힘드니깐 여기는 1월에서 4월까지 업무가 마비가 되요 전직원이 매달려야되고 일요일도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이쪽이 사회복지쪽에서 업무를 감당을 못하잖아요 동장님이 아이디어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거예요 이렇게 하다보니깐 업무자체가 줄어들었어요 많이 한번거쳐가던 민원이 안거쳐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구요 다른 동에서도

Q: 짐 들어보니까 동장님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좋은... 보통 윗분들에 대해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많이 로드가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동장님은...

A: 동장님은 안그래요

Q: 동장님은 사회복지... 친사회복지라 해야 되나(웃음) 그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나봐요?

A: 많이 해주시고

Q: 구청이나 다른 관은 어떤가요? 구청이나 윗기관, 상위기관이라던가 그런데 하고는 업무협조가 잘 되나요?

A: 근데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어찌되었든... 저도 구에도 있고 시에도 있어봤지만 업무를 하다보면 그냥 하자식이 되버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업무분담에는 구청업무 본청업무팀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만 일을 하다보면 그게 두루뭉실해지더라구요 일단 동은 이렇게 내려와서 해야되는 경우 그래서 부담되는 경우도 훨씬 많이 있어요

Q: 많이 있다고 느껴세요?

A: 많진 않으나 있어요 그니까 구청도 항상 문제는 뭐냐면요 인력난이에요 구청도 한사람이 해야될 일이 그치만 동도 마찬가지로요 근데 가장 힘이 없는 곳은 동이잖아요 본청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요.

Q: 업무를 하시면서 불합리하다고 느끼실 정도로 구청이나 상위기관 아니면 구의원분들등이 오셔서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걸 좀 불합리한거같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부탁같은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청탁같은 것이 있었나요?

A: 제가 저번에 그것 때문에 경찰청까지 갔다왔잖아요

Q: 오 그래요?

A: 참고인자격으로요. 그거는 다른 문제고 구에 처음으로 갔었는데 그게 다른 동 직원하고 얽혀졌나봐요 시의원하고 그 동 직원에 간에요. 피고인자격으로 가서 진술했었어요. 거기 거론된 사람은 참고인자격으로 다 나와야 된대네요 뭐 수급자선정 관련한 청탁은 아니었어요 청탁은 아니었는데 그런거 있었고 지금은 시의원이 아니라 시의원 할애비가 청탁을 해도 안되는 건 안되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데 다 마찬가지로일거예요

Q: 그런 사적인 부탁긴 오긴 오나봐요?

A: 청탁은 아니고요 사람이 수급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봐달라 안되면 왜 안되느냐 정도는 문의하죠.

Q: 구의원쪽에서 많이 하는...

A: 그쵸 근데 많진 않아요 예전 제가 예전에는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많이 생각도 바뀌고 무조건 들이민다고 해서 이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더라구요 그래서 많지 않아요

Q: 알겠습니다 제도 관련해서 여쭙보려그러는데 지금 통합조사팀이 생겨서 그 쪽에서 선정조사하긴하지만요. 예전 기억 되살려보셔서요. 수급자 발굴 관

련해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A: 현재요?

Q: 네 현재요

A: 동에서? 수급자 발굴... 수급자 발굴 따로 할 거 있나요? 홍보가 잘 돼서 다들 달라고 달려 들어요(웃음) 정말로

Q: 그니깐 예를 들어서 복지관, 통반장

A: 통반장님도 간혹 이 집 어려운데 어떻게 안되겠냐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Q: 많이들 오세요?

A: 많진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요즘엔 알아서... 알아서 많이 오기도 하고

Q: 아 본인이 직접 신청을... 그런 제도가 있으니깐

A: 많구요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원받기 위해서 오실때, 워낙 우리는 많으니깐 다른 신경 못쓰구요 다른거 상담하러 왔잖아요 근데 생활이 어렵다..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안될까요? 하다보면 그 세대의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있으면 안내해드리고 이런 이런 지원체계가 있으니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신청을 하시던지...

Q: 주로 찾아오는 경우가 젤 많겠네요?

A: 그쵸

Q: 그 답에 인제 민간기관 통해가지고...

A: 민간기관의 요청은 없어요

Q: 없으니까? 여기는?

A: 민간기관에서 요청을 한 경우는 한번도 없어요 왜냐면 민간기관을 이용하는 사

람들은 모두 수급자예요... 그니깐 다른지역은 모르겠는데 여기 평화2동은 수급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수급자들한테도 벅차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자가 아닌 기타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Q: 동네 이웃에서는 부탁하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있죠 다 있어요

Q: 비율로 따지면은 어느정도 될까요? 본인이 찾아오는 경우가 한 과반수 이상

A: 50

Q: 한 100으로 보면 50 나머지

A: 통장님이 한 20 저희가 상담해서 찾는 경우가 한 20

Q: 상담해서 찾는 다라고 하면 직접 나가서 찾고 그런거예요?

A: 다른 일로 오시는 분인데 상담하다보면 여기 기준에 맞을 거 같고 이런 지원이 필요할거 같아서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Q: 상담당시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걸치는지 좀 그런것좀 여쭙볼려 그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것처럼 상담실이 여기 있긴 하지만은 많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A: 왜냐면 남자들은 (상담실에) 데려올 수가 없어요. 밖에서도 화분집어 던져요 벽 깨서 들고오구요 화분집어던지구요 그 뭐죠 낮도 몰래 들고 오고요

Q: 낮이요?

A: 낮 낮

Q: 아 낮이요? 나 수급 신청 시켜달라 이런식으로?

A: 생계 지원 좀 어떻게 시켜달라고요

Q: 생계 지원 시켜달라고요?

A: 석유통들고 와요 석유 다 뿌려놓구요

Q: 그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빈도로 따지면은 어느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열분 찾아오시면

A: 여름에는 좀 없고요. 제가 여기 8월달 말일자로 왔는데 저 올 3월달에 죽는 줄 알았어요 많아요

Q: 대략 열명중 몇 분정도가 그러나요

A: 열 명이요? 그렇게는 못하겠고... 한달에 몇 번씩은 있었어요

Q: 한달에 몇 번씩이요? 꽤 많네요

A: 오죽하면 동장님한테까지도 욕설을하고 자기가 112신고해서 경찰차 세 번 출동 했는데 경찰들도 복잡하니깐 그냥 (개입을) 안해요

Q: 주로 선정이 안된 경우에 그렇게...

A: 선정이 안된 경우 아니에요 그냥 술먹고 확 깬거예요

Q: 그냥와서

A: 네 여기와서 그냥 반말해요.

Q: 수급자들이 와서 행패부리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A: 수급자가요 네

Q: 네 다른 동사무소에서든 그런 말씀 하시더라구요

A: 수급자가 그러구 그냥 이유없이 그러는 경우도 있고 말 그대로 생계비가 조정

이 되서 하향조정이 되서 화나 탈락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괜히 이유없이 그런...

Q: 저희가 여쭙보는 거는 신청하러 오신분들에 대해서 여쭙보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상담하러 오셨을 때 여기(상담실)서..

A: 여기서 할 수 없는 이유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Q: 실제로 신청을 하러 오셔서 그렇게 폭력을 하시거나 아주머니들도 막말을

A: 언어폭력이죠 여기가 다 여직원이라 성희롱까지도 해요 언어적인 그래서 녹취 가능한 전화기로 전화가 바뀌지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어요

Q: 서류같은 거는 어떻게 선생님께서 직접 작성을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작성하죠?

A: 어떤서류요?

Q: 신청하러 왔을 때 제시하는 서류요.

A: 저희가 예전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요 기본적인 서류를 다 받구요 신청은 본인이 작성하시는 거죠 소득신고 다 받고 저희가 호적 열람해서 정부에 자산조사 조회까지 보내고 상담요약 초기상담 이렇게 써서 신청하죠.

Q: 혹시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상담을 이렇게 하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간 예를 들어서 화가 난다거나 마음이 상했던 적이 많으시죠? 사례같은게 있었으면 ...

A: 제가 14년차예요 14년차인데 동도 많이 다녀봤고 그간 암튼 여러군데 많이 다녀봤어요 동두 근데 이렇게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은 처음이거든요 수급자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런데요. 수급자들도 레벨이 있어요 그 레벨이란게 잘 산다 못산다 레벨이 아니고 정신적인 레벨이에요 그게 있어서 여기 동(평화2동)

만 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한 업무만 계속하다보면 어려운 사람 상담하다보면, 측은지심도 생기고, 내가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이상은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진짜 이 동에 오기전까지는 정말 그랬어요 이 동에 와서는요 정말 그런 마음이 정말 없어요

Q: 선생님 보시기에 이게 아무래도 영구임대주택 아파트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A: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게 있고 그런 성향들이 전염되요 전염병같이 전염되요. 예전에 4단지 관리사무소 제가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임대아파트에 들어올수 있는 조건을 보면 수급자가 살고 있어야 잦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데 가서 살고 신고가 나서 다가보면 (수급자들이) 와있어요 저희가 24시간 붙어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딱딱 체크를 해주면 저희도 같이 해줄 수 있는데 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24시간 붙어있을 수 없고 사느냐 안사느냐 그러면 잠깐 친척집갔어요 이래버리고 도장찍을 때 세대주의 도장찍어주면 거절안한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 부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 이 사람들은 너무 암튼 거짓말하는게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왜 예를 들면 아파트에 정자같은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술먹고 고스톱을 쳐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 합류하지 않는 수급자나 일반인이 볼 때도 저사람 분명히 수급자고 생계비땀는데 노름하고 하니깐 배가 아픈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기도 해요.

Q: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을 안 하고 생계비를 타는 수급자를 말씀하시는거죠?

A: 전화가 왔어요. 저 사람을 왜 (수급자로) 해주느냐 일도 안하고 술쳐먹고 하는데 왜 해주느냐 진단서상에 의사가 그런 병명이 없다 알콜중독이 있다면 그렇게 해줄 수 밖에 없다

Q: 제도상의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A: 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해줄수 밖에없다 그 사람 뭐라고 하나 면요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그간 국민의 세금으로 생계비 받고, 일 못한다고 병원에서 진단서 끊어줬는데 밤에 여자하고는 밤일 그 짓은 왜 하나 이렇게 말 해요 그런 사람 있으면 그림 한번 명단 갖다달라고 했더니 기다려라 내가 명단 5분만에 끊어서 던져주겠다. 오시라고 같이 조사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안오더라구요

Q: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저희는 그런 것 좀 듣고 싶는데 많다고 하면은...

A: 신고도 많이 들어온다니깐요

Q: 신고가요?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는데 조사를 나가거나 아니면은

A: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죠

Q: 근데 나가면 중단을 할 수 없게 서류상으로

A: 그렇죠 서류 완벽해요. 서류상으로는 수급자가 맞는데, 실상은 근로능력 있죠 예전에는 그게 있었어요 진단서가 근로무능력자 유능력자 구분하는게 3차기관에서 발급한것만 인정해줬단 말이죠 근데 2006년? 그 때부터 정도부터 폐지가 됐어요 근데 폐지된게 아마 어떤 증가비용부담 때문에 폐지를 한거 같은데 그건 정말 잘못된거예요 왜냐면 1차기관은 해줘요 1차기관 그냥 해줘요 3차기관 절대 안해줘요 대학병원은 안해줘요 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진단서가 남발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생계비 결정을 하고 근로능력자 무능력을 구분 할 수 밖에 없으니깐...

Q: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여쭙볼라고 그러는데 보통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소득기준있고 재산 부양의무자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있는데 보통 지금은 물론 통합조사로 넘어갔지만 보통 세 가지 기준 중에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거랑 젤 쉬운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A: 부양의무자가 제일 어렵죠

Q: 부양의무자가 제일 어렵고 젤 쉬운거는

A: 본인의 근로소득정도... 소득도 임시직이상이 되면 전산에서 주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파악하는것은 실제로 어려워요 일률적으로 조정 할 수도 없고요.

Q: 소득기준에서 그럼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것 처럼 임시 일용직이라던가 아니면 포장마차같은 자영업 소규모 자영업 조사할 수 있는게 어렵잖아요.

A: 본인이 소득신고 한 거, 그것을 믿진 않지만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거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거구요 최소한 자활사업이상의 소득신고는 하도록 유도는 해요 그 이하로 신고하면 자활사업 참여하시겠습니까 하면 이사람들이 안하죠 자기가 하는게 있는데 그런데 일단은 자활사업 참여... 그래야 자활사업 참여한 사람의 형평성에 맞죠 그 이상으로 소득신고는 그 미만는 인정하지도 않구요 그 이상으로 소득신고 할 수 있게 유도는 하죠

Q: 예를 들어 임시 일용직 같은 경우는 그 고용주가 고용임금확인서라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믿으시는 건가요? 그니깐 신뢰하시는 정도가 어떠세요?

A: 실은 반반이에요

Q: 반반 정도요

A: 왜냐면 대부분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여자분이에요 그쪽의 경리에요 그러면 경리가 직인 찍고 그러죠.

Q: 자기가 직접 직인 찍고 한다 이거죠?

A: 그래도 그쪽 통상임금을 적용하라 그랬는데 대충 알잖아요 어느 선인지

Q: 그럼 예를들어서 포장마차 이런 경우는 소규모 자영업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가셔서 주변사람들이라던가 근교에 있는 사람들 이분이 어느정도 버는거 같아요 이런 소득을 확인한다던가 해야 하는데.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A: 못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했거든요.

Q: 예전에 하셨는데

A: 여기는 못해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기는

Q: 추정소득은 어때요 추정소득은

A: 추정소득은 저희가 여기서 부과하죠.

Q: 어때요 수급자분이 만족하세요?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A: 일단은 저희가 추정소득을 부과할때는 기초실태조사서 작성하라 그래요 이렇게 하라고 해서 쪽 나오잖아요 이렇게 쪽 나오면 자기 소득 없다하면, 예를들어서 지출수준이 70만원이라고 하면 저희 생계비 충당 방법 쓰세요 하면 예금해놓은 돈 친인척 아니면 대출 이런식으로 해서 인정되는 자료는 인정해주고 그거에 의해서 상담해서 추정소득 써요

Q: 그거 수급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넘어가세요?

A: 아니죠 잘 안해죠 언성도 높여졌다가 얼렸다가 달렸다가

Q: 그럼 갈등같은게 많으시겠어요 소득자와 선생님간에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사례같은게 기억나는게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갈등이요. 물론 있죠

Q: 선정기준과 관련해서요 아까도 조금 말씀하셨는데

A: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뭐 소득 계산이나 갈등...그 갈등이라는게 부적합한 갈등

같은 거예요? 아니면...

Q: 부적합인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소득만 보면 이런 서류를 제출했는데 선생님께서 이걸 좀 못믿겠다 이런식의 말씀 예를 들어 가정하면은 그러면은 소득선정기준 중에서도 예를들어서 소득기준적용하는데 있어서 좀 서로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A: 아니 그런 부분은 다른 예를 들죠 예를들어서 누가 요만큼 받고 일합니까 식당 가면 통상임금이 있는데 이렇게 애길하고 또 예를 들어서 생활비 한달에 세식구인데 40만원들어간데요 그게 말이 되요? 생각해보세요 뭐가 얼마들어가고 얼마들어가고 얼마들어가는데 사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대로 신고 하셔야지 만이 저희가 이렇게 상담하다가 어려운점이 있으면 고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지 무조건 숨길려고만 하면 안되는 부분이고 하니깐 일단 사실대로 신고를 해주시고 그 답에 해결책을 찾아보시게요 하면 수궁하시고 일단 하세요 그 답에 좀 봐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려워요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Q: 소득기준관련하셔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거 혹시 있으셨나요? 서류라던가 아니면 절차상이라던가 제도상으로 인해가지고

A: 소득기준이요?

Q: 네

A: 그니깐 인제 문제는 그거 잦아요 일용직 자영업자인데 자영업이라해도 영세자영업이니깐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국기법이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책정이 되는 분들도 많지만 기존부터 쪽 보호를 받아오던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생계비를 일단 낮게 책정했다가 인상해주는건 아주 쉽지만 한번 높게 책정했다가 그거를 하향 조정하는건 완전 칼맞아요

Q: 그렇죠.

A: 근데 문제는 기존에 식당일을 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해서 한달 평균 소

특이 60만원을 잡아서 신고를 했어요 인정을 해줬어요 60만원을 추가로 오는 사람 신규로 신청을 하는 사람같은 경우에 앞에 사람이 한걸 들어서 60 똑같이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실은 우리가 봤을 때 7,80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사람한테 60은 너무 적습니다
(실제로 버는 소득은) 7, 80입니다를 얘기를 해야되는지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도 똑같이 올려줘야 한단말이죠 안맞잖아요 형평성에 그래가지고 못해요 기존에 있던 사람이라도 천세대가 다 그래요 소득을 그래서 천세대를 정리하면 여기서 난리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소득 부분이 많을텐데 저희가 그냥 어떻게 보면 눈감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기존에 잡혀있던 선정되었던 부분이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용주가 아니고 임금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통상임금만을 적용하라 하는데 근데 그건 분명 쉬운건 아니에요

Q: 재산기준은 어떻게 해요?

A: 재산기준은 별 문제 없죠.

Q: 재산기준은 보통...서류상에서 특별한 어려움 없었죠?

A: 없죠

Q: 부양의무자같은 경우는 좀 많을 거 같은데

A: 게다가 부양의무자는...

Q: 특별히 좀 어려웠던 것들이 있으셨어요? 예를 들어 부양능력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소급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뭐랄까 그런 파악하는게 쉽지가 않을거 같은데

A: 인제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전산으로 조회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부양 있음으로 나와요. 그런데도 부양을 안하고 연락도 끊겼다. 실제로 80%가 연락이 끊겼다고

얘기해요 이렇게들 다 얘기하시거든요 일단 추적할 수있는데 까지 연락해서 추적할 해셔요. 부양의무자에게 통화를 해봐요 그러면 정말 나쁜놈의 자식 아니 고서는 저희 어머님 저희가 못 말립니다. 어머님이 저희가 하지말라고 해도 (신청을) 한다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을 해서 해결을 하죠. 그런데 이런 예가 있었어요. 예전에 출가한 딸 같은 경우에 소득대상 같이 봤다가 또 소득대상 같이 봤다가 또 안봤다 자꾸 번복이 되거든요 이 제도 손을 봐야되요 출가한 딸 재산을 보던지 아님 부양의 무자를 아예 폐지를 해버리던지 왜냐면 요즘에 아들딸 길러도 필요 없다는 말 맞거든요 실은 어떻게 보면 아들보다는 딸이 경제적 지원을 많이 했어요 저도 결혼해서 딸이지만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예를들어서 딸하고 딸사위가 서울에 몇억자리 몇십억짜리 빌딩가지고 있어요 소득 임대사업소득 별로 만나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 해줘야되요? 난감하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분명히 해줘야되는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죠 이런부분들이 많아요 그니깐 만약에 부양의무자를 폐지를 해버리던지 이제는 핵가족화 되 버려서 저희도 맞벌이하고 애 하나지만 먹고살기 힘든건아니지만 부모님들한테 경제적으로 용돈을 준다는 건 실은 쉬운 건아니거든요 말그대로 요즘 사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말 전문직이 아닌 이상 의사나 변호사가 아닌 이상은 특히 대도시에서 4인가족 꾸려나가면서 부모님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준다는건 참 어려워요 그니깐 좀 부양자 기준을 완전 폐지를 해버리던지 아님 폐지를 안 할거면 출가한 딸재산도 받아야 하는거예요 저는 너무 답답해요 정말

Q: 좀 더 구체적으로

A: 출가한 딸의 재산도 보고 지금 출가한딸의 부양비율이 지금 15%잖아요 그러면 그 부양비율을 낮추던지..

Q: 아님 제대로 폐지하던지

A: 제대로 폐지하던지

Q: 만일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은 폐지쪽이세요? 아니면 선생님 생각으로는

A: 일단은 폐지한다는 건 쉽지 않죠

Q: 제도를 약간 완화시키던가

A: 좀 완화를 시켜야죠

Q: 어떤 분은 폐지를 꼭 해야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분도 있더라구요.

A: 폐지는 아직 아닌거 같고요.

Q: 좀 부양능력기준을 좀 강화시키던가

A: 네

Q: 여기 수급자들의 비율이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일반수급자들이 많으세요?

A: 여기는 골고루 있는거 같아요

Q: 골고루... 그니깐 어르신들이 많은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첩이라는 제도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양의문자에... 그런 예도

A: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호적에는 안올라가있는

Q: 네 호적에는 올라가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전처의... 이런 경우가 많았던데 혹시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A: 여기는... 시골적이라서 여기는...

Q: 보통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보통 수급자분들의 그런 대체로 만족도가 어떠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이 되는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A: 입에 거품을 물고 쫓아오잖아요(웃음)

Q: 예를 들어서 그런 갈등이 이제 있으면은

A: 할 수 없죠. 어떻게해요 계속 설득하고 설명해드리고 이해 해 드릴려고 노력하죠. 예를 들어 명절에 위문품 지원해주고 해도 그 때뿐이에요 다들 이런 경우는 할 수가 없죠

Q: 알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업무가 많이들 마비되고 그러실 텐데 좀 잘된... 그런 사례 있나요 혹시 처리가 어렵긴했는데 선생님이 선정기준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제도상으로는 좀 안되는데 선생님 개인적인 재량으로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수급자를 넣거나 탈락 시킨 그런 경우 혹시 있으셨나요? 여기서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요.

A: 융통성이라는게 예전에 전산화과 일반화 되기전에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투명화가 되버렸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Q: 요즘엔 그게 어렵다는거죠?

A: 그런데 그건 있죠 예를 들어서 일용직같은 경우에 모자가정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상담하다보면 소득부분이라던지 이런부분들은 다른 수급자하고 대비해가지고 크게 지나치지 않은 범주에서는 (융통성을 한 적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있는데 기준은 법적인 표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죠

Q: 인제 융통성을 발휘하는게 조금 인제 수급이 되도록 요렇게 좀 긍정적인 쪽으로

A: 방법 좀 제시를 해주고요 저희가 인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못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편법을 조장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방법을 제시를 해주면 인제 그거를 캐치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안하는 분도...

Q: 그런거는 약간 주관적인... 예를 들어서 근로능력을 판정하는 경우를 판단하시는 데에 선생님만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A: 그런건 없는거 같아요.

Q: 그런 객관적인 기준 말고 다른 기준은...

A: 없죠

Q: 없으세요?

A: 근로능력판정은 간혹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어떤 자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되구요

Q: 어떤 개인적으로 선생님만의 적용기준은 따로 없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근데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같은 경우에 근로능력판정기준표가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도 분류가 있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맨 밑에 그게 있죠 선생님의 업무재량점수가

A: 근데 그 점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게요 일단 자활에 참여를 시킬 때 그 조건으로... 비취업과 취업을 나누잖아요 노동부쪽에 지원을 하는 거하고 시군구에서 하는 거하고 일단 본인이 원하는 곳이 있어요 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실은 근로능력점수판단자체는 저는 큰 의미를 두진 않아요

Q: 그러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있죠

A: 여기는 없어요

Q: 여기는 동사무소에서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이 없나요?

A: 여기는 자활후견기관하고 민간기관 사회복지관 이쪽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청쪽에서 하는... 청소하는 쪽만 있어요.

Q: 알겠습니다. 혹시 전산조회하시면서 수급자들이 신청하시고 소득신고서라든가 그런거 신고하는거나 전산조회상으로 파악이 가능한데 다를 경우가 있잖아요 전산조회결과가 상이할 경우에 어떻게 보통 처리하시나요?

A: 전산조회를 가장 믿어요

Q: 우선적으로

A: 일단 연금공단 통화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틀리다 회사가 신고한소득이니깐요 그리고 회사쪽까지 전화하기도 해요 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제 전 임금이에요 총급여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인정하죠.

Q: 보통 그 제도상으로 보면은 처음에 선정을 신청했을때 신청부터 발급 통보 까지 심사거치고 그 한 14일에서 최대 30일정도까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지금 통합조사팀으로 바뀌고 나서는 제도보다는 좀 길게되는 경우 있지않나요 혹시?

A: 약간 다르긴 한데 신청해서 (통합)조사팀에 보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일단 저희가 민원접수를 안하니깐 일단 서류를 받아서 받아야 할것 작성하고 그러면 하루 빠르면 그날이지만 다른 업무처리하다보면 그 다음날 넘어가면 다음날 도청 들어가면 보통 그 다다음 그러니깐 총 3일정도 적게는 하루에서 3일까지는 늦춰지죠

Q: 선생님 보시기에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들이 방문했을 때 그 때를 신청이라고 보시나요?

A: 실은 구비서류가 완전히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가 일단 신청접수가 되는 거거든요

Q: 서류에 날인 했을때를 보시는 건가요?

A: 그니깐 최종적인 구비서류 예를들어서 신청서하고 서류를 가져왔는데 미비한게 있죠 그게일단 다 보완이 되어되요 소득신고서 가져오랬는데 안가져오면 그거 접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니깐 서류가 구비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단 접수가 되는 건데 통합조사팀이 생기면서 생겨가지고 정확성 신속성 형평성 요거 때문에 통합조사팀이 했다고 하는데 문제도 많아요 물론 형평성도 이런 계연성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담당직원이 4명이거든요 저희 4명에서 18개동을 나섰어요 그럼 한사람당 4~5개 동이거든요 그럼 이런 5개동은 맞을 수 있지만 다른 5개동은 안맞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초수급자 관리해야할 수가 적은 동은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 신청들어오면 아무리 바빠도 신규신청자는 가정방문 해야 되니까 가정방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상을 조금 더 사람들이 가정방문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런 관공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또 틀려요 속내를 다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아무리 티놀려고 예를 들어서 친절하게 해도 속애기를 못해요 이런 분위기상 그런게 있고 가정방문하게 되는데 일단 신청은 받죠 통합조사팀에서 결정하죠 다시 서류 내려오죠 저희가 관리하죠 그러면 정말 이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 연계가 예전에 읍면동에서 하던 것들받고 가정방문하고 소득조사 해가지고 구청에다 수급 신청해주세요 해서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수급자쪽에서는 그게 마이너스 지금 현재제가 마이너스에요 서류기간 좀 지연되죠 하루라도더 지연되죠 한번이라도 저희한테 상담했죠 수급자 분들이 한 말을 정리하지만 말 백마디하면 실제로는 50마디밖에 못적어요 말로써 표현하는것과 글로서 표현하는 거 나중에 또 얘기해야 돼 그런게 생기고 우리가 판단... 이 정도 까지 구비서류 갖춰지면 괜찮다 구청담당자한테 더 있어야 된다 추가로 요구하면 그 사람들 서류 이런 게...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음...모르겠어요 나중에 시행착오 거쳐서 제대로 (신청하는데)전산화되면 인력도 보강이되고 시스템도 더 보강이되고 예산도... 하면 그게 실제 지금 상황은 (어렵네요)...

**Q: 실제 신청서 통보까지는 대체로 실제로 보시기에 몇 일정도 되는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센터 바뀌고 나서**

A: 한 빠르면 14일되겠고 16 17일

Q: 16 17일이요?

A: 17일까지 않을까요? 근데 이건 몰라요

Q: 모르시죠 바뀌기 전에는요?

A: 바뀌기전에는 14일이내

Q: 14일이내. 쉽지않지 않나요? 부양의무자 때문에 보통 많이 딜레이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A: 이렇게 해요 왜냐면 완벽하게 구비서류를 갖춘다음에 정부 자산조회를 할려면 14일이내에 못해요 1차상담오잖아요 1차상담오면 저희가 신청서드리고 사전양해를 구해요 서류 다 갖춘 접수하신다음에 저희가 조회를 할려면 늦으니깐 저희 미리한번 넣어볼게요 괜찮겠죠? 동의받아서 일단 호적열람해갔고 넣어놔요 그럼 이미 그 사이에 다른거 넣어놓겠죠 그 정도 조사하는 시간이면 가능해요. 그렇게 안하면 (날짜를) 좀 맞추기 힘들어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Q: 그런 경우있잖아요 예를 들어정말 긴급하신 분인데 그니깐 보호가 필요하시고 생계급여가 필요하신데

A: 그런 경우에는 긴급생계급여 (제공하면 되죠)

Q: 그런... 했었던 경험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데

A: 예전에 할머니 아니었나 아 할머니 아니고 어떤 할아버지인데 요분이 리어카 끌고 컨테이너박스에서 사시는분이에요 고물상 사장님이 처음에 아셨데요 요분이 말소가 주민등록 말소가 되었던 분이에요 그니깐 말소가 되고 살릴 땐 한번 인가 됐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물상 사장님이 이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말소가 되어있었나

Q: 주민등록이죠?

A: 네 그런분인데 일단 서류가 갖추고...근데 그 분이 보청기를 끼고 계셨어요 귀랑 시력도 안좋고 보청기끼고 있었고 당뇨도 있고 합병증도 있고 눈도 약간 잘 안보이시고 그런 분 고물 주워가시고 상가같은곳을 드나들면서 박스같은거 주워서 그걸로 해가지고 한달에 십만원정도 버시는 분이신데요 이제 병원을 가야되

고 제가 보니까 장애진단도 안되어있는 분이예요 장애 일단 진단도 해야되는 상황이라 의료급여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다른 지원해줄려니깐 수급자 선정되어야지 조금 수월하니깐..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비가 없다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 분같은 경우는 긴급생계급여는 일단 기초수급자 신청을 한다음에 타야죠. 그분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다 되기 전에 그 전에 긴급생계급여 신청해서 지원해준 경우가 있어요

Q: 따로 민간...그니깐 요 동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관하고 별로 연계가 없다라고...

A: 저 다른 동에 있을때도 없었어요

Q: 다른동에도요 ?

A: 한 건도 없었어요

Q: 전주쪽에 좀 민간기관이...

A: 이 쪽엔 민간 기관이 많지 않아요. 기관이 있어도 연계도 거의 없고요.

Q: 대체로 그런게 없나요?

A: 민간기관은 민간기관 자체에서 보조금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 사업하는 것도 벽차지 않나요?

Q: 수도권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서울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직능단체도 많고 복지관연계도 많고 그게 뭐랄까... 워낙 또 서울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관들이 워낙 많고 그런 차이일까요?

A: 연계는...그 연계라는게 신규발굴 그런건 없구요

Q: 네 긴급지원할 때 예를들어서 의료서비스를 받는다거나 하다못해 쌀이라도 지원받는다거나

A: 여기는 자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있었어요 시청 감사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떤 사람이 수급자자격은 아니더라구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드러누웠데요 쌀달라고 근데 이 사람은 술로 이렇게 그래서 전에 있던 구역담당직원이 이웃돕기에서 남은 쌀이 있어서 줄려고 했는데 그 분이 이전부터 받아버릇해서 당장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거예요. 일단 어떻게요 해결해줘야지 비축해놓은 쌀은 없으니깐 (쌀이) 들어오면 그때 지원해 줄 때 연결하려고 했어요 혹시 비축해놓은 쌀이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구요

Q: 통반장분들도 잘 안도와주세요?

A: 통반장분들 다 수급자예요

Q: 아 영구임대니깐 그렇겠구나

A: 여기가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영구임대가 1500가구 있구요 다 주공아파트인데 임대예요 보증금 천사백 천오백 여기 대부분이 통장들 다 수급자예요

Q: 긴급생계급여는 지금 거의 안하죠

A: 요즘엔 긴급생계급여 별로 안하죠 왜냐면 요즘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또 129번 있죠 왜 긴급생계급여를 안하냐면요 그런 사례가 별로 없긴 하지만 안하는 이유가 긴급생계비는 지원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삼천을 지원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쥐야되는 상황인데 그럼 누가 그걸하겠어요 그 이외에 다른 지원도 많은데

Q: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는거죠

Q: 제도와 급여에 대해서 여쭙볼라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보시기에 현재 급여수준이 수급자분들의 가구 형태나 규모에 봤을 때 적합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아닌것 같다 부족한거 같다 모 어떻게 했음 좋겠다

A: 그거는 잘 모르겠고 솔직히 1인은 좀 적은거 같아요 솔직히

Q: 1인이요? 2인이요?

A: 1인은 적은거 같구요 5인은... 글썄요 백단위가 돼서 그런지 물론 백만원갖고 5인이 살기 힘들잖아요 힘들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일 하나도 안하고 백만원 딱딱 통장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천상 일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대부분 1인일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나 중증장애인이 많아요 그 분들은 살기 힘들어요 특히나 영구임대아파트 있는... 제가 좀 저번에도.. 어디서 나왔더라 국민고층처리위원회던가 복지부랑 같이 나왔거든요 가구 유형별 지역별 분포 똑같은 말이지만 좀 차등지원을 해야할 필요는 있는데 그게 좀 난해해서 쉽게 적용한다는게 쉽지도 않고 그게 분류를 동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분류를 할려면 말 그대로 의사들도 처방을 잘 할려면 진단을 잘 해야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분류를 잘하려면 기초조사들이 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류를 한다는 건 힘들 것 같고 일단 아무튼 1인은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많은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었어요 영구임대아파트같은 경우는 임대료관련해서 십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5만원 받아가지고 15만원 제하고 나면 20만원 나온단 말이죠

Q: 아 관리비가 그렇게 많아요?

A: 임대료 관리비 인제 공과금같은거 제하고 나머지 15만원 많게는 20만원가지고 해결하라는데 그거 가지고 최저생계비 유지 절대 안되거든요 그래서 모 4인가구는 잘 모르겠어요 4인가구는 어찌해보면 그게 그래도 살수 있는 경우가 있고 부족한 경우가 있을 건데 단독가족같은 경우에는 좀 적지 않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

Q: 특별히 단독가구?

A: 네

Q: 혹시 그럼 가구 형태가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장애가구라도 하더라도 서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니깐 좀 어떤 가구는 가구형태가 같더라도

도 좀 더 차별적이랄까 전문적으로 케어가 필요할거 같다 그런 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A: 어떻게 관리를 하나구요?

Q: 네

A: 관리못하는데요(웃음)

Q: 그런거 할려고 노력해보신적 있으신가요?

A: 할려고 노력은 하죠 상담을 하다보면 (그런 케이스의 서류는) 빼놔요 상담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관리를 해야되는 집이구나 빼놓는데 밀려오는 전화민원 방문 민원 떨어지는 공문처리 하다보면 이거 못해요

Q: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환경이 된다 시간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어떤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A: 일단은 연계지원 많이 할 거 같아요 후견기관쪽에서 자활사업자체등으로 다양하게 해서 깔끄미 사업이라 해가지고 독거노인 중증노인 빨래 수거해서 무료 세탁해주고 또 그런거를 와도 연계를 못해주는 경우 많아요 근데 인력이 되고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거 해주는것도 좋죠.

Q: 그니깐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니깐 같은 유형이라 하더라도요?

A: 특이한 사례는 그렇게 해요

Q: 급여유형중에 주거급여있죠 현물급여로 제공되는게 있는데 집수리 사업던가 그런게 실제보시기에 수급자분들에게 도움된다고 보세요?

A: 주거급여요? 실제로 안되요. 대부분 도배사업으로 치우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사람들이 쓸데없는 욕심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공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Q: 공짜라고요?

A: 그냥 다 신청하고 가요 무조건 다 신청했어 사람들이...내가 아주 죽겠어요. 순번오지도 않았는데 왜 안해주냐는 거예요 옆에는 해줬는데 난 안해줘 이런 식으로... 도배사업으로 너무 치우쳐서 취지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배사업으로 너무 치우치고,,,

Q: 제가 아까 여쭙볼까하다가 뻔게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긴 또 영구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수급자분들이 많고 서로 대화하다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있죠 누구는 얼마큼 받는데 왜 나는 이정도 밖에 안받아요 우리도 똑같은 네명가구인데 왜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세요?

A: 다 틀리다고 이야기하죠 곁에서 봤을때는 아주머니보다 잘사는거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보면 그렇지 않은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 사람사는 게 틀리지 않나 구 다 틀리고 말 못하는 사정도 있는 거고 설명을 해줘요 이런 터무니 없는 경우가 많아요 1인가구 최고 수급이 30만원받는데 그 집 50만원 받는 다더라 이런 경우는 전국 어느 가도 그런 경우 없어요 얘기해주고 인제 그거가지고 생계비를... 똑같은 상황인데 왜 덜주냐 그러면 인제 예를 들어서 아들딸 여기는 있고 없고 그런 얘기 다 할 수 밖에 없어요 자료 열람해서 일일이 설명해줄 수 밖에 없죠

Q: 지금 인제 급여체계가 통합급여잖습니까 인제 총생계비랑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유형별로 나온다거나 주거급여 요런식으로 급여체계가 세분화되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보십니까?

A: 급여부분이요?

Q: 네. 같은 유형이라도 정도가 따로따로 급여를 하는게

A: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힘들거고 또 민원이 더 많이 생길거고 유형별로 세분화해버리면 모르겠어요

Q: 수급자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 거 같습니까?

A: 수급자입장에서는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확한 진단을 해야되는데 정확한 진단 그 척도를 그게 좀 (한다는게 쉽지 않네요.)

Q: 그럴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급여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족수가 좀... 죽거나 추가되가지고 아님 시설에 계셨는데 퇴소해가지고 급여변경이 있을경우에 그... 증액도 있고 감액도 있고 어떻게 대처하세요? 민원이 들어올텐데

A: 저희는 사전에 상담하죠

Q: 사전에요?

A: 네 사전에 상담하고 해요

Q: 아 그간 통보를 미리 해주시는 선통지를

A: 아니야 우편등으로로 이리이러해가지고 변동이 되어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그런데 담당이 잘 못 됐으면 그렇게 적용해주고 그분이 틀린거면 그건 아니다 이런식을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상담하고 저희가 조정하고 하죠.

Q: 강력하게 항의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급여를 바꿔야되는... 갑자기 연금을 수급하게 되가지고

A: 연금타는 경우니깐 그런 경우는 문제가 안되요

Q: 설명하면 대체로 수공을 하시는...

A: 또 하나 요거 복지부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 정말 복지부 담당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요

Q: 아 사무관분들이요?

A: 사무관들 자주 바뀌고 복지부가 기피부서로 알고있어요 사무관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급자보다 업무상 (성격이나 일하는 성향이) 아닌 경우 정말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긴급해서 그간 복지부에서는 솔직히 전국 각 도 구청 시청에서 전화오면 업무가 마비되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정말 긴급하고 중간 구청 시청 담당자가 없어서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를 해야 되는 경우에 그걸 너무 불쾌해하더라구요 왜 전화하셨어요 이렇게 나오구요 담당자가 너무 많이 바뀌고 오히려 업무를 실무자보다 모르는 경우가 많구요 답변에 일관성이 없어요 답변에 일관성이 없구요 저희같은 경우에 작년 가을에 했나 금융조사결과 내려오잖아요 1억인가 뺐어요 그래서 중지했어요 그 아들이 조폭тол마니였어요 다 끌고 왔어요 서울에서 여기 정말 화분집어던지고 집기 다 내려놓고 했는데 안해주면 죽일거 같은 그런 조폭 тол마니 다 끌고 오구요 거기 기생하는 여자아이들있죠 다 끌고 오구요 욕설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다시 안해주면 (여길 다 부수겠다) 그게 문제야 (수급자였던 아버지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돈이 아버지 돈이 아니고 조폭들이 넣고 빼고 이러는 돈이었어요 그게 다 표가 나더라구요 그럼 어떻게 인정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중지를 했어요 쫓아왔어 아들이 당장안해주면 난리치겠데요 그래서 구청 시청 전화했더니 안된다 그랬더니 구청 시청 보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복지부 연결해달래요 그래서 복지부 전화해서 제가 아니었고 다른 직원이었는데 복지부에서 안된다 그랬어요 인정할 수 없다 일단 다시 조사해줄테니 좀 해달래요 거기서 욕하고 난리쳤더니 담당자 바뀌달라하더니 그쪽에서 번복해주면 하래요 그럼 뭐예요 저희는 뭐냐구요 우리는 모르겠고 지자체서 알아서 결정해라 그래서 그 사람 받고있어요 그러면 금융조사조회는 왜하며 저희는 업무처리를 어떻게 해요 그런 식이에요 저희 답답해요

Q: 부정수급관련된거랑 소득불성실하게 신고한거랑 관련해서 예를 들어 제도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 혹시 생각하신거 있으세요?

A: 부정수급은 예를 들기엔 쉽지 않고 제도개선... 부정수급... 요즘에는 많이 내려오는데 복지부에서부터 자체조사해가지고 쪽 내려주잖아요 부정수급해서.. 다 소진 해버리면 그럼 이런경우가 있어요 몰랐다 해버리면 속엿을지언정 넉넉해

서 수급자격을 받는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당신 다 토해내세요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고 제도개선...글쎄 부정수급이라는 거를 다 적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거를 안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은 문제가 있긴 한데 깊이 생각은 안해봤어요

Q: 아까 누가 급여를 받아가지고 노름하고 도박하고 술마시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는가 아니면 이 사람 보면 재산은 많이 있던데 이웃들이 보고 신고를 하는 그런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까?

A: 아까 노름같은 경우요? 그런 경우는 간혹 들어... 재산은 저희가 파악이 되는 거니깐 말그대로 은닉하지 않은 이상 근데 재산있는데 남의 앞으로 해놓고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진 않은거 같아요

Q: 그런 민원들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A: 어떤 민원이요?

Q: 신고같은거

A: 많아요 많은데 조사해보면 번복이 되는 부분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는 많아요 사실혼 관계나 실제 동거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Q: 거의 마지막인데요 제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의 생각을 여쭙보고 싶은데 어떤거냐면 일에 대해서 여쭙볼려고 합니다. 수급권 그니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 안좋다

A: 안좋다 저는 생활보호법이 가장 좋아요

Q: 옛날에는 생활보호대상이라 해서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는 대상이고 요즘에는 이사람들이 수급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권리는 아

니다?

A: 보면 법제도의 차이잖아요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데 예전에는... 생활보호법과 국기법의 가장 큰 차이가 최저생계 국민기초생계를 보장해준다는 차이이고 예전 생활보호법은 근로능력과 무능력을 명백하게 구분해가지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깐 오히려 복지병이 더 생겨요 그리고 자활요? 실패했어요 아마 알거예요 정부에서도 알거예요 실패는 했지만 감히 저희가 실패했습니다 못내놓는 거예요. 자활사업 그거 어떻게 보면 정말 예산 낭비에요 자활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과감하게 칼을 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높은 분들도 어떤 법을 새로 만들지는 모르지만 정말 법은 손을 대야되요

Q: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국가에서 보호해준다 요런 차원이 과거에 생활보호법과 같고 지금의 국기법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 근본체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급권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권리를 부여했다는 자체에 대한 느낌은 어떠신지

A: 권리라고 볼 순 있어요 권리라고 볼 순 있는데 그게 말그대로 터무니 없는 쪽으로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그대로 복지병 내 권리인데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이 체도를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의 입장은 다르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 권리를 받아야 된다. 내 근로능력과 재산 소득을 최대한 활용한 다음에도 최저생계유지가 안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나의 권리가 때문에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Q: 실제로 그런 권리는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안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권리가 안된다는 건가요?

A: 권리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노력을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 쪽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Q: 그런 근로능력자들의 예를 들어서 복지 수준과 권리를 좀 더 높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제도가?

A: 그렇죠 많이

Q: 업무를 하시면서 가난한 것과 일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그니깐 일을 하기 때문에 가난하다 아니면 일을 통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제도가 혹시 막고 있다

A: 저는 그 말이 좋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웃음) 농담이구요

Q: 일을 해서도 먹기 힘든 사람은 존재하잖아요 업무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A: 근데 이건 있는 거 같아요 요즘 대학교 졸업해도 워낙 성인 실업난이 심각하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는 지금 수급자 젊은 사람들은 대학교를 다 기본으로 다니잖아요 요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분명 많아요 그래서 4년 뒤 취업해서 대부분 수급자 탈락이에요 기존에 결혼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보다는 같이 수급을 받아오던 자녀 세대원이 고등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해서 취업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없잖아요 단독 1인이잖아요 부양 의무 인정을 해서 사라진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수급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수급에서 탈피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근데 40~50대 분들은 일단 배우지 못해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배운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취업하기 힘들거예요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단순 일용직, 작부 투잡을 해도 힘든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은 식당일 하면 백만원 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수급을 받을 지언정 예전에 우리는 이런거 받으면 창피하다했는데 지금은 안그렇잖아요 아까도 권리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그냥 수급을 받을지언정 나 힘든일 안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자활근로 40만원 신고하면 해주는데 그냥 식당에서도 일주일에 3일 일하고 실은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에 되는데 그냥 일하고 맞춰서 부족한거 생계비 받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다고 나이많은 예전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예전 어머님들 남편하고 사별하고 이혼하고 자식 키울려고 식당이라던지 쉬지않고 일해가지고 정말 병 생기신분들 있잖아요 허리병이런거 그런분들 정말 가난에서 탈피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된 경우거든요 요것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Q: 말씀하신거 정리를 하면은 예를 들어 수급자분들하고 만나시면서 느끼기에 이런 분들은 꼭 일을 해야되는 거 같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알콜릭 있는분들 사실은 일을 할만한 능력이 있는데 안하고 있다 아니면 그런 능력 없다고 판정이 나오니깐 제도를 비판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해야된다고 생각하시나요?

A: 그니깐 저희가 근로능력자 조건부 수급자 판정하는 기준에 6개월이상의 진단이 있으면 조건별 유예가 가능해요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만성질환도 가능해요 만성질환도

Q: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A: 그렇죠 그거랑 당뇨 할 수 있잖아 저도 허리아파요 여자들 애나면 다 허리 아파요 그래도 6개월전에 나아요 일하거든요 먹고살아야되니깐 해요 정말 그거가지고 조건을 유예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일단 조건식 유예는 말그대로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입원.. 어떤 몇가지의 경우만을 조금 선별할 필요가 있고 근로 무능력자라고 하면 회귀 난치성 질환 그냥 환자로 두어야되지 않을까,, 웬만한거 다 들어 있더라구요 근데 거기에 만성질환을 넣어서 만성질환도 여러개 질환 보면 일 할 수 있는 목록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감별이 되어되요 그리고 말그대로 보충급여식있잖아요 보충급여는 말그대로 소득이 정확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더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조건식 유예를 느슨하게 해놓은 상황에서는 안되요 보충급여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일할수있는 사람과 일할수 없는 사람을 명백하게 구분해야되단 말이죠

Q: 제도상으로 그게 지금 제도가 잘 안되고 있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A: 그렇게 해놓은게 너무 느슨하다는 거죠

Q: 그거는 신뢰가 되시는 데 할 수 있다 없음을 정확히 분류할 수...

A: 할 수 있다 없다는 진단서라는 거죠 우리 지침상에 3개월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는 조건식유예를 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는걸준다는 거죠 3개월거를 끊어왔으면 3개월동안 6개월거 끊어왔으면은 6개월 동안은 일을 할 수 없는 걸 중단말이죠 그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혈압 당뇨는 평생이예요 고혈압 당뇨 다 일해요 그런 사람 일을 안해도 생계비를 줘야되는 거죠 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Q: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급받으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약간은 비슷한 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거 같은데 나 수급받으러 왔으니깐 수급신청해달라 이렇게 하시는분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A: 저희 취업센터에 구직등록하셨어요?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Q: 생각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A: 아니요 아니요 절대 안하죠 취업알선센터 안내해드려요 여기 파견 나와 있거든요

Q: 아 그래요

A: 워낙 많으니깐 파견나와있어요

Q: 아... 지역 특성 때문에

A: 일단은 18세에서 60세 사이이신 분들은 중증장애인들 빼고는 일단은 구직을 하셔야 되요 일자리를 불구하고 없으시다고 하면 모르는데 일단은 구직같은거 안하시고 요렇게 하면 안 된다는거 안내해드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당장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자활 사업 선정해드리고 그렇게 하죠.

Q: 일단은 그런 일있으면 근로를 해야된다는 생각인데 기초생활보장보호를 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서 달라지신 겁니까? 그전에도 꼭 그렇게 생각...

A: 네 전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Q: 혹시 선생님 보시기에 지금 제도상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하면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친척들 가족들이 기초보장제도를 받아야 될 만한 환경에 있다고 하면은 수급을 말리시겠어요 수급을 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A: 저는 말리겠어요

Q: 말리고 다른 일을 하도록...

A: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Q: 아 그래요

A: 전 말리겠어요

Q: 다른 일을 하도록 도와주거나

A: 차라리 자활사업이 있다 공공근로가 있다 요렇게 해야지 저는 말리겠어요 솔직히 안받으면 좋은데 이런 제도 없이 열심히 살아야지 않겠어요? (웃음)

Q: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쭙보면요 전달체계가 바뀌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 바뀌면서 업무의 애로점이라던가 중복업무가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A: 아직 변한거 없는데요

Q: 변한거 없어요?

A: 네 일만 죽어라 떨어지던데요

Q: 중복이 되거나 그런부분은 없나요 업무에

A: 중복되는 부분이요?

Q: 조사업무가 중복되거나 그런 일은 없죠

A: 예전에도 크게 중복이 되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현물급여있죠 그런부분말고는 크게 중복이 됐던거는 없었던거 같아요

Q: 아직까지 평가하기에는 좀... 여기가 언제부터 생겼죠? 이 지역이?

A: 2월

Q: 올 초요?

A: 네

Q: 2단계구나

A: 아직 잘 모르겠어요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난것도 없고 바뀌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직은 생각만큼 크지 않은거 같아요 업무량만 디게 늘어났다

Q: 구체적으로 내려오는게 많더라는

A: 많죠 너무 많아요 정말 못살겠어요 조만간 사표써야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위예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웃음) 저 정말 일 못하겠어요 그럼 인제 만약에 수급자 관리 관련해서 업무가 뽕뽕 터진단 말이에요

Q: 어딜가나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만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이 나온거 같아서 안여쭙았는데 수급자분들 일하는거 본적 있으시죠 그니깐 사례관리 나가 셔서라던가 우연이라도 이번에 수급잔데 어떤일을 하던지간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A: 아아 그쵸

Q: 근데 수급자분들이 일을 해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텐데 아마 선생님 말씀대

로 따지면은 제가 얘기하는게 맞다면은 수급자분들이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널널하게 일하거나 안할려고 도망다닐려고 그러면은 그런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A: 그렇죠

Q: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문제라고 보세요 수급자 분들에게? 일을 하려는 태도에 있어서?

A: 충분히 일을 더 열심히 하면 탈수급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내가 하는 거는 이해해도 수급자 보호받고 그럼 내가 왜 나의 온 몸을 다 바쳐서 일을 하나 이런 안일한 생각이 짙어있는 거죠

Q: 충분히 선생님이 보시기에 지금 수급자분들의 많은 분들은 특히 이 지역에서는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고 탈수급 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라던가 태도가 문제...

A: 악용을 하고 어찌어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 악용을 하는거죠.

Q: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요. 자활같은거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분들 실제로 일을 하시는 걸 본적이...

A: 네 지금

Q: 그러면 이진 관계없는 질문인데 직원 한 분당 몇 케이스정도 되면 사례관리까지 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을거 같애요?

A: 최소한 1인당 100~120(케이스) 정도면은

Q: 지금의 1/4정도 줄어야 되는

A: 그것도 많구요 정말 하루에 많이 돌아야 5건 업무가 있는 상황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사례관리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가정방

문 상담하는거예요. 그럼 정말 추가로 사람 안뽑아도 가능해요 사례관리 근데 저희 내부행정업무 처리 하면서 가정방문 사례관리는 못해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처럼 이쪽두 사례관리사 되서 사례관리만 전문전담하는 것 그거는 가능하지 저희 내부행정업무처리하면서 하루에 5가구 사례관리 가정방문 이거 불가능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가서 얘기하면 1시간 기본이예요 5가구면 5시간이거든요 저희업무 언제해요 못해요

Q: 우선 귀한시간 고맙습니다 답례품 전달.

A: 아 그럼 미리 말씀하시지 (웃음) 이거 받아도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

- 조사지역 : 농어촌
- 응답자 개인사항

성별	연령	학력	근속기간	자격증 여부
여	20대 후반~30대 초	대졸	해당지역 1년반	사회복지사1급

- 기관환경

읍·면·동사무소의 상담환경 - 조사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사무실 내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뒤쪽에 위치, 방문이 양쪽으로 열림, - 에어컨과 컴퓨터 등이 있으며 쇼파가 있어 편안하게 상담 받을 수 있음 - 비밀보장 등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의 경력이 동해시(3년 근무)에 있어서 업무내용과 대상자 특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 짧은 시간이었지만 명확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짐.

Q: 선생님이 일 년간에 느꼈던 거 그런 거 다 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가 질적연구기 때문에 선생님의 자료를 뭐 어디로 구두로 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녹취를 해갖고 가서 저희가 녹취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다 풀어서 분석 내용으로 담으니까 부담 없게 그냥 편하게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네

A: 예. 선생님 진행을 해주는대로...

저희가 좋은데 4시 반 정도에 미팅이 있어서 행사가 있어서요.

Q: 가능하면 그 정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편하신 자리에 앉으세요.

A: 예. 저는

Q: 예. 저희가 조사의 목적은 말 그대로 평가구요. 제도평간데. 일선에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예전에 비해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가 커지다보니까 뭐 깔대기라 해가지고 위의 모든 업무들이 부처별로 다양하지만 실제로 밑에서는 전담공무원이 혼자 다하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캐치를 해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하기도 편하고 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맥락에서 내용은 주로 제도와도 관련된 내용일거예요. 그래서 근데 수급자. 수급 처음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곤란을 겪어서 오겠쥬 일루. 왔을 때 처음에 와서 어떻게 하는지 신청과정이 어떤지 그리고 뭐 그렇게해서 소득조사도 하고 재산조사도 하고 부양의무자도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침은 있지만 그 지침과는 사실 상당히 다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어찌면 더 효율적일수도 있고 뭐 급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 사후조사 같은 거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 수급자 접하면서 아마 학교에서 사회복지하셨어요?

A: 아 예.

Q: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빈곤한 사람들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아마 틀림없이 일하시면서는 저 사람들은 진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수급자들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만약에 전달체계가 다시 개편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의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겠습니까. 3년 되셨다고요?

A: 아 예.

Q: 그러면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디서 일하셨어요?

A: 어 제가 고향은 여긴데요. 그 사회복지직은 그 도 단위로 뽑다보니까 제가 그때 2004년도 시험 볼 당시에는 고향으로 대상이 없었잖아요. TO가 첫 발령은 동해시에서 받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2년 근무하다가 연고지 쪽으로 온지 일 년 됐어요. 황성 군은...

Q: 동해랑 여기랑 비교해주시면 어디가 더 일하기가 수월하십니까?

A: 어. 글썄 어촌지역하고 농촌지역 이 2군대를 경험해 본 건데. 어 동사무소와 또 면사무소의 차이도 있어요. 동해에는 시장님이 계시는 동사무소였고 여기는 면사무소고 그러니 많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일단은 수급자대비 수로는 동해시가 시다보니까 관리했던 대상이 훨씬 많았고 그 연령대도 다양했지만 이쪽으로 오며는 아동이나 젊은 층은 없고 노인 분들이 많으시고 수급자 비율이 양도 적고 예. 그렇지만 그쪽은 동사무소 다니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 업무 외에 기타로 저희 하는 업무는 저희 사회복지 업무만 하면 되는데 면사무소 오다보니까 이게 또 마을 담당이라는 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을 담당이라는 고 일도 만만치 않아요. 수해 조사나면 그 일에 매달려야하고 그도 면사무소는 면단위다보니까 군청의 업무들이 조금씩 내려와요. 행사들이 자잘하게 많아요. 그래서 계획서를 따라하는 거는 그대로 하고 사회복지 업무는 제 업무대

로 하고 저는 솔직히 농촌지역으로 오면 일이 편해질 줄 알았어요. 수급자가 적으니까. 그 생각만 하고 왔는데. 그 외 기타업무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Q: 그쵸. 전담공무원이면 그 업무만 해야 되는데 가깝게 있는 옆에 동료가 하는 일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먼단위면 함께 해야죠.

A: 함께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Q: 선생님 일과 관련해서 일이 너무 많으면 주위 동료 분들이 도움을 주기도 합니까?

A: 제 업무 관련해서는 이제 뭐 도움 구할 경우에는 명절되고 연말되면 후원물품 나눌 때 그 때 직업 분들하고 도움을 받고요. 업무에서는 거의.

Q: 그러면 선생님 업무가 100정도라고 한다면 동해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업무에 어느 정도 했고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하신 거 같으세요?

A: 음... 동해시 있을 때는 기초생활 업무가 80정도 됐던거 같고 여기 오니깐 10~60.

Q: 기초생활 업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까만 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뭐 그런 부분의 업무

A: 이쪽 오고나서는 더 준거 같다는 느낌이죠.

Q: 예를 들면 혹시 다른 특성 중에 하나 들어서 궁금해서... 그 제가 시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도 많고 기초보장 업무를 맡지만 대상자에 대해서 더 사례관리가 더 많이 되는 기회가 조금 접근성이라던지 많이 봐줄 수 있는 기회라던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적고 여기는 다루는 케이스 수는 적지만 시간대비로 심도 있게 그 대상자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지는 않나요? 이런 차이를 느낄 수 있나요? 없나요?

A: 음. 글썄요. 동에 있을 때는 수급자가 케이스는 여섯 케이스예요. 케이스는 다양한 케이스에 뭐 이런 탁 해야하는 다 여러 케이스 만나보는데 여긴 케이스는 다 변동이 없지만 그쪽에는 워낙 또 드나드는 사람도 많고 전출입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하셨듯이 심도 있게 정말 얼굴 한 번 못 보는 수급자도 많고 글다 그리고 생계비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거기 가서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지금 주민등록상에는 없지만 또 여기는 농촌 지역이다보니까 그렇게 제가 굳이 안 나가도 주위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제가 하나의 조사방법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노인 분들이다 보니 그 찾아가서 보고 그런 기회가 솔직히 많아요. 내용관련해서 그런 게 많다보니까.

Q: 그 저희가 대도시적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다른 업무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알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협조적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 같은 경우에 같이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뭐 사회복지 업무 뭐 사회계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 쪽 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일하시기 힘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가령 동일시하게 여기는 측면 어떻습니까?

A: 음. 글썄요. 사회복지라고 하려는 직원들이 뭐 그렇게 그닥 여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솔직히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시단위보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농산물이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산업계라고 하는데 이쪽 일이 중요시되고 그렇다보니 사회복지는 그냥 뭐 말만 잘하면 해주는 편한 업무라는 생각이 인식이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업무불 때도 그렇고 업무도 많은데 그러니깐 사회복지하면은 지리한 업무를 여러 개하는 사회복지계는 업무에 비중도가 없고 지지한 업무를 여러 개를 하는 부서라는 인식이 강해서 저희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있어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업무에 발령나면 아 쉬다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Q: 그 분하고 기초생활 업무를 같이 하세요? 그 분은 뭐 하세요?

A: 장애인이나 그나마 일회성을 좀 띤 장애인을 위한 카드 발급이라던가 대상자 관리가 깊이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업무라던가 영유아 보육 업무 이런 것 쪽으로 배정되었구요. 수급자 관리는 제가 못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짊어지고 있죠.

Q: 그러면 그럴 경우에 선생님 업무에 대해서 이 일은 편한 일이잖아 이런 식으로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A: 어떻게 대응을 하는냐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바빠는 보이죠. 뭐 바빠 보이는 데 이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좀 더 정성을 가지고 일하려고 여타 다른 업무와는 다르다. 마음 속으로는 엄청 좋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Q: 그걸 인정해주나요?

A: 인정해주는 분들도 있고 이쪽 계에 일하셨던 분들은 사회복지업무 나도 젊었을 때는 다 봤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Q: 그 편차가 젊은 공무원, 나이 많은 공무원 이렇게 편차가 큼니까?

A: 그럼요. 옛날에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없었잖아요. 사회복지 업무 이런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행정.. 옛날에 일하셨던 행정 직원들은 업무를 많이 영세민계 그런 식을 보셨고 그런 인식이 있어서 나도 옛날에도 다 했다고 배급을 줄 때 다 했었다고

Q: 그럼 요즘 들어오신 분들은 다르시나요?

A: 요즘 들어온 분들은 그래도 보시는 시각이 뭐 전공했고 뭐 좀 더 나름대로 사회복지 관련해서 자격증 딸려고 하는 직원들을 보니까 그리고 같이 행정직이 여기 와서 일을 하다보면 되게 어렵구나. 대상자 책정하고 조사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어떻게 이 많은 것을 다 하나. 이렇게 막상 일하다보면 시각이 점점 점점 같게 되는...

Q: 그러니까 행정직이 사회복지로 같이 와서 일하게 하는 게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겠네요?

A: 그렇죠. 인식변환도 있고

Q: 여기서 지금 담당하시는 수급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A: 가구는 132가구 되구요. 명수로는 230명 정도

Q: 그래도 가구 수가 꽤 평균으로는 되네요?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 관리는 선생님이 하시고 그 외 장애인이나 보육 이런 거는 그 쪽에서 보시는 거죠. 결국 전체 복지 업무는 2분이서 하시는 거고 업무 분담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거의 선생님이 하시고 나머진 그 분

A: 그리고 계장님이 계세요. 계장님이 계셔서 새해 계획을

Q: 복지계획

A: 주민지원생활계획이라해서 계장님이 환경 업무랑 그 노인 복지에서 각종 수당이나 특별기금예산, 노인복지관련 행사 같은 거를 하시고요. 노인 복지 면단위 다보니 행사랑 경로당 관리 이런 거는 면장님, 계장님이 보시고..

Q: 일부는 행정구역 개편되서 조사업무를 시군구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은 횡성군은 그렇지 않습니까?

A: 아니요. 조사업무는 군으로 갔어요. 신규조사는 군에 가고 행정조사는 이제 여기에서 하고, 별로 업무 개편에 효율성이 없는 거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신청일자가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14일내에 처리하면 되는데 군에서도 요청하는 게 신청일자를 바꾸지 말아달라. 왜냐면은 체송가능 시간, 다시 조사하는 시간

Q: 14일이라는 게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원래 법규의 의미는 수급자가 신청하

러 온 다음부터의 14일 일텐데. 그게 맞추기 어려우니까 날짜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이 하시더라구요. 공란으로 놔서 통보한 다음에 그 역으로 신청일자를 적기도 하고

A: 예. 이쪽에서는 개제하려고 그래도 그쪽에서 개제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기도 하죠. 당연히

Q: 그러면 가령 여기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긴급급여라는 게 있잖습니까? 지금 상황이 아주 어려워서 그 결국 14일을 하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일 경우에 빨리 도움을 주기 시작하자. 이런 건데 그런 게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에

A: 14일 이라는 기간을 끌 수가 없어서 고것은 긴급지원제도를 나왔기 때문에

Q: 그런 경험, 케이스 있으세요?

A: 일단 지원 먼저 들어가죠. 제가 있었을 때 다뤄본 적은 없고 긴급한 상황이라던가 화재발생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일단은 군에서 바로 선지원을 하고 후관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먼저 지원하려고 나오기도 하요. 면 단위에서는 또 다른 후원단체 이런 곳 쪽으로 지원하기도 하고요.

Q: 어떤 경우에는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긴급지원을 활용하기보다는 민간자원을 연계시키는 게 일하기 더 편하다.

A: 근데 농촌지역에서는 다들 그래요.

Q: 왜 그렇죠?

A: 군에서는 사실도 모르고 너무 서류절차라던가 이런 게 많고요. 오셔가지고 타는 거는 경제적 지원밖에 안되지만 민간자원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봉사자들이 농촌지역이지만 그래도 여기는 잘 되어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가가지고 반찬이라던가 밥 이런거 봉사도 해주고, 고런 자원을 활용하는게 오히려 더 빠르고 지역주민이 와서 도와준다는 느낌

Q: 동해시보다 여기가 민간자원이 많은 거 같습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에 사실 농촌지역은 민간자원이 열악한 편인데?

A: 유대관계는 여기가 더 나은 거 같고요. 민간자원과 공무원 간에

Q: 어떤 민간자원들이 있습니까?

A: 각종 사회단체, 그리고 자원봉사 단체 그리고 이장협의회, 부녀회, 새마을, 청년회, 이런 것들 물질적인 지원과 관심도 시골지역이다보니 많고요. 동해시는 시 단위다 보니까 도와주면서도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도와주고 끝나는데 여기서는

Q: 그렇게 민간자원이 잘 되고 좋은 민간자원이 있다는 데에 대해 그렇게 된 이유가 뭐 기존에 상당히 탄탄하게 까지 되어있는 공공과 민간의 관계가 참 분위기들이 중요하고 면장님들의 역대적으로 중요할건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나요? 민간자원이 예를 들어 열악한 곳도 있거나 안 좋은 것들과 비교해볼 때 무엇 때문에 잘 되어있는 거 같고 뭐 부녀회라든지..

A: 공개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좀 해줘야하는 것도 있죠.

Q: 선생님 여기서 일하시면서 신규 수급자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A: 그럼요.

Q: 신규 수급자 분들이 대략 본인이 스스로 찾아오십니까? 아니면 이장님이라 이런 분들이

A: 본인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동해시는 거의 본인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근데 여기는 이장님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Q: 케이스가 10가지면은 본인이 직접 찾아오시는 경우하고 그런 경우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A: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는게 6, 본인이 오는 경우가 4 정도

Q: 군의원 통해서 오는 경우는?

A: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저는 받아 본 적은 없거든요. 얘기. 동료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Q: 어떤분은 그것 때문에 힘들라고 그러던데

A: 기준은 안되는데 위에서 강요하는 경우

Q: 그러신 경험은?

A: 저는 그런 거 없어요.

Q: 다행이네요.

A: 네.

Q: 이장님이나 해서 줬을 경우에는 그 정말 본인이 더 적극성이 있기 때문에 주고 정보를 잘 활용하고 계신거죠?

A: 그게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거에 힘을 실어서 오기도 하고

Q: 그러면 이렇게 오셔가지고 딱 처음에 오면 상담을 어디서 하세요? 여기서 하세요?

A: 이게 상담실이 생긴 게 한 달 됐어요.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럼 좀 곁끄러운 게 있어요. 옆에 행정직 직원들이 계장님도 있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나 힘들다. 여성 분 모자가정 경우에 그런 가정이라던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야기를 해야 할 때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저도 참 어떻게 거기다대고 더 물어보고 싶지만 다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는 대부분 서류로 받고요. 대상자 집에 방문을 해야되잖아요. 사실 조사를 하고 때는. 자세하게 이걸 될 거 같다. 소득이나 요런 걸 먼저 물어보고 될 거 같으면 제가 방문드리겠다고

Q: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데. 대부분 방문조사 많이 안 하거든요.

A: 아니. 저는 해야되요.

Q: 왜요?

A: 이게 사실조사 같은 경우가 들어가야지. 만약에 소득이라든지..

Q: 물론 그렇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서류를 다 떼오라고 하잖아요. 떼오라고 해서 구태어 나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나가시는 이유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 겁니까?

A: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가보면 대상자가 안되는 분도 간당간당하게 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준 될까말까

Q: 나가본들 서류상으로 더 이상 파악되는 보이는 것들이... 생활이 달라지나요?

A: 보이는 것들이 책정이 관련해서 되고 안 되고는 서류상으로 다 되는데 그니까 가보는 거는 그 다음에 가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관리가 쉬워져요. 그니까 집 수리중이라던가 아니면 이 집에 후원물품이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주거위치를 파악해놓으면 나중에 관리가 편하니까 한번쯤은 꼭 나가보게 되죠. 책정만 한다면 서류만으로 충분하죠.

Q: 그러면 처음에 오면 여기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와서 저 어렵습니다. 이야기하면 선생님께서 이제 뭐 서류 보통은 신청서 서류를 작성을 하고 내놓죠. 그것부터 시작하십니까?

A: 아니요. 일단은 뭐가 필요한지를 물어봐야죠. 무조건 힘들다고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쪽으로 돌리기보다도 이제 정말 의료부분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돈이 필요하신 것인가 고런 거랑 이제 일단을 물어보고 나서 신청서를 그때 그...

Q: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나요? 신청서 작성을 하면 그때부터 조사 시작해야되지않아요.

A: 어떻게 되고 어떤어떤 서류를 마저 가져오셔야 되고 제가 실제조사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통보가 될거고 만약에 되면은 어느 정도 생계비는 나오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통보해드리겠습니다.

Q: 뭐가 어렵다고 와서 좀 이야기하나요? 그니까 지금 뭐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본인의 특성 중에 어떤 거를 얘기를 꺼내게 되나요?

A: 생계가 힘들다는 경우가 많고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생계가 어렵기 보다는 뭐 수당이런거에 생각이 많으세요. 요즘 복지제도 많이 좋아졌다는데 이런거 하나 못받겠어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의료 쪽으로도 많으시고

Q: 어떻게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A: 방송도 많이 작용해요. 새로 시책 개편하고 나면은 열흘도 안됐는데 전화오시고 이런 것도 있고 주변에서 누군 받는데 나는 왜 안 됐냐.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고

Q: 여기 전체 수급자 중에서 노인 가구가 제일 많죠?

A: 그렇요

Q: 우리가 이 지역에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를 조사할텐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A: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젊은세대가 10에서 한 3이나 4정도. 노인 분들이 태반이세요.

Q: 그 수급하시면서 상담하실 때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본데 저 사람은 아닌데 진짜 아닌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보도 발전하고 이래가지고 요즘은 그

런 분들도 있거든요. 전담공무원이 보기에 저 사람은 수급자격이 없는데 서류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A: 어. 정말 애매한게요. 진짜 이걸 보면서 대개 정말 이게 어떻게 해줬으면 제도로 어떻게든 해줬으면 그런 게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잡기가 참 힘들어요. 그니까 여기도 저희가 일하면서 하는 케이스가 4인 가족이 있는데 아저씨가 세대주가 장애 5급이에요. 근로무능력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광고업을 하나해요. 시내에서. 그게 소득이 많지 않다고 해요. 서류를 때보아도 본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것이니까 굉장히 적게 나오죠. 그걸 12로 나눠봤자예요 그러면 저희가 소득신고서를 제출해라 하면 뭐 소득 이것 밖에 없다. 일거리 들어오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하시면서 60만원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가끔 면사무소에서 광고를 받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월별 지출 실태 조사표를 작성해라 라고 하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떼어보면은 전답은 없지만 실제로 지금 아파트에 살아요. 보증금 어떻게 마련했냐 그랬더니 부양의무가 없는 다른 형제들이 모아서 보증금을 마련해줘서 썼을 뿐이다.

Q: 실제로 부양의무자 관련해서도 그렇게 상당히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나요?

A: 부모는 부양의무자가 있죠. 기본적으로니깐 형제지간에는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으니깐. 근데 그렇게 마련해주면 그거에 대한 그것도 없구

Q: 실제로 이 아파트에 사는 데 보증금을 누가 마련해 준거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A: 60만원신고하고 4인 가족이면 수급자격이 있는거죠.

Q: 그러면 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신고한 그대로 쓰십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추정소득을 부과하십니까?

A: 처가 있으세요. 제가 볼 때 충분히 근로를 하실 수 있으신데, 주위분들 얘기 들어보면 식당에서 일하고 있더라.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아주머니는 가끔 잘 아

는 데라서 일 봐주는 가는 거다. 도와주는 거다. 그거에 대해서도 소득을 참 잡기도 어렵고

Q: 일하는 사업장에 확인을 하면...

A: 확인을 하면 어느 정도 9일 이상의 추정소득을 잡을 수는 있긴 한데 그 이상은.

Q: 그러면 그 사람 같은 경우 자기가 신고한 소득하고 이제 예상은 생계비 30만원인데 선생님 나름대로 추정소득을 잡으면 줄어들잖아요. 그 부분은 어셉트를 해요? 아니면 그 와중에서도 타협 제의를 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다 이 정도도 안 하면 난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하시나요?

A: 그게 추정소득을 잡아버리면 우리가 분명 보충급여라고 당신네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근데 난 60만원 신고했는데 왜 요거밖에 안 나오냐. 그러면 저는 추정소득을 잡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죠. 그럼 그 분은 추정소득을 잡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일을 안한다고 주장하니까 설명하기가 참 그러더라구요.

Q: 그래도 노련하게 잘 하셨나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추정소득을 부과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하세요?

A: 추정소득 부과를 해야되죠. 이러다보면 이런 분들이 나태한 수급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감정이 안 좋죠.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추정소득을 부과를 안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 그러면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쪽에 증명하셔야 한다. 근로능력 증명을 어떻게 하나, 진단서를 가져와라. 이러이런 사유로 근로를 못한다라는 서류를 떼가지고 와라. 그런데 진단서를 떼오는게 동네 의원에서 디스크 진단이지요. 농촌에 오래일하신분들 다 있으시잖아요 고런 것들

Q: 다 그래서 빠져나갑니까?

A: 추정소득을 부과를 해놓기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자활대상자를 많이 찾으라고

발굴하라고 하지요. 장애도 5, 6급이면 충분히 근로를 할 수도 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세대는 수급권을 부여를 했다가 추정소득 부과로 인해서 중지도 되고 그렇게 되기도 하고 마찰이 심하고 싸우게도 되죠 정말

Q: 추정소득을 부과하실 때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쓰세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이렇다. 그런 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추정소득에 대한 그 도나 그 지역에 뭔가가 있으면 리스트가 있으면 좋겠다.

A: 맞아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추정소득 매기는 것도 읍면동 담당자들 얘기 들어보면 다 달라요.

Q: 선생님은 어떤 기준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A: 저는 뭐 근로능력이 있지만 월별로 실태조사서 뭐 소득이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건부 수급자로 책정을 했는데 일을 안 할 경우에는 13일.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기기는 하죠.

Q: 지침이 있으면 지침대로 하기는 해야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소득파악하기 어렵고 실제로 소득파악이 되는 경우 전산 상에 뜨는 거랑 선생님 보시기에 많이 다르거나 수급자들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A: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일단은 회사에 다니는데 실제 이렇게 보이지만 뭐 이만큼 나아간다. 그 또 공제해주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고등학생 학비, 의료비 정산에서는 의료비는 공제를 할 수 없는 거고 의료비 이런 것들

Q: 그리고 부양의무자를 기피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텐데요?

A: 저는 수급자를 재조사를 하거든요. 옛날에 한 번씩 재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 때 당시 신청하러 왔을 때는 자식들도 다 가난했어요. 몇 년씩 받다보니까 자식들이 형편이 피고 재조사를 할 경우에 형편이 피었어요. 월급쟁이들은 얼마 정도 버는지를 알수 있는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자영업

사업 신고는 되어 있는데 터무니없이 낮고 그러면 본인이 신고할 수 밖에 없잖아요 부양의무자 조사표를 등기우편을 발송하는데 수신 오는 경우는 30% 20% 밖에 안되고 그러면 다시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나를 확인하는데..

Q: 지금 달라진 업무체계에선 신규 수급자를 보면 부양의무자 조사가 제일 길더라구요. 그것도 군내에서 합니까?

A: 군에서 조사표를 발급하죠.

Q: 군에서 다 해가지고 통보를 하나요? 부양의무자가 있다없다. 있어서 안 된다.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갈등이나 트러블은 이전에 비해 줄어드신 편인가요?

A: 줄어들었다고 하기가 어려운 게 재조사는 어짜피 부양의무자소득 또 들어오거든요.

Q: 재조사 1년에 한번씩 하는 거요 그거는 여기서 합니까?

A: 재조사는 다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Q: 근데 어느 정도는 수급 기준이 완벽하지 않을 텐데 사람이 하는 거라서 선생님이 보시기에 수급 선정을 못 해 근데 감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어려워서 수급 가구가 되어야 해. 그런 경우도?

A: 그런 경우죠. 할머니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데 가보면은 정말 눈물나죠. 눈물나는데 친자식들은 공사, 청 다니고 있고 그리고 실제 부양은 안 해주지만 그게 또 완전한 가족관계단절로 부양능력없음으로 판단하기에는 가끔씩 가족 간의 혈연관계 내연관계가 있는 거 같고

Q: 그럼 어떻게 하세요?

A: 저도 공무원인지라 그런 분들은 무작정 생활이 딱하다고 해서 특별히 어렸을

때 내놓고 재가해서 나갔을 경우에 주변의 증언이나 이장님의 얘기라던가 자식들 면접전화를 했을 때 나 부모도 아니다. 세 살에 나가서 날 버리고 부모도 모르고 살았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가족관계 단절로 요즘에는 가능하지만 고런 경우에는 참 애매해요. 실제로 할머니는 너무 어려우셔가지고 맨날 면사무소 찾아오시는데 진짜 자식들은 부모 따뜻하게 모시는 거 없는 거 같고

Q: 공무원으로서 그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게 좀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A: 고런게 가족관계 단절 같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재조사라던 이런부분을 피해갈 수 없으니까 계속 가족관계 단절인지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가족관계단절로 처리해서 그 할머니를 해줬을 경우에 가끔 자식들이 와가지고 좋은 차 끌고 와서 왔다갔다 하는데 라고 주위에서 말들이 나와요. 그런 사람도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Q: 부양의무자 기준이 참 소득에서는 추정소득 부과하는게 어렵고 재산은 어떻습니까?

A: 재산은 힘든 거는 없고 소득 잡기가 어렵죠

Q: 예전에 수급잔데 자식이 통장에 돈 들어오는 날짜에만 딱 와가지고 크레디 카드로 현금을 딱 꺼내가지고 그냥 간데. 자식이 백 만원을 인출해 가고 할머니는 못 받는 거예요. 생계 @@불명확 한데 자식이기 때문에 @@불명확

Q: 정말로 내가 의도 했던 아니든 결과적으로 부정 수급이 발급이 됐는데 그 책임이 사실은 지금 정말로 제도상에서 잘못되가지고 잘못된건데 그게 지침 상에 있었거나 내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져서 잘못된 부분인데 그게 부정수급이라 해서 전담 공무원이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덮어두려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특히 이런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A: 실제로 장애인 부부라던가

<잠깐 중지>

Q: 그럼 아까와 같은 경우에 그런 할머니 같은 경우에 별다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A: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뭐 안된다고 돌려보내기 보다는 기타 민간단체 후원을 일회성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봉사단 의뢰를 한다던지 법적 테두리에서 빼고 도와드릴 수 있게 정말 힘들잖아요. 아니면 공동모금회 한 번 정도는 생계 지원을 신청을 한다던가.

Q: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선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의 재량권이 확대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럼 또 문제는 항상 여기 계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바뀌면 아마 또. 그런 불만은 없습니까? 전에 사람은 이런데 너는 안 하나?

A: 예. 맞아요. 전에 전 담당자가 너무 후하고 가면 뒷 담당자가 왔을 때 욕을 얻어 먹죠. 그니까 어느 정도 재량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Q: 추정소득 부과하는 부분 재량이 있는 거고

A: 그런 거를 전에 지침에 따라 어릴수록 그렇게 하잖아요. 신규일수록 믿을 만한 게 지침밖에 없으니깐 그렇게 하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왜 이렇게 줄었나 재조사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왜 이렇게 딱딱하게 하나.

Q: 선생님은 지침 의존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 아직 어리다보니까 처음엔 지침에 많이 의존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도 나갈 구멍을 만들어놔야하기 때문에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이

Q: 급여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활비로 주는 아까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현금 지원을 통해 먹고 사는 것을 꾸려나가는 건데 @@불명확 대상으로 안 되기도 하지만 한 편 그 부분보다는 다른 서비스로 기타적으로

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받는 게 그 분의 입장에서 더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있고 이 부분은 이거 아니고 이 부분은 딱 현금으로 이 사람이 재량껏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주어지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대상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A: 그렇죠.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찾아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외롭거나 아니면 집은 있지만 집을 정작 쓰지 못해서 그런 주거에 대한 현물지원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외롭기 때문에 찾아가면은 자살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치만 수급자 되는 줄 알고 조사했더니 안 되더라.

Q: 우리나라는 급여가 다 현금으로 묶여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아까 집을 좀 장만 괜찮게 다른거 줄여서라도 주거 관련해서는 그것만 해결이 되도 내지는 다른거는 다 괜찮은데 의료부분만 별도로 내지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게 급여를 개별적으로 욕구에 맞춰서 해서 줬으면 좋겠다. 생계는 생계지원만 필요한 사람한테 가고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체감을 하시는지, 그게 필요하겠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보니까 그냥 통합적으로 묶어서 주어서 쓰는게 더 효과적인 거 같다?

A: 영세민 정도의 수급자 정도의 기준이 되는 경우 묶어서 한꺼번에 가는 게 좋은 거 같고 수급자는 안 되지만 일반 어르신 중에 복지욕구가 필요한 분은 개별적으로 가는 것도

Q: 아까 오신 어려운 분들 중에서 선생님이 생활이 어려운 건지 의료가 필요한 건지 다 판단하신다고 했잖아요. 의료 쪽만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A: 차상위 의료급여 쪽에 많이 가고 이제 뭐 어르신 차상위 의료급여도 1종, 2종이 있잖아요. 대부분 어르신이 청각 장애잖아요. 장애 등록을 하면 2종이라도 1종과 같은 효과를 발휘를 하니까 할머니 뭐 어디 편찮으신데 어디 뭐 장애를 해 가지고 그러죠.

Q: 예컨대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기초생활보장 제도야 법에 사람 수 상관없이 모자르면 가는데 선생님 같은 지역에서 유달리 수급자 수가 팍팍 늘어나거나 의료급여 대상자가 늘어나 근데 그게 사실 부담이 되지 않아요. 부담이 될 거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업무에? 의료급여를 그런 식으로 해주고 가령 선생님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TO가 있습니까? 가령 의료급여에서도 1종이 5명 나름대로 무조건 1종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A: 어느 정도 생각하는 선에서 해요. 근데 갑자기 뭐 제가 와가지고 능력도 안 되는데 수급자는 계속 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조절하게 되죠.

Q: 그 조절이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 전담 공무원의 능력이네요? 전담공무원의 능력이 되면 많이 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궁금한 것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생각하는게 내가 이렇게 늘려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문제로 고민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선에서 혹은 구나 이런 데서 예산과 관련된 어떤 압력 2개 중에 어느 쪽이 더 크세요?

A: 일선이 크죠. 일단은 요번에도 서비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지역사회혁신서비스 해서 노인도우미 사업같은거. 관리하는 업무도 많아 죽겠는데 대상자 발굴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 때 압력에 못 이겨 독촉에 못이겨

Q: 그런데 그 때 없어서 없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A: 없어서 없는 경우는 없을 거라는 군의 담당자의 말이죠. 노인이 이렇게 많은데

Q: 선생님 생각에도 그러세요? 그럼 결국 전담 공무원이 열심히 안 뛰어서 그렇다?

A: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도 사회복지직 열댓명 있고 그러면 찾아다니는 서비스 가능하겠죠. 정말 노인 분들 같은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자부담이 3만 5천원이기 때문에 신청을 꺼려하거나 그러면 군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양의무자에게 연락해라. 자식들은 3만 5천원 가지고 사람을 쓰는 건데 오히려 그게 효과가 좋다. 그럼 그 분 호적을 떼어가지고 자식들에게 연락해요. 혼자서 그걸

다 해야된다고요.

Q: 그 업무도 선생님이 하시나요?

A: 그것도 다 하죠.

Q: 근로능력자 오실 때 근로능력 유무는 주로 뭐 가지고 판단하세요? 표 활용하세요?

A: 근로능력 유무는 자활지침 많이 보고요. 장애우와 진단유무

Q: 거기 보면 연령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요 표에 따라서

A: 연령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렇게 보구요 그게 다 근로능력 표에 있는 기준표라는데 다 객관적으로 특성들을 인구학적 특성을 딱딱딱 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말로 사실은 생각하는게 이 사람이 근로능력이 신체적으로 있는 거 같은데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드러나지 않는 전체적인 질환 이런 부분 때문에 객관적이지는 않죠. 근로능력으로 판정이 되는 분은 여기서 후견기관을 보내는데 그쪽에서는 왜 이런 사람 보냈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Q: 그니깐 지금 드린 말씀은 업무를 하셨으니까. 판정 기준 외에도 선생님이 보기에 가장 중시한 근로능력 판정을 할 때 선생님 나름대로 가지는 노하우,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것이죠?

A: 일단은 대상자들을 딱 고르죠. 지침에 의해서 이 분들 조건을 보좌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뭐 관리하다보면 그 사람 특성을 알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멀쩡하세요 막상 일을 시킬려고 들어가보면 뭔가 그게 없는거예요 약간 혼돈이 있어서 그런지 정신적으로 문제가있지요. 일을 드리면 똑바르게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제시간에 못일어나고 시간약속도 못지키고 이런 경우는 저도 그런 경우는 잡을 의뢰해도 욱 얻어먹고 거꾸로 돌아오구요 못 하겠다고 왜 이런 사람 보냈냐. 오면은 껴안고 가야된단말이에요. 근로유지형으로 제초 쓰레기 줍기 그런 거를 시켜봐도 정말 안 되시는 분들 있을 경우에는 저도 참 힘들죠. 일단

은 시키기는 하되 성과는 기대 안하고 그냥 하게되는

Q: 근로무능력 판정을 내리는 게 제일 좋은데...

A: 무능력 판정을 내릴 근거가 없으니까

Q: 연령기준, 장애기준 거기보면은 전담공무원의 재량 점수도 있잖아요. 그 점수를 활용하면 안 됩니까?

A: 재량 점수를 주면 점점 점수가 높아져서 자활후견기관에 의뢰를 해야하는 경우 아니면 고용지원센터에 의뢰하는 경우 그간 정말 어디다가 보냈다가 욕 먹고 돌아오면은 여기서 쉬운 일이라도 시키고 자활근로를... 아니면 그것마저 조건 부 일 못 하겠다고 안 해주면은

Q: 선생님 판단하시기에 근로능력자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고용안정센터나 자활후견기관에 의뢰가 되어야하는데 많지 않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뭐 가야되는데 교육이라던거 이런 거 해서 가야되는데 적재적소 써가지고 바로 소득을 자기네들도 보여야되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대개 수급자 기준에서 초과가 되가지고 중지가 되어되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원하는 수급자야 젊었을 때 미장일같은 걸 해가지고 일을 잘하셔서 그러면 거꾸로 수급 중지안된다.

Q: 그 쪽은 그 쪽 나름대로에 그리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는 나름대로 보냈는데 뭐 이런 사람 보냈냐. 욕 먹기는 사실은...

A: 그렇죠. 그러면 아예 안될거 같으면 보내지도 않아요.

Q: 만약 그 쪽에서 그런 식으로 되돌아 보내는 케이스가 많아지면 그것은 선생님의 업무 능력에도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까? 누가 평가

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잘한다.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승진할 수도 있고

A: 그렇죠

Q: 그런데 영향을 미칩니까?

A: 그 영향도 있지만 여기서 케어를 해야되는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솔직히 자활근로 생기고 나서 일이 너무 많아요. 대상자 관리해야되지 책정해야 되지 월별 급여도 만들어야되지.

Q: 선생님이 계속 파 잡고 알고 있는 보냈을 때 퇴짜맞고 오는 경우랑 두 경우에 어느 쪽이 일이 더 많아집니까?

A: 제가 안고가는 경우가 많아지죠.

Q: 그래도 그 업무분담이 더 많아지는 게 갔다가 돌아온 거 보다 낫다.

A: 그쵸

Q: 왜요?

A: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솔직히 그런 사람 뭣하러 보냈나 그렇게 되고 저도 보면 어차피 적응못할거 같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상자 보면 알잖아요. 저도 보내고 딱 신경 안 쓰고 그쪽에 일 잘하고 계시고 이러면 저흰 편하죠.

Q: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자영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소득이 얼마라고 얘기를 60만원 50만원 사실은 가끔 가다 자활근로를 하면 60만원 보다 소득이 더 많을 수 있다. 당신 이거 하지 말고 자활 가서 일 해라. 이렇게 건의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A: 그렇게 일을 할려고 하지 않죠. 사람들이

Q: 그렇죠. 그렇겠죠. 결국 그 얘기는 자활에서 받는 거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거겠죠. 결국 그런 걸로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A: 그니까 자활근로에 최저로 저희가 근로를 유지함에 쓰는 경우에 한 달에 몇 일 일하면 얼마정도 소요되는데 고거 정도의 추정소득은 그 일을 안 하시겠다고 하면 고거를 잡게 됩니다 라고 첨부터 그렇게 알려주죠.

Q: 진짜 거꾸로 일을 할 수 있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든지간에 일 안 할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도 꽤 있죠? 아까 뭐냐면은

A: 저는 그래서 되도록 저도 일을 하면서 그러는 게 젊은 수급자를 만들며는 참 힘들구나. 왜냐면은 차라리 노인 분들이면 기초되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보호를 해 드리면 고거는 종료가 되는데 30대부터 수급자가 되면 그 사람은 평생 서류내고 중지시키고 다시 책정하고 자활 의뢰하고... 참 힘들죠.

Q: 현재 급여 수준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A: 적죠.

Q: 적다?

A: 예

Q: 그 적은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에? 주거? 농촌이니까 주거비용은 별로.

Q: 집수리로 주로 활용하시는데 집수리도 사실은 그게 그 정도의 현물로 받을 경우에는 기껏 고쳐야 사실 화장실 하나 고칠까 말까 도배 값 이런거 정도고 탄탄하게 다시 @@불명확 다른 서비스를 같이 주셔야 될 거예요.

Q: 뭐가 제일 그 뭇 때문에 가장 모자르다고 판단하시는 근거가 뭐니까?

A: 일단 농사를 안 짓는 경우에 할머니가 그거로 유지해 살기는 만약 부양비가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 10프로 받는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톡 없이 모자르고요. 10프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매번 20일 날 되면 그나마 기다려서 그 또 하실 거는 다 하세요.

Q: 30만 원 정도인데.

Q: 그럼 그 얘기는 어쨌든 가령 아르바이트나 필 통해서 부가적으로 소득이 있으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은 그냥 눈감아주시는 겁니까?

A: 노인 분들은 근로무능력자들인데 수급자가 됐어요. 자녀 부양비 때문에 급여가 1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할머니가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이 와가지고 저희가 최대로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것 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드렸는데도 그것을 받고도 잘 적응해서 사시는 거예요. 실제로 뭐 얘기 들어보면 품팔이 그걸로 간간히 벌어서 용돈 쓰시고...

Q: 그건 어느 나라나 그런 거 같아요.

A: 근데 그런 거까지 잡기에는 노인 분들이니까. 그리고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소득은...

Q: 근데 사실 만약에 생계로만 먹고 하는 걸로만 하면은 뭐 물품 지원받고 이런 걸로 하면 먹는 거는 해결되지 않나요? 지금 모든 게 현금이 적다라고 급여가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다른 소비부분 주거라던지 뭐 의료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라던지 뜻하지 않는 이런 비용들이 첨가되서... 누구 경조사비라던지 이런 소비 패턴 때문인 것이지 기본적으로 본인 생계 유지를 위한 돈으로는 가능치 않나요? 농촌지역은

A: 정말 먹고만 살면은 30만원으로도 사실 수 있으시고 그걸로 저축도 하시죠.

Q: 아까 말씀하신 추정소득을 부과하거나 부양의무자 문제나 혹은 가구상의 변동 때문에 급여액을 조정해야하는 경우가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럴 경우에 조정은 어떻게 쉽게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수급자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급자들의 관계. 수급자들은 솔직히 반발할 거 아닙니까? 작년에 지난 달하고 이번 달에 좀 줄어들었다고 뭐라 그럴 건데. 그런 경우들은?

A: 줄어들면 뭐라 하고 더 받은 달에는 뭐라고 안 하죠. 줄어들 경우에는 재조사를 해서 자식 분들의 소득이 이렇게 늘어서 부양비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준다. 아니 자식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데 부양비 그런 게 다 뭐냐. 처음에 책정하셨을 때 할머니 자식 분들이 어려워서 이렇게 됐지만 연간재조사를 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줄 수도 있고 자녀 분들이 형편이 더 나아지면 아니 어려워지면 다시 내어줄 수도 있다. 그거에

Q: 되도록 주는 경우에 대해서 선생님이 처리하시는 건수가 아주 펙트대로는 아니죠? 그 위험부담을 가지고 줄이고 설득을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삭감을 하게 되고 @@불명확에 들어가시게 되는 경우 위에서 @@불명확 그런 거 같아요. 여기는 주민들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 집은 수급가구 아닌데 가난하지 않는데 이런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A: 아우. 많아요. 일명 제보전화가. 전화가 와가지고 인제 본인도 안 밝히시고 그 집 다시 한 번 재조사해라.

Q: 그럴 경우 어떻게 하세요?

A: 재조사해요.

Q: 합니까?

A: 예. 왜냐면 저는 오자마자 다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전화를 받으면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볼 만은 해요. 실제로 해서 아니면 상관없는 거고 뭔가 있으면 전 담당자가 확인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인제 그때 당시는 어려웠지만 지금 형편..

Q: 그렇게 해서 부정수급 발견하신 적 있으세요?

A: 부정수급이라기 보다는 중지가 들어가죠. 중지를... 많이는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그렇게 해서 재조사를...

Q: 선생님이 보시기에 부정수급이야. 근데 부정수급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가구의 소득이나 이런 게 변경됐다 이렇게 하시나요? 부정수급인데 급여증지를 내리는 사유가 부정수급이었기 때문에 중지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때 당시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 서류상 2가지 경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A: 아무래도 중지 쪽이죠

Q: 부정수급이라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깐

A: 그동안 받았던 생계비의 징수 문제가 생기니까 재조사 결과 이렇게

Q: 그럼 지금까지 한번도 부정수급 딱지 내려보신 적은 없으세요?

A: 그거는 아직 실질적으로 없어요.

Q: 동해에서도?

A: 동해에서도. 군이나 시에서도 고 부분에 대해서 징수라던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알죠. 군에 입대를 한 거를 신고를 안해서 가구원수가 세 명이었는데 세 명분을 두 명이서 어르신들이 받은거야 그런 경우에는 중지 처리를 하죠

Q: 그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 자활후견기관에 보내시기도 하고 선생님 직접 관리하시고도 할 텐데 그 분들 조건 불이행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A: 아우. 그럼요.

Q: 그런 경우에 뭘 가지고 판단하세요? 조건이행여부를?

A: 참석을 안 하죠. 일도 안 하시고 습관적으로 말도 없이 안 나오시고 그럴 경우에 조건불이행이죠.

Q: 지침대로 하세요? 지침 별 가치를 따져서 하십니까?

A: 일단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경우 좀 보고요. 추이를 좀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는 지침대로 들어가게 되죠.

Q: 그렇게 하는 이유가 주위의 다른 분들 때문인가요?

A: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어요. 왜 저 사람한테만 계속 봐 주냐. 같이 일하면 저 사람 계속 안 나오고 이러는데 본인들도 일하기 싫은거야. 계속 일을 하면서도 도움을 받아야되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봐 주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래 끝 수는 없죠.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나중에 나름 적응기간을 뒤야 되잖아요. 겨울에 사흘이상 없다가 쉬다가 갑자기 시작을 하면은 적응 할려면 조금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분들도 아니고

Q: 자활후견기관 같은 데서 조건불이행 통보해주나요.

A: 통보는 못 받아봤어요. 제가 의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는.

Q: 아 여기서는 자활후견기관에 한번도 의뢰해본적이 없어요?

A: 동해에 있을 때는 의뢰를 했다가 조건불이행 통보해서 온 경우도 있고

Q: 여기서는 조건부 수급자 생기면 선생님이 다 껴안고 가시는 거예요?

A: 왜냐면요. 자활후견기간이 거리가 아주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시외버스가 안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의뢰를 해도 그 분들이 출퇴근이라던가 이런거 하기가 어렵죠.

Q: 여기서 주로 무슨 일 시키세요?

A: 그래서 저 여기서 껴안고 가는 수 밖에 없어요. 근로유지형으로 제조작업 아니면 청사관리 그런거 하고 있어요. 3명이 있습니다.

Q: 선생님이 껴안고 있는 근로능력자가 근로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입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서 돈 벌면 그게 더 많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건 그만큼 일 할 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거니까?

A: 그런 분도 있고요. 정말 근로능력이 떨어져서 근로유지형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저 아주머니는 자활후견기관에 보내도 잘 할 거 같은데 근데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여기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재량 점수를 좀 적게 줘서 점수를 떨어뜨려서...

Q: 거리상의 문제가 큰 거네요?

A: 예. 여기는 그래요.

Q: 민간자원 중에 어느 게 가장 활용이 용이하세요?

A: 이장협의회

Q: 정부랑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는

A: 부녀회 활동적으로 나오시고요. 적극적으로 적십자 분들도 청년회분들

Q: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이장협의회나 부녀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장협의회나 부녀회가 추천하는 수급자 저 사람 어려우니까 해야 될 거 같다고 이야기 하면 조금 더 호의적이 되나요?

A: 일단은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제스처를 취하지만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게 한두 건 받아주다 보며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Q: 혹시 부녀회나 이장협의회나 이런 데서 수급자는 아니지만 정말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대상들을 많이 알고 소개를 하고 발굴하는 데 많이 주나요 정보를? 그렇게까지는 아니시라고는...

A: 많이는 있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 오히려 제가 나가서 뭐 하는 것 보다 그 분들이 찾아오는 것 보다

Q: 수급자는 아닌데 다른 자원 연계하는 케이스도 훨씬 더 많죠? 아니면 수급자를 받기 위해 선생님에게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훨씬 더 많을까요? 예를 들어 수급자 정도의 그 정도의 대상은 안 되는데 정말 일반적으로 그래도 어렵고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다른 분들에게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 일단 다 선생님에게 연계가 되거나 정보가 오거나 해서...

A: 일단 한 번은 오죠. 먼저 온 다음에 안 된다고 하면 마을에서 해결하던가

Q: 질문 거의 다 끝났는데요. 3가지 정도만 남았는데. 수급권이라고 기초생활보장에서 그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급권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A: 저는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 권리라는 게 참 저희 사기를 떨어뜨려요. 그니까 본인들의 권리라고 찾아와서 그 권리 아래 횡포를 부리죠. 왜 안주나 우리는 권리잔데.

Q: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합니까? 농촌 할아버지, 할머니가

A: 아휴. 그렇지는 않죠. 그냥 제 얘기로. 모르시죠. 아무래도 저희 최일선에 맞받아치고 싸우고 그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요 예전에 영세민 제도가 참 좋았다. 그 때는 웬지 수급의 개념이니까

Q: 그 좋았다는게?

A: 일하는 쪽에서 입장이죠.

Q: 내가 주면서 뭔가 주는거 같고

A: 이거는 너무 나눠주니까. 도시지역에서는 일하다보면 사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격한 대접 같은 거는 저희는 많이 받았거든요. 와가지고 팻말 던지는 분들

Q: 영국 같은 데서는 전담공무원하고 사이가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죠

A: 가정방문할 때도 위험해요. 남자 알콜릭 쪽으로는 갈 때에는 정말 누구라도 갈

이 가고 싶고

Q: 그럴 경우에 같이 경우는 없습니까?

A: 그냥 거의 공익요원하고 가죠

Q: 일하고 가난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전에는 가난을 구조적인 거다. 개인이 나태한 거 보다 사회가 잘못 되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 일하시다보면 그런 생각이 바뀌실 거 같은데?

A: 구조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는거 같아요. 보편은 수급신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자활의지가 참 약해요. 그니까 본인이 나보다 충분히 되는 분들 있죠 일할 수 있을 텐데 참 그런 분들이 많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Q: 그럼 혹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제도가 오히려 의존성을 높힌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이 기초보장제도가 예전에 비해서 옛날에는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안 줬단 말이에요. 안 줬는데 요즘에는 준다 말이에요.

A: 글썄요. 일하시면서 받는 자활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하시면서 돈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일하시기 싫어하지만 참여하시다보며는 어느 정도 활기를 찾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받으면서 또 시켜달라고 또 오시고 그런 거 보면 저도 시키면서 기분이 좋죠 적응해 가는 거 보면 자활후견기관에 의뢰를 했는데도 아예 반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자활특례도 되고 이러면은그런 부분에 있었 잘 된 케이스에서 보면 잘 된 부분이지만

Q: 그렇게 해서 제도권에 있다가 그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어지고 그랬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고 싶어하진 않아지지 않나요? 그 상황에서

A: 그게 또 고 부분에서 본인이 @@불명확

Q: 계속 그 안에 있고자 하는

있고 싶어하기는 하지요 한 번 수급자가 되면

Q: 이 동네에서 본인이 수급받다가 자활해서 말그대로 성공해서 나간 경우를 본 적 있으세요?

A: 이 동네에서는 없어요. 찾기가 어렵죠. 자활 쪽에서 계속 본인이 하다가 취업을 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아쉬워하죠. 아쉬워하고 다른 취업이나 해서 나가죠. 일반인으로 나가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죠. 병원 의료 교육 다 안 되니까 그 때부터 정말 홀로 서는 거니깐 말 그대로 수급 받는 거 자체가 의존을 하게 만들수 밖에 없다라는거예요 그 자체가

Q: 특히 젊을수록?

Q: 젊은 수급자들 일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A: 일하는거... 자활근로?

Q: 자활이든 뭐든 자기 몸 놀려서 일하는거

A: 네 본 적 있죠

Q: 느낌이? 가령 선생님이 동료들 일하는 거 보면 열심히 일 한다안하다 판단이 되잖아요

A: 개인차가 있는 거 같아요. 일일고용이라던가 그런거 포함에서 말하는 거죠?

Q: 네

A: 그런 분들은 아등바등 일을 할려고 하지만 일거리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하기싫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거 같기도 하고 계속 그만 두고 했다가 또 옮기고

Q: 그렇게 근로 소득 있으면서 받는 분들 일하는 태도랑 자활로 선생님 관리하시면서 그분들 일하는 태도랑 많이 다릅니까?

A: 그래도 자기가 벌어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분들이 더 열심히죠. 자활은 아무래도 저희가 끌어당기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깐 첨에는 의지도 없고

Q: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혹시 수급자가 일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는 한 거 같기 한데요. 근로능력이 있을 수 있고 이 사람 태도만 조금 바꿔주거나 이런 경험이 있게 되면은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일하는거에 대해서 조건부로 되가지고 하는 사람의 태도가 거의 사실은 별로 이렇게 억지로 참여한다는 느낌을 갖게끔 되나요?

A: 예

Q: 그게 끝까지 가나요? 어느 시점에 일하는 거에 대한 태도가 그분들이 많이 바뀌나요?

A: 하다 보면 변하세요.

Q: 많이들 그러세요? 젊은 사람들?

A: 네 첨에는 힘들어 하고 이러다가도

Q: 대충 다 끝났는데요 혹시 끝으로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거 중요한 건데 면접에서 이거 빠뜨린거 있다. 다음 면접을 위해서 그런 거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Q: 저희가 또 양적 조사도 한번 하러 나와요. 그때는 인제 선생님들은 아니고 일반 대상자들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상자한테 이런것들은 물어봐서 알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라던지 제도 관련해서 선생님이 초기에는 지침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이런 지침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는 좀 고쳐야 겠다 아까 말씀하신 거 몇가지 말씀해주셨는데 정말 절실하게 이 부분은 없애버려라 그런거 관련해서 혹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A: 그런 경우 있죠. 자동차 관련해서요. 실제로 자동차를 끌고 다니시는데 그 유지

비를 소득에 산정하는 항목이 이번에 생기기 했지만 고계 참 애매해요. 어떻게 잡아야 할 지. 수급자가 차 끌고 다니는 거 보면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고 부분에 있어서 좀

Q: 그 말씀이 자동차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 분들에 자동차 유지비를 판정하는 방식... 없나요 지금?

A: 구체적으로는 안나와있고 매길 수 있다는 항목만 있지...

Q: 그 항목을 매겨서 추정소득에다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까?

A: 추정소득이든 어느 소득이든 항목이 생기던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Q: 이런 경우 있나요? 농촌지역에는 돈을 은행에다 입금하면 잡히니깐 땅에다 묻는다 그냥 갖고 계신다

A: 네 그런 경우 있어요 분명히 금융재산에 삼천만원 통보가 돼서 사회조사를 갔는데 다음날 짹 빠진거예요 할머니 돈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그 돈 동생이 어려워가지고 대줬다 그래서 없다 근데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애매하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자식들이 사적이전소득 매기잖아요 그게 정기적이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할머니들이 생활이 어려운데 그런 소득을 매겨놓으면 삭제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걸 무슨 근거로 삭제를 해요 통장에서 확인한 걸 첨부해놓을 수도 없고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생계비가 안나가거나 이런 경우 참 그렇고 부양비도 참 그렇고요 부양비를 매겨놓으면 실제로 부양을 안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생계비를 많이 못 받으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